

軍史

第 9 號 (檀紀 4317年) 1984. 1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發行

卷 頭 言

6·25 韓國戰爭의 砲聲이 멎은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戰爭은 끝난 것이 아니며, 언제 再發될지도 모르는 情勢下에 불안한 休戰狀態가 持續되고 있는 한편, 好戰的인 北傀는 제 2의 6·25를 劃策하기 위해 이 休戰期間을 이용하여 軍備增強에 血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戰爭의 再發을 막기 위하여 一面 國防, 一面 建設이라는 荆棘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의 繁榮된 祖國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現在는 不斷히 過去 속으로 묻혀져 가게 마련이므로, 지난 날의 淒絶했던 戰爭의 慘相과 그것을 克服해 내었던 우리의 意志들이 이제는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憂慮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過去는 回顧할 것이 아니라 鑑戒할 것이요, 過去 속에서 자랑거리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警醒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6·25 戰爭을 통하여 우리가 鑑戒하고 警醒할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戰爭防止의 노력을 더욱 가다듬어 보기 위해, 社會各界人士의 玉稿를 모아 이번 號를 꾸며 보았습니다. 많은 愛讀을 바랍니다.

1984年 12月 1日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委員長 尹 錫 宇

目次

軍史

第9號

卷頭言

3

6.25戰爭의 回顧

申相楚 · 7

韓國戰爭 그 未決의 顛末

尹宗鉉 · 24

6.25戰爭의 反省

徐基源 · 50

韓國戰爭의 回顧와 教訓

朴芝庵 · 59

쓰라린 戰爭의 핏자국

全榮圭 · 82

6.25事變의 回顧와 教訓

趙豐衍 · 127

나의 6.25體驗

李炳注 · 149

내가 겪은 6.25

金亨錫 · 171

프랑스軍의 韓國戰爭 參戰背景

洪淳鎬 · 195

韓國戰爭의 初期戰役 分析

金成熙 · 226

韓國戰爭 3年史 主要日誌

企劃資料室 · 237

표지 요도 : 북괴의 불법 남침과 국군의
반격사항

6·25 戰爭의 回顧

—무엇이 問題였던가?—

申 相 楚
(國會議員)

目 次

- ① 힘의 眞空 상태
- ② 애치슨 聲明 등—美國의 모호한 태도
- ③ 虛點 투성이의 방위 태세
- ④ '人海' 對 '火海', 맥아더案 是非
- ⑤ 統一 없는 休戰

① 힘의 眞空 상태

北韓의 허위 선전에 놀아나, 6·25 전쟁이 南韓측의 北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日本의 지식인이 지금 현재도 적지 않다. 몇 해 전 筆者는 몇몇 日本 지식인들과 會晤한 자리에서 한국전쟁의 開戰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激論을 벌였던 일이 있다. 이 자리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을 전폭적으로 믿고 6·25 전쟁이 한국의 北侵에서 시작되었다고 強辯하는 教授와 評論家가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筆者는 共產측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立證하기 위해서 가장 有力한 論據로서, 開戰 당시 南韓에는 戰車가 한 臺도 없었지만 北韓은 戰車(T-34) 242臺를 保有하고 있었고, 또 南韓에는 練習機 22臺를 除外하고 航空機가 全無했지만 北韓은 實戰에 사용할 수 있는 航空機를 211臺 保有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들었다. 이와 같은 數字의 제시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北侵에서부터 6·25 전쟁

이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論者들도 만약에 이 숫자가 진실이라고 하면 自己네들의 見解를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했다.

6·25 전쟁의 開戰 당시 南北韓의 軍事力에는 너무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北韓은 重武裝된 地上兵力 19萬을 가지고 있었지만, 南韓은 輕武裝의 地上兵力 10萬을 가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았다. 南韓은 10萬의 陸軍兵力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장비는 國內治安 유지를 主目的으로 한 것이어서 重砲는 물론 對戰車兵器도 없었다. 개전 당시의 장비는 小銃, 機關銃 외에 火砲 91門, 裝甲車 27臺 정도였고, 兵力配置는 38도선을 따라 4개 사단, 서울에 首都師團, 後方地域에 3개 사단이 전개되어 있었으며, 海·空軍은 보잘 나위 없이 빈약했다. 이에 대해 北韓은 步兵 10개 師團 외에 戰車師團까지 包含해서 都合 19萬의 地上兵力을 가지고 있었다. 北韓에 진주한 소련은 1946년부터 北韓軍의 육성에 착수하여 적극적인 武器援助를 주는 한편, 꾸준히 軍事訓練, 技術訓練을 실시해 왔었는데, 48년에는 이를 더욱 촉진하여 이 해 말에 소련군이 철수할 무렵에는, 北韓은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고도의 훈련을 거친 近代軍隊를 保有하기에 이르렀다.

1948年 8월에 南韓에는 ‘大韓民國’이, 北韓에는 9월에 ‘朝鮮人民共和國’이 각각 수립되었다. 이미 그전에 北韓에 重武裝을 갖춘 近代軍隊를 만들어 놓은 소련은, 48年 9月 同年 안으로 北韓에서 占領軍을 완전히 철수시킬 것이니 美國도 南韓에서 완전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國은 처음 撤軍을 망서리는 듯하더니, 결국 철군안에 동의, 49年 6月 철수를 단행했다. 당시 美國은 ‘平時復舊’를 목표로 세계 도처에서 그 兵力을 철수시키고 있었는데 주한 미군이라 해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美軍 철수는 신생 한국에 심각한 不安을 안겨 주었다. 美軍 철수로 말미암아 南韓에는 이른바 ‘힘의 眞空 상태’가 조성되었다. 南北韓간에 軍事力의 不均衡이 決定的으로 조성된 狀況下에서 전쟁의 발생은 단순한 時間 문제였던 것이다. 유엔 總會는 1949年 10月 다시 파견된 韓國委員會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대규모의 軍事的 충돌의 우려가 있는 事態를 감시’하도록 指令했다. 이보다 앞서 유엔 韓國委員會은 38선을 싸고도는 국경 분쟁,

南北韓간의 빈번한 軍事 충돌이 內戰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힘의 眞空 상태’ 조성이나 軍事力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不均衡은 침략을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美國이 南韓에서 철군한 것은 ㉠ 소련이 건설해 놓은 北韓의 軍事力을 너무 과소평가했거나 ㉡ 大美國의 威信이 共產측으로 하여금 侵略 야욕을 自制케 할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를 過信했거나 ㉢ 有事時 한국을 포기할 생각을 지니고 있었거나의 三者 중 하나 혹은 둘에 기인한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美國이 때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軍事介入을 해 온 것을 보면 美國이 한국을 포기할 생각으로 철군을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철군에 의한 힘의 眞空 상태 조성은 주로 假想敵國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자기의 힘을 過信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48년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民主政府를 뒤집어 엎고, 괴뢰 정부를 만들어 이 나라를 衛星國으로 만들었을 때, 西方 진영은 노발대발하였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있었고 또 東歐가 소련의 勢力圈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次大戰 直後에 美軍이 진주했고, 또 美國의 절대적인 지원을 얻어 탄생한 대한민국—누구의 눈으로 보아도 美國의 勢力圈 안에 자리잡고 있는 地域에 대해서 共產 진영이 오만불손하게도 計劃된 侵略을 자행해 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 근거 없는 막연한 安心感, 힘의 뒷받침이 없는 感想的인 自信感이 美國으로 하여금 전혀 원하지 않았던 전쟁을 한국에서 치르게 한 것이다.

北韓에 진주한 소련이 먼저 近代의인 軍隊부터 양성하고 다음에 衛星政府를 정식으로 발족시키고 나서 그 군대를 철수시킨 過程과, 南韓에 진주한 美國이 간신히 民主國家를 탄생시켜 놓았지만 그 나라가 自身을 保衛한 軍事力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自國의 軍隊를 철수시킨 過程은, 각각 소련과 美國의 世界戰略의 基本的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좋은 對比를 이루는 것이요 또 이 對比는 多分히 敎訓的인 것이다.

② 애치슨 言明 등 — 美國의 모호한 태도

1950年 1月 12日 워싱턴에서 열린 全國新聞記者協會에서 美國務長官 애치슨은 ‘아시아의 危機’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하여 美國政府의 公式的 立場을 밝혔다.

“美國의 極東防衛線은 알류션 群島에서 日本本州를 거쳐, 琉球로 이어진다. 우리는 琉球列島에 중요한 방위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 이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琉球는 太平洋防衛線의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防衛線은 琉球에서 다시 필리핀으로 연결된다. 우리와 필리핀과의 防衛關係는 우리와의 協約에 明記되어 있다. 이러한 協約은 그간 충실히 지켜져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필리핀에 대한 공격은 美國에 의해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上記 방위선 외곽에 位置한 나라의 安保에 대해서는 軍事的 공격에 대해서 아무도 보장할 사람은 없다. 만약 공격이 있을 때 그런 공격이 어디서 올는지 아무도 말하기 주저하나 第一次 조치는 공격을 받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抵抗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연후에 유엔 憲章에 의한 全文明世界의 약속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연설에서 애치슨 長官은 한국과 臺灣이 美國의 極東防衛圈 밖에 있음을 分明히 했다. 그러나 이 言明은 종래의 美國政策의 變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 년 동안 지속해 오던 美國의 對韓 소극 정책을 明白히 밝혀 준 데 지나지 않는다.

애치슨言明이 있는 지 한 주일 뒤인 1月 19日 美國의 下院本會議는 行政府가 제출한 1950年度 對韓軍援法案을 贊成 192 反對 191로 부결시켰다. 美國行政府는 前年度에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 대신 한국군의 장비를 보급해서 失意에 가득 찬 한국의 政府와 국민의 士氣를 양양시키고자 企圖했던 것이다. 그러나 美國議會의 이와 같이 놀라운 處事는 議會에 의한 한국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極東에서의 美國의 後退를 示唆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길게 했다. 行政府의 ‘간곡한 호소’로 이 法案은 반복되고 2月 14日 法律로서 확정되기는 했으나 美國議會의 갈팡질팡한 자세가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야욕을 부돋아주는 것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에치슨의 韓國除外言明이며, 美國議會의 불투명한 태도는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한국에서 전개할 挑戰에 대해서 美國政府가 전혀 無關心할 리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적극적인 對案(예컨대 參戰)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心證을 가지게 했음이 分明하다. 南韓에서의 힘의 眞空 상태 조성으로 武力南侵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큰데, 美國마저 한국을 포기하겠다는 태도를 表示하게 되었으니 어찌 南侵姿勢를 가다듬지 않게 되겠는가.

上記 에치슨言明은 한국이 不意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경우 유엔의 집단 안전 보장의 규약이나 정신에 의한 侵略制裁 조치를 排除하는 것이 아니다. 事實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美國은 유엔의 集團安保原則에 따른 制裁 조치 강구에 앞장섰고, 또 軍事介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엔 會員國의 하나로서 행동했다.

그러나, 美國의 參戰이 너무 신속하고 그 수속 절차가 질서정연했기 때문에 에치슨言明 등에 나타난 한국 포기 선언은 共產측의 南侵을 결정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 아니었던가 하는 解釋을 자아내게 했었다. 즉 美國 정부는 戰後平和의 무드에 젖어 ‘平時로의 復舊’만을 원하는 輿論에 제동을 걸고 對蘇冷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종의 準戰時體制의 수립이 時急하다고 판정하고 있었다. 이 필요를 充足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美國이 大義名分을 가지고 軍事介入을 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야만 했다. 한국전쟁은 美國이 몇 해 전부터 함정을 파놓고 공산주의자들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美國 정부의 불과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극비의 高等戰略의 所産이었다고 하는 해석은 한국전쟁이 南侵에서가 아니라, 北侵에서 비롯되었다는 見解에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美國이 전쟁의 함

정을 파놓고 共產측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이 그 계획을 알아차리고 대규모 南侵 도발을 삼갔더라면 6·25전쟁은 세계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포기를 示唆한 美國의 진정한 意圖가 어디 있었던간에 한국전쟁의 開戰 책임은 全兵力을 投入하여 38선 전역에 걸쳐 南侵을 자행한 北韓 공산 집단 및 그 배후 조종자인 소련에게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에의 參戰을 계기로 美國은 2次大戰後 수년간 지속했던 태평성세의 단꿈에서 깨어나고,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軍事的으로 半恒久的인 準戰時體制로 이행했으며 東西간 冷戰에 적극 對應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美國의 極秘高等戰略의 所產으로 보기에 美國의 희생이 너무도 컸다. 전쟁 3年간에 美國은 막대한 戰費支出은 고사하고 14萬 兵力의 희생자를 뒀다. 이것은 한국전쟁이 美國의 高等戰略의 所產으로 볼 수 없다는 有力한 論據가 된다.

美國의 한국전쟁에서 입은 희생이 너무 컸다는 것은 上記 高等戰略이 빚나갔기 때문이지 高等戰略의 存在自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論者도 있다. 一理가 있는 해석이다. 그러나 軍事介入의 前途와 거기 따르는 희생을 透視하지 못한 戰略은 高等戰略이 될 수 없다. 그래도 한국전쟁은 美國의 高等戰略의 所產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 이 高等戰略은 너무도 安逸한 구상에서 나온 것이고 過誤 투성이라 아니 할 수 없다.

美國이 6·25전쟁이 일어나자마자 軍事介入을 하고 한국을 도와준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고마운 일이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武力을 발동할 생각이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힘의 眞空 상태를 조성하지 않았어야 했으며 애치슨言明 따위는 감히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야 한다. 虛張誇勢가 침략의 威脅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友邦에 대한 大國의 확고부동한 자세나 安保 약속은 침략을 망서리게 한다.

6·25전쟁이 터지자 李承晩 대통령은 맥아더 元帥에게 전화로 “빨리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분노를 터뜨렸다고 한다. 美國의 軍援이 얼마나 不滿스러웠던가 하는 民族的인 감정

을 솔직히 表現한 것이다.

③ 虛點 투성이의 방위 태세

1949年 10月 李承晚 大統領은 北進統一을 提唱하면서 “北韓을 점령하고 統一을 실현할 수 있다.” “南北의 分裂은 전쟁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北進統一論은 힘의 뒷받침을 받지 못했고 具體的인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李大統領이 당시 南北韓의 軍事力의 不均衡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疑問이다. 그러나, 그는 韓國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能力이 全無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外部勢力에 의한 공격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美國의 군사 원조에 全的으로 의뢰할 수 있을 것인가?……미국은 共產黨을 타협적 기초 위에서 대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南韓에서 公산당은 크게 힘을 얻고 강력해진 것이다. ……한국은 自衛에 필요한 적당한 무기를 公급받아야 한다.”고 力說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李大統領은 ‘北進統一’을 내세웠던가? 아마도 그는 당시 美軍 철수로 말미암아 감소되기 시작한 국민의 對政府信賴感을 다시 公고히 하고 신생 公화국의 進路에 不安을 주는 事件이 자주 일어나는 데 대해 政府가 毅然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士氣를 높일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

50年 5月 10日 記者會見 석상에서 國防長官 申性模는, “북한군이 대거 38선에 이동하고 있어 침공의 위협이 긴박하다. ……北韓軍이 우리에게 대하여 공격해 올 때는 以北에 대한 행동은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다.”고 했다. 6월에 들어 한국군 前方 사단들은 人民軍의 동태에 대하여 많은 경고를 육군 본부에 보내 왔다. 그러나 육군 총참모장 蔡秉德 소장이나 申國防長官은 이런 보고에 대해 아무런 對備策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들은 人民軍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北韓側의 平和攻勢와 함께 心理的 威脅을 주기 위한 作戰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全面南侵의 시기가 박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한국의 國防當局이 平和에 도취하여 防衛上 虛點을 많이 조성했는데 그 중요한 것만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 6月 10日 육군 총참모장은 師團長級과 국방부 및 陸本의 局長級을 포함, 군수처부의 大人事 이동을 단행했다. 이로 말미암아 軍의 고급 지휘관은 부대 실정도 파악하지 못한 채 敵과 싸우게 되었다.

㉡ 육군 총참모장은 6月 23日 非常警戒를 해제했다. 5月 1日의 메이데이, 그리고 5月 30日의 總選 때문에 軍은 두 차례에 걸쳐 경계 태세를 취했고 또 6月 11日 北韓의 偽裝平和攻勢에 대비하여 非常 경계령을 선포했는데 사태가 평온무사하다는 이유로 비상 경계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이 비상 경계 해제로 말미암아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장병들의 休暇와 外出이 일제히 실시되었다. 당시 육군은 농촌 출신 병사들에게 15日간의 休暇를 주었으며, 開戰 당일 兵營에는 3分の 1의 兵力만이 남아 있었다.

㉢ 6月 24日 육군 본부 장교 클럽의 開館宴會가 열려 在京 및 인근 일선 지구 지휘관과 국방부 및 陸本의 수뇌가 대부분 이에 참석, 밤 늦도록 잔장을 풀고 있었다.

㉣ 6·25 직전 全軍의 車輛保有臺數는 1,566臺였었는데 그 중 500臺는 정비를 위해 後送되어 있었고, 나머지 1,000臺도 一齊檢査를 받기 위해 후송 도중에 있었다. 그러므로 開戰 당일 육군의 기동력은 제로에 가까웠다.

6·25 당시 南北韓間 軍事力의 엄청난 不均衡은 緒戰에 있어서 한국측의 敗北를 불가피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군이 만전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면, 侵攻을 받은 당일로 全軍이 지리멸렬해지고 3日 만에 수도 서울을 敵의 수중에 넘겨 주는 수치스러운 기록은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被占이 더칠만 더 늦어졌다 해도 共產軍에게 被拉되었거나 학살당한 아까운 人材들의 數는 漢江을 넘어 남쪽 安全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었을 것이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國防長官 申性模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國軍은 신속히 北進하여, 점심은 平壤에서 먹고 저녁밥은 新義州에서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다. 그의 호언장담은 아무런 實力의 뒷받침이 없는 것이요 李承晩의 北進統一論처럼 虛張誇勢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南北間 軍事力の 對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전혀 모르는 순진하고 善良한 국민은 李承晩, 申性模 등의 호언장담을 믿고 정말로 한국이 北韓의 南侵을 쉽게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政府 최고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허장과세는 敵을 속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선량한 自己 나라 백성을 속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보다 더 큰 비극은 백성을 속이고 있던 政府 최고 지도자들 자신이, 自己네들이 퍼뜨리고 있는 허위 선전에 도취되어, 스스로 속고 있었다는 事實이다. 대통령도 국방장관도, 육군 총참모장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申 국방장관은 일요일이면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어 6·25 당일날도 측근이 그 비위를 맞추느라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開戰事實을 사전 발생 후 5시간 만에 알았다는 ‘에피소우드’나, 李大統領이 서울이 敵의 수중에 들어가기 전 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부부 동반으로 몰래 서울을 빠져나가 安全한 곳에 피신하고서도 후일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은 당시 정부 수뇌의 無能과 無責任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두고두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④ ‘人海’ 對 ‘火海’, 맥아더案 是非

한국전쟁은 軍事적으로 보아 戰勢가 몇 번 바뀌어졌다. 첫 단계에 있어서 首都 서울을 점령한 共產軍은 유엔軍의 參戰에도 불구하고 계속 攻勢를 취해 유엔軍을 洛東江 교두보 안으로 몰아넣었다. 둘째 번 단계는 9월 仁川上陸作戰으로 共產軍의 補給路를 끊어 버린 유엔軍이 38도선을 넘고 北進을 계속 승승장구, 한·만 국경선까지 도달한 것이다. 세째 번 단계는 10월에 한·만 국경선을 넘어 戰線展開를 한 中共軍이 一大 반격을 개시, 51年 1月 4日에는 서울을 점령하고 계속 南進하는 기세를 보였다. 네째 번

단계는 51年 4月 유엔軍의 반격으로 서울을 탈환 38선을 돌파했지만 --進一退를 거듭하면서 大體로 오늘의 休戰線 부근에서 戰線이 교착 상태에 들어선 채 2年間이나 전쟁을 계속하였다.

전쟁의 제 2 단계에서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北韓으로 진격할 때 世界的으로 論難이 벌어졌다. 共產軍이 38선을 넘어 南韓으로 진격하는 것이 侵略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北韓으로 진격하는 것도 侵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은 주로 共產 진영에서 나온 것인데 中立國 진영의 일부도 이에 同調했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殘敵을 소탕하지 않고서는 侵略의 뿌리를 뽑 수 없을 뿐더러(유엔군의 경찰 행동은 침략자를 추격하여 이를 응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되었다.) 유엔 監視下의 총선거로 한국 통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진격은 不可避 또 당연한 것으로 간주했다.

50年 10月 20日 敵都 平壤을 점령한 유엔軍은 潰滅 상태에 놓인 北韓 공산군을 추격, 한·만 국경선을 향해 快速의 진격을 계속했다. 10月 15日 美國의 大統領은 웨이크島를 방문, 유엔軍司令官 맥아더와 요담했다. 이 때 맥아더는 대단히 낙관적인 見解를 表明하여 美軍은 머지 않아 作戰目的을 달성할 것이요 兵士들은 이 해 크리스마스를 故國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무렵 中共軍은 한·만 국경선을 넘어 戰線展開를 하고 있었다. 中共軍은 ‘中國人民義勇軍’이라고 불리었지만 그 실은 彭德懷 장군이 인솔한 第3野戰軍, 第4野戰軍의 精銳였다. 11月 24日, ‘크리스마스는 本國에서’라는 口號를 내걸고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가 시작되자 中共軍大部隊는 中部山岳 지대로부터 대반격을 가해 中央突破에 성공했다. 28日, 맥아더元帥는 “바야흐로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성명해야만 했다.

中共軍을 主力으로 하는 공산군은 形勢를 역전시켜 11月 末까지 淸川江以北의 땅을 탈환하고 年末까지 평양, 함흥, 元山 등 요지를 되찾고 유엔군을 38선 근처까지 내몰았다. 1951年 元년부터 共產軍은 38선을 돌파하여 유엔군을 추격하고 1月 4日, 서울은 또다시 共產軍의 手中에 들어갔다.

그리고 유엔군은 水原, 驪州, 原州線까지 후퇴하여 戰線을 정리했다. 50年 末 雙方의 兵力은 공산군 48萬6千에 대해 유엔군은 36萬5千이었다고 한다.

中共은 한국전쟁 개시 이래 줄곧 이를 ‘美帝國主義의 侵略’이라 단정하고 北韓에 대해서 정신적인 원조를 해 왔다. 그러던 차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北上을 하게 되자 ‘抗米援朝·保家衛國’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大 大의인 국민 운동을 벌여 氣勢를 올리기 시작했다. 10月 1日 中共 정권 발족 一周年 성명에서 周恩來 外相은, “隣邦에 대한 침략은 묵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10月 下旬에는 中共軍의 일부가 한국 전선에 처음 출동하여 유엔군과 交戰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元帥가 中共이 軍事介入할 公算은 거의 없다고 내다본 것은 重大한 誤判이었다.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할 적에, 또 淸川江을 넘어 한·만 국경선에 육박해 들어갈 적에, 中共의 軍事介入을 示唆하는 정보나 징후는 상당히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경시 내지 무시한 독선적인 偏見이 무서운 과오를 범하게 한 것이다.

51年初부터 美第8軍의 지휘를 하게 된 릿지웨이 中將은 공산군의 교묘한 ‘人海戰術’에 대해서 우수한 火力에 의한 반격 작전을 개시했다. 이때문에 유엔군은 新型의 科學武器——예컨대 네이팜彈, 바추카砲, 유도로켓砲, 無反動砲를 대량으로 사용하여 대규모 파괴, 대량 살상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투는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우수한 空軍力의 지원하에 유엔軍의 ‘火海戰術’은 성공하고 공산군은 막대한 被害를 내면서 점차로 후퇴하는 수밖에 없었다. 51年 4月의 공산군의 第1次 공세도, 5月의 第2次 공세도 모두 失敗에 돌아가고 開戰 1주년을 맞이할 무렵에는 戰線이 膠着 상태에 빠지게 된 근본적 소이이다.

共産軍의 ‘浸透人海戰術’에 대해서 유엔군의 ‘火海戰術’이 奏效할 수 있었던 까닭은 共産軍이 得意의 게릴라戰을 竝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正面으로 機動戰을 벌이는 條件下에서는 ‘火海’는 ‘人海’를 제압하고 남는다. 1968~72년의 월남전쟁에서 美軍이 도저히 승산이 없어 스스로 발뺌을 한 것은, 美軍이 火海戰術을 취한 데 대해 共産軍이 게릴라戰과 機動戰

을 竝行하여 人命의 대규모 被害를 교묘하게 피했기 때문이다.

51年 맥아더 將軍이 解任되어 世界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해임 이유는 軍司令官이 本國政府의 명령이나 指示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軍司令官이 大統領에 복종하지 않을 때 파면된다는 것은 ‘文民優位の 원칙’을 존중하는 民主國家의 立場에서 當然之事라 하겠다. 그러나, 맥아더의 解任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전쟁 지도의 理念에 관한 對立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트루만 大統領 以下 미국 정부 수뇌들은 전쟁을 절대로 韓半島 밖으로 擴大해서는 안 된다는 立場을 고수했다. 中共軍의 介入으로 ‘計算하지 않은 危險’에 직면하게 된 유엔군은 韓國統一이라는 政治的 目標을 걸어치우고 다시 當初의 한정된 目的——侵略者의 격퇴로 되돌아갔었다. 유엔측 參戰國家들——그 중에서도 특히 英國은 전쟁을 한반도 밖으로 擴大하는 데 절대 반대했다. 때문에 설령 미국 정부가 擴戰을 원했다 하더라도 同盟國의 同調는 바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맥아더는 어디까지나 有能한 一箇 軍人에 지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승리가 至上目標였다. 그리고 군사적 승리를 위해서는 滿洲의 基地를 폭격하고 中國本土에 第2戰線을 展開하는 등 中共과 全面戰爭을 하게 되어도 이는 不得已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冷戰下 局地的인 制限戰爭의 本質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맥아더案대로 유엔軍이 滿洲 기지를 폭격하면, 共產軍은 유엔軍의 ‘聖域’인 日本 기지를 폭격할 것이다. 나아가 臺灣에 있는 國民黨軍隊를 中國本土에 上陸시켜 第2戰線을 展開시키면 이를 돕기 위해서 결국 美國은 中共과 全面戰爭을 벌이게 될 것이다. ‘地大人多’를 자랑하는 中共과의 全面戰爭은 持久戰의 양상을 띠게 되므로, 美國은 勝利의 展望도 서지 않은 채 長期消耗를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美國의 國力이 상대적으로 低下하는 데 소련은 계속 國力을 배양·축적해 두었다가 美國이 疲困에 지쳐 유럽에서 발목을 하고자 할 때 西歐로 진격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西歐 진영은 決定的으로 不利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맥아더의 擴戰案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論理的인 근거이다. 그러나 美國이 정말로 맥아더案을 받아들여 擴戰案이 실천에 옮길 때 과연 위에 지적한 것과 같은 사태가 조성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自信있게 답변할 수 없다.

당시 소련이나 中共의 國力이나 軍事力으로 보아 설령 유엔軍이 滿洲 기지를 폭격했다 하더라도 共產軍은 日本을 폭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國民黨 軍隊를 中國本土에 上陸시켜 第2戰線을 展開했다 하더라도 美國이 直接的인 軍事介入을 하지 않는 限 美國은 장기 소모전에 말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또 설령 中國戰線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 해도 소련은 中共을 측면적으로 돕기 위해 유럽에 새로운 第2戰線을 펴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맥아더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있었다. 擴戰 논쟁이 한창 벌어졌을 때, 소련은 유고슬로비아와 같은 中立國을 통해 만약에 美·中이 全面戰爭을 치르게 되면 소련은 유럽을 공격할 것이라는 루머를 반공공연히 퍼뜨렸다. 心理戰의 측면에서 西歐 진영에 不安 공포를 조성해 美國의 擴戰 기도를 사전에 분쇄하려던 것이다. 한국전쟁을 韓半島 안에 局限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奇異하게도 共產측과 西歐측의 意見이 일치되어 있었다.

⑤ 統一 없는 休戰

한국전쟁 개전 1주년이 되기 직전에 소련의 유엔 代表 말리크는 停戰協商을 하도록 제안했다. 交戰雙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7月 10일부터 休戰會談이 열렸다. 이 會談은 처음에는 開城에서, 다음에는 板門店에서 열렸는데 難航을 거듭했다. 雙方의 軍事力이 대체로 백중환 가운데 벌이는 교섭이므로 진전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戰鬪 정지를 위한 軍事 경계선의 설정, 休戰을 실행하고 감시하기 위한 方法의 강구, 그리고 捕虜의 교환 등이 主議題였다. 會談은 몇 차례나 중단하면서 2年間이나 지속되었다. 會談 장소 주변의 中立地帶를 除外한 全

戰線에서는 연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급속히 증강되고 있는 공산군에 대해서 유엔 空軍의 폭격기가 공산측의 전선 기지와 그 兵站 보급선을 파괴하기 위해 부단히 출격했고, 교착 상태에 빠진 戰線에서는 보다 유리한 陣地를 차지하기 위해 처참한 攻防戰이 벌어졌다. 그러면서도 雙方 공히 決戰을 시도할 생각은 없었다. 어느 쪽도 38선 부근에서 戰線을 안정시키고 정전을 이루어 볼 생각이었던 것이다.

休戰協商은 52年 봄부터 捕虜問題로 완전히 정체했다. 捕虜의 自由意思를 존중하여 自意 송환을 주장하는 유엔軍측과 무조건 송환을 주장하는 共產軍측이 對立하여 平行線을 이루고 있었다. 포로 문제로 會談이 난항을 거듭했던 것은 거의 冷戰의 本質이 드러나 있어 어느 쪽도 體面과 威信 때문에 양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52年 가을, ‘한국에서의 명예로운 休戰을 실현하기 위해 現地를 방문한다.’고 공약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壓勝하여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다. 이 해 12月初 아이젠하워는 訪韓하여 전선을 시찰하고 돌아갔다. ‘한국에서의 명예로운 休戰’의 성립이 아이젠하워 정권의 으뜸가는 公約 사항이 되었으므로 미국 정부는 協商妥結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取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53年 3月 5日에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죽고, 말렌코프 정권이 성립되었는데 이 事件은 국제 정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休戰 협상을 벌이는 共產측의 태도에도 완화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6月 28日 李大統領은 독단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2萬7千名の 反共 捕虜를 돌연히 석방, 世界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때문에 한동안 會談의 전도에는 먹구름이 던져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交涉을 타결지으려는 大勢의 분위기는 깨어지지 않았다. 中共側의 양보로 交涉은 다시 軌道에 올랐고, 53年 7月 27日에는 休戰協定の 調印을 보게 되었다.

53年 4月 韓國國會는 休戰에 反對하고 北進統一을 결의했다. ‘統一 없는 休戰 決死反對’라는 것이 당시의 支配的인 여론이었는데 그 선봉은 바로 李大統領이었다. 李大統領은 美國 정부의 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休戰

協定에 서명 날인하는 것을 끝까지 反對했다. 통일의 기약이 없고 또 南侵威脅에 대한 安全 보장이 없는 休戰에 反對하는 老大統領의 氣概는 壯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韓半島秩序와 南北韓關係의 기본이 되는 國際的인 文書에 한국이 明白한 同意를 表示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 한국으로서 는 지장이 많았다.

3年間 지속되었던 전쟁이 끝나고 休戰이 성립되었지만 分斷의 비극은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 領土面으로 보면 南北韓分割線이 38선보다 약간 北쪽으로 옮겨진 데 지나지 않는다(西部 일부에서는 오히려 南下되었다.). 그러나 희생은 너무도 컸다. 美側 發表에 따르면 유엔군 死傷者는 34萬人(미국 14萬, 한국 20萬), 共產軍 사상자는 142萬人(中共 90萬, 北韓 52萬)이라고 한다. 民間被害도 막대한 것이어서 한국측 資料에 의하면 南韓만으로도 人命被害 92萬人, 戰災者 400萬人이라고 한다. 여기다 北韓이 입은 것까지 합하면 그 數字는 놀라게 늘어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物的 손실은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甚大했다. 洛東江橋頭堡 안을 除外하고서는 全國土가 廢墟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戰線이 南北으로 몇 번 이동하고 무서운 폭격과 포격이 간단없이 되풀이되는 데 따라 全韓國의 쓸 만한 시설이나 건물은 모두 파괴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代價를 치르고서 休戰을 이루었지만 南北韓은 새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또다시 엄중한 軍事的인 對峙를 하게 되었다. 休戰協定은 한국의 再統一 문제를 다가올 政治協商에 맡겼다. 이 協商은 54년 제네바에서 參戰諸國과 소련이 參加한 가운데 열렸지만 異見對立 때문에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영원히 流產되고 말았다. 그 후 再統一 문제는 유엔에서 혹은, 그 밖에서 東西간의 혹은 南北韓간의 중요한 冷戰의 이슈로 등장되었지만 아무런 해결도 못 보았다. 休戰協定이 성립된 지 만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戰爭終結措置를 取하지 못했을 뿐더러 언제 그런 措置를 取할 수 있을는지 그 전망조차 서지 않는 데 한국 문제의 심각한 비극성이 있는 것이다.

同族간의 內亂으로 일어난 한국전쟁은 美國이 참전하고 中共이 참전함으로써 국제적인 階級戰爭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冷戰下의 制限戰爭이었다. 美國이나 유엔의 目的은 共產軍의 침략을 격퇴하는 것이었다. 도중에 한국 통일을 追求하게 되어 目的이 약간 重要하기는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明白해졌다. 中共 역시 自國의 安全 보장의 立場에서 유엔군을 38선 以南으로 몰아 내는 제한된 目的으로 참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共產軍의 배후 조종자인 소련은 第3次大戰으로 번질 危險性을 알고 있었음인지 직접 개입을 삼갔다. 이런 政治目的의 제한 때문에 戰場 역시 제한되었다. 外部로부터의 參戰國은 모두 이 전쟁이 韓半島 밖으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戰場을 韓半島로 국한하도록 自制했다. 또 전쟁의 수단도 제한되어 있었다. 결국 原子武器는 사용되지 않았다. 1950年 11月 트루만 大統領은 “中共軍에 대해서 原爆의 使用을 고려하고 있다.”고 성명했다. 그러나 英國 애틀리 首相의 만류와 기타의 반대에 부딪쳐 實行되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50年 11월부터 알맹이로 보아서 분명히 ‘美·中 전쟁’이었다. 그러나 美國이 유엔의 깃발을 내걸고, 中共이 ‘人民義勇軍’의 이름으로 서로를 싸웠기 때문에 形式上으로는 美·中 전쟁이 아닌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한국전쟁이 無勝負로 끝났으므로 한국 문제는 一步도 해결되지 않았다. 3年간에 걸친 처참한 同族相殘으로 山河를 피로 물들인 쓰라린 경험을 했던 南北雙方의 국민은 各各 兩大 진영의 前衛로서의 立場을 강화하게 되었다. 南과 北의 지도자는 물론 국민들도 상대를 不俱戴天의 원수로 삼게 되었다. 休戰 동결로 말미암아 東西對立의 축도인 韓半島는 그 對立의 심각성을 더 한층 선명히 露出하게 되었다.

한국 문제의 진실한 해결은 南北統一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東西冷戰이 해소되기 전에는 바랄 수 없는 것이다. 70年代 이후 南北 韓 공히 ‘平和統一’을 부르짖고 있지만 兩者 사이에는 크나큰 견해 차이가 있어 合意는 거의 無望하다. 平和統一은 우선 전쟁을 막고 平和共存關係

의 기반을 구축해야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軍事力의 밸런스 때문에 간신히 休戰協定이 유지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立場에서는 전쟁을 막는 데 최선의 努力을 다하면서 ‘힘의 優位’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 共產主義者들은 無神論者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神이 하나 있다. ‘힘의 優位’가 바로 그것이다. ‘힘의 優位’ 앞에서만 공산당은 머리를 숙이고 萬不得已 平和를 수락하게 되는 것이다.

韓國戰爭, 그 未決의 顛末 —再分斷休戰의 內력과 敎訓—

尹 宗 鉉

(韓國日報 論說顧問)

目 次

- | |
|---|
| ① 10月 進擊의 悲願 |
| ② 休戰 흥정과 統一 외면
—남들이 또 주무른 나라의 脈絡— |
| ③ 分割策 1백 년의 裏面
—列強勢의 능간과 그 角逐이 禍根— |
| ④ 休戰의 終章, 어찌 될까? |
| ⑤ 잊지 못할 노트
—國力이 王道·國運의 高비 左右— |
| ⑥ 歷史의 勝利者가 되는 길
—精神의 奮발·自強의 노력·統一의 意志— |

① 10月 進擊의 悲願

6·25전쟁은 시종 激戰의 洗禮였다. 밀리고 밀리던 南北 3천 리, 戰場의 한 치 한 마당이 血戰의 現場이었고, 戰鬪의 한 순간 한 고비가 모두 수난과 희비의 연속이었다. 이 땅이 三國으로 갈라졌던 옛 한때 先代國家들 간에 여러 차례 싸움이 벌어지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6·25처럼 아픈 전쟁, 쓰린 전쟁, 그리고 戰勢의 한 마디 한 마디마다 歷史의 시련과 숨결을 처참하게 느끼게 하는 전쟁은 그리 없었다.

전투는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되었다. 잠자던 韓國國民은 복귀의 새벽 기

습을 받았다. 소낙비처럼 떨어지는 침략자들의 총·포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마구 찢고 때리고 부수었다. 고지 하나를 놓고 주인이 20번 30번씩 바뀌었고 그 때마다 현장은 屍山血海였다. 주먹밥보다도 포탄을 재촉하던 장병들, 한 맺힌 동포들의 피난 행렬, 회상하면 모두가 白兵戰 속에 싸우던 전후방의 無我 상태였다. 지금의 휴전선으로 싸움이 정지되기까지 한 마디로 우리 강토는 아비규환의 대수라장이었다.

올해로써 벌써 3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經過 속에, 우리 大韓民國의 더 나아가 近世前史나 먼 後世史, 그리고 후손들의 前程을 헤아릴 적에, 잊을 수 없는 絶頂의 局面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물론 初戰의 고배는 슬픈 일이었다. 철수 작전이 洛東江 전선에서 釜山 교두보까지 계속 되었을 때는, '이제는 최후'가 다가서는 것 같은 불안감, 절망감마저 감들었다.

그러던 戰局을 仁川 상륙과 9·15 反擊으로 뒤엎고 9·28 서울收復으로 회생시키면서 그 해(1950년) 가을, 질풍 같은 北進 작전으로 전환시켰다. 10월 1일 상오 11시 45분 국군 보병 제3사단이 대거 38선을 돌파하였으며 그 중 2개 중대는 불과 10여 분 후인 정오 무렵 線北 1km 지점까지 진출했었다.

그 越擊北進은 당시 地上 작전을 총지휘하던 美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의 9월 30일자 38선 越境 명령에 따른 것이다. 뒤이어 국군과 유엔軍의 다른 부대들 또한 전 전선에서 38선을 속속 뛰어넘었으며 그 돌파를 묵인하는 세칭 '8개국(濠·브라질·쿠바·베넬란드·노르웨이·파키스탄·필리핀·英) 共同決議案'이 유엔 총회 政治委에서 가결되어 北進 작전은 마침내 국제적인 승인을 얻게 된 셈이었다.

經緯야 어찌 되었던 38선 突破는 韓國으로서는 역사적인 한 重大事였다. 세계 제2차 대전 終結 처분 과정에서 관계 강대국들이 任意로 갈라 놓은 우리 祖國의 兩分線을 끊고 分斷 상태를 청산할 수 있는 한 제기를 창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8·15 光復 이래 남북한 은 겨레의 숙원 이던 남북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侵略者에 대한 膺懲과 勝戰으로 보장될

北地收復의 전망을 원히 바라볼 수 있는 快舉이기도 했었다.

실제 北進 작전의 그 후 템포는 놀라울 만큼 電擊的이었다. 진격 개시 10일 만에 元山은 완전히 수복되고, 赤都 平壤은 19일 만에 점령했었다. 이런 승리를 반영하면서 유엔軍 總司令官 맥아더 元帥는 9월 30일에 이어 10월 9일 두 번째로 ‘即時降服’의 최후 권고를 金日成에게 통첩하기에 이르렀다. 金이 이를 거부하고 最後抗戰을 명하자(10월 11일) 국군과 유엔軍의 진격은 더욱 급속해져 西部 전선에서 先陣을 달리던 보병 제 6사단 7연대의 1개 대대는 10월 26일 하오 5시 50분, 드디어 韓·滿國境都市 楚山까지 진입하여 탐색대를 鴨綠江邊으로 파견했었다.

사흘 후인 29일 命令에 의해 그 국경 도시를 철수하고 말았지만, 東部 전선에서 계속 速進한 首都 사단이 그 달 28일 국경에서 불과 13km 앞에 있는 三水를 탈환한 일이나 美 7사단에 배속되었던 국군 제17연대와 기타 團隊들이 11월 21일 역시 韓·滿國境都市 惠山鎮을 탈환하여 근 20일간 장악했던 사실 등과 함께, 楚山 진출은 잊혀질 수 없는 승리의 고등이요, 감동 어린 版圖의 전개였다.

그것은 곧 戰勝이 목전에 와 닿았음을 예감하게 하는 것이었다. 전쟁의 종결과 더불어 나라의 民主的 統一具現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반 쪼가리 獨立이었던 8·15光復의 未浴을 씻고 抗日 투쟁 때부터 외쳐 오던 統一民族獨立國家를 완성시킬 희망을 크게 부풀리게도 하였다. 또 分斷에서 온 그간의 민족적 고통과 불행, 그리고 安保危害 현상을 궁극적으로 후련하게 해소시키는 轉機를 맞게도 될 법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瑞光의 계기는 애석하게 이내 무산되고 말았다. 中共軍의 介入으로 새로운 단계의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0월 25일 국군 제 1사단 15연대에서 처음으로 잡은 中共 포로 진술에 의하면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北韓 영내로 침입한 것은 10월 19일이었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5일 앞선 14일부터 잠입하기 시작하였고, 11월 27일에는 이미 30개 사단의 대병력으로 國聯軍에 대한 대 역공세를 취해 왔었다.

당시의 정보로는 그에 앞서 소련의 極東政策 책임자이던 물로토프가 7월

31일 北京을 방문, 毛澤東과 일련의 戰略會談을 가졌는데 만일 韓國戰에 참전한 유엔軍이 38선 이북으로 北上했을 경우엔 中共軍 15만 병력을 투입하여 北韓을 지원하기로 합의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自身은 전쟁에 휘말리는 일 없이 他國의 共產軍으로 하여금 赤化代理戰爭을 수행하게 하려던 소련의 술책을 北韓 집단에 이어 中共이 두 번째로 받아들인 셈이다.

中共은 그 뒤 派兵 개시 20일 만인 50년 11월 4일, 드디어 北京 방송으로 韓國戰介入을 공식으로 천명하였다. ‘朝鮮의 전략적 位置가 매우 중요하고 그 存亡은 中國의 安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北朝鮮人民을 지원 하는 것은 中國人民의 道義의인 책임일 뿐 아니라, 自身의 利害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中國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을 원조한다.’는 것이 參戰 사유였다.

이로써 戰爭은 바야흐로 韓半島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세계 전쟁, 強大國間 대리 전쟁의 성격을 더욱 완전하게 띠게 되었다. 또한 戰局은 다시 격동하여 유엔軍의 北韓 철수와 1·4 서울 再後退의 쓰린 고비를 겪은 연후, 유엔軍의 再反擊과 서울 재탈환(51. 3. 14.), 그리고 2년간의 高地爭奪戰과 停戰 회담 과정을 거쳐 休戰協定調印으로 熱戰의 불씨를 일단 끄기에 이르렀다.

② 休戰 흥정과 統一 의면

—남들이 또 주무른 나라의 脈絡—

戰爭의 休戰 처리는 결코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 한때는 鴨綠江邊까지 진출하고, 停戰會談 당시만 해도 韓·滿 국경으로 다시 밀어 붙일 수 있었던 승전세를 포기한 채 남들이 강요하는 休戰을 우리는 눈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침략 원흉들의 謝過 한 마디 받지 못한 채였다. 戰爭 미치광이들의 이빨조차 빠지 못하고 만 것이었다. 그 결과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서들로부터 ‘北侵者’라는 역선전 공세를 받기 일쑤이다. 거듭 강화된 北

傀儡軍力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 판국을 맞게 되었다. ‘38선’이 ‘休戰線’으로 바뀐 채 벽은 점점 높아지고만 있다. 再分斷된 지 30여 년 간 모든 분야에서 심화된 남북간의 異質性과 對立感情은 좀체로 풀릴 것 같지가 않다.

그러고 보던 分斷의 清算이나 統一의 전망은 상당히 멀어져 버린 것 같은 실망감·절망감마저 때때로 금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이 아닐까. 6·25에서 되새겨지는 안타까움과 교훈은 물론 허다하다. 自力이 모자라 당했던 敵의 기습과 우리의 모진 受難, 被害, 힘이 약하면 자유나 평화나 동족간의 사랑마저 어이없이 무너지던 實相, 침략자 앞에 용전감 투했던 장병·10대의 학생·순진한 농촌 청장년·월남 동포,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총결과 희생 등——이들의 不屈의 투쟁이 없었던들 여러 友邦의 支援은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같은 우리의 제도나 가치·생활 양식 또한 필경은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뉘니뉘니해도 가장 뼈저린 대목은 休戰에서 온 통일 기회의 逸失과 분단 비극의 존속이 아닐 수 없다. 한때 洛東江 전선까지 침입했던 平壤 집단도 赤化統一 기회의 상실을 아쉬워했을지 모르겠으나 휴전 당시 이미 壞滅 상태에 빠져 停戰을 구걸했던 그들이고 보면 그것은 분명히 적 반하장격이다.

우리의 입장은 그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부분적이긴 했으나 국군이 韓·滿 국경 끝판도까지 진격했었다. 北地의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환영하고 그 승리를 축복했었다. 북한 집단이 전쟁 범죄자·침략자인데 反해 우리는 그를 응징하는 자유 해방의 役者이었다. 韓民族의 3분의 2 이상이 남한에 거주하고, 南에 위치한 서울은 北韓 주민들 누구나가 이 땅의 엄연한 首都로 여겼다. 나라의 正統性이 ‘大韓民國’으로 귀착되고 유엔에서도 그 정부가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로 승인되기까지 한 처지이다. 올리브의 旗幟 아래 유엔軍이 참전한 명분 역시 바로 이 合法性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한때도 우리 意思와는 달리 統一 아닌 再分斷으로 전쟁은 他律 처리되

고 말했다. ‘統一 아니면 죽음’을 달라던 韓國國民의 외침은 끝내 외면당한 채였다. 列強들의 角逐과 흥정의 산물이며 결과이다. 또 그 角逐의 원인과 흥정의 원리는 대개의 경우 그들 자국의 실익과 상호 관계의 조정을 위하는 데 있었다.

休戰會談의 제기만 해도 그렇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認知 사항으로는 그것은 1951년 6월 23일 유엔 駐在 蘇聯 대표이던 야콥 말리크가 처음 제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말리크는 분명히 그 날 낮 유엔의 正規放送을 통하여 완곡하게나마 그 제안을 공식화하기는 하였다. 그는 韓國전쟁 문제 해결의 첫 단계로서 ‘交戰 쌍방 사이에 협상이 시작되어 상호 38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규정하는 休戰과 停戰 문제가 토의되어야 하며, 만일 韓國에서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종결되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이러한措置는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共產측의 사정과 소련의 底意는 뻔한 것이었다. 당시 유엔軍은 계속 공세중이었고 동부 전선에서는 38선 월선 이북까지 진과를 확대시켰다. 그 바람에 이미 전멸 상태가 된 북괴군에 이어, 51년 봄 이른바 저들의 ‘春季大攻勢’때 致命打를 입은 中共軍의 피해 역시 막심하였다. 政權 수립 불과 1년 만에 소련에 대한 은혜 보답과 북괴에 대한 의리 관계로 對內建設을 뒤로 미룬 채 韓國戰에 뛰어든 中共으로서는 이런 損失의 장기화는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소련이 큰 관심을 가지던 聯合國측의 샌프란시스코 對日講和會議가 머지 않아 열릴 계획였고, 休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대 태도는 매우 강경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한국에서 평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소련은 對日講和會議에서 아무런 外交的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앞섰다. 아울러 한국이 반대하는 휴전 문제를 그때 내 놓으면 유엔 참전국과 한국 사이에 不和가 조성되어 ‘陣中混亂’을 빚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도 없지 않았다.

사실 休戰을 성립시키기 위한 노력은 ‘말리크提議’에 앞서 6·25 발발 직후부터 유엔 舞臺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거듭되었다. 특히 中共軍의 개입

으로 전쟁이 擴大, 長期化할 징조가 엿보이자, 印度·필리핀 등 亞·阿 13 개국이 제출한 停戰建議 공동 결의안과 그 결과 유엔 政治委에서 탄생된 3人 停戰委의 8개항 휴전안 및 5개항 原則案이 50년 12월~51년 1월 사이에 먼저 나왔다. 다음달 2월에는 다시 호전되는 유엔軍의 戰勢를 내다보면서, 그에 따른 38선의 再突破 문제를 견제하고 전쟁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관점에서 英國을 위시한 歐美 일부 국가가 ‘38선 實質的停戰案’을 주장했었다. 바로 그 직후 맥아더 유엔軍 總司令官의 現地停戰協商提議과 존스톤 英國 上院議員이 유엔에 제출한 ‘6·25 1주년 休戰宣言 결의안’ 등이 거론되었던 것이다.

맥아더의 現地停戰協商案을 제외한 다른 停戰案들의 내용은 대부분이 ㉠ 停戰, ㉡ 38선에 의한 非武裝地帶 설치, ㉢ 休戰 기간 동안 監視 문제를 요구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말리크의 발언은 단지 그에 대한 사실상의 受諾을 外交官의 입을 통해 공개화하고, 종래 공산축이 停戰 조건으로 고집한 4개항(外軍 철수·韓國人 자신에 의한 韓國 문제 해결·美軍의 臺灣 방위 철수·中共의 유엔 加入)을 일단 再論하지 않은 점이 새로울 뿐이었다.

말리크 提議 후 나흘만인 6월 27일 한국의 李承晩 대통령(당시)은 休戰 反對聲明을 발표했고, 6월 30일에 休戰 수락 조건으로 中共軍의 완전 철수, 북괴군의 무장 해제 등 저들이 수락할 수 없는 5개 조항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강경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반해 美國을 비롯한 歐美 각국과 참전국들의 동향은 일부에서 慎重論을 펴면서도 會談同調 쪽으로 기울었다. 그 중에서도 英國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會談을 바랐고, 中共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好意的인 반응을 표시하였다. 英國의 입장으로서도 香港 문제 등 때문에 中共과의 交戰擴大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고, 美國으로서도 韓國戰의 擴戰에 따른 中共과의 全面戰 돌입이나 유럽 友邦들과의 紐帶 손상 같은 결과를 빚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美國은 外交 채널을 통하여 말리크 提議에 담긴 소련의 眞意를 급속히 타진한 후, 6월 30일 릿지웨이 제2대 유엔軍 총사령관으로 하여금 敵軍 사령관에게 休戰會談 개최를 방송으로 제기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어떠한 休戰案도 우리 강토의 分割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은 없었다. 한결같이 非武裝 지대를 폭넓게 설정하려는 구상이 깔린 것들 뿐인데 비해 통일에 대한 실제나 구체적인 약조를 비친 것은 하나도 없었다.

③ 分割劃策 1백 년의 裏面

— 列強勢의 공간과 그 角逐이 禍根 —

2년 여에 걸친 休戰 회담은 결국 당초 그 提案者들이 구상했던 대로 오늘날의 軍事分界線(휴전선)과 非武裝 지대를 낳고 말았다. 列強들의 力學作用에 의한 우리 국토의 再分斷이자 남들이 다시 한 번 주무른 나라의 슬픈 운세였다.

흔히 地政的 조건에서 오는 반사 현상이라고들은 하지만 우리 나라 近世 한 세기의 運命은 몇 차례에 걸친 列強들의 작용으로 시련과 고난과 영욕이 거듭되어 왔다. 分斷의 劃策과 眞相만 해도 그 뿌리는 벌써 근 1백 년 전부터 이어져 있다.

첫번째는 19세기 말 日本에 의한 分割 획책이었다. 탐욕스런 弱肉強食의 列強外交가 소용돌이치던 그 무렵 韓半島를 발판으로 다져 滿洲 벌판까지 뻗겠다는 日本의 北進 정책과, 만주 철도를 경영하며 不凍港을 찾던 러시아의 南進 정책은 불꽃 튀는 勢力圈 다툼을 이 땅에서 벌이고 있었다.

그 때 마침 帝政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戴冠式(1896. 5. 26.)에 참석차 페테르부르크를 찾아온 日本外相 야마가타(山縣有朋)는 러·일 간에 韓半島分割을 議定하려는 흉악한 外交密命을 먹고 갔었다.

그는 6개 조항으로 된 이른바 모스크바 議定書案을 러시아 外相 로마노프 앞에 펼쳐 놓았는데 그 핵심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首都 서울이 있는 南半은 日本이 차지하고 北半은 러시아에 귀속시킨다는 것이었다(로마노프著, '滿洲에서의 러시아').

日本外交文書(제29권, 475호)는 이 제의를 담은 議定書案 제5조의 뒷단

부분에 관해 기록하기를, ‘日·러 양국은(조선 국내에서의) 양국 군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그軍隊의 파견지를 分割하되, 한쪽은 그 군대를 朝鮮의 南部 지역에 파견하고 다른 한쪽은 북부 지역에 파견하는 동시에 충돌을 예방을 위해 양국 군대간에 상당한 거리를 설치한다.’고 밝혀 놓고 있다.

韓半島에서 威勢가 등등했던 러시아는 이 勢力圈分割 조항만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議定書에 조인(1896. 6. 9.)하였다. 그것은 조선은 장차 러시아 세력에 의해 주름잡혀질 版圖가 될 것으로 보고 韓半島 남단 항구를 러시아 極東艦隊의 근거지로 삼으려던 크레믈린 궁의 속셈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까닭에서였다.

러시아의 그런 기도는 日本의 淸日전쟁 승리와 러일전쟁에서의 자기 패배로 일단 수포로 되고 말았다. 1894년 淸日전쟁이 터지자 新興日本은 예상을 뒤엎고 불과 8개월 만에 승리를 거두었다. 그 결과 세칭 馬關(지금의 시모노세키)講和條約으로 전쟁을 종결 처리하면서, 日本은 韓半島에서 淸國勢를 몰아 내고 滿洲의 遼東半島와 臺灣 및 澎湖列島를 빼앗아 버렸다.

바야흐로 日本이 世界列強으로 고개를 쳐드는 판이었으나 후일 러시아·獨逸·프랑스 3국의 강력한 干涉으로 遼東半島는 淸에 되돌려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日本의 콧대가 다시 조금 꺾인 반면, 러시아의 기세는 그와 反比例로 더 오르게 되었다. 앞에 말한 日本 외상 야마가타의 한반도 南北分割案은 바로 이처럼 대두하는 러시아勢의 영향력이 韓半島에 투영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었으나, 提案이 거부됨과 동시에 러시아는 오히려 淸朝와, 日本이 還付한 遼東 반도의 租借 조약까지 맺기에 이르렀다(1898. 3. 15.).

이러한 事勢에 힘입은 러시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韓·滿 국경 지대에 대한 그의 영향권 강화를 겨냥한 새 協定の 체결을 일본에 제의하고, 日本은 이에 맞서 러시아가 韓半島內에서 日本의 優先權을 인정하면 日本은 滿洲 및 그 연안이 日本의 利害圈外임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韓·滿交換主義’를 주장하고 나섰다.

러시아에 의해 이 事案이 재차 거절되자 日本은 1902년 1월 30일 런던

에서 전문 6조의 英·日同盟條約을 체결하였다. 골자는 日本은 大韓(1897. 11. 12. 國號 변경)에서, 英國은 淸 나라에서 각기 특수한 利益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침해될 경우 이를 옹호하는 필요 조치를 취하는 데 同意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日本이 당시 세계에 군림하던 大英帝國의 후원을 얻어 韓半島에서 優位權을 확보하려던 또 하나의 술책이었다. 그에 따라 이를 좌시할 수 없던 러시아는, 1903년 4월 갑자기 韓·滿 국경의 요충인 龍岩浦를 점령하는 한편 1개 여단 병력을 沿境으로 배치하여 韓半島를 두고 러일간에 戰雲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터지기에 앞서 日本은 재차 韓·滿交換 협상안을 러시아에 들이댔다(1903. 8. 12.). 러시아측이 그 對案으로서 ‘북위 39도 이북 지역의 韓國領土를 中立 지대로 간주하고 러·일 어느 쪽의 군대도 못 들어가게 하자.’는 새 주장을 들고 나오자, 日本은 이를 되받아 韓·滿 국경 지대 10km 中立化와 양국 이익권의 韓·滿交換案을 또 내세워 對立을 해소 못한 채 드디어 開戰(1904. 2. 10.)으로 번지고 말았다.

이 땅의 分割과 支配權 쟁탈을 위하여 日本의 책략이 얼마나 교활하고 집요하게 작용한 것이었는지, 돌이켜 생각하면 몸서리가 칠 지경이다. 소련은 나눠먹기보다 獨食을 더 탐내어 大盜 노릇을 하려 했고, 英國은 한 때 日本의 韓半島 진출을 등뒤에서 밀어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다.

러일전쟁의 결말은 巨人 러시아의 패전으로 끝났다. 美國의 주선으로 열린 포츠머드 講和會談은 日本의 정치적·군사적 승리를 확고히 반영하면서 사할린 南部 지역의 日本分與, 러시아가 누린 滿洲地域內 權益의 일본 이양으로 매듭지어졌다. 그런데 그 講和會談에 앞서 마련된 美·日秘密協約, 즉 태프트-가쓰라(桂) 협약은 엉뚱하게도 美國이 韓國에 대한 日本의 支配權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R. J. 바틀렛著, ‘美國外交의 記錄’).

支配權 승인의 사유는 당시 韓國이 러일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근원은 韓國을 勢力圈化하려는 열강들의 탐욕이 빚은 것일

뿐, 러일전쟁이 우리 탓으로 터진 것은 아니었다. 이 사실을 美國이라 하여 몰랐을 리는 없었다. 따라서 그런 이유는 오직 美·日 사이에 표방된 口實에 불과하고 실은 美國의 필리핀 支配權을 日本이 승인하는 조건과 교환된 흥정의 결과였다.

포츠머드 講和條約은 1905년 9월 5일 조인되었다. 또 그렇게 맺은 美·日密約으로 말미암아 韓半島에 대한 日本의 '優越權'은 확립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두 달 뒤 日本은 '乙巳保護條約(속칭 5조약)'을 강요했고, 다시 이를 징검다리 삼아 '合併條約(1910. 8. 29.)'이라는 가면을 씌워 이 땅을 송두리째 植民地로 삼켜 버렸다.

韓半島強占으로 본격화한 日本의 침략 정책과 帝國主義的 性向이 어떠한지는 여기 새삼 쳐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1930년대부터는 과거 그를 감싸주었던 美·英은 물론, 中國·소련 등 모든 列強들과 犬猿 관계를 이루었고, 세칭 滿洲事變(1932년)·中日戰爭(1937년)·太平洋戰爭을 야기시키면서 自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주변 列強들의 이런 갈등과 전쟁, 그리고 그 勝敗의 가름 속에서 우리가 日帝의 쇠사슬로부터 解放된 것은 모를 사람이 없다. 물론 우리 民族의 피나는 獨立 운동과 先烈들의 불굴의 抗日愛國 투쟁이 그런 歷史廻轉의 한 원동력으로 깔려 있기는 했으나, 日本에 대한 列強들의 軍事的 제재와 응징이 없었던들 8·15해방이 그리 손쉽게 왔으리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데 그 光復 역시 '分斷 상대'로 맺은 데 불과하였다. 이 땅을 둘러싼 列強들의 세력 角逐戰이 이미 그 배경에 깔렸던 것이다. 물론 38선을 그은 것은 敗殘日本軍의 武裝解除를 위하여 美陸軍省이 한 일이었고, 美·蘇間에 합의된 조치 사항이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帝政 러시아 이래 蘇聯이 추구하여 온 東進政策과 南進政策의 의지와 흐름, 그리고 分割發想의 元兇인 日本의 罪惡이 뿌리 깊게 잠겨져 있는 것이었다. 또 필리핀 占領 이후 하나의 強大國이 아시아를 支配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는 美國의 지속적인 對亞政策原理가 작

용된 결과라고도 생각된다.

사실 美國은 이 原理에 따라 근 1백 년 간 항상 아시아의 單一強權國과 마찰을 빚고 이를 구축하였다. 帝政 러시아나 日本, 그리고 中共赤化 이후 一時的으로 '強大한 한 붉은 勢力'과 대결하는 입장이었다. 太平洋戰爭을 終結 처분하는 과정에서 美國이 유리한 전세하에서도 蘇聯의 對日 참전을 계속 유도하고, 러일전쟁 이전의 모든 권익을 소련에 회복시키도록 한 처사 또한 戰後의 自由中國勢와 互角을 이루는 複數 強大勢力 체제를 아시아에 구축시키려는 원리와 목적에서였을지 모른다.

카이로·포츠담 宣言에서 韓國의 獨立을 美·英·中國이 보장했는데도 그 구현 과정에서 소련의 그림자가 背景을 이루면서 '38線 分斷'이라는 비극적인 結末을 남겨 했던 이 史實, 그 속에 냉엄한 列強間의 利害 타산과 흥정 거래가 우리에게 대한 處遇보다 훨씬 앞선다는 事理를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게 한다.

④ 休戰의 終章, 어찌 될까?

6·25도 그 例外는 아니었다. 전쟁 발발로부터 휴전 조인까지 시종 열강들의 각축과 이해 타산, 상호 흥정이 얼키고 설킨 과정이었다. 이제 6·25를 단순한 思想 전쟁이나 同族相爭 같은 限定的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近世 1百年史의 긴 脈絡 위에서 이를 포착·吟味하는 다른 일면의 省察은 그래서 필요하다 하겠다.

韓半島에서의 美·蘇의 냉전 관계가 없었으면 그런 전쟁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 이래의 東進·南進 정책의 내력이 없었던들 소련이 金日成을 使曠하거나 金이 전쟁 책동을 하려 들지도 못했을 것이다. 韓半島를 자기 勢力圈으로 만들려는 古今의 角逐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民族史는 좀더 순탄했을 것이고, 38선의 分斷이라는 區劃만 美·英·中·蘇 등이 피해주었던들 6·25의 비극은 아마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休戰만 해도 그렇다. 그것은 한 마디로 主人의 意思와는 동떨어진 흥정

이요, 强者들끼리 자기네의 得失을 가리면서 멋대로 채택한 전쟁의 中間決算 방식이었다. 調印場엔 韓國을 代表하는 단 한 사람의 공식 인물도 없었다. 協定條項 역시 우리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별로 눈에 띄이지 않았다. 南侵元兇들을 간접적으로나마 問責하는 한 마디의 始末書 구절도 없었거니와 調印 그 순간까지 戰爭을 일으킨 데 대해 각성하는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대방과, 유엔측은 署名을 하고 만 것이다.

이제 오늘의 언덕 위에서 休戰의 功過를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 어쨌든 ‘半平和 상태’나마 30여 년의 긴 記錄을 세우면서 熱戰의 고비를 방지해 온 事實은 外面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그 協定을 이행하기 위하여 유엔 軍司는 계속 남아 있고 그 發效 이래 이 땅에 구축되어 온 集團安保와 韓·美相互防衛 체계의 지속은 敵의 再侵을 억제하는 지렛대 역할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休戰은 그 反面作用을 한 여러 가지 사항이 또한 없지 않았다. 締結 당시 殲滅 상태에 몰렸던 北傀는 그 뒷전에서 되살아 오늘 再侵의 야망을 다시 품겨대는 판이다. 그들의 軍事力 팽창은 물론 온갖 挑發 사건이 계속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敵의 이런 違反 사실 자체도 문제거리지만 오히려 協定 내용을 악용하면서 새로운 戰爭 장치를 갖추는 다른 측면 또한 결코 개운한 것은 아니다. 北方非武裝 지대의 要塞化, 각종 障地施設의 진진 배치, 땅굴 같은 새 南侵略의 개척 등은 休戰協定을 배반한 명백한 實際 상황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休戰 장치마저 마다하는 것이 平壤 집단의 고집이다. 또 이 고집을 구체화하면서 유엔軍 사령부의 무조건 解體와 駐韓美軍의 철수, 그리고 韓國의 고립화 및 武裝解除를 겨냥하는 美國과의 平和協定 체결 따위를 主張하고 있다.

이런 動向은 곧 美軍 撤收 이후의 軍事 재충들과 再侵의 길을 合法的으로 터놓으려는 그들의 凶計가 담긴 것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인물의 하나가 北韓의 金日成이라는 評은 벌써 들린 지 오래다. 또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舊版共產主

義者이기도 하다.

한데 그 뒤를 지금 蘇聯이 적극적으로 받쳐 주고 있다. 中共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마찬가지로 후원을 계속중이다. 이런 現實은 韓國에 대한 美·日의 지원 태세와 더불어 이 땅 안에서 美·蘇間의 冷戰, 中·蘇의 대립, 日·蘇 관계의 경화, 그리고 美·日·中共間 접근에서 오는 미묘한 변수 기류를 조성하면서 強大國들의 복합적인 이해 관계를 투영시키고 있는 참이다. 그에 따른 緊張의 高低와 상반된 입장들이 韓半島 문제의 처방을 보다 어렵게 하고, 休戰 체제의 向方마저 어찌 될는지, 앞날을 미로에 빠뜨리고 있는 실상이다.

지금의 休戰 상태가 정말 이 땅의 平和와 통일로 그 終章을 장식할 수 있을지, 아니면 北韓側 획책대로 法理的인 ‘南北間의 交戰 상태’를 남긴 채 폐지되면서 저들의 ‘再侵 길’을 터주게 될 것인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이다.

平壤 집단의 休協代替 주장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그들의 시종일관한 駐韓美軍 철수와 유엔軍의 解體 주장이다. 또 이미 병력 78만 명을 비롯하여 모든 裝備數量面에서 韓國軍보다 2배 내지 3배가 우세한 軍事力 증강의 동향이다. 아울러 때로는 列強끼리의 상호 관계 등을 의식하면서 美國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地上軍의 철수 여부나 유엔軍의 存在性에 대한 유엔내 일부의 評價 절하 경향과 유엔軍 구성 국가의 선명치 않은 시각도 문제점이다.

좀더 파고들면 협정 관계국들이 그 조인과 체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이나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도 도외시할 수가 없다. 韓國休戰 협정은 성격상 전반적인 휴전 협정이다. 비단 軍事的인 實際戰鬪 행위의 停止뿐 아니라 정치·외교적 규정(제 4 조 60항)으로 韓國 문제의 平和的解決을 보장하기 위한 協議를 조인 당사자들이 관계 각국 정부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건의 절차를 마친 지 오래다. 그런데 그에 따른 協議는 54년 제네바會議 때 단 한 번뿐, 30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 그저 英國이 中共과의 修交 및 協力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共同 관심사’의 일환으로 간혹 論議

를 하는데 그쳤으며, 모든 參戰國間에 있어야 할 協議 노력은 완전 증발하고 만 실정이다.

6·25로 말미암아 한층 더 멀어진 우리의 南北統一 문제는 列強이나 休協 관계국들 사이에서 근래 거의 擧論조차 하지 않는다. 휴전 전후 年例의으로 유엔 總會에서 다루어지던 韓半島 문제, 그 統一 방안 등은 70년대 중반부터 아예 議題에 오르지도 않게 되었다. 또 美·中共이나 日·中共 사이에서도 韓半島의 平和 문제는 논의하여도 統一은 아예 南北韓當事者의 과제로 밀어 놓은 실정이다.

南北韓간에서도 이 문제는 역시 미묘한 변수로 드러나 있다. 70년 對話 개시 직전까지만 해도 北韓측은 남북 사이의 모든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만큼 '직접 대화'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었는데, 73년 8·28 對話 중단 선언 후로는 오히려 저들이 對美協商, 平和 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식으로 변질한 채 南北對話에는 계속 머리를 돌려대기만 한다.

그런 변덕의 이면이 '남북 直決' 방식으로는 불리해진 저들의 劣勢 모면책이기는 하겠지만, 요는 그런데도 蘇·中共이 계속 北韓측의 변질 노선과 동향을 지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는 美·日 양국이 韓國의 대화 통일 노선을 지지하는 데 맞서기만 하려는 무분별한 對應 자세일 뿐 아니라, 列強間의 統一論議 침체 현상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우리의 統一을 달가와하지 않는 周邊列強國들의 底意의 발로라 할 것이다.

안으로는 6·25로 말미암아 南北韓 동족간의 對立과 異質化 현상이 더욱 深化하고, 밖으로는 關係諸國과 強大國들의 統一 논의 冷却症狀이 번지는 무책임하고 무정한 현실, 이것이 列強들의 흥정과 강요로 이룩된 '分斷休戰'의 결과, 바로 그것인 것이다.

南韓에서만도 그 전쟁의 피해는 비참한 것이었다. 戰死傷과 실종을 합친 國군 장병의 人命 손실 99만 명, 유엔 각국군 장병 손상 14만 명이었다. 死傷을 합친 民間人 106만, 戰災民 361만, 일시 피난민 720만, 장기 피난민 277만, 전쟁 미망인 및 고아 40만 명에 이르는 지경이었다. 財産 손실은 즐잡아 당시 화폐로 약 1兆圓, 그 앞에 江山은 폐허를 면치 못하

고 一木, 一石, 寸土에마져 핏자국은 서렸었다. 그리고 보면 보다 막심했을 北韓의 慘相인들 오죽했을까.

그 受難과 피해의 보상이 곧 지금 같은 分斷의 半永久化이고 半平和·半戰爭 상태의 지속이며, 統一 전망의 亡失이래서야 戰爭後史의 비애가 이보다 더할 수는 없지 않을까. 우리에게 대한 남들의 역사적인 농간과 現實的인 개입 상황을 韓國民의 정신적 시각으로 좀더 자기다움게 맥을 짚고 옹계 처방하는 슬기를 찾도록 '6·25 以後의 鐘'은 그래서 지금도 쟁쟁히 울려 퍼지고 있어 보인다.

⑤ 잊지 못할 노트

—國力이 王道·國運의 고비 左右—

사람들은 흔히 역사를 가리켜 거울(鑑)이라고 한다. 슬기로운 敎訓을 그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른다. 6·25라는 전쟁을 近世 1世紀의 우리 國運史와 연계지어 조명하면서 이제 여기 '잊지 못할 노트' 몇몇 대목을 그 가운데서 추려 보고 싶어진다.

우선 첫째로 '未決의 終章'이 그 전쟁으로부터 길게 남아 있는 點이다. 平和를 완벽하게 가꾸지 못했고 戰爭의 화근도 근절되지는 않았다. 통일의 성취는 보다 멀어지고 남북간의 대립은 多方面的으로 더욱 심각해졌다. 그 싸움의 확실한 概念과 休戰의 歸着點을 아직껏 정립 못 했을 뿐더러, 문제 해결에 高度의 국제성과 들레 列強들의 相關性이 길게 남아 있다.

그에 따라 시종 힘의 魔力이 남달리 우리 역사에 강렬하게 작용하는 것임을 들춰로 새기기 않을 수 없게 한다. 사실 地政學的 위치가 아무리 남들의 욕망을 자극시킨다 해도 우리의 힘이 강대했다면, 分割 恠정이니, 植民地化니, 分斷 해방이니, 南侵赤化 전쟁이니, 休戰 재분단이니 하는 비극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厄運의 저주나 받은 것처럼 시련과 고난의 十字架를 지고 약 1백 년간을 살아온 것도 결국은 自力의 未治이 그 근원이었다.

자고로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힘이라 하였지만 6·25는 그런 力學의 비애와 감동을 여러 고비에서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 믿었던 동족으로부터 새벽 기습을 당한 것 자체가 힘이 약한 우리였기 때문이다. 수도 서울은 被侵 불과 69시간 만에 빼앗겼다. 戰史上 일찌기 類例를 찾기 힘든 봉변 이자 이변이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밀려나며 遷都할 때의 참경은 아직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서울 시내 140만(당시)의 自由市民을 버린 政府 기관이나 軍部만이 홀홀히 옮겼다. 國會마저 機關的인 피난은 못하였고 漢江人道橋를 철후의 한밤중(1950. 6. 28. 새벽 2시) 부랴부랴 끊는 지경이었다.

洛東江까지의 후퇴 과정은 일단 回憶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최후의 그 橋頭堡에 아슬아슬하게 依支했을 무렵, 국민들의 애송스러웠던 심정은 누구나 한결같았을 것이다. 이제는 그 곳이 反擊과 설욕의 轉換點으로 옛애기를 하게 되었으니 말이지, 그 防波堤에서 한발만 더 밀렸더라면 우리들의 運命은 急轉直下했을 것이다.

그 지경에선 오늘의 民主韓國은 있을 수 없게 되었을지 모른다. 2천 여만(당시)의 自由民은 목숨과 생활 방식을 잃고, 서울 하늘에서 太極旗는 다시 나부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오늘처럼 약진하는 우리의 능률함이나 平和的인 民主統一의 실체는 그 製圖室과 발상 터전마저 잃고 말았을 것이다.

하마터면 우리는 그런 版局을 한 번 더 맞을 뻔했었다. 유엔軍의 韓·滿國境 접근을 트집잡아 침입한 中共軍이 38선을 유린하면서 계속 마구 남하하던 51년 정초, 유엔軍의 軍事的 敗北가 다가설 위협성은 매우 짙었다. 그 때 우리들은 까맣게 모르는 사이, 경우에 따라 유엔軍을 韓國으로부터 철수시킬 방침을 美合同參謀本部에서는 정했었다. 이 事實은 후일 마살 장군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撤收에 관한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견해는 일단 반대였다 한다. 그는 오히려 對中共戰의 확대를 건의했으나, 舍參은 敵軍에게 최대의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유리한 陣地에서 自己防衛를 위주로 할 것과 我軍의 安全 및

基本任務인 日本防衛任務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그에게 지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人命과 物資의 심한 損失을 피하기 위하여 韓國에서 철수가 절대 필요하다면, 맥아더 장군도 그 당시 유엔軍을 韓國에서 日本으로 철수시킬 예정이었다.”는 것이 證言의 골자이다. 물론 洛東江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군과 유엔軍의 힘은 이 局面을 훌륭히 救出하였다.

그런 그늘들과는 반대로 戰局의 다른 한 면을 생각하면 6·25 배의 그 他力처럼 미더운 것은 또한 없었다. 그 힘은 한때의 우리 敗勢를 뒤집어 놓았다. 서울을 收復하고 38선을 돌파하여 北進의 승전고를 멀리 韓·滿 국경까지 울리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런데도 이미 살핀 것처럼 中共軍의 개입 앞에 필경은 勝勢를 버리고 分斷休戰을 서둘러 말았던 것이다.

그리 되새기고 싶지는 않은 일이지만 이런 戰史의 裏面을 우리는 예누리 없이 새길 줄 알아야 한다. 他力은 고맙고 미더운 正面이 있음과 동시에 무시 못 할 한계성과 변질의 요소성이 도사린 背面 또한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이것이 곧 ‘힘의 理論’이며 作用인 것이다.

세째로 6·25는 또 옛 帝政 러시아의 延長線 위에서 소련을 主軸으로 하는 共產勢의 韓半島支配慾이 아주 비범한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金日成의 南侵이 소련이 使曠에 따른 것이었음은 金의 戰前 모스크바 訪問(1949. 2.), 소련의 침공 장비 제공, 소련 고문단의 작전 지휘 사실 등으로 역력하다. 이는 金이 북괴 정권 창건 이후 자주 뇌까린 것처럼 韓半島를 蘇聯邦의 한 부속물로 예측시키기 위한 양자의 공동 목표에 따른 것이었다.

하기에 北韓共產 침략주의자들은 동족간의 사랑보다 모스크바에 대한 共產黨 충성심을 더 앞세우며 전쟁으로 달려들었다. 선량한 韓國國民을 마구 학살하고, 부모 형제를 비롯한 모든 血緣·人緣·地緣 관계를 가림없이, 親共을 안 하면 원수나 敵으로 처결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소련과 北韓 집단이 유독 떠받드는 레닌, 스탈린의 恒久的 階級鬭爭 戰略思想에 따라 無制限暴力·무자비한 투쟁·완전 滅敵의 야만성을 남김 없이 발휘했던 것이다.

붉은 戰略思潮의 이런 本質을 우리는 잠시도 소홀히 보지 말아야 한다.

또 그것이 帝政 러시아 이래의 對韓征服 야망과 분별없이 결합되고, 이를 뿌리와 배경으로 삼아 北韓 집단의 對南赤化挑戰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저들의 전략 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설혹 정세 전변에 따른 強穩 양면 전술은 있을 수 있다 하여도 '제 2의 6·25'와 같은 북으로부터의 침략 위협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째로 6·25는 汎國民的 國防의 위대함을 體驗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實戰이었다. 先代國家 시절 이 땅에선 많은 전쟁을 치렀다. 허나 6·25와 같은 現代戰에 비하면 그 규모나 양상은 대수로운 것이 못 된다. 또 日政時代 두 차례의 世界大戰(太平洋 전쟁 포함)과 中日 전쟁을 치르기는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戰爭도 아니었으려니와 戰火가 직접 발등으로 미쳐 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우리에게 6·25는 國民 모두가 힘을 모아 직접 싸워야 했던 방위전이었다. 왕조 시절 군주의 신하이던 입장과는 달리, 국민 각자가 나라의 主人으로서 국방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 總力戰을 펴며 전후방의 싸움을 감당했던 것이다. 그 앞에 침략자는 구축되고 말았다.

전국민적 규모의 이런 실전은 역사상 일찌기 없었다. '大韓 民主共和國'이라는 國體와 政體下에서 비로소 구현될 수 있는 국방의 성격이며 당위인 것이다. 국민 가운데 가장 젊은 전투 요원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격전장으로 출을 이었고, 國軍 1백만·民間 1백만이 신명의 손상을 무릅쓰면서 犧牲 정신을 發揚한 大義도 이 民主 체제의 영광에서 피어나는 것이었다.

그 戰爭은 분명히 이처럼 나라의 民主國體理念을 集約하며 개화시킨 첫 케이스이다. 民主的인 국민의 나라를 짓밟으려는 共產主義者들의 침략을 한사코 拒否·粉碎하려던 思想·理念·體制 전쟁에서 함께 뭉쳐 용감히 싸웠던 이 汎國民的 國防總力戰은 이런 의미에서 획기적인 하나의 聖戰이었다 할 것이다.

理念 전쟁으로서의 성격은 그밖에도 선명하게 보태지는 점이 더 있다. 세계 자유민들이 유엔의 높은 평화 이상을 앞세우면서 集團安保 행동을 취

함으로써 자유 민주 사상과 체제를 옹기 지키는 原則 및 方式을 시범한 사실이다. 이는 나라가 서로 다를지라도 主義와 방향이 같을진대 뭉칠 수 있음을 가르친 것이었다.

실제 그 戰爭 당시 戰鬥의 한 고비나 前進의 한 걸음은 모두가 理念의 발판이자 다짐이었다. 자유와 민주와 평화를 위한 투혼과 공동 보조를 안으로 익히고 어깨를 나란히 한 盟邦軍들과 함께 그 수호를 위한 協同·血盟의 태세를 밖으로 과시하여 남을 만하였다.

그러나 戰場에서의 이런 사태 進行과 國際政治의 섭리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때문에 韓國國民의 생각과는 아주 동떨어지게, 중간 결말은 休戰과 再分斷으로 낙착되고 말았다. 우리가 이 땅의 主人으로서 참된 役割을 다 못하고 自主性을 완벽하게 발휘 못한 아쉬움을 지울 수 없게 하는 일면이다. 그래서 戰爭은 다섯째로 그 自主性의 굳건한 確立을 세차게 다그치고 그 길은 自力과 意志에 있는 것임을 再三 再四 敎示해주는 것이었다.

⑥ 歷史의 勝利者가 되는 길

— 精神의 蠖불·自強의 노력·統一의 意志 —

귀중한 이 敎訓들은 좀더 생생하게 살려져야 한다. 그것이 곧 나라의 運命을 옹기 발전시키고 개혁·창조하는 要諦요, 宿題풀이로 통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역사의 어려운 激動期를 길게 헤쳐나가야 할 우리들이 이런 관점에서 史眼의 焦點을 6·25 韓國전쟁과 그 전후 과정에 맞추어 볼 때 떠오르는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는 6·25에서 피어난 정신적·이념적 眞價를 제대로 정리하여 앞날로 발전시킬 일이라 하겠다. 동족의 가슴에 방아쇠를 당긴 共產 침략자들의 무자비한 도발·학살·납치·숙청·약탈 같은 蠻行現場을 목격하면서, 전쟁은 온 국민이 ① 反共·滅共의 蠖불을 한결같이 쳐들게 하였다. 그것이 意識化·體質化함에 따라 우리 국민 정신의 한 바탕을 이루게 하는 것

이었다.

한걸음 더 전진하여 그 反共 의식은 필연적으로 ㉠ 自由·民主守護와, ㉡ 平和 유지의 의지를 구조화시켰다. 反共이 共產敵이라는 외적 대상을 의식하면서 뿌리내린 강렬한一念이라면, 自由·民主 수호와 平和 유지는 民主韓國 체제의 내면적인 가치를 포착하여 보다 우람하고 실속 있게 확장시키는 理念의 結晶이었다. 이것이 곧 우리의 建國 이념·國體 이념과 일치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있어서는 안 될 이념의 발전은 그밖에 얼마든지 더 있다. 남들이 휘두른 戰爭의 과정과 결말을 안타까와하면서, ㉢ 自衛·自力·自主의 염원은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그 성취를 앞당겨 스스로의 역사와 능력으로 北地를 회복 ㉣ 民主統一을 실현시키리라는 期約이 사람들의 심정으로 서려드는 것이었다. 이 같은 理念의 振動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나라의 進路 역시 그런 精神의 基調 위에서 목표와 향방을 찾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아마도 大韓 民主共和國이 생존하는 限, 좀체로 변동시킬 수 없는 條理며 軌道라 할 것이다. 體制 발전과 國家安保를 위한 정신적인 據點이자 기반이라 하여 과언은 아닐 것이다. 허나 세월의 바다와 더불어 6·25에서 피어 오른 그 고귀한 精神·理念의 가치가 점차 퇴색 중이라는 비평이 요즘 자주 들린다. 아니 停滯하거나 빛을 잃는다기보다 그에 관한 資料와 記錄마저 제대로 못 챙겨 놓은 것이 오늘의 솔직한 實相은 아닐까.

내외에서 발간된 韓國戰爭의 책자는 그간 자주 눈에 띄었다. 한데 그 상당 분량은 외국 출판물이거나 남들의 처지에서 쓴 것들이다. 따라서 실상과 상처되는 것도 적지 않으려니와 거개는 단편적이다. 국내에서 발행된 책자들 또한 대동소이하다. 어느 정부 기관에서 가장 權威 있게 만들었다는 한 戰爭史만 해도 내용은 戰鬪史 爲主여서 참된 의미의 戰爭史로 평가하기는 힘든 것이었다. 또 戰爭史의 체계를 갖춘 것처럼 編著된 것들도 내용을 훑어보면 그저 形式主義의인 그 전쟁의 平面史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처지로서 6·25 戰史는 이처럼 단편적이거나 평면적인 내용으로 限定시켜서는 아니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겪은 受難의 內面史일 듯하다. 그 싸움은 南韓의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동리에게나 상처와 고통과 시련과 慘害를 안 미치게 한 부분이 없게 한 것이었다. 그 실상이 하도 심각·치참하여 反共民主의 이념적 蠖불이 절로 달아오르게 된 사연은 앞에 살핀 대로다. 南北間의 山河가 멀어지고 길과 산맥이 막혔으며 피차의 感情 대립과 文化·社會的 異質性은 날로 더해져 統일의 전망마저 매우 어둡게 되고 말았다. 줄여 말하면 온 강토가 한때 대수라장으로 변했고, 그 후환이 우리의 앞길을 漆黑으로 혼미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 상세한 受難狀의 보고와 기록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는 중이다. 大韓民國의 국제 보전과 安保 및 防衛를 생각할 때, 이 수난의 실상과 그 극복을 위한 투쟁사처럼 더 실질적이고 값진 精神資本은 없으리라고 믿어진다. 한때 그것을 보여 줄 상처는 거의가 아물었고 말해 줄 證人들 또한 상당수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남은 斷面이라도 서둘러 수집하여 6·25의 精神·理念的인 生命力과 그 精髓를 푸르게 가꾸어야 할 일이라 하겠다. 책, 특히 戰爭史는 가장 심각했던 나라의 命運을 수백 년 수천 년 後世들과 對話하게 되는 精神의 遺産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두 번째 課題는 自我의 伸張과 촉진이다. 主體 의식의 확립과 함양은 그를 위한 기본이다. 오랜 수난 과정에서 이끼 낀 숙명론·의타심·열등감을 청산하고 온갖 부문에서 主人으로서 행동하며 행세하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過去史의 우리를 보면 마치 목 매인 송아지처럼 남들로부터 역사의 약자·피해자로 물리기 일쑤였다. 이제 그런 汚辱과 困苦의 굴레를 박차고 결연한 主權者·勝利者로서 도전해 가야 할 일이다.

主體 의식을 참담게 구현하는 첩경은 ‘내 힘’ 즉 自力の 축적·강화에 있다. 政治力·經濟力·軍事力·外交力·科學技術力·產業力·文化力·精神力 등 모든 부문에서 힘이 돋보일진대 어느 누구도 다시 넘보지는 못한다. 周易에서 강조된 自强不息의 哲理나 先哲들이 말한 以小成大的 원리

는 그래서 우리 생활 신조로서 오늘도 합당하리라고 보겠다.

自力增強의 또 하나 열쇠는 국민의 進取性과 團結에 있다. 進取性은 곧 開拓과 挑戰을 말한다. 유니온 제크를 한때 온 세계로 펼쳤던 大英帝國은 일찍부터 바다에 도전했고, 오늘의 美·蘇는 우주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 先軫는 이런 개척·도전의 부피가 너무 적은 반면, 三國시대나 李氏王朝에 걸쳐 내부 싸움·黨派 싸움이 훨씬 突出되어 보인다.

물론 일부 國難克服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外侵時, 온 겨레가 떨쳐 일어나서 싸운 실적도 적지는 않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개척과 도전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곧 힘의 창출을 소홀히 한 셈이고, 단합보다도 분열과 파쟁이 심했던 것은 자력의 성장보다 그 낭비와 탕진을 뜻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힘이 強大할지라도 團結이 없는 한, 새 힘은 加算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바닥이 보임으로써 남의 넘봄이나 침략을 부르기 쉽다. 일부에서 6·25 被侵의 화근을 友邦의 도움이 미흡했던 탓으로 돌리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기실 살펴 생각하면 敵前에 무력했던 우리의 허상과 政爭에 寧日이 없고 전쟁 직전 실시된 제2대 民議員選舉(50.5.30.) 결과 드러난 政治力의 극단한 分裂相이 빚은 空白 탓이 더 컸을 듯하다. 내 힘을 바탕으로 自主性을 발휘하면서 다시는 남들에게 주물리지 않는 역사의 승자가 되려는 우리에게, 힘을 기르려는 피땀의 노력과 함께 國民的인 結束이 얼마나 긴요한 것인지, 깊이 새겨 뒤야 할 대목이다.

과제의 세 번째는 평화와 통일을 즐기차게 추구하는 일이다. 休戰 체제 하에 있는 韓半島 현황은, 표면상 小康平和 상태이긴 하나 國際法上으로는 '戰鬪 행위의 전반적인 停止'일 뿐, 평화 체제를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오늘의 南北韓처럼 軍事 分界線을 가운데 놓고 銳利한 武力對峙狀을 보이고 있는 사태는 세계 속에 별로 없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休戰協定 체결 당시의 유엔軍側 調印者 마크 W. 클라크 장군(작고)이 일찌기 지적한 것처럼 “韓國에서 공산군을 敗北시키려는 決戰을 하는 경우보다도 더 값비싼 피의 희생을 후일 바치게 되리라는 심각한 不安(‘다뉴브 강으로부터 鴨綠江까지’)”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

30여 년 간 휴전을 일러지게 한 北韓 집단의 도발·침투·협정 위반상은 아직도 멈출 기미가 좀처럼 안보인다. 平和에 대한 중대 위협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平和 전망에 비관만 할 것 또한 없다. 그것을 유지 옹호하려는 우리의 주체적 역량은 확실히 크게 자랐다. 綜合國力면에서 韓國은 北보다 약 5배 가량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25 당시처럼 명칭하게 당하기만 할 처지는 결코 아니다. 휴전 이래 꾸준히 이어진 韓·美共同 방위 체제는 당분간 끄떡없을 것 같고, 주변의 力學 관계도 4強均衡 체제를 이루어 설불리 현상을 타파할 여건은 아닐 성싶다.

그리고 보면 韓半島의 미래가 平和일는지, 戰爭일는지도 아직 不確實한 것이다. 다만 문제는 肯定的인 측면을 심분 활용하면서 우리의 平和擁護力量을 더욱 부풀리고, 敵이 눈독들이는 은갓 虛點을 속히 몰아 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곧 不正·부패·放心·허장 성세·분열·無能·無力 등의 일소를 가리킨다. 그 중에서도 방심은 가장 금물이다. 共產主義者들이 평화를 깨뜨리며 취하는 기습 공세는 반드시 남들이 방심 끝에 줄고 있는 휴식기나 공휴일을 택하는 때문이다.

統一大業을 지향하는 모든 활동에도 휴식은 있어 안 될 제제이다. 냉철하게 말하자면, 통일의 성취 시기는 누구도 예측불허다. 어쩌면 몇 십 년이 걸릴지 또는 그보다 더 먼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 하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活力 있게 계속하기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北韓 집단의 만만치 않은 방해 공작과 무력 적화 책동이 곁들여진 환경 하에서는 더욱 힘든 일이다.

그렇더라도 그 統一 성취를 위한 우리의 信念과 목표, 힘의 行進에 변함이 있을 수는 없다. 설사 里程은 멀어도 統一을 향한 의지의 핏불과 행동의 대열이 새차게 이어질 경우, 대망은 필경 이루어지는 것이다. 日帝 탄압하에서 절망감을 무릅쓰고 不屈의 투지로 전개했던 抗日獨立 투쟁이 남들의 호응과 時運의 조화를 얻어 8·15解放으로 귀착된 先例는 그 한 본보기라 하겠다.

그렇다고 우리 統一 문제를 남들에게 다시 기대 보자는 뜻은 아니다. 아니 기댈 수도 없거니와, 列強들이라 하여 이 땅의 統一 실현을 보장할 만한 능력과 의사는 사실상 없어 보인다. 統一 문제에 관한 그들의 무관심한 상태나, 그것은 '南北間의 내부적인 해결 과제'라면서 발뺌하는 동향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 갈아서는 장차 그 통일이 남북한 사이에서 自主적으로 타결될 무렵, 오히려 일부 列強이 權益 관념에 사로잡혀 그 成事に 재를 뿌리려 하지는 않을까, 미리부터 눈으로 경계하고 힘으로 대비해야 할 부수 과제일 것이다.

韓國民 모두는 이 큰 과제와 대세 앞에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 누구든 역사의 방청석에 앉은 손님이나, 무책임한 구경꾼은 아니기 때문이다. 6·25의 原因이나 始發, 그 중간 마무리나 後事は 우리들이 바로 새 역사의 榮光을 받드시 해야 할 창조자요, 개척자며, 주인임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 使命 앞에 슬기롭고 겸손하며 용감해야 할 것임을 끝으로 다짐해 두고 싶다.

參 考 文 獻

- ◇國防部 政訓局 발행, 韓國動亂誌(1~4卷)
- ◇國防部 政訓局 발행, 대외항쟁사
- ◇國防部 戰史編纂委, 韓國戰爭史(1~3卷)
- ◇國防部 戰史編纂委, 韓國戰爭史研究 제1, 2輯
- ◇趙相元 編, 法典
- ◇國防部 法制委 編纂, 軍事法令集
- ◇國防部 政訓局 발행, 戰時國際法解義
- ◇韓國弘報協會 발행, 韓國戰亂
- ◇國防部 編纂, 國軍精神教育教本
- ◇現代政治研究會 編, 自主性確立과 民族中興
- ◇마크 W. 클라크 著, 韓國戰爭秘史(다뉴브江에서 鴨綠江까지)
- ◇崔錫 著, 共產陣營의 戰略과 戰術
- ◇中央日報 編, 民族의 證言
- ◇兒島襄 著, 朝鮮戰爭(全 3 卷)
- ◇玉城素 著, 金日成의 思想と 行動

- ◇北韓研究所 編, 北韓軍事論
- ◇朴正熙大統領 演說文選集, 平和統一의 大道
- ◇金錫營 著, 板門店
- ◇世文社 編, 光復 30周年史
- ◇月刊 정훈(1974~1975.)
- ◇月刊 安全保障(1976. 7.)
- ◇月刊 총력안보(1984. 6.)
- ◇한국일보(1970. 8.)
- ◇東亞日報(1970. 8.)

6·25 戰爭의 反省

徐 基 源

(서울신문 監事·作家)

6·25 밑에 붙는 낱말로는 사변, 동란, 전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동란, 한국전쟁이라고도 한다. 아직까지 전자(前者)는 국내적인 명칭이고, 후자는 국제적인 명칭일 듯하다.

이런 잡다한 이름 속에 6·25가 지닌 성격의 복잡성이 깔려 있다.

6·25가 터진 지도 햇수로 어언 34년이 되었다. 족히 한 세대가 지나고도 남았다. 분단된 조국의 남북에는 각각 판이한 생활 공간이 형성되어, 그 異質化에 대한 깊은 우려가 갈수록 쌓이고 있다.

6·25를 겪은 세대는 겪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동족상잔의 비극과 전쟁의 慘禍를, 그리고 공산주의의 비인간성을 주입하려고 애를 먹고 있다.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은 감동을 주지만, 같은 말을 같은 톤으로 되풀이하다 보면 호소력을 잃게 된다. 아니 그보다도 체험 세대 스스로가 기억의 濫過 또는 風化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 체험의 일면만을 생각하게 된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올해 6·25 전쟁 발발을 회고하는 갖가지 대중 매체들의 紙面과 프롤로그 보면서 안타까움과 답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한결같이 6·25를 '체험한 세대'와 6·25를 '체험하지 않은 세대'로 양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체험담들을 생생하게 재생하느냐에 쏠리고 있었다.

이 양세대 간에 斷層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다. 또한 실지로 겪은 일을 얘기한다는 것도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

나, 6·25 전쟁은 오늘도 우리 민족의 분단을 규제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이지 지나간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후, 이른바 戰中派와 戰後派를 갈라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은 될 수 없다. 그들은 1945년 8월 15일을 역사의 한 구획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6·25 전쟁은 휴전 협정을 체결한 것만으로 참된 평화가 온 것도 아니요, 국토 분단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온 것도 아니다. 변화가 오기는 커녕 분단의 고통은 도리어 고질화되었고, 치유의 가능성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므로, 6·25 전쟁이 가져온 역사의 質料는 우리의 현대사 내부에 潛在된 채로 수십 년을 지속해 온 것이다. 경제 현상을 빚댄다면 악성 인플레이가 경제의 메카니즘 속에 조직되어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바꾸어 말해 6·25 전쟁의 본질과 그 역사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6·25를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와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겪지 못한 세대도 6·25의 역사 공간 속에 通時的으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도 임진왜란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追體驗할 수가 있다. 이 능력을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하지만, 직접 겪었다고 해서 체험의 참뜻을 알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나는 이른바 기성 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방법과 내용을 좀더 궁리해야 된다고 믿는다. 전쟁의 참혹함, 공산당의 잔학성, 오늘의 번영과 대비되는 당시의 빈곤상, 그리고 험악한 무용담 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6·25 체험의 內包가 설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

6·25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대강의 定說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 일성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 혹은 결탁하여 일거에 무력 통일을 꾀한 침략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그들로 하여금 침략의 유혹을 유발하도록 한 미국의 전략상의 과오와 헛점도 비판되고 있다. 또한 남한의 정치적 혼란과 무방비 상태 또한 誘因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좀더 거슬러올라가면 한반도에 대한 아무런 정책적 준비 없이 지도에다 자를 대고 선을 그어 버린 강대국의 卽興과 恣意

를 비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무책임한 흥정과 타협의 산물이 38도선일진대 6·25 전쟁은 이미 이 때 國際戰의 운명을 배태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강대국들의 대결의 틈바구니 속에서 代理 전쟁을 치렀다는 입맛쓴 관점도 나온다. 혹은 韓末의 상황과 연관시키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 같은 것을 들먹이며 자학과 체념에 빠지기도 한다. 이것은 한반도의 장래에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는 모름지기 그러한 비관론을 타파하고 지정학적으로 불리하다면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유리하게 反轉시켜, 自主自彊의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다. 우리가 통일을 갈망하는 것은, 비단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문화와 역사의 단절을 회복하여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족의 역량을 집결하여 비록 땅덩어리는 작을지언정 주변의 강대국들이 넘보지 못할 의연한 자주성과 이를 지킬 수 있는 위신과 힘을 지닌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염원과 희망이 깔려 있다.

그러기에 6·25 남침을 범한 북괴의 과오는 우리 민족사에 대한 반역이요 죄악이며, 역사의 復原力을 훼손시키고 있는 반등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6·25 전쟁을 起點으로 하는 역사적 전개 속에서 우리 대한 민국의 바람직한 장래를 내다볼 때, 6·25 전쟁의 체험을 통하여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 교훈을 거울삼아 미래에 대비하는 역사 창조 의지를 굳건히 할 것이며, 이러한 자기 성찰 없는 6·25 전쟁 논의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반성의 자료는 허다하지만 몇 가지의 문제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적 통합의 취약성이다.

북괴의 침략 충동을 유발한 요인 중에서 지나칠 수 없는 내부적 문제의 하나로 해방으로부터 6·25에 걸친 우리의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을 들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이 1948년 8월이고,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박

사가 추대되긴 했어도 그의 정치적 기반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했으며 또한 국민적 통합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의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면서, 한편으로 외교적 장애를 극복하면서 신생 국가를 탄생시킨 이 박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데 급한 나머지 평생을 바친 조국 해방의 명분과 이념을 제쳐 놓고 정치 목적의 필요성과 타협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구축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그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친일 분자를 포섭하여 이용하였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임시 정부 요인들을 경원했다. 당시의 집권 세력은, 그 나름으로 독립 투쟁을 위한 조직적인 운동체였던 臨政의 주체를 배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갖가지 잡다한 동기로 모여든 명분 부재의 집단 같은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정치 지도층과 국민 대중 간의 遊離 현상을 빚게 했고, 사회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김구 선생의 암살은 이러한 국면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정부의 낭패상과 책임의 망각을 회고하면, 지금도 기분이 상한다. 더구나 전쟁 전 국방 책임자는 사홀이면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는 가당찮은 호언장담을 하여 국민을 현혹시켰던 것이다.

당시 정권의 이 같은 生理는 전쟁 수행 과정을 통해서도 곳곳에서 그 본성을 露骨하고야 만다. 정부 요인들은 서울에서 탈출하면서, 수도를 사수할 것이니 시민은 안심하라고 되풀이 방송을 하여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 때의 배신감은, 수복 후에 서울에 남아 온갖 고초를 다한 시민들을 이른바 殘留派라 하여 무슨 잘못이나 저지른 듯 대하고 부역 행위를 조사한다고 괴롭혔을 때, 한탄과 분노로 변했던 것이다.

이시영 부통령은 遷都에 즈음하여 서울 시민과 국민에게 정부로서 잘못을 뉘우치는 사과 성명을 내야 한다고 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를 듣지 않았다. 국민을 우습게 보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은 이른바 국민 방위군 사건이다. 적의 침

락을 받아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여 그 나라 장정이 전쟁터에 나감은 의무, 當爲이다. 그러나 전쟁은 맨주먹만으로 할 수가 없다. 적이 人海 전술로 나오니 이편에서도 量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발단된 것이 국민 방위군이었는데, 수십만의 청년들이 이 때문에 겪은 고초와 재난은 새삼 들추어 낼 것도 없다. 아무런 보람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영양 실조와 병으로 죽은 장정이 수두룩했다. 그 비인도적인 참상이 드러나고 양식 대금을 가로챈 부정이 폭로됨으로써 간부 몇 사람이 책임을 지고 처형되었으나, 이 사건의 핵심은 실상 부정 사건에 있지 않고 국민을 전쟁 수행의 도구로 다룬 위정자들의 의식 내용에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방대한 수의 방위군을 제대로 전력화하여 청년들의 애국심을 발휘시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무능에 있다.

이에 반하여, 수많은 유력자의 자제들은 해외로 도피하거나 병역을 기피하였다. 이런 현상이 만연된 풍조 속에서 전쟁터에 나가 죽는 자는 바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안전하게 사는 자가 현명하다는 도덕적 기반의 붕괴가 일어났다.

1960년대 후 병역 기피의 문제는 사회적·법적 제약을 엄격히 한 덕분에 거의 해소되었지만, 운명 공동체 안의 장정 가운데 고지식한 사람은 적과 싸워 죽고, 약빠른 사람은 뒷전에 물러앉아 구경만 한다면, 그 공동체를 수호하기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 사회의 原形이라 할 수 있는 원시 공동체의 생존 양식을 짐작해 보면 실감이 난다. 소수의 종족 집단이 외적과 싸우게 되었을 때, 목숨이 아까와 도망을 치거나 숨어 버리는 자는 그 집단의 成員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시에 병역을 회피하는 장정은 스스로 그 나라 국민임을 포기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즈음 “군대에 끌려간다.”는 말을 보통으로 했었다. 사회상의 한 斷面을 잘 보여 준 표현이다.

병역 기피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인 동시에, 그 사회의 結集力, 혹은 일체감의 有無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공통으로 추구

하는 가치와 목표가 흔들리거나, 계층간의 違和가 심화된 상태에서는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6·25 전쟁을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反問이 과연 없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국제전으로서의 6·25 전쟁의 본질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강대국들의 利害와 전략의 실체를 똑똑히 알고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휴전의 전후 사정을 돌이켜 볼 나위도 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전쟁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말로 막을 내렸다. 이 박사가 저항의 몸부림으로 휴전 협정에 서명을 거부했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휴전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생트집의 빌미처럼 악용당하고 있다. 차마 협정에 서명을 할 수 없었던 스스로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도 아니고, 또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다. 국제 정치의 가차없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희망적 관측이나 불확실한 기대는 철저히 배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문맥에서 우리는 6·25 전쟁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미간의 유대와 협력 관계의 多面性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사정과는 상관없는 미국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대한 정책의 변화’라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른바 血盟의 불변성을 너무 안이하게 믿어 온 듯이 여겨진다. 지금 세계에서 몇몇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힘만으로 안전 보장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또 집단 안전 보장이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자주 국방에도 어떤 한계가 없을 수 없다. 허지만 어느 나라건 友邦 강대국이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국방 태세를 갖추는 데 태만할 수는 없을 것이다.

6·25 전쟁이 분단된 국토의 소산(所産)이라면,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통해서만, 그 상흔을 치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염원일 뿐 아니라 논리적인 귀결이기도 하다.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집단은 민족사의 異端이요, 叛逆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은 전쟁

후 계속해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해 온 저들의 행패를 통해 더욱 뚜렷해졌다.

이른바 김 일성의 항일 투쟁사를 날조하여 개인의 이상화에 미쳐 날뛰고 있는 데는, 6·25 침략의 죄과를 엄폐하면서 정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조작하려는 속셈도 없지 않을 것이다.

반면 우리는 숭한 난관과 역경을 이겨 내면서 자유와 민주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편으로, 문화적 전통이라는 민족 고유의 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한 마디로 줄이자면, 대한 민국의 정통성을 유지하여 민족 통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며 또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사의 신념은 곧 조국의 통일을 신뢰하는 확고한 歷史觀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관을 신뢰할수록 우리는 지난날의 자신을 겸허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6·25 전쟁에 선행하는 해방과 분단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해방되기 직전, 중국 대륙에서 군사 훈련을 받던 광복군의 수뇌들은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자, 조국 광복을 위한 무력 투쟁의 기회를 놓쳤다고 탄식하였다. 일제 식민 통치 35년간, 초기의 의병 항쟁과 3·1운동, 그리고 안중근, 윤봉길 등 순국 열사들의 항쟁은 우리의 독립 투쟁사를 빛내었고, 또 해외에 임시 정부가 수립되어 그 나름으로 法統을 이어왔다. 그 정신과 전통은 맥맥히 흘러 대한 민국 탄생의 뿌리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8·15해방과 광복은 일본을 패망시킨 연합군의 힘에 의하여 일거에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과 독립이 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했고 그 진정한 값어치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실사 알았다 하더라도 실감하지를 못했다.

反民特委의 흐지부지해진 전말은 식민지 치하의 뼈저린 역사를 자기 비판하지 못한 하나의 예(例)라 할 만하다. 물론 여기에는 발등에 불이 붙은 좌익파의 투쟁, 사회 관리 능력의 부족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있었고, 지

난날의 잘잘못을 따질 겨를이 부족했던 것도 부인 못 한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지적했듯이 역사 進展의 바른 방향을 잡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다지는 인식과 노력이 너무나 모자랐다. 이것이 곧 당시의 정치적 취약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 민주는 인류 공통의 이념이지만 이를 주장한다고 해서 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족에 내재하는 자체 역량이 발현되지 못하고서는 새로운 역사의 창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 볼 여유도 없이, 6·25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反共의 이념과 구호는 다른 모든 가치들에 우선하게 되었다. 우리는 해방의 역사성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수호했던 것은 자유와 민주뿐 아니라 민족사의 정통성과 문화 전통이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기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고통과 재난만을 안겨 주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복괴의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되었고, 그 같은 참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不退轉의 결의로 줄기차게 힘을 길러 왔다. 전쟁의 체험을 전화 위복의 발판으로 삼는 데 성공했다. 다름 아닌 민족의 위대한 저력 일 것이다.

오늘의 안정과 번영 역시 역사적 소산이지, 당연히 주어진 선물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오늘의 현실이나 앞으로도 지속될 역사는 廣義의 6·25적 상황 속에 포괄되어 있다. 감동어린 이산 가족의 재회 장면들은 6·25 전쟁의 아픔을 재현하였지만, 6·25 전쟁의 역사성을 잊어버리고 비극적 카타르시스에 그친다면 값싼 감상주의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지난날의 고통을 회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체험을 美化하려는 본능에 지배당하기 쉽다. 또 평화를 오래 누리다 보면 불과 수십 년 전의 전쟁마저도 망각 속으로 매몰되기 쉽다. 남한의 생활 공간이 번창하면 할수록, 이 안에 사는 우리의 역사적 의식이 희박해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전쟁이

비참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이 전쟁을 걸어 오면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지만,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결연히 싸워야 함을 6·25 전쟁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깨우쳤던 것이다. 우리는 6·25 전쟁의 악몽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그 전쟁에서 왜 싸웠으며, 누구를 위해 싸웠는가라는 물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韓國戰爭의 回顧와 敎訓

— 불교도의 입장에서 —

朴 芝 庵

(스님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① 내가 겪은 한국 전쟁

1950년 6월 25일, 당시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의 범주사에서 재부로 봉직하던 나는, 마칩 영등에 출장을 가려고 보은군내로 하산하였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38선이 터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일제시에 학도병으로 끌려가 기마 장교로서 만주에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곧장 은행에 가서 통장의 돈을 모두 찾아서 친구한테 맡겨 놓고 불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돈을 가지고 사찰로 돌아왔다. 그리곤 스님들과 당시 절에서 운영하던 중학 과정의 고등 공민 학교 직원 들을 전부 모이게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돈이 있는 대로 미리 월급 등으로 나누어 주어 피난을 보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 터질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이북 인민군도 같은 민족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며 피난가기를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고, 정든 집과 물려받은 땅을 두고 어디로 가겠느냐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만주 땅에서 온갖 풍상을 다 겪어 보았던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설득하여 피난길을 떠나게 하

었다.

사찰의 중요 문화재 등을 잘 숨기고 문단속도 한 다음에 피난을 떠나려 하니, 지서 순경들이,

“스님, 우리도 대구로 가니 같이 가시죠.”

하며 권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범주사 주지 스님쯤 되면 충청도의 유지로서 대접받았다. 승려 중에는 일본 유학 등을 통하여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 모두가 스님을 존중하고 있었다.

게다가 사찰에 딸린 임야나 농토가 많아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각종 사회 사업을 하기도 하였고, 지서에도 매달 쌀을 보내 주어 치안 유지에도 협조했던 것이다. 특히 나는 사찰의 살림을 맡은 재무로서 지역 주민과의 접촉이 평소에 많아, 그들과 허물없이 지내고 있었다. 또한 전문 학교를 나왔다 하여 그들은 나를 지성인으로 인정하고 따라주었다.

이렇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순경들이 피난길을 같이 가자고 하니, 마음도 오히려 든든하여 쾌히 동행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마을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지서에 갔더니, 그만 밤중에 모두 차를 타고 떠나 버리고 말았다. 아마도 갑자기 상황이 다급해져서 그랬던 모양이라 이해를 하고는 다시 집 실을 차를 찾았는데, 이미 그 때는 마땅한 운반 수단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새 공산군이 보은에 들이닥쳤다.

어차피 피난을 못 가게 되어 속리산 깊숙이 들어가 바윗굴에 숨었다. 인민군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금방 인민 위원회가 자리잡더니 지방 빨갱이들이 나를 찾기 시작했다. 재무인 나를 찾아야 쌀도 나오고 돈도 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절에는 노승 몇 분을 두어 지키도록 하였는데, 나를 찾으니 조심하라며 노스님들은 당부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절에 오면 스님들에게 인사도 하던 좌익 청년들이, 차차 악질 지주 계급 중들이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보국대’라는 것을 만들더니 나를 내놓지 않으면 절을 불사르고 스님들을 인민 재판에 돌리겠다고 협박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또한 어느 새 그들 편에 가

담한 지역 청년들이 산을 뒤흔기 시작했고, 노스님들을 내무서로 끌고와 행패를 부렸다. 아울러,

“재무란 나타나면 그만이다. 조사 한 번 하면 그만이고, 절대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 어서 여기에 다녀가기만 하면 된다.”

고 회유하였다.

마침내 견디다 못한 노스님 한 분이 나를 찾아와 사정을 알려 주었다.

“이미 세속을 떠나 출가한 입장에선 스님들이 형제이고 아버지·아저씨다. 인생에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고,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내 어찌 나로 인하여 노스님들을 피해 보게 하겠는가? 물론 공산주의자들의 성격은 안다. 하지만 모두 예전서부터 잘 알던 청년들이 아닌가? 설마 나한테까지 심하게 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산을 내려오는데, 동네 어귀에 이르자 대번 총을 겨누며 체포하는 것이었다. 즉시 면내의 지서로 끌려갔다. 사실 6·25 전에 철모르고 좌익 활동하다가 경찰서에 체포된 것을, 내가 보증서서 풀어 준 청년이 6명 있었는데, 그들이 내무서에서 붉은 완장을 두르고 잔뜩 찌푸린 얼굴로 진을 치고 있었다. 살벌한 분위기에 싸여 있다가 그들을 대하니,

“이젠 살았구나.”

싶어 아는 체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저 반동 새끼가 우리를 경찰서에 잡아넣었던 놈이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기가 막혔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었다. 착하디 착하고 순박하기만 한 충청도 청년들이 아니었던가? 평화스레 농사지으며 인정을 나누고, 무슨 때가 되면 할머니나 어머니 따라 절에 오기도 하고, 어찌다 나와 마주치면 경찰서에서 풀어 줘서 고맙다며 절을 꾸벅꾸벅 하지 않았던가? 또한 그 부모들도 한사코 내 손을 끌며 밥 한 끼라도 대접하지 못해 성화하던 때가 바로 옛

그제가 아니던가? 거기에 무슨 재산이 있었던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연스런 인정미가 나타난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나는 그 눈빛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그것은 이미 사람의 눈이 아니었고, 피에 굶주린 맹수의 눈이었다. 왜? 왜 이렇게 변했는가? 아무리 스님이지만 술 한 잔 하고 가시라고 소매를 끌던 장난기 어렸던 표정은 간데없었다.

그들은 나를 지하실로 끌고가더니 고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유는 악질 지주 계급으로서 반동 분자라는 것이었다. 숨겨 놓은 재산을 다 내놓고 용서를 빌면 목숨만은 살려 주겠다는 것이었다. 사정 없이 내리치는 몽둥이에 튼튼 손을 내저으며 머리를 감쌌다. 머리맡은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며 사지를 가누지 못하게 되었고, 머리에도 각목이 떨어져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내가 쓰러지자 그들은 찬물을 끼얹고 나가 버렸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며칠을 보내면서도 왜 일이 이 지경으로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저들이 언제부터 빨갱이가 되었던 말인가? 이북에서 내려온 핵심 공산 당원도 아닌 그들이 갑자기 공산주의 운동에 광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갑자기 뒤바뀌고 혼란스러운지 알 수가 없었다.

전쟁터에서 살벌한 살생을 저지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미 그들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니까. 또한 점령 지역에서의 가혹 행위는 역사 이래 많이 있어 왔다. 왜냐 하면 그들은 서로 다르니까. 그러나 얼마 전까지 밥도 나누어 먹던 이웃을 하루 아침에 표정을 달리하여 마구 짓밟을 수 있는가? 대체 무엇을 위한 발길질인가? 무슨 쌓인 원한이라도 있었던 말인가? 그렇지 않다. 서로 도우며 살았을진대, 어찌 이럴 수 있던 말인가?

온몸이 결리는 메다가 정신마저 얼떨떨한 채로, 나는 보은군 내의 내무서로 끌려갔다. 이미 초죽음이 된 나는 경찰서장 사택의 골방에 처박혔다.

밤 12시 경에 내무서의 한 군관 앞으로 끌려갔는데, 가만히 얘기를 해 보니 구면이었다. 나는 해화 전문 학교 다닐 때에 정구 선수로 활동했었는데, 당시 그는 평양 전문 학교의 선수로서 언젠가 경성(서울)에서 개최된 경기에서 대전한 일이 있는 것이었다.

그 때부터 그는 표정을 달리하며 나를 간호하도록 하고는 더 이상의 고문은 하지 않았다. 어쩐지 전쟁에 회의를 느끼는 듯하였고, 몹시 피로한 표정을 보였다. 당시 근방에서는 유엔군과의 교전이 있었는데,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음력 8월 추석 전후였다. 그들의 전세가 불리하여 후퇴할 즈음엔 특 하면 총살하는 총성이 하늘을 울렸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 같은 처지에서 불안에 떨며 지내던 어느 날, 하루는 밤중에 그 군관이 살며시 부르더니,

“당신은 일제 때의 군인으로서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위험 인물이니 처형 대상 제 1호요, 지금 마침 다들 나가서 보는 사람이 없으니, 어서 피신하도록 하시오.”

하고는 풀어 주었다.

즉시 나는 마을로 숨었는데, 다음날 유엔군이 들어와 보은군이 수복되었다.

수복 즉시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단이 재조직되어 자체 치안을 맡았는데, 나는 치안단장으로 추대되었다. 당시의 상황은 내 말 한 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다. 당시 삼산 국민 학교에는 유엔군에게 사로잡힌 공산군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보은군 내에 살던 청년들은 모두 인계를 받아 한 명도 희생되지 않게 하였다. 그들에게는 속리산에 숨어든 빨치산을 토벌하게 하여, 과거의 죄를 씻을 기회를 주었다.

잠시 광분하였던 그들은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으며, 공비 토벌에 헌신함으로써 아군의 작전 수행에 큰 몫을 하였다. 그들로 새로이 구성된 속리산 유격대는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도 했고, 속죄의 사명감으로서 공비 토벌에 큰 전과를 세웠던 것이다. 보은 내무서에 갇혀 있으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는데, 당시의 청년들에게는 뚜렷한 사상이란 것이 없

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다. 그리고 해방 이후의 혼란 상태에 들며 있는 사람이 많았다. 자기의 일에 착실히 전념하여 보람을 찾기보다는, 뭔가 잘못 하면 한몫을 잡을 수도 있다는 허영에 들며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달콤한 감언이설과 그럴듯한 유물주의 이론이 다가오자 그만 빨려들고 말았던 것이다. 젊은이다운 영웅심과 빛나간 사명감에 한때 넋을 잃었지만, 그들은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또한 그들의 세대에선 살 수 없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언젠가는 그들이 제 정신을 찾으리라 믿고 있었다.

그러기에 동계 청년들을 감정적이거나 고의적으로는 한 명도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다짐했던 것이다. 또한 비록 不殺生戒를 첫째 계율로 삼는 승려의 신분이었지만, 역대로 계승되어 온 호국 불교의 전통을 되살려 지역 사회를 지키기로 걱정하였던 것이다. 물론 불교에서의 護國이란 땅이나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護法인 것이다. 즉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정신인 것이다.

불교는 唯心論이어서 唯物論은 철저히 배격하고 있으며, 인간 존중의 사상이 근본이므로 인간 경시의 공산 집단과는 애당초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는 말이 있듯, 내무서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관세음보살’을 숭하며 마음을 진정시킴은 물론, 제 정신을 잃고 날뛰는 좌익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하였다.

이러한 생각에서 기꺼이 여러 감투를 쓰고 치안을 맡았던 것이다. 전쟁 때엔 으레 무고히 희생당하는 인명이 많지만, 감정에 치우친 복수심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붉은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청년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것이다. 어제까지 같이 인정을 나눠 오던 사람이 어찌 하루아침에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앞장서거나 영뚱한 욕심

에 눈이 잠시 가려서 설쳐댄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무고한 청년들이 전쟁의 혼란 속에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끔 노력하였고, 다행히도 그런 예가 적어도 내속리면에는 없었던 것을 지금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밀고 밀리는 전투중에 여러 번 범주사가 피해 볼 뻔하였는데, 그 때마다 적절히 대응하여 별다른 피해 없이 전쟁을 넘긴 것 역시 보람으로 느낀다. 고초는 좀 겪었지만, 오히려 내가 피난을 못 갔기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인민군이 다 물러간 후에는 즉시 절로 귀사하여 문화재를 점검하고, 쌀을 풀어 면민들을 전부 먹였다. 스님들을 소집하여 경내를 수리하고, 공비들이 후퇴하며 샘에 풀어 넣은 독약 등을 제거하였다. 또한 청년단 청년들과 함께 마을 시설을 정비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데 몰두하였다. 이어 전쟁이 휴전으로 바뀌고 치안이 안정됨에 따라, 난 절에 들어박혀 전쟁중에 희생된 영령들과 유가족을 위한 백일 기도틀을 올렸으며, 그 이후로는 재무를 다른 스님한테 넘겨 주고 수행에만 정진하였다. 그러나, 이따금 우리 민족에 셋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한국전쟁의 이유와 통일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었고,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불행이기 때문이었다.

② 공산 정권의 불교 탄압

이상이 내가 직접 겪은 한국동란의 체험이다. 여러 스님과 불교도들이 역경을 겪었으나, 공산 치하에서 고생한 스님 한 분의 체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70세이신 현암(玄庵) 스님은 함경 남도 안변군 석왕사면의 釋王寺에 12세 때에 출가한 태고종의 큰스님이다. 다 알다시피 조선조의 이태조가 무학 대사를 위해서 창건한 석왕사는 국보인 응진전과 호지문이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스님은 17세 때에 일본 유학을 가서 임제 대학을 마친 후에 석왕사에서 내내 수행에 정진하였으며, 60여 년의 승려 생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제도하였고, 현재는 우리 종단의 포교 원장으로서 많은 후학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다. 이분의 체험을 소개함으로써 필자의 부족한 경험을 보충하려 한다.

그는 비록 산골에 있었지만 당시 석왕사 스님들은 존경의 대상이었다. 대학생이 드물었던 일제 시대에 전문 학교 이상 출신을 40여 명 배출하였으며, 해방 이후의 광복된 조국을 위해 뭔가를 해 보겠다는 열의가 가득했었다. 그리하여 직접 사회에 뛰어들어, ‘석왕사 사립 보통 학교’, ‘석왕사 중학교’ 등을 세워 운영하였으며, 고아원·양로원 등을 설립하여 사회 봉사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佛道를 깨침으로써 조국을 만방에 빛내 보겠다며 수행에 전념하기도 하였다. 어쨌거나 종교인인 우리 승려는 곧 국가의 정신으로서, 우리가 민족을 선도하겠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은 공통되는 점이었다.

1945년 11월 8일, 면에 공산당이 들어왔는데, 군화를 신은 채 법당을 다니는 등 도대체 안하무인이었다. 스님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강력히 항의를 했더니, 도리어 눈을 부릅뜨고 대들며 해방군을 몰라본다고 칩을 튀기는 것이었다. 말로만 듣던 공산군의 행동을 대하고 보니 영 말이 아니어서, 석왕사 출신으로 교직에 나가 있는 사람을 한 분 만났다.

그의 말을 들으니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독립군의 영웅인 김일성 장군이 해방군으로서 왔으니 환영회에 나오라는 소식을 듣고 가 보니, 영 말도 안 되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등단하여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려 나오더라는 것이었다. 이미 중간 중간에 배치된 선동꾼들이 박수를 치며 칭찬을 얼떨떨하게 만드는데, 여러 사람들은 저전 가짜라고 불평하며 나가 버렸다.

교사는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하나? 소련군은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은인이라 하는가? 일본이 물러가고 소

런이 오는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산 혁명의 동지가 될 청년들은 환영 대회가 끝난 후에도 운동장에 그냥 남아 있으란 광고를 하더라는 것이었다.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나 하고 운동장 구석에 앉아 바라보니, 주로 마을의 불량배나 빈민층 청년들이 몇 명 모여 있었다. 잠시 후 군용 트럭이 한 대 오더니 그들을 태우고는 먼지를 날리며 어디론가 가 버렸다. 특별히 배웅해 주는 사람도 없이 그들은 눈앞에서 떠나갔다. ‘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게 되나?’ 하는 궁금증이 들었지만, 속 시원히 대답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정작 놀란 것은 몇 개월 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였다. 모두 대위 계급장을 달고 와서 뽐내는데, 그 행패가 꼴불견이었다. 온통 제 세상 인양 다니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소련군 군복에다 권총을 뽑아 들던 모두 멸었다. 그리곤 소위 반동 분자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원래 무식했던 그들은 교육받은 대로 잔인하게 기존 질서를 파괴해 나갔다.

거기서 교사가 만난 사람은 원래 동네 국수집에서 배달을 하던 청년이었는데, 이미 거만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예전에 국수 배달꾼이라고 무시한 적이 없었고, 가끔 담배도 사주고 친절히 대했기 때문에, 그 교사한테만은 고개를 숙였다. 얘기를 들어 보니, 소위 김일성 장군 환영 대회 직전에 동네 불량배들에게 선동꾼들이 가만히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끝까지 남아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수 배달꾼도 참석하여 시킨 대로 박수 치고 환성을 올리다가, 군용차를 타고 갔다는 것이다. 사상이 뭔지도 모르는 처지에서,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악질 반동 지주들을 없애자!”라는 격렬한 구호 속에 살인 기술만 배워 온 것이었다. 그들은 또 공산 혁명의 동지들을 규합하기 시작하였는데, 눈으로 직접 본 동료들의 출세에 이끌린 청년들이 집합하였다.

그들은 얼마 후에 중위 계급장을 달고 왔다. 이제 젊은층에는 완전히 소문이 퍼졌는데, 공산주의자들의 비인간적인 만행에 고개를 흔든 어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많은 젊은이들이 입대하였다. 그들은 소위 계급장을 달고 왔다. 그 이후엔 너도나도 하고 젊은이들이 입대하였는데, 더 이상 장교 계급장을 달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기존의 전통 윤리와 문화, 질서를 깡그리 뒤엎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교사의 말을 들은 스님은 한숨을 내리쉬고 걱정을 하였지만, 설마 종교계까지는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비록 세상의 인심이 뒤숭숭하고, 구뚫발로 법당에 들어오는 무례한 꼴을 보긴 했지만, 본격적인 탄압은 아직 없었던 것이다.

한번은 당시의 거물인 김두봉이 인민군 70여 명을 거느리고 사찰을 방문했었는데, 현암 스님께 애로 사항을 묻길래,

“절에서는 합장 등을 하며 예의를 지켜 달라.”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는 대뜸 석왕사 일주문에, “참배할 사람은 거수 경례부터”라는 글을 써붙이게 하고는 성역으로서 절을 지켜 주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에 그런 대로 참고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에게는 종교적 이해나 관심이 전연 없었다. 사찰을 군 지도자 강습회나 휴양의 장소로 이용하였는데, 강의 내용은 오직 유물 변증법뿐이었다. 급기야 그들은 1946년 봄에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사찰 소유 토지 중에서 5정보 이상은 몰수하고, 노동법령에 의하여 “노동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하여 승려들의 환속을 강요하였다. 따라서 석왕사의 소유로 되어 있던 방대한 토지는 도 인민 위원회에서 인수해가고, 다만 월 3천 원의 사찰 운영비만을 지급받았다.

승려는 다만 사찰의 관리인일 뿐이며, 일체의 포교 행위를 할 수 없었다. 사정이 점점 경직되어 가자 스님들 중의 일부는 부득이 산업체로 갔고, 일반 신도들의 공공연한 신앙 행위는 금지되었다. 그들은 대신 유물 사관을 주민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가만히 월남하는 스님도 있었다.

현암 스님은 잔뼈가 굵어 온 석왕사를 떠날 수가 없었다. 석왕사면의 주민과 신도들을 의면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풀 한 포기에게까지 손

때가 묻은 절을 떠날 수는 없었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지.” 라는 생각에서 오직 부처님 전에 기도하며 가정들의 평안과 민족의 번영을 기구하였다.

그러나 6·25가 터지자 사정은 일변하였다. 깊은 산 속이어서 사람의 왕래가 뜸하다 보니 누가 일부러 오기 전에는 소식을 알 수 없었지만, 인민군의 눈을 피해 몰래 숨겨 놓고 청취하던 라디오를 통해 전쟁 소식을 알게 되었다. 석왕사는 안변군에서 유학생이 가장 많은 곳으로서, 이 지역의 정신적 귀의처였으며, 전쟁 발발 때만 해도 일제시의 학도병 출신이 7명이나 있었다.

며칠 후에는 마을의 스피커를 통해서 전쟁 소식이 들렸는데, 이미 최고 학부를 마쳤고 남한 실정에도 밝은 스님들은, 스피커의 소리를 전연 믿지 않고 있었다. 모든 청년의 입대를 요구하는 성명서와 전시 체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는가 하고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서둘러 피신들을 하였다. 보나마나 조국 해방이란 명분으로 승려들도 징집해 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절을 사수할 사람만 몇이 남고, 산골 마을 등으로 스님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저 소박하기만 했던 주민들은 평일과 다름없이 농사를 지었으나, 당시의 지식층이라 할 스님들은 생각이 달랐던 것이다. 현암 스님은 사찰을 사수할 각오로 남아 있었으나, 업무상 여행을 하려 해도 통행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등, 승려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게끔 형세가 변해 있었다.

필자와 마찬가지로 사찰의 재무를 맡고 있던 스님은, 할 수 없이 머리를 길러 승려의 신분을 숨겼다. 대체 이 때 승려로서의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市井에 나가 보면 온통 군인과 무기만이 남으로 질주할 뿐이었고, 전쟁 물자 이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 보였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차례차례 인민군으로 동원되었다. 종교의 자유란 이제 생각할 수도 없었다. 승려 생활을 포기하면 모를까, 더 이상 사찰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

무위도식하는 중이라 하여 식량 공급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산나물들 캐어 먹었고, 공산당에 가입하라는 압력도 받았다. 그리하여 때가 오면 즉시 월남하려고 지하실에서 열심히 라디오를 들었다. 유엔군과 국군의 진격 상황이 점차 분명해지자 더욱 몸을 조심하였다.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국군이 진주하였다.

“아, 이제 됐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쉰 것도 잠시, 곧 중공군의 참전으로 국군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스님은 즉시 보파리를 싸서 동료 스님들과 피난길에 나섰다. 무작정 원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남하하려 하였다. 이미 원산 부두엔 피난민들이 짝 들어차서 배를 타기가 어려웠다. 국군이 수복하자 석왕사면의 선출로서 반공 청년단에 가입까지 한 스님으로서는, 배를 못 타면 곧 반동으로 죽게 될 상황이었다. 때는 12월 2일경이었으므로 무척 추웠다. 그래서 일단 민가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뚝단배가 한 척 닻을 올리자 무조건 올라탔다.

부두에 있던 사람들도 아우성을 치면서 올라타는데 한 70여 명이 되었다. 그런데 어부가 가는 방향을 보니 북쪽이었다. 이유를 물으니,

“북쪽에 가면 고등어도 많고 식량도 많으니 아무 걱정 마시오.”

라고 천진스레 대답하는 것이었다. 기가 막힌 일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남쪽으로 가야 할 텐데, 살펴보니 모두 여성이고, 남자는 현암 스님과 동료 스님 둘뿐이었다. 아무리 여자들이 비통한 소리로 울고불고 아우성을 치며, 껌물을 잔뜩 거두어 주어도 막무가내였다.

그저 평생 바다만 보고 살아온 태평한 노인이었던 것이다. 바람을 타고 북으로 북으로 가는 상황에 마음들이 너무도 다급하였으나, 그 천진한 노인을 해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승려의 신분이 아닌가? 스님은 체념하고 염불만 하였다. “부처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드디어 배는 함경 남도 영흥만에 닻을 내리고 말았다. 할 수 없어 한국

청년단원을 찾아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마침 집주인이 철저한 우익 사상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밤에 인민군이 불시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검색을 하였다. 주인은 머처 집 밖으로 피신 못 한 스님들을 아궁이의 솥에 숨기고 뚜껑을 달아 주어 무사할 수 있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가진 돈을 몽땅 주고 조그만 배에 몸을 실어 원산 앞바다의 신도라는 섬으로 갈 수 있었다. 집은 두 채밖에 없었는데 이미 원산 피난민으로 들끓고 있었다. 거기서 20여 일을 기다리는데 식량이 모자라서 밤이면 젊은이들이 교대로 헤엄쳐 원산으로 가서 식량을 구해 왔다. 만일 갖던 사람이 안 오면 죽은 것이고, 따라서 다음날은 죽 먹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지내던 중 원산에서 후퇴한 원산군 명구면 한국 청년단원들이 합류하였고, 마침내 어느 날 새벽 조각배에 13명이 타고는 남하하였다. 그러나 작은 배에 잔뜩 사람이 몰려서 기우뚱하는 데다 공산군의 포격과 폭격을 받아 마음놓고 항해할 수 없었다. 마침 강원도 통천군 고저읍 치국이라는 곳에 닿으니 국군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이 때가 1월 말이었다.

국군은 우선 일행을 재우더니 밥을 주었다. 다음날 고저읍에 들어서니 고향 사람도 만날 수 있어 같이 후퇴를 하는데 고성에서는 공비와 전투가 있었다. 누가 특별히 지휘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혼자 다니면 위험하므로 배를 지어 부대를 이루었다. 길에서 주운 무기들을 들고는 150여 명의 한청 대원을 주축으로 배를 지어 후퇴하였다. 중간 중간에 가끔 소규모 전투를 하였지만, 낙산사 밑에서는 꽤 큰 충돌이 있었다.

일행이 나타나면 산골 사람들은 겁이 나서, 기를 들고 환영을 나왔는데, '김일성 만세'라고 외치는 자는 총살을 하였다. 우리는 군복도 없었기에 아마도 공산 빨치산인 줄 알았던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참으로 사람의 목숨이 파리만도 못한 상황이어서 스님은 마냥 눈물을 흘렸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염불을 쉬지 않고 하였다. 종교인의 역할이 고작 사후 약방문 격밖에 안 된단 말인가? 자신의 무력함이 심히 한탄스럽고 부처님께 송구스러웠다.

산발적인 전투를 계속하며 고성 밑의 안인과 주문진에서도 적과 조우하였는데, 특별한 지휘자나 조직이 없어 전투중엔 뿔뿔이 흩어졌다가, 하루쯤 아랫마을에 있으면 다시 모여 집단을 이룬 다음 후퇴하였다.

목호에 오니 해병대가 있어서 한 시름 놓았다. 한국 청년 단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단체는 해산되었다.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울진을 거쳐 영덕으로 접어들었다. 남의 집 품팔이도 하며 국군의 보급대 일도 하였다. 음력 정월날은 인심 좋은 산골에서 대접받기도 하였다. 영양읍에 당도하여서는 쌀도 얻고 소독약 등도 탈 수 있었다. 그리고 영성사란 절에 가서 자리를 잡고는 포교를 시작하였다.

50여 명의 인근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또한 백일 기도를 신도들과 같이 올리기도 하고, 4월 초파일엔 연등을 달고는 성대히 석가모니 탄신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생각할수록 국가의 혼란이 가슴아파 마냥 염불하며 밤을 지새기도 하였다. 역시 국가가 있어야 종교의 자유도 있는 것이며, 국가가 난을 당한 데 대한 종교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마냥 참회하였다.

무고히 쓰러져 간 동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평화로웠던 나라에 벌어졌던 걸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웠던 전쟁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발하지 않도록 신명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스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고 계시다.

③ 한국동란의 교훈

한국동란의 원인을 필자는 '민족 자주 역량의 부족'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물론 6·25 때만의 실정은 아니었고, 조선조 후기부터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점유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나라는 어느덧 국제 정치 조류에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내의 정치나 인접국인 중국·일본과의 외교만으로 우리 나라의 운명을 정할 수 없는 격변기에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용한 아침의 나라, 자칭 동방 예의지국은 국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저지하려는 영국과 미국의 국제 전략 때문에 일본에게 우리 영토를 강점당했던 것이다. 또한 일제의 암흑기에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지내 온 상태에서 졸지에 광복을 맞이하였고, 새 사회의 혼란이 미처 정리 되기 전에 민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졌으니, 우리 민족의 최근세사는 참으로 불행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결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흔히 들 우리를 식민지화한 일본인들을 미워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나라를 빼앗긴 우리가 더 나쁜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한일합방 이전 일본인한테 며칠 동안 고문을 받으며 한탄하시던,

“아아! 저놈은 이미 다 망해 가는 나라를 좀더 빨리 망하게 하려고 밤 잠을 안 자며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쓰러져 가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나 자신은 과연 얼마나 부지런했는가?”

라는 말씀같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이 나라를 빼앗긴 원인이었던 것이다.

만일 일본이 식민지화를 안 했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강점당했을 것이다. 당시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리던 주변국들의 형세를 살펴볼 때에, 조선의 식민지화는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었다. 또한 해방 이후에 38선을 격하여 남과 북에 각기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여 통치하게 된 상황 또한 어쩔 수 없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두가 우리의 자주 역량 부족 때문에 야기된 사태였으며, 이것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한국전쟁이었다. 남들이 자기네 국가 이익의 입장에서 주입한 사상에 빠져, 그들이 손에 쥐어 준 무기를 가지고 민족끼리 죽인 것이 6·25 전쟁 아닌가? 물론 약소 국가의 운명이라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스위스라든가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민족 생존의 조건이 어떠한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며, 결코 국토가 좁다든가 하는 것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남이 대신 지켜주길 바라며 강대국에 의지하는 사대주의 사상은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서 부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에는 필연적으로 깊은 사상이 그 배경으로 있어야 한다. 단순한 의지만으로 강력한 행동이 나오지는 않는다. 깊은 사상적 바탕에 의거한 호국 의지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억지로 몰아세운다고 용감히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피동적이고 감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같은 불교도가 많은 자유 월남은 1975년에 패망하였다. 우리는 월남 패망의 교훈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월남이 패전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국민들에게 월남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자유 진영에서 원조를 하고 집권자들이 호국하자고 목청을 외쳐댔지만, 막상 국민들에게 월남을 꼭 지켜야겠다는 어떤 가치 관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꼭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어떤 가치성을 못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어떤 좋은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가 예전에 어떤 외국 영화를 보았는데, 베를린으로 옮겨 가려는 프랑스의 명화를 지키기 위해 레지스탕스들이 나치스에 대항해 싸우는 내용이었다.

그까짓 미술품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울 필요가 있느냐는 말을 같이 구경한 관객들한테 들은 기억이 난다. 전쟁 직후의 삭막한 상황에서 폐허를 복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쩌면 사치스런 전투였을지 모른다. 그리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투 장면에 대한 얘기만을 나누는 시민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일이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에게는 그 미술품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다. 그리하여 각 마을의 레지스탕스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기어이

예술품을 지켜 냈던 것이다. 즉, 복습 절고 지킬 가치가 있을 만큼 좋은 무엇이 있어야 강력한 애국심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월남 국민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고, 따라서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과 월등한 화력을 지녔음에도, 월맹에 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혹자는 우리 한국에 무슨 전통 사상이 있느냐 한다. 대체 이 나라는 사상도 없고 문화도 시원한 것이 없으니, 부지런히 외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설령 고유한 문화와 역사 깊은 전통 사상이 있다 한들,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가치가 있겠느냐는 지식인들도 꽤 있다. 일반인 중에도, “한국 사람은 별수 없다.”느니, “국산품은 역시 외제보다 못하다.”느니 하며, 자기 멸시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인격이 원만치 못한 사람도 있고, 제품 중에는 불량품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부정’의 자료로 삼기 좋아하는 취향(?)이 문제인 것이다. 불교계에선 인도에 다녀온 사람이 많은데, 참으로 거지도 많고 제품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철저한 국산품 애호 정신은 가히 놀랄 만하다 한다. 똑같은 조건을 두고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설령 우리 대한 민국이 땅도 작고 경제력도 아직은 약하고 군사력도 외국에 의존하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 조건들이 스스로를 멸시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외형이 작더라도 결코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역할이 있는 것이며, 남과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채송화가 해바라기나 낙엽송보다 키가 작으니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해바라기나 낙엽송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역할과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즉 우리 나라의 외형이 좀 작다 해서 해바라기 같은 일본이나 낙엽송같이 키가 큰 미국보다 못난 것은 아니다. 만일 산에 한 가지 꽃만 나열되어 있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온갖 기화요초가 피어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에, 우린 땀을 흘리며 등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세계가 하나의 꽃밭이라면 우리 나라도 한 송이 꽃이다. 남과 똑같이 되려고 발버둥칠 필요는 없다. 우린 우리다우면 되는 것이다. 우선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고,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듯 한국인은 한국인다워야 한다. 그 다음에 현대의 국제화 시대에 호응하여 세계 시민의 자질을 아울러 갖춰야 한다. 아무리 서양 의상으로 감싸고 버터 냄새 풍기며 뽀내어 봐야, 그는 ‘자기 부정’ 또는 ‘자기 멸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일 뿐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인간 긍정’의 사상을 지녀 왔다. 이것이 삼국 시대에는 風流道로써 표현되었으며, 弘益人間의 이념으로써 사회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자기 것보다는 외국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 빛을 잃었다.

물론 외국 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배워야 하지만, 그것을 소화해야 하며 이끌려 들어가 주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 불교 또한 이러한 전통 사상과 문화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토착화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국 불교를 믿는 것이며, 인도 종교를 추종하지 않는다.

‘佛敎’는 ‘부처(佛)’의 ‘가르침(敎)’이다. 부처란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존재를 호칭하는 인도말로써, 세상엔 유사 이래 많은 부처님들이 있어 왔다. 마치 학위를 취득하면 무슨 무슨 박사라고 하듯, 깨달은 분들은 모두 부처님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효 대사·태고보우 국사 등의 말씀도 부처님 말씀으로서 소중히 모셔지고 있다.

그런데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에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부처다.”라는 것이다. 세속 사람들은 설마 나같이 못나고 미천한 존재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진리를 깨달은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틀림없이 부처인 것이다. 즉 우리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며 또한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이다. 이번 인생 죽는다고 그만인 아니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긍정의 사상을 지녔기에 불교는 찬연한 민족 문화를 꽃 피웠으며, 국난이 있을 때마다 강력한 호국 의지를 발휘했던 것이다. 우리는 곧 부처이며, 우리가 사는 곳은 곧 찬란한 부처님 나라다. 문제는 스

스르가 지닌 부처 성품(佛性)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인데, 그러한 잘못된 착각을 벗기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불교인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출가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사회에 나와 대중을 포교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곳’에 우리의 무한 능력이 발휘되게끔 하는 것과 우리가 사는 가정·사회·국가·세계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이러한 인간 긍정 사상은 현시대가 파생하는 ‘인간 소외’나 ‘생명 경시’ 풍조에서 그 무엇보다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 긍정의 바탕에서 진정한 애국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며, 민족의 자주 역량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부정하고 이 땅을 도외시하는 것은 마치 채송화가 스스로를 부정하여 그늘 속에 잠김으로써,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기와 자기의 위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도, 애국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또한 같은 비를 맞아도 채송화와 해바라기는 그 피우는 꽃이 다르다. 이와 같이 어느 조건이 채송화를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채송화의 생명력이 조건을 양분으로 삼으며 스스로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부처다.”라는 가르침의 뜻이다. 이러한 주인 사상이 민족 주체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이나 조건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여 성장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자세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물며 남에 의지하여 환경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말뚝이 걸어 치워야겠다. 해방 직후에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이 일어나니, 조선은 조심하라.”라는 말이 떠돈 적이 있었다. 이 말은 민족의 갈 길을 암시하는 안목을 지닌 어떤 道人이 퍼뜨린 말이라 한다. 어떠한 문제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게 마련이다.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고교생에게, 육군 참모총장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주의 섭리다. 그래서 道人들 간에는 “도가 높으면 魔가 성하다.”는 말을 한다. 우리 조국의 문제는 국민들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니 결코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민족 생존의 자주 역량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긍정과 조국 긍정의 적극적인 사상이 정립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한국 전쟁의 교훈이라 여겨진다.

④ 공산주의의 본질

종교인은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족의 생존을 위한 일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의 시점에서 민족의 숙원은 통일이며, 더 이상의 민족 상잔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통된 소망이다. 지면 관계로 통일 방안에 대한 얘기는 전개할 수 없지만,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에 대해서는 꼭 언급하고 싶다. 왜냐 하면 어떤 문제든, 그 근본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법에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데, 한국전쟁을 유발한 공산 집단이 아직도 이북 땅에서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무엇보다 그들의 본질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의 본바탕을 정확히 안다면, 대처하는 방안도 분명히 나오리라 보며, 이것은 또한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일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폭력주의다. 민주 사회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죄악시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유일한 수단으로서 찬미한다. 그리하여 1848년 선포된 ‘공산당 선언문’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목적은 종래의 모든 사회 제도를 폭력으로 전복하는 방법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하여 폭력을 유일한 수단으로서 찬미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를 체포했을 때도 무조건 육체적 고문부터 가했던 것이다. 말로 하는 지성적·문화적 방법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폭력으로써 목적 달성을 하려 하였다. 굳이 표현한다면 폭력 문화라 할 수 있

을까? 우선 흠씬 때려 놓고는 굴종을 강요하는 야만적인 사고 방식을 그들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도 '평화'라든가 '비폭력'이란 말을 마치 독점이나 한 듯이 입버릇처럼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들은 힘이 약할 때에는 비굴할 정도로 아부하며 민주 진영에 발을 붙이고, 세력이 좀 강화되면 연립 정부 형태를 취하다가, 그들의 세력이 더욱 강화되면 민주 진영을 완전히 추방하고 공산 통일을 하려 한다. 이것이 소위 비폭력에 의한 공산 통일의 전략으로서, 그들이 당장 물리적 힘이 부족할 때에 사용하는 상투적인 단어가 '평화'인 것이다.

예전에도 젊은이들 간에는 순수한 정열로써 좌익 사상에 몰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입장이었으므로 실제 정체를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잔인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그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폭력을 통한 공산 통일이며, 평화적·민주적·문화적 집단이 아니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반 민족주의다. '공산주의 동맹 규약' 제 2조에는, "본 동맹원은 어떠한 민족주의 결사에도 가입함을 금한다." 하여, 혈연적 민족을 거부한다. 그들의 민족관은 과연 어떠한가? 그들은 이 지구상에 오직 두 개의 계급적 민족밖에 없다고 본다. 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민족이고, 다른 하나는 부르조아 민족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와 그들의 민족관은 전혀 다르다. 때문에 민족 통일이라 할 때도, 우리는 혈연적 배달 민족의 통일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민족 통일이란 프롤레타리아 계급적 민족의 통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들의 사고 방식에는 혈연적 민족이란 관념은 애당초 자리잡고 있지 않으므로, 민족 관념에 호소하려는 감정적인 접근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암 스님이 이북에서 체험했듯, 그들은 빈민층을 앞세워 장교 계급을 주며 전통 문화와 질서를 깡그리 뒤엎으려 했던 것이다. 오직 공산화가 목적이기여, 여타의 종교 사상·민족 문화 등은 정면으로 말살

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빈민층 청년들에게 오직 폭력만 가르쳐서 앞장세운 것은, 그들의 폭력주의를 보여 주는 좋은 실증이라 하겠다.

세째, 반국가주의다. 그들은 국가나 조국을 거부한다. ‘공산당 선언문’에서는, “노동자에게 조국이 없다.” 하여 공산주의가 완성되면 민족도 조국도 소멸된다고 여긴다. 이렇게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자로서 조국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소련 공산당의 세력 확장을 위한 구호에 불과함은, 헝가리·체코 등이 국가적 공산주의를 표방했을 때에 무자비하게 탄압한 예로 알 수 있다.

네째, 반윤리주의다.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부모까지 고발해도 도덕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 신조’ 제10조에는, “어떠한 행위도, 예컨대 살인이나 양친을 밀고하는 형태도 공산주의 목적에 도움이 되면 정당화된다.”라 하여, 반윤리적 행위를 권장하고 있다.

부모를 밀고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가정 구조를 보면 쉽게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우리 가정은 가장이 생활 여건의 조성을 책임 지고, 주부가 가정 살림을 맡으며, 자녀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는 인륜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녀가 나면서부터 탁아소에 맡겨져 김일성을 아버지로 여기며 성장할 뿐만 아니라, 가족은 각자의 작업장에 나가서 노동한 댓가로 생활하므로, 남자는 가장상을 상실하고 여자는 주부상을 상실하였으며, 자녀는 자녀상을 상실한 채 단순한 가족 합숙소 같은 상태로 변질되었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가족 관계의 인륜적 유대가 상실되었으므로, 부모를 밀고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오히려 부모를 고발하면 제2급 영웅시되고, 부모를 살해하면 제1급 영웅시되는 것이 그들의 인륜 관계다. 상기한 공산 집단의 본질은 결코 변치 않는 그들의 행위 규범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전쟁의 원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민족 자주 역량의 부족이었다. 이때문에 우리는 비싼 희생을 치르었지만, 공산 집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말하자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교훈과 안목을 얻었다고나 할
까? 또한 민족의 자주 역량을 키우는 데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조국을 아
낄 수 있는 사상적 근거가 재정립되어야 함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민족 주체 사상이 바로 서야 스스로 우뚝 서서, 외부의 어떤 바람도 견디
어 내며 슬기롭고도 당당히 살게 될 것이 아닌가?

쓰라린 戰爭의 핏자국

全 榮 圭

(동대교회 담임목사)

序

우리 민족사에 있어 가장 커다란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은 누구에게나 처절한 체험을 안겨 주었겠지만 나처럼 전쟁의 참혹성을 뼈아프게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전쟁을 전후한 7년 동안에 나는 네 가지의 군복을 바꿔 입었으며, 다섯 번의 탈출 시도로 세 차례에 걸쳐 포로 신세가 되었다가 결국 반공 포로가 되어 석방되었다.

무수한 死線을 넘었고 동료들의 죽음을 끊임없이 겪으며 극한 역경을 지나 오늘의 나로 남아 있게 된 것은, 문자 그대로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순리적으로 따져 본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며 지금의 삶은 덤으로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내 능력이 결코 아닌 타의,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적의 여생을 사는 것이므로 말할 수 없는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 목회자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게 해주었다. 나는 내가 겪은 폭풍우, 그 무섭던 소용돌이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안다.

내 과거가 어둡이었으므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곤궁하고 비참한 현실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명을 깨달았으며, 마치 예수께서 죄인 가운데 오셔서 함께 생활하셨듯이 나 역시 그들 속에서 살아가며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불

블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인가 써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스스로 추궁해 왔다. 오늘이 세대가 전쟁의 참혹함을 잊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기주의와 안일함에 묻혀 우리 민족의 수난을 재고 하지 않으려 하는 젊은이들에게 전쟁의 실상과 공산 집단의 만행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느껴 왔다. 그리고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긴 세월을 인간 상실의 현장에 있던, 추한 물골을 노출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였나 보다. 그런 망설임이 나로 하여금 이제야 붓을 잡게 하였다.

1

8·15 해방 전 어머니만 서울에 남겨 놓은 채 백부를 따라 만주로 건너온 우리 가족은 아버지(당시 조재 공사 간부로 계셨다.) 덕에 관사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광복의 날과 함께 우리에게는 비극과 시련이 닥쳐 왔다.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합세하여 친일파의 씨를 없애려고 거리를 휩쓸게 되자, 우리 가족은 광복의 기쁨보다는 목숨을 보존할 방책이 문제였다. 그 당시 아버지는 인근에 인심을 얻은 편이었는데 아버지의 신세를 져 왔던 위씨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은 위씨 동생과 사촌형이 살던 집으로 피신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숨어 사는 생활에는 한도가 있기 마련이다. 불안과 두려움도 심했지만 살림도 거덜이 났으며, 조선인에 대한 학살과 탄압의 위협이 그치지 않아 우리는 귀국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1946년 10월, 드디어 봉천행 열차를 타고 고향에 대한 향수와 꿈에 젖어 있던 우리에게 운명의 첫번째 고비가 가로놓여 있었다. 국부군과 중공군의 전쟁으로 열차는 운행이 정지되었고, 우리는 역전에서 조금 지난 곳에 임시 수용소로 변해 버린 학교 건물로 발을 옮겨야 했던 것이다. 수용소는 학교 건물 중 본관 전체를 쓰고 있었는데 수백 명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눈만 뜨면 꺼억꺼억 울어대는 어린애들, 아무데나 내뺨고 쏟아 붓는 오물과 욕설, 더러움과 무질서로 혼돈된 생활이 우리의 정신까지도 침식시

키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별수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열 다섯의 나이로 장사를 시작했다. 4대 득자로 귀하다면 귀하게 자라 온 나는, 어린애의 허물을 벗으며 엿판을 가슴에 안고 봉천을 뛰어다녔다.

“따미탕(大米糖)! 따미타앙!”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내 목청은 뜨겁게 울었다. 어찌 보면 그건 따미탕(쌀엿)에다 인생의 첫 고리를 걸고 새로운 개척지로 삶을 휘물고 가는 절규였다.

1947년 초 나는 따미탕 장사에서 손을 떼고 수용소 북서쪽에 있는 삼성병원 조수로 들어갔다. 원장인 유 박사는 한국인이었고 나는 그가 좋아졌다. 그러나, 병원 일과 의료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어서 빨리 마포 강변으로 가야 했다. 아현동 산동네에 그물을 치며 참새를 잡고만 싶었다.

내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사태는 더욱 불리해지고 있었다. 곳곳에서 중국 공산군이 정부군과 맞부딪쳐 피비린내가 더해 가고 있는 실정에 앞뒤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공산당의 우세는 드러난 현실이었다. 그 곳에 있던 우리 한국인들은 어찌하든지 압록강을 넘어야만 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길은 멀고 막혀 있었다. 오직 한 방법, 하늘을 택할 수 있었지만 군용 비행기라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돌아가는 것은 아닌 값비싼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그저 발을 구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유 박사 가족도 군용 비행기를 탔다. 웬지 모를 분노와 억울함을 안고 수용소로 돌아왔다. 혼란과 불안의 와중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정부군 가운데서도 가장 유능하고 덕망 있는 장군이 만주 행정 최고 책임자로 부임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진성(陳誠)장군, 만주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그의 부임을 환영하였다. 나 역시 소문과 기대대로 부패한 군인들의 숙청과 개혁 조치를 바랐다. 그에 앞서 나에게는 국부군에 대한 신뢰가 마음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무엇을 해야 할까? 장사를 다시 시작할까? 그러나, 내가 최종적으로 택한 것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또한 머지않아 ‘공산당 천지’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만류하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나는 국부군이 될 것을 결심했다. 젊은 나에게 있어 직접적인 생존과 함께 압록강, 두만강을 넘을 수 있는 최후의 방책으로 軍門은 가장 훌륭한 방패막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1948년 봄, 나는 국부군에 입대했다. 나는 장 개석 총통이 단장으로 있는 중앙 훈련단 소속이 되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훈련단 내에서도 동북분단 특별 훈련반에 속해 있었다. 광복군 계열 自衛軍은 한국인 부대였는데 그 중 우수한 인재를 국부군 사관 후보생 과정으로 편입시켰던 것이고 1948년 2월, 마침 인원이 모자라 보충 형식으로 충원 모집이 있었다. 그런 길로 해서 나는 후보생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교관들은 중국인과 조선인이 교대로 들어왔는데 중국인 교관들은 질이 좋지 않았다. 자신들이 할당받은 교과 내용은 젖혀 놓고 기껏 자신들이 수료한 蘇州의 육군 종합 학교나 대만의 후보생 과정을 들추어내면서 흥분하여 섹씩대기 일쑤였다. 부족한 지식과 뚜렷한 교육 효과도 없는 열변으로 강인한 체력, 공산당 케털 등을 외쳐대어 우리에게 의무감은 주었으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훈련의 중요성은 망각하고 있는 듯했다.

1948년 9월 초순, 전황은 악화 일로였다. 최악의 사태가 다가왔다. 푸순(阜新) 지역 단위 부대로 배속되어 훈련소에서 갓나온 신병들을 거느리게 되자, 나는 그들을 들들 볶았다. 그건 내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고 부족한 훈련 결과에 대한 재교육 방침이기도 했다.

사기, 군율, 명령 복종, 기초부터 다시 훈련시킬 셈이었다.

9월 중순, 지난해의 열세를 만회하려는 듯 공산군은 각처에서 준동하고 기습하여 대대적인 섬멸 작전을 전개하였다. 공산군이 만주 국민당 보급기지인 진조우(錦州)를 공격하자 우리가 최상의 지휘관으로 흠모하던 범한걸(范漢傑) 장군의 대병력이 이를 대적하여 첫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우리

는 장군의 명성을 알기에 지속적인 승리를 믿었다.

나는 소대장으로서 누차 그 점을 강조하였고 만주에 주둔한 국부군의 생명선이 진조우에 있는 것이니, 우리는 마지막 살점까지 내던질 작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우리는 심양 서북방 5km 지점의 구릉 지대로 투입되었다. 나는 소대원들을 작전 지시에 따라 구릉의 허리춤을 빙 둘러 판, 참호 속에 대기시키고 명령만을 기다렸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참호 속에서 버텼다. 그들은 공격해 오지 않았고, 우리는 지쳐서 시들기 시작했다. 일단 후진 명령이 내리자 우리는 뒷산을 넘어 마을 하나를 차지하고는 거기 주둔했다. 다음 명령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의 기본 전술은 방어에 있었기 때문에 적이 내습해야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우리는 포로가 되었다. 그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잠에서 깨어나니 덮에 걸려 있었다.’ 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이 대대 병력 전원이 꼼짝없이 오랏줄을 받은 것이다.

훈련병 시절에 같은 훈련반에 있던 최동철과 나는 포로가 되어 재회했다. 마룻방에서 탈출을 꿈꾸어 최동철은 이미 감시병 수까지 헤아리고 있었다. 함께 탈주에 성공했으나 중간에 나는 다시 혼자여야 했다.

선리툰(新立屯)에서 잉코우(營口)까지 수백 리의 길을 도주하면서 공산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중국옷을 도적질해야 했던 씩쓰레한 추억.

톈진(天津)에 도착하여 나는 소대장으로 재임명되었고, 중앙 훈련단 일급 후보생에다 불사조라는 딱지가 붙어서 침병 분대 바로 뒤 선봉 소대로 붙어 행군하고 있었던 때 사태가 벌어졌다.

총성이 불시에 터졌으며 아군은 이 불시의 기습으로 깨닫지 못하고 당했다.

진저리나는 두 번째의 중공군 포로, 포로라는 신세도 신세였지만 죽어도 중공군 포로로 죽길 싫었다.

그 모진 ‘학습’이라는 미명의 고문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지독한 고통이 엄습하고 있었지만, 정신만은 최악의 상황 아래서도 전등처럼 또

렸했다. 얼르고 뺨 치며 ‘회유’를 강요책 대는 저들이었으나 6호 동지였던 우리 4명은 결코 회유되지 않을 것을, 손목을 따고 피를 내어 의형제로 서약했다.

드디어 탈출에 성공한 건 눈이 많이 오던 밤이었다. 중공군은 대승에 축하주를 마시고 그네들이 흐늘거리는 틈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기회였다, 은회색으로 빛나는 벌판 한복판에 우리는 미아처럼 그러나 자유롭게 서 있었다. 그 자유를 잠시 만끽하며 안도의 숨을 몰아쉬던 시골집 주인의 밑고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유를 누렸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쯤 어디에 있었을까?

②

세 번째 중공군 포로가 되었다. 포로라고는 해도 정식으로 중공군이 되어서 6사단 14연대에 배속받아 내가 그토록 다부지게 항거했던 그네들 중공군의 내장의 끝—항문을 치료해 주는 연대 병력의 항문 담당 위생병이 된 것이다. 저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엉덩이를 슬슬 어루만지며 핀셋과 약솜으로 공포를 치료하고 의무 군관들의 지칭구나 먹으며 목숨을 구걸하다니 이전 너무 기구하기 짝이 없었다.

그 날 체포되어 몸서리쳐지는 악몽과도 같은 고문을 맞본 후 네 명 중 한 명인 쓰마밍은 일 주일 만에 죽어 나갔고, 우린 죽음의 어두운 문 앞까지 오르내리며 남은 고통을 치러야 했다. 탈출 동지 중 가장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였던 백기수는 그 후에도 재탈출의 의사를 보였었다. 그것은 그만이 향유할 수 있는 정신적 승리였다. 얼마 후 그는 도합 다섯 번째의 탈출을 시도하였고 성공했다.

의무병 일기

[1949년 1월 7일]

온종일 눈이 뿌린다.

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이면 병사들은 내무반에 모여 정치 훈련을 받는다. 무릎이 저리도록 꼼짝않고 앉아서 공산당 우상들의 행적을 낱낱이 외어야 하고, 지정되고 부과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짜내며 골머리를 썩혀야 한다.

그 대신 나는 한가롭다.

영창에서 일 주일을 살다 온 이후로 조금은 게을러지고 느긋해져서 임무에 불충실하고 있었다.

[1949년 2월 7일]

나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탈출에의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나는 시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탈출의 욕구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허물어 지거나 혹은 적어도 악화되리라고 느껴진다.

[1949년 2월 15일]

눈이 내렸다. 아침부터 희끄무레하더니 바람이 자고 포근한 기운이 감돌면서 눈발이 내비쳤다.

드디어 저녁 무렵에는 제법 실박한 눈송이들이 꽃잎마냥 떨어지며 대지를 하얗게 뒤덮었다.

그 정밀한 고요 속에서 최동철이 병동을 나갔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불치의 병으로 낙인 찍혀 군복을 벗기고 내쫓겼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쯤 폭소를 터뜨리며 천상에서 내리퍼붓는 하얀 비늘을 축복으로 맞으며 산길을 걸고 있을 것이다.

[1949년 2월 27일]

여드레째 되는 날이다. 힘이 없다.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더 멎어지게 환자 행세를 할까 하고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니까 거지배, 동냥꾼, 미친 사람들의 모습만 떠오르며 그들과 동류가 되어 버린 듯싶고, 혼자 중얼거릴 수도 없어 병어리처럼 다물고 지냈던 터라 정말로 입이 봉쇄져 버리는 게 아닌가 두려움증도 났다.

그래서 가만히 입을 벌리고는 ‘어!’ 하고 짧게 외치면 방안이 나직이

공명되면서 종 소리의 여운처럼 맴돌다 꺼지곤 하였다.

손톱을 물어뜯었더니 성한 데가 없다. 피가 뻘히고 얼얼한 것이 화끈화끈하다.

1949년 봄을, 나는 시커먼 누비이불 하나를 뒤집어쓰고 영창 바다에서 보내야 했다. 결국 미친 행세로 최동철의 전례가 되어 보고자 했던 내 사기극은 실패하여 영창에 갇히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영창에서 나온 지 이십여 일쯤 되어 반 년 동안의 그 곳 중공군 위생병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것은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부대 이동이 있게 된 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떤 역사 앞에 도착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부대 이동이 있었는지 트럭이 여러 대 보이고 구역구역 누비옷들이 내리는 중이었다.

역 이름이 적힌 간판을 떼어 버려서 거기만 표백된 듯 뽀얗게 보이고 어디를 둘러봐도 장소를 알 수 있는 팻말이나 표지는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소매 속에 두 손을 깊이 넣은 채 이쪽을 기웃거리며 목을 숨기고 지나갔다.

도시 전체는 회색 물감을 뿌린 듯 칙울하게 젖어 있었다. 우리는 광장에 도달했다.

“지금부터 작전 명령 제2 단계를 실시한다. 거들 말하거니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완전 함구하라. 위반시에는 총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화차에 승차할 터인데 밖을 내다봐서는 안 된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 볼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다. 우리는 훈령에 따라서 과업 수행의 한 분자로서 전선에 투입될 것이다. 이 막중한 임무에 동무들은 이미 생명과 과정을 내놓은만큼 각자 목적을 분명히 해서 명령에 복종하기 바란다.”

지휘자 격인 인솔 군관이 외치고 있었다. 총살이니, 막중하다느니 하는 극단적인 용어에 놀려 바짝 긴장하면서 앞 사람 뒤쪽지만 노려보며 역 구

내로 진입했다. 그리고 기적 소리에 허둥지둥 탑승했다.

외부를 볼 수 없게 그나마의 창마저 밀폐해 버린 잠방 열차 안에서는 역한 냄새가 풍겼다. 드럼통을 옆으로 잘라 판자를 얹어 놓은 변기통이 보였다. 인솔 군관이 되는 대로 우리로 걸어차며 엄포를 놓았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완전 함구! 완전 함구! 위반할 시는 즉각 총살이다. 급한 용무는 인솔 군관의 지시에 따르며 만일 임의로 행동하는 자는 역시 군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그들은 아예 울부짖고 있었다.

③

열차는 한없이 달렸다. 얼마를 달렸을까? 열차가 멎었다. 그 곳은 신의주였다.

조장들이 들어와 옷을 바닥에 뿌리고 있었고 모오젤이 외쳤다.

“동무들은 이 순간부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제 2군단 1사단 14연대 소속이다. 이제 똑똑히 기억해라. 너희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군인이 아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 이제부터 동무들의 목숨과 투쟁 정신은 인민의 앞날을 위해서 바쳐질 것이다. 이 점 명심하고 앞으로의 행동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는 계속해서 주의 사항을 외치고 있었다. 명령조의 뽀내는 듯한 어투를 띤 그의 목청에서 나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음험하게 진행되는 계획을 감지하고 있었다.

중공군에서 지급받은 장총을 멘 인민 군복 차림으로 우리는 붉은 벽돌집에서 신의주 시가지 남쪽에 위치한 넓은 운동장이 있는 학교 건물로 옮겼다. 이 신의주 공업 학교는 당시 내가 속한 14연대 본부로 쓰이고 있었고, 이 곳에 서우리는 중공군에서 소련계 장총을 멘 인민군으로 바뀌어

소련식 군사 훈련——발을 앞으로 쪽쪽 뺨으며 양손을 앞으로 척척 올리는 소련식 보행 연습에서 총검술, 전술 훈련 등을 받으며 변모를 거듭했다.

“동무의 모든 과오에 다하여 자아 비판하라.”

나는 또 한 번의 탈출 시도 끝에 붙잡혀 두개골이 텅 비인 듯한 상태에 이르도록 얻어맞은 처참한 물골과 영원히 웃지 못할 것 같은 턱을 움직이며 털어내기 시작했다.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 숨길 것도 없었다.

“이제까지의 발언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다. 그 이유는?”

“본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하여, 탈출은 죽음을 예상한 행위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마당에 쓰고 달고 할 게 없습니다.”

“알았다. 자 시작해라.”

체적을 든 사나이가 말했다. 사다리로 병사 하나가 올라갔다. 천장 한 가운데서 로프가 내려오고 그 끝이 내 머리 위에서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창공은 높은 천정으로 가려 보이지 않고 가축들의 음흉한 웃음 소리가 떠들 것이다. 그러면 내 입김은 추방당하는 자의 조용한 한숨처럼 꺼져 버릴 것이고, 곧 이어 내 날카로운 외침만이 로프 끝에 남아 유언처럼 떠들 것이다.

사나이가 코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로프 끝 동그라미를 목에 걸었다.

“전영규, 최후의 진술을 하라.”

“없습니다.”

“동무는 지금 목이 매일 것이다. 그래도 없는가?”

“없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때 체적을 든 군관이,

“야! 이 득종 살무사 같은 새끼야!”

하고 외치며 찢쩍 뛰더니 그 때까지 조용하던 자신의 침묵을 부셔 버릴 듯 채적으로 제 팔뚝을 내리쳤다. 주위의 사나이들은 꿈틀 하며 일어서려다 채적의 시퍼런 서슬에 어쩔 줄을 모르고 도로 주저앉았다.

“내 만주 벌판에서 여기까지 이십 년 동안 날고 뛰어도 저 독사 반동놈의 새끼는 보다보다 처음이다. 이 보라 김 동무! 밧줄 벗겨!”

그는 구두 뒷굽에 강한 힘을 넣어 뚜벅뚜벅 다가왔다.

그러더니 채적으로 내 어깨를 힘껏 내리쳤다.

“이런 놈은 끝까지 세뇌의 가치가 있는 놈이야. 동무! 우리 북반부 인민 공화국 정부는 동무와 같이 죽음도 불사하는 용감한 군인을 갈망한다.”

그는 다시 한 번 내리친 후 뻗뻗하고 위력 있는 걸음걸이로 직각으로 몸을 틀어 문을 빠져나갔다.

1949년 겨울은 꽤 포근한 날이 계속되었다. 우리는 그 때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압록강을 건너 이후로 정확한 지명을 알려 주진 않았으나 짐작으로 다들 때려맞출 수가 있었다.

당도한 곳은 남천 근방 금교였다. 머지 않아 한강변에 닿으리라는 가능성도 있어 보였으나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칠부 능선 꼭대기에 정착하여 우리는 이 겨울을 이 곳에 갇힌 채 지내야 한다는 절망의 무게에 눌린 상태로 즉시 작업에 들어가야 했다.

감독관들은 임시 정착지라고 말했지만 호의 깊이로 보나 완벽하게 축조하라는 호통 소리로 미루어서 오랫동안 머물 것이 분명했다.

훈련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우리는 실탄 네 발씩을 장전한 탄알집을 허리춤에 꿰어 차고, 손에는 총검을 들고 멸악 산맥을 절렀다. 뼈기에 기진맥진할 정도였다. 험준한 산악에서 연방 눈더미에 미끄러지며 추위와 허기를 어금니로 짓이겨야 했는데, 만일 한 울의 흐트러짐이라도 있을 시엔 총알이 박힌다고 엄포를 쏘아대며 군관들은 무지막지하게 걸어왔다. 그러던

짜르르 미끄러져 저 아래 그루터기에 내동댕이쳐져 어딘가 한 꺼풀 벗겨 지거나 으깨어지고 말았으며, 그게 또 다 의무반의 몫이어서 낮에는 훈련, 밤에는 환자 진료로 우리는 녹초가 되었다.

훈련은 계속되었다. 새로운 내용도 별로 없이 부지런히 찌르고 빼는 것이며 날고 뛰는 것이었다.

점차 강한 심증이 굳어지게 되었던 것은, 저들 고급 군관들이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행동이며 긴장감과 점점 더해지는 훈련 강도들로 보아 모종의 음흉한 흉계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6월 중순쯤 되어 자주 비가 내렸다. 그것도 흠뻑리는 정도가 아니라 장대 같은 빗줄기가 보통이어서, 산 아래로 깊숙이 꽂히는 억수 같은 비는 산 전체를 싸안으며 뭉개 버릴 듯 굉음을 터뜨렸다. 그 속에서 야간 행군 훈련이 시작되었다.

치달리는 계곡물을 끼고 허리까지 닿는 갈대와 잠목을 헤치며 우리는 군가로 배를 불렀다. 피곤함과 어두움만이 전부인 듯했고 빛이라고는 반딧불뿐이었다.

6월 22일 밤, 분명히 12시가 넘어서였다. 내가 보초를 서기 위해서 교대하려는 순간 이동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막사를 휘둘러 명령을 전달했다.

“5분 이내에 짐을 챙기고 막사 앞으로 집합하라.”

우리는 비에 흠뻑 젖은 옷을 다시 입으며 일대 소란을 피웠다. 밖은 비가 멎어 있었다.

뜻하지 않은 한밤의 이동 명령에 우리는 홀린 듯 웅성대었으나, 지휘관은 의외로 경직된 자세로 무언가 결단을 내린 뒤의 심각한 포즈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각자 짐만 꾸러라! 막사 내에 시설물들은 그냥 두고 간다. 시간이 촉박하다. 빨리 서둘러라!”

하급 군관들이 악을 썼다. 우리는 밤새 걷고 또 걸었으며, 그 다음날도 하루 온종일을 걸었다. 방향만 남쪽인 것을 알 뿐, 어디로 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압록강을 건너오기 이전 하달되었던 함구 명령 이후 가장 강력한 완전 침묵의 지시가 팍팍 찌르며 대드는 통에 우리는 제 그림자만 밟으며 걸어야 했다.

4

6월 24일 밤, 쏟아지는 빗속에서 우리의 긴 행군은 멎었다.

“목적지다. 완전 전투 태세로써 대기하라!”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빗속에 선 채 내려떨어진 이 극비의 작전 명령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완전 무장한 채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 앉은 자세 그대로 밤을 지냈다.

쏟아지는 비,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공포, 우리들 앞에 곧바로 다가선 돌발적인 사태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잠을 자지 못했다.

비 때문일까? 그 날의 새벽은 펑 더디게 오고 있었다. 그 때였다.

짱 우르릉 짱!

지척을 흔드는 너무나도 큰 포성과 이를 뒤따르는 총성, 사방에서 일제히 터지는 화광으로 일순간 사방은 대낮같이 환했다.

6월 25일 새벽 4시는 이렇게 왔다.

“진격! 남조선 해방을 위하여 총공격한다.”

정치 지도원 동무가 외쳤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돌격 명령을 받았고, 머물렀던 곳이 임진강 상류 九化里였음을 알게 된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나는 이른바 해방 점령군으로서 전선에 투입된 것이다.

38선을 넘어온 지 나흘째 되는 오후 나는 또 다시 도주하였었는데 거기까지의 경과는 대충 이러하다.

내가 속한 1사단은 임진강 중류 高浪浦 정면에서 국군 1사단과 맞붙어 일대 격전을 벌였는데 인민군의 막강한 화력에 전선은 쉽게 허물어지고 우리는 삼시간에 강 남쪽을 차지하게 되었다.

국군은 야포를 주공 화력으로 하여 대적해 왔으나 탱크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육탄 공격도 감행되었다.

살덩이로 쇠뿔치를 막아 내는 생명의 연소, 탱크는 잔인한 무한 채도로서 그 연소의 잔해마저 짓밟아 버렸으며, 奉日川에서 다시 부딪쳤지마는 방벽 없는 성이란 들판이나 마찬가지로 커다란 반격도 받지 않고 밀고 내려왔다.

사흘 후 포구는 서울로 진격해 들어왔다. 우리는 영천에 이르러 서대문 형무소에 주둔하였다. 죄수는 한 명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때를 기다렸다.

다음날 저녁 한강 도하 작전이 개시되었다. 4개 사단 병력 및 105전차 사단의 집중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1사단도 가세하였다. 국군의 피해는 막대하였다.

그러나, 인민군의 피해 역시 상당수에 이르러 우리 의무대는 정신 없이 움직여야 했다.

나는 위생병으로서 사상자 운반 요원이었다. 기회를 노렸다.

형무소 뒤가 외삼촌 집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나는 슬그머니 위생병 가방을 메고 총 없이 빠져나왔다. 정문 보초병은 가방을 힐끗 보더니 ‘수고하우다.’ 하고 말했다. 나는 가슴이 쿵쿵 뛰고 있는 것을 느끼며 쟈 걸음으로 독립문까지 왔다. 조금 더 가면 로타리가 있다.

마포 쪽으로 빠지다 골레방 다리 입구에만 닿으면 외삼촌 댁은 코앞이다. 가슴이 더 세게 쿵쿵 울렸다. 골레방 다리 쪽으로 커어브를 돌았다. 그 때 인민군 경무원들이 나를 세웠다.

“동무, 어디 가오?”

“.....”

“소속 부대가 어디오?”

“1사단 14연대입니다.”

“외출증 있으?”

“.....”

“이 동무, 왜 당황하는 거야? 외출증 있느냐고 묻지 않소?”

“급한 환자가 생겼는데 약이 떨어졌습니다. 약방에 파는 데가 있으면 구할려고 지금 마약 나오는 길입니다.”

“상관 지시요?”

“.....”

“분명히 말하라우!”

“지시는 아니고.....”

“앞장서라!”

따발총으로 나를 밀었다. 나는 단단히 비틀린 채 연대 본부로 끌려왔다. 경무원이 전말을 보고했다. 연대장은 매듭 걸어쳤다.

“총살!”

“아닙니다. 어머니가 보구 싶었는데..... 객지 생활을 오래 해서 보구 싶었는데.....”

“입 닥쳐라!”

“말씀드리면 허락이 안 내릴 것 같아 그랬습니다.”

“끌고 가!”

“동무 나와!”

정치 지도원이 나를 낚아챘다. 그 때 콧 상위가 나타나서 딱 부러진 자세로 연대장 앞에 섰다.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책임을 지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반동도 보통 반동이 아니오. 지금이 무슨 시건줄 아오? 전시아, 전시!”

“알고 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콧 동무!”

그러나, 콧 상위는 끈덕지게 들러붙었다. 언성이 점점 높아졌다. 나는

차라리 눈을 감았다. 가슴은 여전히 쿵랑거렸다.

연대장이 나가자 꺾 상위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이빨을 드러내며 내 머리통을 후려쳤다.

“너는 도대체가 어드러케 왜 먹은 놈이가? 귀엽게 봐 주면서러 오냐 오냐 했드이 이리케 골탕 맥일 수도 있는 거이가? 말 좀 해 보라우!”

“죄송합니다.”

“기탄 소리 꺼내지도 말아 야! 지금 심정 같으문 너는 벌써 가루가 돼서. 곱게 봐 주문 은혜는 못 갚더라도 피해 주지 말아야디. 니만 살라구 날뛰멘 나는 어드러케 되네?”

“.....”

“어휴, 복장 터져서 말도 안 나오누만...... 좋아, 내레 긴말 앓갔어. 목숨 아까운 줄이나 알구 똑바로 행동하라우!”

그는 목청을 돋우었다. 사실 그가 그렇게 화를 내며 소리소리 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문제는 나 하나로 끝날 게 아닌 것이다. 수도 서울은 이미 점령된 데다 곳곳에 인공기와 초상화를 걸며 기세 좋게 밀어 붙이는 상황 속에서, 나 같은 존재야 낙엽 바스라지듯 죽어 없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밀의 부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꺾 상위 역시 그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었다.

내 의도는 분명히 탈출이었는데 압송된 직후 내 죄목에 대한 응징은 연대장의 일언지하에 총살로 결정되었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한 꺾 상위의 절절한 해명과 간곡한 탄원에 의하여 근무 이탈에 의한 영창행 정도로 끝날 수 있었다.

물론 이렇게 불행중 다행한 결과를 가져온 데는,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 왔다면가 곱게 봐 주었다면가 하는 그와 나 사이에 계급과 이념을 떠난 유대도 개입되어 있지마는, 그거야 동일한 임무를 지닌 상관과 부하 사이에 어디나 있을 수 있는 친분 정도지 이렇게 생사를 다투는 전장에서는 책임 문제가 크게 얽혀 있는 것이다.

더우기 전쟁에서의 그 총탄 세례와 무자비한 살육 자체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낱알의 개성이나 인간을 철값에 도살할 수 있다는 영똥한 전쟁 생리를 감안할 때, 그와 나의 목숨이란 경각에 달려 있는 것이었으며 어쨌든 나는 16호실 감방에 수감되었다.

감방에서 밥이 되자 더욱 부산한 움직임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포성은 더욱 크게 들려오고, 주둔군은 16호실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며 한강도 하 임박을 외치고 있었다.

그런 한참 후 주위가 고요해지자 나는 다시 새로운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그들단이 빠져나간 후 나만 남겨진다면, 잔류군의 손에 사살되어 버리거나 사태가 역전되어 국군이 진입할 경우 나는 변명할 여지 없이 처형될 것이다.

내가 겪어 온 어떠한 상황보다도 위급한 게 분명하다.

나는 출입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천정에서 횃가루가 떨어져 하얗게 깔렸다.

시찰구가 보였다. 나는 그리로 목을 내밀고 소리쳤다.

“아무도 없오?”

거의 절규에 가까운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아무도 없오?”

아무 대꾸가 없자 더욱 조바심이 났다.

“거기 간나 새끼들 없냐?”

더 진한 욕설을 퍼부어야 할 것만 같다.

“야 이 종간나 새끼들아, 내 소리 안 들리냐?”

“어떤 놈이냐?”

효력이 발생했다. 무겁게 들려 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조용히 못 하겠어?”

시찰구 구멍으로 붉은 계급장이 보이고 성난 얼굴이 코앞에 있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들 어디 갔습니까?”

“알 것 없어! 넌 살아 남지 못해! 이제 한강을 넘으면 넌 끝장이야!”

“죽여 버린단 말입니까?”

“너 같은 놈은 총알도 아까와! 굶어 죽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군관 동무!”

그는 사라졌다. 출입문을 걸어챘다. 끄떡도 하지 않았다. 나는 주저앉았다. 울음이 복받쳐 올랐다. 공포를 떨쳐 버리기 위해서라도 끊어오르는 오열을 참아 내지 않고 실컷 울었다.

밤새 울어도 나의 눈물이 그칠 것 같지 않은, 참으로 무서운 오열과 공포가 온몸을 엄습하고 있었다.

나는 변기통으로 다가가 통 속에 머리를 처박았다. 역겨운 썩은 내가 코끝으로 집중되자 눈물이 비로소 가시었다.

변기통 뒷편에 놓여 있는 성서를 발견하고 집어 들었다. 천입자가 그어 놓은 무질서한 밑줄을 따라 읽어 내려 갔다.

죽음과 고통, 그가 줄을 그어 놓은 곳은 거의 그런 대목이었는데, 내가 그와 동질의 경험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성서의 주인공들과 그와 나를 한 공간에 놓고 볼 때, 눌린 자의 비애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였으며 그러한 비애 속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기도와 간구뿐이라는 것을 나는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 내가 놓여진 상황이 이런 완전 밀폐의 상황이라면, 벽을 뚫고 나가는 출애굽의 세계보다는 정신적 아픔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도 위에 서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나홀째되는 날이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나는 한순간 아득한 기분이 들었으나 고개를 떨군 채 따라나갔다.

“탑승하라.”

타지 않으려고 버티는 나를 그가 끌다시피 옆에 앉혔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알 것 없어?”

“알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알려 주면, 또 틈래?”

“그게 아닙니다. 목적지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입 닥쳐, 죽이진 않아.”

“그러면 북으로 가는 겁니까?”

“그래, 북으로 간다. 속이 풀리냐?”

그러나, 나는 출감 즉시 원대 부귀하여 팽 상위 밑에 들어갔고 내 임무는 예전과 똑같았다.

나흘 동안 굶주렸던 몸에 금방 원기가 돌아오진 않았지만, 서서히 회복을 기다릴 여유도 없이 우리는 진격해 나갔다. 7월 초, 수원을 거쳐 이천, 장호원, 충주를 거치는 동안 나는 점차 원상으로 회복되어 갔다.

출감하게 된 확실한 이유가 시종 궁금한 것이었으나, 팽 상위조차 불투명하기만 하였다.

다만 그의 말을 빌자면, 해방 전쟁의 중국적 결과는 명약관화하므로 너도 하나의 인민 전사로서 승리를 맛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면서 그는 껄껄 웃었다.

그러나, 한강 도하 작전중 연대장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나에게 군관 하나는, 팽 상위가 직권으로 나를 빼낸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전 동무, 이자 몸은 완쾌돼 가네?”

梨花嶺 고갯마루 위에서 팽 상위가 나를 불러 세웠다.

“죄송합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 다신 하지 말라우. 한 얘기 또 하구 또 하구 이럼 안 되는 거이야. 딱 잊구 말아야지. 기러구 지금은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할 때가 아니야. 부상자들이 늘기 시작하구 날씨가 점점 더워지문 워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동무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끼니 더욱 분발해야 돼 알가서?”

그 이후에 우리들 사이에는 곧 부산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대화가 오고 갔다.

인민군의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직 승전보뿐이었다. 이 전쟁의 당위성과 거창한 목적을 떠들어대며 모든 전과는 제일인자에게 바쳐야 한다

고 동의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혀 모순이 없는 논리로서 주장되었으며, 마치 그 논리를 입증이라도 하듯 1사단은 최선봉을 경상도 軍威에 집결시켜 대구를 향한 총공격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나는 이 전쟁의 경험을 모든 구석구석까지 기록할 수는 없다. 일개 위생병의 신분으로 그 전체적 양상과 역사적 의미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나는 기껏해야 돌격 후의 핏물과 살점과 허연 뼈를 보았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포성과 불꽃이 튀는 치열한 戰場에서 사유와 판단은 아예 비쳐질 수 없는 것이었으며, 뒤에서 겨누는 독전의 총부리 앞에서 나를 포함한 인민 전사들은 생명을 다 바치는 연약한 존재로서 텅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지는 어떠한가? 총구와 총구가 서로 겨누다는 물리적 적대현상의 이면 속에는 핏줄과 핏줄, 형과 아우, 친구와 친구가 세월과 운명과 이념을 경계선으로 한 채 서로를 과녁으로 하고 있었다는 몸서리쳐지는 파오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내가 거기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하늘과 귀신이 다 알고 있는 터에 어떻게 그 피흘림의 이야기를 너까릴 수 있단 말인가.

전쟁은 위대한 개인으로서 아무리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리고 음의 방향이건 양의 방향이건 어떠한 결과를 인간사에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마디로 '살육'에 집약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戰史와 승전보와 전공의 이력서여! 그것들은 전부 살육의 자술서이다. 하물며 한 핏줄임에랴.

8월 하순, 우리는 후퇴하기 시작했다.

중순 경만 해도 대구 북방 12 km 까지 육박하여 낙동강은 바로 코앞이라는 승리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은 상대성의 원칙과도 같이 우리를 몰아 붙였다.

국군 1사단과 미 1기갑사단의 화력과 공격력은 인민군을 압도하고 있었

다.

거기다 영국 27보병여단과 미 해병사단의 응원군은 서서히 우리를 죄어 들고 있었다. 미 24사단의 측면 공격은 가공할 정도여서 전황은 완전히 기울고 있었다.

해결 방법은 오직 후퇴뿐이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후퇴란 용어는 한번도 입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며, 전진만이 강요되었을 뿐 뒤돌아서서는 높은 독전의 방아쇠에 죽어 나갔다.

인민군 1사단을 위시한 수개 사단 병력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통제는 전달되지 않았으나, 들것 위의 시체와 산허리와 강바닥에 널부러진 시신은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죽은 자는 살아 있는 자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의용군이 징집되었고, 남한 각지의 청장년들이 인민의 이름으로 전선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도주하였다. 비정한 사살이 이에 뒤따랐다. 공포는 항상 양쪽에서 물려온다. 추악한 과거의 공포와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 전선에서는 저쪽의 총구와 이쪽의 독전 방아쇠가 노리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부동의 자세로 진지에 깊숙이 파묻혀 하늘만 쳐다보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생리가 되었다.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으니까.

팔공산에 깊이 참호를 파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번 것은 국군의 전면 공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수비와 공격의 용도를 완벽하게 겸비한 철옹성이어야 한다고 그들은 휘몰아 대고 있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우리 쪽의 선제 공격이 개시된 것이다.

9월 초, 1사단만이 아니라 3사단, 13사단의 전 병력과 100문의 포, 50여대의 전차가 광기를 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패배한 측의 최후의 발악이었으며 국군의 반격은 그 갑절의 힘으로 우리를 강타하였다.

천지개벽의 포성이 코앞에서 진동하고 있었고, 나는 피비린내나는 소용들이 속에서 삶과 죽음 사이의 가느다란 틈바구니를 헤치며 목숨을 부지

하였다.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렸다. 호 속은 완전히 흙탕물의 진수렁이었고 빗줄기는 계속되었다.

우리는 물 속에 잠겨 버렸다.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초가을의 싸늘한 비바람이 물고온 추위와 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쓰러지는 자가 속출하였다.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하였다.

“일어나지 못해! 사격! 사격하란 말야!”

시뻘건 흙탕물로 뒤범벅이 된 지휘관들은 개머리판으로 머리통을 가부수며 공격을 독려했다.

튀어오르는 총탄, 퍽퍽 쓰러지는 해방의 용사들, 내가 부상자를 들것으로 싣고 의무대 막사에 운반한 후 다시 그 자리에 와 보니 또 한 병사가 누워 있었다.

발바닥을 허공으로 번쩍 들고서 한동안 부르르 떨더니 이내 물구덩이에 말없이 떨어졌다. 배에서 피가 뚝뚝 나왔다. 바로 옆에서 총알이 푹푹 꽂혔다.

그 때 다른 병사가 두 손만 번쩍 든 채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것은 항복의 자세였다.

“뭐하는 거야, 동무 손 내려!”

나는 그에게 고함을 쳤다. 그의 눈은 까뒹집혀 있었고 헤벌어진 입에서는 핏물이 흘러 나왔다.

“총을 집으란 말야!”

나는 악을 쓰며 흙탕물 속에서 그의 총을 집어 가슴팍에 짓쳐 눌렀다.

“부상, 부상당했으면 좋겠시요. 기림 후방으로 데레잡네까?”

“뭐야? 야! 정신차려!”

“팔뚝만 떨어져 나가문 좋겠시요. 팔이 없이두 난 살 수 있시요.”

그 때였다.

“이 새끼들아 뭐 하는 거야?”

군관이 권총을 들고 소리쳤다.

권총이 다가왔다. 병사는 팔을 내려놓지 않았다.

나는 위기를 느꼈으나 권총은 쉽사리 그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총 버리는 놈은 죽인다. 뒤로 물러서도 안 돼. 계속 갈져!”

권총은 악을 쓰면서 참호 속을 휘저었다.

9월 중순, 퇴각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는 꼬박 일주야를 물러났다.

힘준한 소백 산맥을 밀자락부터 기어 올라 산정에 이르면, 다시 쫓지 빠지듯 계곡의 밀바닥으로 내닫는 처연한 패잔의 무리였다. 나는 또 다시 망설였다. 탈출할 구멍은 있었다. 바위 밑, 수풀 속, 벼락같이 치달아 흐르는 급류 속에서 나는 자유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러나, 전진의 양상이 그러하듯이 후퇴 역시 한 두름의 말라 비틀어진 북어들마냥 감시와 총구 앞에 꿰어 있어서 나는 눈알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총혈된 채 거의 포기한 상태로 비참한 행군을 계속했다.

9월 2일 오후, 산 속은 일찍 저물기 시작해서 해가 한 발쯤 남았다 싶었는데 금새 거룩한 어두움에 휩싸였다.

우리는 능선을 버리고 계곡을 따라 걷고 있었다.

작은 폭포를 지나 오른쪽으로 절벽을 끼고 도니 넓은 바위가 보였는데 그 바위 밑에 패잔병이 숨어 있었다. 거기서 밤을 지낸 모양이었다.

킁킁하기도 하고 아늑한 게 하룻밤 묵어 가기는 안성맞춤이었다.

네 명은 정신 없이 자고 있고 한 놈은 사타구니에 총을 끼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얼빠진 놈들 목숨 아까운 줄 모른다고 호되게 터진 후에 그들은 우리와 합류했다. 거기 김상철이 섞여 있었다. 만주에서 이동해 올 때 트럭 위에서 만난 놈이었다. 그는 1사단 다른 연대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후퇴중 백화산 기슭에서 낙오되었다고 말했다. 팔뚝이 문드러져 피가 엉겨 붙었고 허벅지에는 깊은 총상을 입었다. 나는 그를 부축하여 다시 협로로 접어들었다.

“팔공산에서 인민군 전체가 후퇴하는 것 같았어. 인젠 끝장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대로 걸지도 못하여 완전히 몸을 기대었다.

“나도 알고 있네. 15사단이 무너졌을 정도니까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최강의 부대였다는데 박살이 났으니 볼 장 다 본 거지. 어쨌든 자비를 만나서 반가워. 어때? 계속 걸을 수 있겠나? 약 좀 부탁할까?”

“괜찮아. 부상병이 나 하난가, 어디? 나랑 같이 패주하던 놈들도 다 팔다리가 성치 않는 놈들야.”

“그런데 어떻게 낙오를 했나? 떠라가기가 힘들었나 보지?”

“짜식을 그냥 내버려두고 가더구만. 지네들 목숨이 중했던 거지. 그러나 차라리 잘 된 거 같애.”

“잘 되다니? 총알 맞구, 낙오되구, 꼼짝없이 북쪽으로 가는 건데 무슨 얘기야?”

“전 동무, 자네를 다 알구 하는 애진데, 시치미 뻤지 마. 같이 튀는 거야.” 협로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물 소리가 들려 오더니 오른쪽으로 제 곡물이 하얗게 포말져 흘러가는 게 보였다.

높은 산봉우리들이 굽이쳐 내렸는데 우리는 산을 내려가는 중이었다.

그는 제곡물에 눈을 던지더니 나를 쳐다보았다. 물 속으로 튀어 보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급류의 속도로 보아 가능성은 희박했다. 고개를 지어 부정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가 이마 위에 손가락을 돌려 보였다. 그것은 연극을 꾸미자는 암시였다.

그리고 나서 어둠이 짙게 깔릴 때 우리 둘은 후미로 처지며 기회를 노렸다. 갈대가 무성한 사잇길에서 그는 텅굴었다.

“여봐, 최 동무! 나좀 도와줘!”

옆에 무리를 지어 가는 대열에 대고 내가 소리를 쳤다.

의무대 소속인 최가 달려왔다. 김상철은 더욱 거세게 버둥대었다.

앞선 패잔병들은 우두커니 바라보다 제 갈길을 쟁겼다,

“아까부터 배가 아프다고 생떼를 쓰길래 엄살피우지 말라구 내버려뒀더니 진짜로 아픈 모양이야. 소화제 없나?”

“이 판국에 어떤 놈이 소화제 넣고 다니겠네? 이보라우 동무, 어데가 어케 아픈기야?”

최는 배를 움켜쥐고 몸을 응승그린 김상철의 팔을 붙들었다. 김은 산이 떠나가라 하고 고통을 내질렀다.

대열의 쫓무니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때 나는 최의 등뒤에서 목을 졸랐다.

불의의 사태에 그는 허를 빼물고 거세게 몸부림쳤다. 김상철이 일어나 개머리판으로 최의 머리통을 힘껏 갈겼다. 최는 몸을 뒤집었다.

“뛰어!”

갈대숲을 헤치고 왼편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는 들쳐업다시피 김을 떠메고 등성이를 기어 올랐다. 그가 무겁다고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일념에 잡목과 덩굴과 바위를 움켜쥐며 한없이 거슬러올라갔다.

그러나, 가도 가도 산이 계속되었고 가을밤의 습습한 냉기 속에서 걸음은 자주 끊겼다. 달도 보이지 않았으며 행로는 지지부진했다.

칠혹 같은 어둠 속에 김은 내 등에 업힌 채 축 늘어져서 천근의 무게로 나를 눌렀다. 그는 꺼져 들고 있었다.

한참을 헤맨 뒤에야 송진 약간을 끊어 가지고 흙에다 개어서 상처에 덮었다. 그리고는 나뭇잎을 끊어모았다. 널따란 떡갈나무 잎이며, 잎사귀란 잎사귀는 죄다 훑어서 누울 자리를 마련했다.

무덤처럼 높이 쌓인 나뭇잎 속에서 김상철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 밤에 나는 별빛만 흘러내리는 까마득히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추위와 무서움 속에서 새벽은 좀체 눈을 뜨지 않았다.

동료의 위태로움을 느끼며 가냘픈 희망일망정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초조감이 엄습했다.

나는 다시 그를 들쳐업고 걸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어두움이 밀려 나가며 부연 안개가 산허리를 자욱히 감도는 걸 보면서 나는 그

를 업은 채로 풀숲에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앞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위기를 느끼고 움찔 뛰려는 순간 길이 미끄러져 뒹굴고 말았다.

그러자 삼시간에 눈높이로 들어찬 숲 사이로 총구가 튀어나왔다.

“손들어!”

“그 자리에 엎드려 뺨치라우?”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분별을 못한 채 엎드렸다.

여럿이 숲에서 훌쩍 뛰어나오더니 우리를 덮쳤다.

“오이! 우리 펜이구만, 일어나라우!”

그들은 십여 명이 넘었다.

연대 본부라고 하는데 참모장, 무전 통신병, 군관이 5, 6명 흐트러지지 않은 복장에 따발총을 메고 기꺼이 다가들었다.

“어케 된지요?”

나는 우리가 속한 연대와 부상당한 김상철 때문에 낙오되었다고 핑계를 대었다.

“잘 되었구만, 함께 잡세. 우리는 8사단 73독립연대 소속이야요.”

그들은 북쪽을 향해 가는 길이었고, 소백 산맥을 다 넘었으니 이제부터는 수월할 거라며 히죽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중간 지점에 박아 놓고 슬쩍슬쩍 총구를 보였는데, 앞쪽에 가는 사람 중 하나는 거의 빈사 지경인 듯 몸을 구기며 자꾸만 엎어졌다.

뒤쪽에 붙어가던 사내가 그를 걸어챘다.

“군관 동무, 이리케 가다간 모다 죽값음네다. 어쩔 수 없음네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리 용단을 내리시랴요.”

“벌써 며칠째네까? 이 새끼만 없었시문 더금쯤 38선에 다왔을 겁네다.

그리고 이진 개죽음이 절대로 아입니다. 이 자두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기보다 깨깎이 죽기를 바랄 거외다.”

그리고 군관의 손에서 넘어간 권총을 받아든 그 사내는 이윽고 결심한

듯 부상병의 가슴에 총구를 대었다. 낮은 총성이 들리고 짧은 모의는 치러졌다.

그 때 김상철이 억센 힘으로 내 팔뚝을 움켜쥐었다. 내 가슴도 쿵쾅대며 뛰고 있었다.

그의 손을 꼭 눌러 주었다. 차디찬 체온…….

“이 동무레 어디메 많이 아픈지요?”

부상병을 살해한 사나이가 다가왔다. 서서히 동이 터 오고 있었는데, 그도 역시 계급장이 없었으며 검뎡이 칠을 해서 눈만 반짝였다.

“아닙니다. 다리에 약간 상처가 있어서 걸기가 힘든 정돕니다.”

“피가 배어 있는 거이 상처가 큰 거 같은데 기래?”

“아닙니다. 싸매서 그렇지 별거 아닙니다.”

나는 재빠르게 대답하였지만 가슴은 덜컹거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흐흐, 용감히 싸우고 많이 죽였던 모양이구만. 동무는 이름이 뭐요?”

“전영규라고 합니다.”

“그래, 국방군 간나 새끼 몇 놈이나 죽였오?”

“…….”

“한 놈도 못 죽였오?”

“그걸 어디 세고 다닙니까?”

“이런, 자네가 죽인 놈이 멧 멩인지도 모른단 말입메? 사격 솜씨가 없구만. 느낄 수 있젠. 총알이 탁 백히는 거하구 안 백히는 거는 느낄 정도가 되야지 않갔어? 따캉 들어맞으문 방아쇠가 묵직하거든. 육박전도 해 봤갔지?”

“…….”

“기껏도 안 해 봤오? 해 봤이문서리 응큼 떠는 거 아니가? 흐흐, 폭 쪼르니 안 빠데서 평 찻디. 꺾덩이 아니갔어? 피꺼정 까맨 줄 알았드니마는 불더구만.”

그 때쯤이었다. 새벽 안개가 얇게 깔린 속에서 백사장이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강줄기의 회색 빛 물결이 은은히 내비치는 너머에 마을이 보였다.

그것은 내가 후퇴하면서 만난 최초의 평야 지대였다.

깊은 산 속만을 주야로 달려온 패주자들의 눈에, 그것은 불안한 노출 장소이면서도 숨이 터지는 벌판이어서 위험도 잇은 채 앞으로 나서며 강쪽을 바라보았다.

도합 16명의 무리, 나는 벨빵 끈을 당겨 보았다. 여기서 갈겨 버릴까? 총알은 충분하다. 깨끗이 해치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 해도 어쩌면 실패의 가능성도 포함한 것이었으며, 또 성공했다 해도 총성은 또 다른 패주자를 부를지도 모른다.

그 곳은 남한강 상류이었고 충주 근방이었던 것 같다.

이윽고 두 사내가 몸을 낮춰 주위를 살피더니 뛰어나갔다.

철벽거리는 물 소리가 들리고, 다리가 잠긴 그들의 모습이 보였고, 안전 신호가 왔다.

“한 놈씩 뛰어. 몸을 낮춰. 일단 건넌 다음엔 저기 저 미류나무 밑에 대기하라. 보이지?”

그들은 서둘러 안개를 밀치고 내달려서는 강물에 뛰어 들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뒤에 처졌다.

사나이들은 이미 반수 이상이 물 속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백사장 위에 있었다.

“빨리 오라.”

맨 뒤의 사나이가 우리 쪽에 손짓을 했다. 그런데 앞서 건너던 척후병이, “건너오지 말아. 물이 깊다.”

고 낮게 외쳤다.

군관이란 자도 후진 신호를 보였으나 앞서 건너던 병사들은 총을 높이 쳐든 채 서두르며 계속 전진하였다.

군관은 더 얇은 목으로 건너야 한다고 낮게 외쳤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드디어 12명 전원이 물 속에 들어가 도강을 시작했고, 나는 김을 업은 채 모래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아직 어둠자락이 늘어져 있어 서로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이른 미명. 은회색 빛 강 건너로 어렴풋이 자태를 보

이고 있는 산. 강을 건너 산 속으로 접어들게 되면, ‘아, 이제는 끝장이다.’ 하는 절망감이 김의 몸무게를 더욱 무겁게 했다.

“더 하고 있네? 날레 오라!”

군관이 돌아보았다.

그 때였다.

“엎드려!”

하는 소리와 함께 등에 엎혔던 김이 내 몸을 거칠게 밀치려 했더니, 마르르륵—— 마르르륵—— 귀청을 찢는 연발음의 총성. 따발총의 주인은 김이었다. 그러나, 이젠 또 무슨 일이나? 따발총 소리가 멎기가 바쁘게 연발 집중적으로 퍼붓는 기관총의 일제 사격이 있었다. 사태가 짐작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나는 갈대가 무성한 웅덩이 쪽으로 굴러 들어갔다. 불을 뿜는 기관총의 총격이 수분 동안 계속되었다. 총알은 한 베의 벌레들처럼 아우성치듯 모래사장을 후벼팠고, 그 때마다 뿌연 먼지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총격의 진원지는 오른쪽 산등성이었다. 우리 일행을 겨냥해 온 국군의 총격이 분명했다. 총구에서는 연방 불이 뿜고 있었고, 그 총구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도강중인 인민군이였다. 웅덩이는 총격의 목표 지점과 40m쯤 떨어져 있었지만 소나기로 퍼붓는 총알은 내 주변 여기저기에 퍽퍽 박히고 있었다. 가슴이 저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는 죽고 마는 것일까? 내 몸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쏟아지는 빗발 같은 총알들.

그러나, 이럴 수도 있는가? 웅덩이의 물과 갈대는 나를 충분히 감싸면서 전신을 편안하게 젖어 있도록 해 주었다.

이 총알만 피할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제발 총알이 나한테 맞지 않게 해 주소서.”

나는 기도했다. 총성이 멎었다. 수십 분 간의 총격,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일평생과도 같은 긴 시간이었다. 나는 한 마리 물고기같이 잠수한 상태에서 서서히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다.

내가 살아 있다니, 내가 죽지 않았다니, 이것은 기적이며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보살피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야. 울적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감격에 나는 물 속에서 두 손을 모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한동안 너무나도 평안한 안식에 젖어 있었다. 아침이 뿌연 안개 속에서 밝아오고 있었다.

“전원 사살이다.”

“확인했어?”

멀지 않은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왔다. 산등성이의 국군 들음이 분명했다. 다시 온몸이 굳어 오고 입 안에 경련이인다. 나는 황급히 갈대 숲 웅덩이 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드르르륵—— 드르르르륵——.

또 다시 숨 막히는 총성이 펄 가까운 어느 쪽을 향해 한 차례 가해지고 있었다. 그 총격은 내 등뒤에서, 어찌면 내 뒤통수를 향해 퍼부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그리고, 최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상을 마음속에서 찾았다. 어릴 때 교회에서 본 강대상의 십자가를 그려 보고 가시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들을 기억해 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지 않았던가!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저 국군이 이쪽으로 확인하려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한 간구였으나, 명주실보다도 더 가늘게 연결되어 있는 위급함에 처한 자의 애탄 몸부림이기도 했다.

발자국 소리는 사방에서 들려 오고 마음은 콩알만치 자꾸 오그라들고 있었다.

“확인 사격! 확인 사격!”

지휘관인 듯한 목소리에 이어 팡 팡 산발적인 총성이 코앞에서 들려 왔

다.

죽음과 대치한 시간은 참으로 길었다. 나는 더 이상 사고력과 감정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 내 몸의 작동은 멈추고 있는 듯했고, 살덩이만 남겨 있는 듯이 나는 긴 시간을 정신 없이 멀뚱멀뚱하게 그렇게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심한 갈증에서 내가 정신을 차린 것이, 선들바람이 갈대를 흔들고 가을의 태양이 기울기 시작하는 시각이었다. 새벽녘부터 지금까지 진종일 죽은 듯 물 속에 갇혀 있었고, 국군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드디어 산 것이다!

갈대를 헤치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백사장의 시체도, 김상철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도 조용한 것이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심스레 몸을 움직였다. 이곳 저곳에 통증이 온다.

살았구나! 드디어 나는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갈대숲에서, 그 처참한 살해의 현장에서, 나는 또 한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천행이었다. 그런데 살았다는 감격과 함께 내겐 극도의 피로와 막연한 불안함이 엄습했다.

비록 국군의 총탄 가운데서 살아 남기는 했지만 앞으로가 큰 문제였다.

나는 뜨거운 사막 한 복판에 오로지 혼자 서 있는 듯한 기분으로 응덩이에 잠긴 채 멀뚱거리고 있었다.

나는 인민군도 중공군도 되고 싶지 않았다. 아니, 결코 그들과 한 패가 되려는 생각조차 먹어 본 일이 없다. 타의로 몇 차례 바뀌 입은 군복이요, 소속이었으나, 나는 국군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었는가!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국군은 나를 믿어 줄 것인지 그것은 참으로 모호하기만 했다. 그들이 이를 깔고 있는 인민군인 나를 쉽사리 받아 줄까? 나는 불안했으며 그것은 역시 나로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었으며, 누구도 모르는 일이기도 했다.

허나 나는 결심이 섰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해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내 진심이었고 뜻이었다.

국군이 되자! 만일 그들이 나를 받아 주지 않는다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다. 여하간 나는 국군이 되어야 한다.

햇빛이 갈대숲을 헤치고 얼굴과 옷몸을 감싸고 있다. 나는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오른쪽 몸통을 말리고 몸을 뒤집어 왼쪽을 말리고 등도 말렸다. 한나절을 웅덩이에서 잠겨 있던 이 초라한 행색으로 귀순하기가 웬지 싫었다. 깨알만한 자존심이랄까, 예의랄까?

세 시쯤 된 것 같다. 일어나 마을을 향해 발길을 떼어 놓았다.

5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경계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에게 두 손을 번쩍 든 채 말했다.

“전 인민군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아래위를 훑어보았다.

“머리 모양새허구 옷차림이 분명한디 아니란 말이우?”

“정말입니다. 절대 빨갱이가 아닙니다. 장개석 軍입니다.”

“뭐이, 장개석이?”

나는 오십대의 농부를 붙잡고 늘어졌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목, 미류나무 뒤에서 한 시간 가량을 기다린 뒤에야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의 집에 들어가 주는 대로 밤 한 사발을 다 비우고서야 나는 얘기보따리를 풀었다. 그를 이해시켜 빠른 시간 내에 국군을 만날 수 있으려면 극명한 어조로 내 과거를 설명해야 했다.

그도 수궁이 가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저 건너 면장 집에 군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을량은 돼 있우?”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에 가득찬 결의를 본 그가 조금은 확신을 가진 것 같았다.

“난 당신 얘길 들었으니까 진짜 빨갱이가 아니란 걸 알지만 그 사람베들은 알 수 없수. 총으로 썩 죽여두 난 모르오.”

“그건 염려 마십시오. 길 안내만 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가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자수하는 사람 함부로 죽이진 않을 겁니다.”

그가 앞장섰다. 나는 이미 응덩이에 총을 버린 뒤였고, 민대가리만 아닌 데 크게 오해받을 인상은 아니었다. 그 때 당시 국군과 인민군은 머리로 구별하는 때였고, 이 민대가리는 인민군이란 낙인으로, 머리가 금방 자라지 못하듯이 나의 운명도 이 낙인이 있는 한 전장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1사단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 주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해쳤듯이 이 마을도 어느 부대인가 휩쓸고 지나간 것이 분명해서, 농부가 말해 주듯 깊은 증오에 차 있는 이상 내 안전은 완전한 투항의 순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그가 또 다시 중얼거렸다.

“내가 몹쓸 짓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우.”

“어르신네는 걱정 마세요. 저는 무사히 국군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베들이 하루 사람을 많이 죽여서 약이 바짝 올라 있을 틈도 보자마자 썩 버리문 어떤 디야. 내 암말도 앓을 테니 도루 도망가는 게 낫잖우?”

“얼른 가세요. 멀지 않죠?”

“아무래도 개운치 않은디. 아침나절에 죽어 자빠진 인민군 송장 치우구 인젠 항복시키려 가니 이거 원.”

“아니, 그럼 어르신네가 그 시체들을 치웠단 말입니까? 백사장에 깔려 있던 시체들요?”

“머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아우?”

“저두 강을 건널 참이었습디다. 응덩이에 숨지 못했더라면 저도 그냥 죽는 건데 이렇게…….”

“아이구 운이 좋았우. 운이 좋았어. 별집 쭉서 놓듯 피가 뒤범벅인 걸 우리보구 치우라구 해설랑은 식전부터 젊은 애들하구 피 냄새를 맡았으

니. 어이구 죽었을 목숨이었구먼. 어쨌든 당신은 용맨 사람이유.”

산 곱이를 나서자 한눈에 마을이 내려다보였다. 산으로 둘러싸인 30호가량의 아늑한 마을이었다.

“저어기 저 집이우.”

그가 한 집을 가리켰다. 그 중 눈에 띄이는 큰 기와집이었다.

기와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안에서는 오늘 아침의 소탕전을 자축하는 듯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지 젓가락 장단과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굳어졌다. 그 노래는 평화를 뜻하는 노래라기보다는 전쟁을 노래하는 곡이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나는 그들이 노리는 원수인 인민군이 아닌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굳어짐과 두려움. 그러나, 여기까지도 왔지 않은가! 용기를 내야 한다.

그가 대문을 열어젖히며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안녕들 하시우——.”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문 옆에 비켜 서 있었다. 대청마루가 보이고 술상 주위에 군인들이 빙 둘러앉아 흥이 한창이었다.

“인민군 하나가 국군 부대로 안내해 달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전신을 더밀었다.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했다. 이 순간을 위해 만주에서부터 달려온 것이다. 두 번도 세 번도 있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요, 내 일생에 있어 가장 급하고 중대한 순간이었다. 그들은 넋을 잃고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 앉아 있는 대위 계급장을 단 중대장이 옆에 놓아 두었던 기관총을 잡으려 손을 뻗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이 긴장과 열패감을 가장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일사천리로 나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저는 장개석 軍입니다. 귀순하러 왔습니다.”

“뭐야? 다시 한 번 말해 봐. 어찌구 어찌?”

주변 군인들이 저마다 수군대고 있었다.

“조용히 해 보라우. 그래 관등성명하고 소속 부대 대 보라.”

그의 기관총 잡은 손이 다시 마룻바닥으로 물러가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내 이력을 말했다. 짧은 인생, 그러나 너무나 복잡하고 풍파가 얽혀 있는 그간의 여정.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었다.

“전영규라 해서? 하! 이 녀석 인생 풍파 다 겪은 놈이구만. 이리 마루로 올라오라우.”

그의 이름표는 이갑재였다. 내 머리를 신기하다는 듯이 쓰다듬으며 부산을 떨었다. 다른 자들의 사납던 눈빛도 웬만큼 수그러지고 이제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다.

“나두 말이야. 폐양서 내무 서원 직이구 38선 넘어서리 국군이 된 기야. 어디메? 南川에서 훈련받았대서? 하! 빨갱이 동기생 될 뻔했구만. 야, 내레 까딱했으문 거게서 훈련받았을 거이 아니가. 허, 참!”

“기런데 방금 어디서 오는 길이라구 했네?”

“저쪽 마을입니다. 저 어르신네가 안낼 해 주었습니다.”

“기럼 너는 아침나절에 강을 건너오지 않았네?”

“폐잔병 열 여섯 명하고 같이 산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럼 그 새끼들 오늘 아침 우리가 해치운 놈들이 아냐?”

박 상사라는 자가 놀란 듯 외쳤다.

내 예감대로 이들은 새벽 안개 속에서 내 걸을 스쳐간 바로 그들이었다.

“야아, 넌 정말 하늘이 낸 놈이다. 천우신조란 게 바로 이게 아니고 뭐냐.”

박 상사가 다시 외쳐 맨다.

“중대장님,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쓸었다고 수색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통계 고치라고 연락 다시 해 줘야 하겠는데요. 살상 열 일곱, 생포 하나. 하하하.”

그 때 좌중은 온통 나에게 집중되고 못 마시는 술도 여러 잔 받았다. 이

갑재 중대장은 나의 손을 연신 붙잡으며 정이 일렁이는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는 월남할 때 두고 온 집안 식구들이 잠시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그의 남동생은 함께 훈련받고 있었으니 지금쯤 네 놈만한 빨갱이가 되었을 게라며 혀를 찼다. 총을 쏘고 적군이 쓰러질 때마다 ‘저 녀석 혹시?’ 하며 애를 태웠다는 거였다.

그가 나를 유독 깊게 받아 줄 수 있던 것은 그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았다.

“그 자속도 니만큼 아무지면 이리 귀순할 수 있을 켜데…….”

그는 다시 한 번 내 얼굴을 바라보며 쓰게 웃었다.

“지금 즉시 이동하기로 한다. 이 친굴 봐도 그렇고 조 병장이 조금 전 사살했다는 놈으로 봐도 이 주위엔 인민군이 아직도 득시글거리는 게 분명하다. 어디멘가 집결해서 재차 도발해 올 거다. 기리키 전에 부셔 버리는 게 상책이다. 지금부터 십 분 이내에 출발할 거니까니 각자 준비하라. 충주 방향. 이상.”

중대장의 명령에 모두 슬기운을 깨치며 벌떡 일어났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박 상사, 옷 있지?”

“옷도리 하나 여분이 있습니다.”

“좋아, 계급장도 하나 붙여 주라우.”

“그냥 맨몸으로 행군시킵니까?”

“카빈총 휴대시켜.”

몇 마디 얘기를 나누더니 중대장이 나를 불러세웠다.

“전영규, 이리 오라. 중대장 직권으로 현지 입대한다. 국군 이등병에 임함. 신고 생략. 날레 서두르라.”

그가 등을 쳤다.

벼락 방망이가 면장 집에서 ‘금 나와라 푹푹’ 나에게 부여한 직분이고, 나는 그걸 눈물겹게 껴우 부둥켜안고 이 대위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산길을 넘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걸까. 봉천부터 계산하면 내 신분은 수없는 폭예를 거듭해 온 거다.

사과 장수, 벽돌 장수, 엇장수, 병원 조수, 그렇게 어찌어찌 못 갈 때, 못 볼 거 다 겪으며 굴러다니는 게 피할 수 없는 역마살이었다 할지라도, 그제 중국에 가서는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벽돌 줍듯 시체나 거두는 위생 병이 될 조짐인 줄은 몰랐고, 세 번째 군복이 바뀐 이 두려운 폭예는 이제 끝나도 되는 것일까?

밤새 걸어 우리는 충주 국민 학교에 도착했다. 태양은 이미 솟아올랐고 서리가 내린 운동장은 은빛으로 반짝거렸다. 한밤을 꼬박 행군한 뒤라, 모두들 지쳐서 흐트러져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도착하여 구경대 위에 올라서서 자기 부대를 정비하던 중령의 대갈일성에 절끔 움츠러들어 버렸다.

그는 이어서 충주 동북방 25 km 지점인 구학, 옥전, 학산 방면에 공산군 폐잔병 무리가 공중 정찰에 의해서 목격되었고, 그들이 04시 현재 원주 방면으로 이동한다는 정보를 말했다. 따라서, 그들은 남대봉이나 치악산 쪽으로 들어갈 터인데 그렇게 틀어박히면 큰일이며, 시간적으로 따라잡기는 힘들지만 행군 속도를 빨리하면 소탕도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우리는 또 다시 출발했다.

사태의 중요성에 비추어 나 같은 귀순병졸은 애깃거리도 안 되었다. 나 역시도 이제는 화계의 중심에 있고 싶지가 않았다. 외모 자체도 그렇고 카빈총까지 도로 메었으니 개밥에 도토리인 것은 벗어날 수 없지만, 마음이야 이미 국군으로 묶여진 바에 외따로 눈길을 받는다는 것은 서글픔이 아니겠는가.

행군은 힘들었다. 공산군이 이미 북쪽으로 퇴각중인 것은 분명하고, 잔당의 내습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우리 중대는 수면 부쪽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로에 젖은 우리는 오직 자신들의 세계에만 빠진 듯 묵묵히 걸어 나갔다. 그리고 다시 밤이 되었다.

초생달이 초쾌하게 걸려 있었다. 시간상으로 봐서는 예상 지점의 턱앞에 가까이 온 것이다. 산 중턱, 풀이 양쪽으로 갈라져 쓰러져 있는 게 사

람이 지나간 흔적이 분명한 산길을 걷고 있었다. 구름이 그나마 남아 있던 달을 감싸더니 이내 완전히 덮어 버렸다. 주위는 좀더 깊은 어두움에 휩싸였다. 그 때 나직한 신호 소리가 들리고 나는 숨을 죽였다.

“무슨 소리 잡히나?”

“안 잡힙니다.”

“저기다! 불빛이다?”

우리 쪽에서 조명탄이 울랐다. 계곡이 그 복부를 하얗게 드러냈다. 연이어 조명탄이 울랐다. 어두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멀지 않은 아래쪽에서 적병은 파편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권총 한 발이 울렸다. 일순간에 총 소리가 끊어올랐다. 무수한 총탄이 아래로 내려꽂히고 있었다. 나는 격렬한 감정을 느끼며 총을 갈겼다.

한참 뒤 침묵이 왔다.

“전원 풀 속에 매복하라.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꼼짝하지 마라. 다른 놈들이 있다.”

낮게 그러나 쥐어짜듯이 외침이 들려 왔다. 나는 길 옆으로 뛰어 들었다. 밤이슬이 차갑게 목덜미를 파고 들었다.

다시 오랜 정적이 계속되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던가.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예언이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계곡 아래의 패주자들은 덮에 불과했다. 일거에 또 다시 산을 허무는 총성 속에 그들은 공중에서 덮쳐 왔다.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정지된 흑암의 한복판. 나는 힘껏 휘둘렀다. 묵직한 쇼크가 느껴지는 순간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과녁에 맞았다고 느꼈다.

그러자 별안간 몸 전체가 쏟아지듯 작 달려 들었다. 나는 혁 숨을 뿜으며 걸어왔다.

그가 뒤로 나가떨어지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순간, 나는 이미 다음 상대를 맞고 있었다. 복부에 강한 통증을 느끼며 상대의 총신이 머리통을 부셨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⑥

“스탠드 업!”

나는 양쪽 팔이 전투화 밑에 깔린 채 누워 있었다. 백인 병사가 점점 억세게 힘을 가하며 일어나라고 손짓했다. 일어나려고 버둥댈수록 그는 더욱 거세게 눌렀다.

“노드 코리아(North Korea), 스탠드 업!”

그가 내 코끝에 총구를 들이대면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하복부가 건널 수 없이 저릿하고 머리가 뻥뻥 돈다.

“킴 온!”

그가 안다리를 걸었다. 나는 휘청하며 넘어졌다. 그가 또 다시 영어를 지껄이며 국부를 짓누른다. 숨이 막혔다.

잠시 후 또 다른 흑인 병사가 나를 등에 업었다. 허리를 뺏뺏하게 찢고 걸어갔다. 나는 안 떨어지려고 대롱대롱 매달렸다. 뒤에서 엉덩이를 걸어찼다. 깊숙한 통증이 전신을 파고들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도로변에 이르자 국군이 보였다. 이 대위와 똑같은 복장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너 몇 사단 소속야?”

선글라스의 중위가 내 머리를 휘갈기며 으름장을 놓았다.

“국군 6사단 21연대 2대대 기갑중대, 이갑재 대위님 연락병입니다.”

“뭐가 어찌? 이 새끼야. 넌 빨갱이잖아.”

“아닙니다. 귀순병입니다. 국군 이등병입니다.”

“이 새끼! 입마, 철모 벗어, 넌 까까머리에 국군 철모를 쓰고 위장했어. 웃도리는 사살한 국군 거지?”

“아닙니다! 중대장님이 주었습니다. 전 귀순병입니다! 인민군이었습니다가 자수했습니다!”

“입 닥쳐! 넌 빨갱이 패잔병이야. 입마, 네까짓 놈 거짓말에 속을 것 같애? 몇 명이나 죽였어? 우리 사상자가 일만 줄 알아? 일개 중대가 몰살했어, 이 새끼야!”

나는 아구창이 돌아갔다. 복부를 걸어채었다. 나는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흑인 병사가 휘파람을 쐬어 불었다. 저쪽에서 점차가 굴러왔다. 운전병과 백인 장교가 타고 있었다. 나는 위기를 직감하고 그쪽으로 튀었다. 스톱! 스톱!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나는 백인 장교의 손을 움켜쥐고 있었다.

“노! 노! 나는 인민군이 아닙니다! 노! 노! 노!”

“유 코뮤니스트”

“살려 주십시오! 난 절대 인민군이 아닙니다. 귀순병입니다. 국군 이등병입니다! 노드 코리아가 아닙니다!”

또 다시 진한 충격이 왔다. 땅바닥에 굴렀다. 중위가 다가왔다. 나는 계속 울부짖었으나 흑인 병사가 나를 번쩍 들어서서 점차에 실었다. 그들은 움짱달짝 못 하게 사방에서 죄어들었다. 점차는 출발했다.

“중위님,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저는 장개석 軍이었습니다. 그러다 중공군이 되구 인민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순했어요! 이갑재 대위님이…….”

얼굴에 불이 번쩍 했다.

“떠들면 죽인다?”

그렇게 하여 나는 포로가 되었다.

포로 또 포로…… 그러나 전쟁 포로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 때, 이갑재 대위가 신고를 생략하고 국군 이등병에 임했던 때, 즉시 상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게 결정적인 착오였다. 그들은 국군조차도 나를 믿지 못했다. 그건 어쩌면 군번도 없고 까까머리에 카빈총, 인민군 바지 차림의 나를 본 그들의 당연한 판단이었으리라.

어쨌든 나는 등판에 큼직하게 POW(Prisoner of War) 세 글자를 짙어지고 찬 바람이 송송 밀려드는 간이 천막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만 맥없이 쫓

아 먹고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미군에게 잡혀 하루 낮 하룻밤 만에 틀틀틀 끌려와서는 짐바리에서 흙 털어 내듯 내동맹이쳐진 뒤에 변명할 여지 없이 포로가 된 너무나 억울한 신세,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치밀어 올라 목이 콧 막히는 게 살고 싶지가 않았다.

7

부산 포로 수용소였다.

담요 한 장과 밥통 한 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였다.

우리는 한 천막에 오십여 명씩 수용되었다. 천막이 몇 개나 되는지 셀 생각도 없었거니와 그 수가 매일 달라졌는데 처음 올 때는 듣성듣성 궁터도 보이더니, 10월 하순이 되자 어디서 그렇게 밀려드는지 푸르죽죽한 낮 바닥에 담배잎같이 누리끼한 군복을 걸친 포로들이 바글바글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계급은 하나도 없었다. 전부 POW였다. 나이 좀 들었다고 존대받을 수도 없고, 허우대 좋다고 해서 담요 두 장 주는 것도 아니다. 눈치코치없이 옛날 옛적 빨갱이 시절의 신분을 들먹이면서, ‘동무 나 몰라?’ 어찌구며들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코피 터지고 갈비뼈에 통증깨나 온다.

1950년은 부산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씩 좀먹어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 후 우리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이감되었다. 나는 이 곳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전쟁 당시에도 여러 번 하나님을 찾았고 어슴프레한 신앙의 흔적이 없는 건 아니었으나, 이 곳 수용소내에는 친공측과 반공측이라는 패거리로 나뉜 파벌 이외에 기독교인이라는 색다른 파도 있었다. 이 곳 천막 교회에서 만난 벌커(Bulcker; 한국명 옥호열) 목사님은 군복으로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었으며, 홍사성과 김진호 목사, 강신정 목사(장로교, 강신영 목사의 동생), 박지서 목사 등 여러 분들이 불 같은 정열로 복음을 전해 주었고, 신자들의 믿음의 고도도 높아

저서 친공 포로들이 신자당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나는 천막 교회 안에 있는 성경 학교에 속해서 성경 공부와 성가대 활동에 열중했다.

1951년, 나는 그 해 한 해를 충실한 학업의 자세로 보낼 수 있었다.

1952년 한 해는 거제도와는 정반대인 광주 사월산 수용소가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부산 포로 수용소에서 갈라졌던 친공측과 반공측의 두 패는, 이곳 광주에서는 심각한 사태로 진보하여 투쟁과 살육까지 공공연히 벌여지고 있었다. 공산측 포로들은 폭도로 변해 난장판을 벌이기도 했다.

1953년, 광주에서 부명으로 읍기게 된 당시 우리는 하루하루 초조와 기대 속에서 수군거렸다.

봄이 되자 부명에 빅 뉴스가 들어왔다.

“휴전 회담 재개. 석방 확실시됨.”

그러나, 4월 말과 5월 초에 걸쳐 휴전 회담이 다시 열리자, 공산측은 ‘반공 포로 관리 중립국 송환 위원단’이라는 걸 제안, 인도·폴란드·체코·스웨덴·스위스를 중립국으로 들먹이며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그 때 중립국 이관으로 낙착되었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는 거의 미쳐 있었다.

5월 25일, 유엔은 명예로운 휴전이란 이름하에 대폭적으로 양보해서 공산측의 송환 조건을 수락했고, 그 결과는 강제 송환이라는 비바람을 몰고 왔다. 모두 울부짖으며 이성을 잃어 가고 있었던 그즈음, 숨 조이는 몇 주가 지나고 우리는 부당한 강제 송환에 대해 죽음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로 혈서를 작성하고 이 피의 메시지를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러 인사들에게 띄웠다.

부명 수용소는 노도와 같은 외침과 열기와 비릿한 피냄새로 뒤엉켰다. 처처에 울분이었다.

1953년 6월 18일 아침, 혈서 시위 이후 며칠이 안 되어, 우리는 우리 480명의 리더였던 대학 교수 출신인 정 윤환을 통해 반공 애국 포로 석방 명령이 떨어진 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그 날 오후, 그 때까지 경비를 담당하던 국군이 한 명도 보이

지 않았다. 그 대신 전원 미군으로 교체되어 경비가 삼엄해지고 있었다.

논산 제 6 수용소, 마산 제 7 수용소, 부산 제 9 수용소, 상무대 제 5 수용소 포로들은 새벽에 이미 치밀한 연락을 받고 탈출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이었고, 우리와 영천 수용소만 깜깜소식이었다는 것이다.

그 날 밤 7시를 기해 우리 전원은 계획대로 탈출을 기도했다. 그러나, 우린 실패하고 말았다.

그 탈출 기도로 인해 죽은 자는 헤아릴 수 없었고 찢겨진 생명의 잔해는 수용소 철조망에, 바닥에, 천막에 널부러져 있었다. 남은 자들은 부끄럽고 두렵기만 했다. 우리는 더욱 통제된 생활로 들어갔다. 화장실만 가도 네 명의 경비병이 따라붙었다.

그나마 알량하게 들려 오던 소식도 두절된 채, 성경 학교 동료들도 영원한 자유인이 되어 논길을 따라 사라져 간 상태에서 우리는 또 다시 논산으로 떠났다. 그것이 1953년 6월 27일이었다. 논산에서 우리는 휴전이 성립되었음을 알았다. 비무장 지대 중립국 송환 위원단에 인계되었고, 석방될 때까지 인도군이 관리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관문점 수용소 48 컴파운드에 수용된 나는 영원히 포로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엄습하여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수용소는 인도군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500명 단위로 한 컴파운드가 형성되고 8개의 컴파운드가 다시 한 잉클로저를 이루었다. 수용소 전체가 세 개의 잉클로저로 편성되었으니까 포로 수는 만 명은 넘을 것이다.

그 곳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철조망 너머에 북괴의 스피이커가 있어서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낮과 밤을 안 가리고 우리를 괴롭혔다.

이북으로 넘어오라. 인민이 목을 놓아 기다리고 있다. 어서 어서 오너라.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보고 싶지 않느냐.

1953년 10월 15일, 그 날 우리는 운명의 한고비를 넘고 있었다. 설득을 시작한다는 결정이 떨어진 것이다. 설득이라니, 인민군으로서 전장에 나가 포로가 되었으니 휴전이 되었은즉 다시 인민군으로 돌아오라는 협박이

실재이리라.

“설득을 반대하자!”

“결사 반대 시위를 하자!”

수용소는 시위의 물결이었다. 인도군들은 허둥대는 모습이었고 사진 기자도 보였다.

“전쟁은 끝났다. 우리는 쉬고 싶다!”

“내 부모 형제를 달라!”

“포로 교환은 끝났다. 왜 우리만 붙잡아 두는 거냐! 우리 정치 협상의 제물이 아니다!”

“우리를 설득할 수는 없다. 길은 오직 하나다!”

초조하게 무응답의 시간이 흘러갔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결단과 확고한 의식을 다짐하기 위해 태극기를 만들고 애국가를 불렀다.

10월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었다. 우리는 결국 설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것은 설득의 현장에서 우리의 명백한 의사 표시를 해야만 진정한 반공 포로로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의견을 굳히었다.

11월 4일, 설득이 있었고 11월 16일, 내일부터 설득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 오고, 이어서 반공 포로 전원이 송환을 거부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 왔다.

12월 2일, 유엔 정치 회담 대표는, “54년 1월 22일까지 공산측이 정치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공 포로 전부를 석방하겠다.”고 천명했다.

12월 23일, 드디어 반공 포로 설득이 종결되었다. 설득에 넘어간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모두 자유 대환을 택한 것이다. 심지어 중공군 포로 팔천여 명은 중공과 북한 어느 쪽에도 가지 않았다. 그들은 대만을 선택했다.

1954년 1월 23일,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축복의 눈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비바람과 눈물과 죽음과 부활의 포로 생활. 어떤 언어와 빛물로 그려 낸다 해도 다 꺼내 보일 수 없는 치욕의 성곽. 판문점 다리를 넘어 우

리 반공 포로들은 남행 열차를 타고 포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서울, 1954년 봄이었다. 찬란한 빛이 눈부신 봄.

後 記

무엇을 할 것인가. 삶의 방향에 대하여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내 과거는 어둠이었다. 주머니 속도 영혼도 캄캄한, 가난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은총에 의한 덕의 목숨이다. 내 길길은 너무나 자명한 길일 수밖에 없다. 내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봉사뿐이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옥호열 선교사 앞에서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던 기억이 되살려졌다. 나는 신학에로의 길을 택하였고, 신문 배달과 잡지 장사로 학비를 조달해 가며 생계도 유지했다. 은혜 또 은혜. 내 기적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이것뿐이다. 기도와 기쁨 속에서 나는 신학 수업을 마칠 수 있었다.

1957년 10월 경남 김해 장유 성결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고, 2년 후에는 부산 수정 제일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그런 후 한강 난민과 생활하기 시작하고, 선명회의 도움으로 지금의 파천 고개 옆 일탄 이천 평 땅을 얻어 교회를 짓고 집도 지어 새마을이라 이름붙였다. 우리는 스스로의 담으로 자활 정착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닭과 오리, 토끼를 기르고 밭을 일구었다. 아내는 탁아소를 세워 어린이집 원장을 하며 아이들을 돌봐 주었다.

새마을은 서서히 뗏목을 벗고 밝은 빛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분주히 뛰었다. 선명회가 벌이는 음성 나환자 자녀들을 돕는 후원자 결연 사업에 참여하여, '미감아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며, 노량진·관악 경찰서 경복으로 12년째 힘쓰고 있다.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그늘진 곳을 위해 일하라고 나를 전쟁의 수렁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오늘도 발걸음을 옮긴다.

6·25 事變의 回顧와 敎訓

趙 豐 衍

(忠南紡織 監事·評論家)

① 戰爭인가? 事變인가?

먼저, 1950년에 북괴의 남침으로 벌어진 戰禍를 우리는 戰爭으로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事變으로 기록할 것인가? 이것부터 밝히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6·25 事變'이며, 영어로는 'THE KOREAN WAR(한국전쟁)'이며, 일본에서는 '韓國(또는 朝鮮)動亂'이며, 그리고 북괴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말한다.

전쟁은 양국간의 병력에 의한 투쟁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절차가 따르는 법이다. 한 나라가 상대편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함으로써 벌어지는 전투다. 선전 포고도 없이 무력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사변' 또는 '난리'라고 하는 것이다.

6·25 사변은 규모로는 제 2차 대전 후에 가장 큰 '전쟁'의 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 충돌의 원인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분단된 국가를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괴뢰 집단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벌어진 사태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전쟁'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북괴는 그 형성으로 보아 '국가'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유엔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다.

우리는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사이에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여 크게 싸웠다. 이것을 ‘임진란’ 또는 ‘임진왜란’으로 기록한다. ‘전쟁’이라 하지 않고 ‘난리’라고 한 것은, 일본이 버젓한 독립국이었지만 선전 포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침략하고, 우리는 이에 저항해 전투한 것이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규모로는 우리 민족사에서 최초로 겪는 크나큰 ‘전쟁’의 양상을 띠었다.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였다.

② 성미급했던 金日成의 야욕

공산주의자의 침략 수단에는 일종의 패턴이 있다. 먼저 ‘제5열’로 하여금 ‘내란’을 조장한다. 소위 ‘인민 봉기’를 획책하고 대규모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를 ‘구원’하는 뜻으로 군대를 침입시킨다. 다음에는 괴뢰 정권을 수립시키고, 그 괴뢰 정권과 ‘협정’을 맺은 다음에 완전히 삼켜 버린다. 제2차 대전 후의 공산 침략은 거의 이 방식을 취하였다.

金日成과 그 집단은 이러한 패턴을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대거 38선을 넘어왔다.

남한에서는 정부가 부패하여 인민들은 친미 정권인 대한 민국에 불만이 팽배하고, 젊은 세대를 비롯한 중견 식자층과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는 농민·노동자들이 공산 체제를 갈망하고 있으므로,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밀고 내려가면 남한의 ‘국방군’은 자멸하고(군인들 가운데서 협력하는 자가 속출할 것이고) 인민은 모두 환영하여 통일은 급속도로 달성될 것이다. — 이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다. 별로 충실한 火力이나 航空機의 준비도 없이 이를 단행한 것이었다.

③ 북괴의 오산은 어디 있었는가?

남침 즉시 미국이 충격을 받았다. 미국의 행정부는 적어도 38선으로 한 반도를 분단한 데에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남한의 대한 민국이 비록 분단된 채 독립을 했지만, 맨 먼저 이를 승인한 것이 미국이었으며 잇달아서 유럽 제국이 승인했다. 이런 나라가 다른 반쪽인 북한에게 강제 통일이

분명한 의사가 표시된 침략을 당하는 것은, 미국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다. 그것이 공산 정권이든 그 밖의 어느 체제의 정권이든 남한이 무력에 의해 통합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제 2차 대전을 겪은 미국이 장차 민주 진영의 지도국으로서 행세하려는 그 공신력을 크게 손상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게 하는 일이다.

처음에 미국은 북괴의 남침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괴가 이에 귀를 기울일 리 만무하고, 드러난 쌍방의 전력(병력·장비·무기)이 두드러지게 등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뒤에는 미국이 직접 무력 개입을 결의하게 되었다.

미국은 곧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했다. 실력으로써 북괴의 침략을 저지할 심사로 이에 임하였다. '유엔군' 조직과 이의 파전을 계획했던 것이다.

상임 이사국의 하나인 소련이 불참해 미국의 계획대로 유엔군 파전이 결정되었다. 만약에 소련이 참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더라면, 유엔군 계획은 좌절되었을 것이며 미군이 단독으로 참전했을 것인데, 소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참가하지 않았다. 이것이 金日成의 첫째 오산이었다.

유엔 가입 16 개국이 기꺼이 참전을 결의하고 군대를 파견했지만, 사실상 외국군의 중심은 미군이었다. 유엔군 총사령관은 미국의 극동군 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그는 일본에 주재하고 있었다.)이 되었고, 긴급 출동한 지상 부대가 미 제24사단이었다. 미 제24사단은 일본 주둔의 '신병'부대였다. 역전의 베테랑들을 일단 귀국시켜 휴양을 취하게 하고, 평화적 점령 지역인 일본 주둔에는 신병을 배치했었다. 이 신병들 중에는 군화를 처음 신은 자가 적지 않을 정도였다.

이들은 부산에 상륙하는 즉시로, 전선으로 파견되어 한국군과 합세하여 적의 남하를 저지했지만 체력 부족과 중장비를 갖추지 못한 탓으로 피뢰군에게 밀려 접촉 후에 후퇴를 아니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쯤 되면 이미 수도 서울을 점령한 북괴로서는 '협상'을 펼쳤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미군과 접촉을 해 보니까 어렵으로 짐작하던 것만큼 미

군은 강한 군대가 아니고 장비도 예상 밖으로 빈약했다. 다만 꺼리는 것은 미 제5공군이 전대 비행으로 위협하는 것뿐이었다. 내친 걸음에 대구·부산까지 밀자고 결심한 모양이었다. —이것이 金日成의 둘째 오산이었다.

일찌기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당해 태평양 함대가 거의 전멸을 당하는 것을 보고 미군의 실력을 과소평가한 일본군의 오산도 그러했었다. 졸지에 일본으로부터 출동한 미군은, 본격적인 전투의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고작해야 박격포와 카빈총으로 대항할 도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괴뢰군의 실력을 과대평가한 金日成은, 질풍신뢰의 쾌진격을 하여 대구·부산을 함락시키면 한국 정부는 강정처럼 부숴지고, 미군도 별수 없이 제 목숨이 아까와 도주할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군대만 재촉하여 쳐들맹진하는 것이 수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그 때까지 한국군에는 없던 탱크를 비롯하여 포대를 속속 상륙시켜 저항했다. 처음에는 윌리엄 딘 소장이 포로가 되고, 한국군의 채병덕 장군이 전사하고, 그 해 겨울에는 미 지상군 사령관 윌튼 위커 중장이 자동차 사고로 전몰하는 등 괴뢰군에게 유리한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럴수록 유엔군은 강해지는 것이었다.

마침내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기상천외의 대작전으로 괴뢰군은 많은 전상자와 포로를 내고 지리멸렬되어 도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④ 여름철에 개전하고 수확기를 노려

6월 25일이면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드는 날짜이다. 이 때를 기해 남침을 개시한 것은 남한의 풍부한 농작물이 목표였다. 공산군의 특징은 군수물자를 현지 조달에 의존하는 데 있다. 전 지역을 점령하는 시간을 넉넉잡고 3개월을 잡으면 남한의 곡창 지대에서는 신곡이 난다. 그 때에는 군량의 걱정도 해소되고, 점령지 국민의 선무에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묻지 않아도 알 만하다. —이것이 金日成의 셋째 오산이다.

맥아더 원수는 한국 전선에 수습 차례 나왔다. 그는 비행기에서 남한 평

야에 누렇게 익어 가는 벼이삭을 내려다보고 말하였다.

“저 벼이삭을 전쟁에 시달린 남한의 백성들에게 먹이게 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맥아더 원수의 보좌관 화이트 소장은,

“사실은 이 때문에 원수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서둘렀던 것이다.”

라고 그의 수기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익어 가는 벼에 대해 유엔군 사령관과 북괴의 괴수는 모두 같은 눈독을 들인 것이다. 한쪽은 한국민을 위해서이고, 한쪽은 괴뢰군을 위하여라는 극단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인천 상륙은 세계 전사상 놀랄 만한 기록적 성공을 거두었다. 만약에 이 작전이 없었던들, 자리 맡듯 부산을 향해 가던 괴뢰 군단들은 그 동안에 무고한 많은 시민을 학살했을 것이며, 파괴를 자행하고, 약탈을 제 마음껏 했을 것이다. 인적 자원을 위시하여 모든 문화재가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⑤ 중공 ‘의용군’의 개입

인천 상륙 작전으로 졸지에 보급로의 허리를 끊긴 괴뢰군은 능선을 타고 도주했다. 그들을 추적한 국군과 유엔 지상군은 드디어 38선을 넘어 북진했다.

“크리스마스까지는 북한을 평정하고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은 크리스마스를 고향에서 지나도록 하라.”

하는 것이 맥아더 사령부의 지령이었다. 이리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맹진 격을 하여 압록강까지 닿아 그 강물을 마시고 빨병에 담았다.

이 때 중공은 ‘의용군’이란 이름으로 대거 침입하여 산꼭대기에서 거의 적의 저항 없이 진격하는 국군과 유엔군의 연합군들을 숨어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연합군의 허리를 끊었다. 보급로가 중단된 연합군은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통분한 ‘홍남 철수 작전’을 감행하게 되었다.

1951년 4월 19일, 맥아더 원수가 미국 국회에서 한 연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우리가 그 침략자를 격퇴하고 그 군대를 궤멸시켰을 때에 그 결정은 건전한 결정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우리의 승리는 완전하였으며, 우리의 목적은 거의 도달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 때에 중공군이 숫자적으로 우수한 군대를 가지고 뛰어들어왔다.

이것은 새로운 전쟁과 또 아주 새로운 사태를 만들어 내었는데, 이 사태는 우리가 북한 침략자에 대하여 우리의 군대를 파견했을 때에는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며, 따라서 외교계로서는 현실주의적인 전략 수정을 허가하도록 새로운 결정을 지을 것을 요청하는 새로운 사태였다.” 장군의 말 그대로 중공군의 개입은 뜻밖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국회에서 덧붙여 주장하였다.

1. 중공에 대하여 경계 봉쇄를 강화할 것.
2. 중국 대륙 연안에 대하여 해상 봉쇄를 실시할 것.
3. 중국 연안 지역과 만주의 공중 경찰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것.
4.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군대에 대한 그들의 효과적인 작전을 돕기 위하여 병참적 원조를 할 것.

이상의 주장에 대하여 국회 의사당은 만장의 우뢰 같은 박수가 나왔으나 이미 맥아더 장군은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뒤였다.

⑥ 중공군 개입의 배경

북괴 金日成의 북한 정권 장악의 내력으로 보아서, 약세해진 피뢰군을 돕는다면 소련이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이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공군이 개입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내 나름으로 그 배경을 추리해 본다.

이 때는 중공이 이른바 ‘국공 합작’을 배반한 후, 공산 통일을 선언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고 일어난 지 겨우 2년이 채 못된 시절이었다.

중공은 內治에 있어서 국민당(장개석 정당)의 잔재를 숙청해야 할 계제에 있었고, 오랜 동안 일본과의 전쟁 때문에 경제는 파탄에 직면했었다. 대륙이 워낙 넓고, 중국의 역사상 하나의 정권이 통일된 천하를 장악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고민거리가 가득 차 있었다.

毛澤東은 우선 민심을 한군데로 집중시킬 필요를 느꼈다. 그리하여 소련이 개입할 것을 견제해 한국전에 참전할 결심을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믿는 것은 그 엄청난 8억에 달하는 인민이었다. 이들이 압록강을 넘어가면 다만 그 수만으로도 한·미군을 압도할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장비도 형성하면서 수십만 대군을 몰아 투입시키는데, 정규군으로서는 국제 여론이 두려워 ‘의용군’이란 명칭으로 참전한 것이다.

‘인해 전술’이란 말은 이 때에 생긴 것이며, ‘탄환막이’란 말도 이 때 생긴 것이다. 빈곤과 흑사에 견디지 못한, 전투 경험이 없는 병사들이 강제 동원되어 강을 건넜다.

그들은 근대 무기가 없었으므로, 근대 무기로 쳐들어가는 한·미 및 프랑스·영국 등 연합군에 대항할 때에, 피리를 불고 낙타를 타고 야습을 하는 태고 시대의 전술로 우리편 용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장기 잘 두는 사람이 정칙으로 두려워 할 때에, 천둥 벌거숭이인 아이가 변칙으로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덤비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들어 보지도 못한 피리 소리와 징 소리에, 근대전에만 익숙한 군인들은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다.

파도처럼 수없이 들이닥치는 중공군은 휩쓸어도 휩쓸어도 잇달아 물밀듯이 쳐들어왔다.

태고의 전술이 근대 전술을 휘적신 회귀한 사례이다.

⑦ 적침 수도 서울의 양상

우리가 수도 서울에 앉아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피뢰의 침략을 절감한 것은 사변이 일어난 6·25보다 이틀 뒤인 27일이었다.

그 때 나는 한 출판사의 편집 책임자로 있었는데 새 학기(학년이 바뀌는

것은 9월이었다.)에 델 중·고등 학교의 교과서 제작에 안비막개(眼鼻莫開)였다. 자금도 있는 데로 다 틀어박고 있었다.

6월 25일은 일요일인데 우리집에서 사원 몇 명을 초대해 소연을 베풀고 있었다. 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파출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수련수련하고 있다.”

고 알린다. 라디오의 임시 방송도 없었다. 우리는 심상치 않아 먹던 일을 끝내고 그리 멀지 않은 파출소로 나가 보았다. 큰 포스터가 붙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포스터를 본즉,

“오늘 새벽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일제히 공격을 가해 왔다. 군인들은 즉시 원대 복귀하라.”

는 내용이였다.

우리는 북괴군의 38선 침공에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그 무렵에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에서는 소규모의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아마 백여 번이 넘었다. 그것들보다 조금 규모가 큰 것인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내일 사무실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고 그 날은 헤어졌다.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내용은 마찬가지로인데, 휴일로 홀어진 장병들은 원대 복귀하라는 군의 명령이 내용의 전부인 것같이 느껴졌다. 물론 도피할 생각 따위는 없었다.

이튿날 통근차가 와서 정시에 회사에 나갔다. 모두 긴장된 얼굴이고 라디오는 불박이로 켜 놓고 있었다. 하지만 위낙 말은 일들이 바빠서 평소나 마찬가지로 바쁘게 움직였다.

그랬는데 사원이 보고한다.

“민간 자동차는 모두 군에서 징발한답니다. 바깥에 포고문이 나붙어 있습니다.”

하는 것이였다. 이 말에 심상치 않은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을 느꼈다. 우리는 승용차가 두 대 있었다. 그걸 빼앗기면 출·퇴근에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방송에 귀를 기울여 보니, 충돌 전투가 종전의 것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리 담당 사원이,

“돈을 얼마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전쟁에 경험이 없는 우리들은 그렇게 빨리 적군이 서울에 침입할 줄은 도무지 몰랐으므로, 두고 보자고 그 날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일을 했다. 나는 정기 간행물의 교정을 보고 있었는데 평일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 O.K.의 교정지를 인쇄소에 급히 넘기었다.

그 날 밤 라디오를 통해, 북괴군의 침입이 전과는 달리 본격화되었고, ‘난리는 벌어졌구나.’ 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내와 어린 자식 셋과 식모 하나의 여섯 식구가 어떻게 몸들 곳이 없어서, 운명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고 그 날은 잤다. 아직 학교 다니는 아이는 없어서, 바깥 소식은 나 혼자만이 듣고 들어와야 식구들이 알 만했다.

이튿날은 27일. 이미 우리 차는 징발되어서 나는 만원 전차를 타고 출근했다. 전원이 출근해 있었다. 그제서야 시국이 가라앉을 때까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을 예상하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기로 의논이 되었다. 자금이 모두 교과서 출판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몇 백만 원이 있었다. 그것을 사원 둘이서 가마니에 담아 들고 들어왔다. 모두 10원짜리니까 부피가 엄청나게 나갔다.

그것을 마약 나누려고 할 때 방총이 들린다.

“아군은 침공한 적을 물리치고 의정부에서 반격을 하고 있다.”

이 방총을 믿고, 어느 충성스런 사원 하나가 얼마 동안은 서울이 안전할 것이라 믿고, 그렇게 애쓰고 찾아온 돈을 모두 금고에 넣어 버렸다. 그 날만은 사무실을 일찍 닫고 귀가했다.

그런데 우리가 헤어지기 직전에 알지 못하는 자가 사장실에 찾아왔다. 그 자가 하는 말이,

“이미 인민군은 서울에 입성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들을 환영해야 되는데 사무실을 비어 놓고 자금을 얼마 내놓아라.”

하는 것이었다. 아직 대한 민국의 법률·행정이 건재한데 이것은 참으로 대담한 협박 교섭이다. 일이 급박한 것을 느꼈다. 사장이 어떻게 처리했는

지 모르겠거니와 그 일에 간여할 흥미가 없었고 오직 식구들과 어떻게 이 난리를 겪는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사무실은 종로이고 집은 돈암동에 있었는데, 전차가 만원이라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삼선교에 이르니까 박격포가 설치되고 포구는 미아리 고개를 향하고 있었다. 입의 침이 말라 들어 왔다. 하늘이 꾸물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집에 당도하니까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포의 소리가 들린다. 밤이 되니까 비는 억수같이 퍼붓는다. 포의 소리가 점점 커진다. 어린아이들이 무서워서 어미의 품 속으로 기어들더니 울음을 터뜨린다.

포성과 빗소리는 밤새도록 점점 커 갔다. 우리는 꼬박 밤을 새웠다. 새벽이 되니까(그 날은 6월 28일) 날이 개었다. 이리다가 서울 시내에서 시가전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부자리를 내가 메고, 아내와 식모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대문 산으로 기어 올라갔다. 정처가 없는 도피였다. 산에 오르니까 소총 소리가 빈번했다. 우리는 길가의 어느 창고 같은 헛간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얼얼 아는 인쇄업자를 만났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결 마음이 놓인다.

아침 햇살이 헛간을 환하게 비추었다. 밖에 나가 형편을 살펴던 인쇄업자가 들어오더니,

“벌써 인민군 탱크가 들어오고 인민군이 계속 입성하고 있습니다. 완전 점령되었습니다.”

라는 것이다.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겁니다.”

하여 우리는 다시 이부자리를 짊어지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총 소리는 그쳤다. 나는 집에 당도해서는 피곤해 쓰러지고 말았다.

겨우 만 3일 만에 함락되다니 참 빠르구나. 큰소리 탕탕 하던 행정부의 요인들과 국군들은 그렇게도 무력했던가, 생각했다.

⑧ 급 템포로 적화 일색

오정 때쯤까지 자다가 아무렇게나 요기를 하고 바깥이 궁금해서 나갔다. 식구들에게는 꼼짝 말고 있으라고 일렀다. 대문을 썩 나서니까 골목의 집집마다 새빨간 형겔이 걸려 있었다. 갑자기 적기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깃발을 대신한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아내에게 일렀다. 또 하나 빠뜨리고 있었다. 여름이라 노오타이 바람으로 나섰는데, 보니까 빨강 리본을 혁대에 매고들 있었다. 이스타일에 밀짚 모자는 국군과 유엔군이 수도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된다.

전차는 운행되고 있었으나 극히 드물고 도저히 탈 수가 없어서 돈암동서 종로까지 걸어 사무실을 향했다. 거의 모두 철시한 것이 을씨년스러웠으나 문 닫은 가게에도 붉은 형겔은 내걸려 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혁대에 빨강 형겔이다. 내 눈에는 모두 그 빨강 형겔만 띄었다.

회사에 나가니 우리 사무실이 있는 빌딩은 벌써 막대기를 든 젊은이들이 파수를 보고 있는 것을 보니 어느 붉은 기관에게 ‘접수’된 것 같았다. 우리 회사가 이 안에 있다 하고 들어간즉 사원이 대여섯 나와 있고, 임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나 혼자뿐이었다. 사원들은 모두 무표정이었다. 어제까지 우리 앞에서 굶산거리던 사원 하나가 제언을 한다.

“이 빌딩은 민청에 접수되었소.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 화장실을 깨끗이 해 내어 줍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물건은 사유물이라도 하나도 손을 대서는 안 되요.”

한다. 나는 내 캐비닛에 어린 딸의 바이얼린 고칠 것을 가져다 놓은 것이 생각났으나 단념했다. 그런데 변소 청소를 나더러 하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나는 이것만은 응하지 않았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기로서니 왜 하필이면 그 일을 나에게 하라는 것일까? 나는 그것보다도 금고 속의 현금 수백만 원이 생각났으나 열쇠도 없고 금고 앞에 불순분자가 딱 지키고 앉아 있다. 아마 이 자들은 그 돈을 점령자에게 고스란히 바칠 셈인가 보다. 겁부터 났다. 나는 기회를 보아 슬며시 빠져나왔다. 그런 다음에 다시는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회사는 폭격에 의해 가루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은 정보였다. 라디오에서는 벌써 전향한 고위 관리가 침략군 점령에 환영사를 하고, ‘해방’을 찬양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진심에서 우리나라의 것으로 알지 않고,

“장관이 도망 못 가고 붙들렸구나. 이제 저 친구 죽었구나.”

하고 말하고 있었다. 도처에 붙은 포고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통행 금지가 오후 7시부터라는 것이었다.

명동의 다방이 문을 열고 있었다. 우리가 잘 가던 ‘흑룡’에 들어서니, 가득히 차 있었는데 주인 마담이 신이 나서 차를 나르고 있었다. 아는 얼굴들이 많았지만 모두 서로 말을 사귀지 않고 목례로 인사에 대신했다.

일찌감치 집에 돌아오니까 사원 하나가 찾아왔다. 나는 이 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동무’라는 말을 들었다. 어제까지 ‘상무님’, ‘주간님’ 하던 자의 입에서 ‘동무’라는 말을 들으니 껄껄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구태를 버려야 목숨을 이어 갈 것임을 깨닫고, 아니꼬운 생각을 억제하느라고 애썼다. 그 자가 찾아온 것은 쌀을 좀 꾸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 형상이 가궁했다. 일찌기 공산주의자가 된 그도 배고픈 현실에는 어쩔 수 없는 듯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금을 모두 교과서 제작에 치박고 무엇이 있소?”

하고 거절했다. 그리고 나서 소주 한 잔을 대접해 보냈다. 그 자가 포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곧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나는 담담히 그 포부를 듣고만 있었다. 과연 그 자는 그 후 만나지 못했다.

우리 출판사는 조그만 규모에서 시작해 세월을 타고 갑자기 영업이 잘 된 터수니까 사원들은 모두 정실로 채용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단점도 있었지만 가족적 분위기인 것이 장점이었다.

이튿날도 거리에 나갔다. 역시 걷는 수밖에 없었다. 혜화동 고개에서도 신문사의 체육부장으로 있는 이모가 혈레벌떡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를 보자,

“내 아우가 인민군으로 와서 지금 서울 시청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방 만나러 가는 길시오.”

하고 자못 활기차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저 사람은 살았구나.” 하고 느꼈다.

서울 신문을 점령한 그들이 ‘조선 인민보’를 발행하고 있었다. 신문팔이는 여전히 소년들이었다. 한 장을 사서 보니, 공산군이 파죽지세로 대전까지 갔다는 뉴스다. 대구·부산도 머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며, 그것 말고는 전 지면이 격문이었다. 신문 제작에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그것은 선전 비라지 신문이 아니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반동의 범 죄를 저지른 자는 속히 자수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자신을 돌이켜 보았다. 해방 이후 정치에 관여한 적이 없고 오직 출판업으로 돈 버는 데만 열중해 오던 나, ‘자수’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아마 이렇게 해서 경찰관·판사·검사·공무원 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협력을 바라는가 보다 하고 느꼈다. 그러나 이는 재래식 사고 방식이었다. 동 인민 위원회에서 용지를 얻어다 ‘자수서’를 낸 사람들은 그 길로 ‘내무서’에 잡혀가서 그 후 소식이 끊겼다. 이 소문이 나자 ‘자수’하는 사람은 끊기었고 모두 지하로 들어갔다.

⑨ 급조 공산주의자로 적들은 이익을 얻었던가?

며칠이 지나니까 밖에 나다니는 사람은 모두 공산주의자 같았다. “저 사람도 공산주의자였던가?” 하고 의심이 갈 지경의 사람이 앞장서서 재법 활약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동네마다 거리마다 가창 지도자가 있어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지도하고 있었다. 이 노래를 처음 배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다. 그것이 삼시간에 퍼졌다.

생각해 보면 노래를 전파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을 부르는 사이에 ‘반동 사상’을 품을 여지가 없게 하는 것이었다.

동에서 반장을 통해 ‘결기 대회’에 나오라는 기별이 매일 있었다. 안 나가면 불리할까 하여 모든 청장년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나가 보면 지

도자라는 공산 청년이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영웅 무쌍한 인민군’ 이 국방군(한국군)을 무찌르고 이제 전국 해방도 시간 문제라고 떠들었다. 헤어질 때에는 반드시 김일성 장군 만세와 인민 공화국 만세를 부르게 했다.

그러다가 이 쫓기 대회는 이윽고 물건을 공출하라는 약탈 선전으로 변하였다. 맨 먼저 집에서 기르는 개를 모두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괴뢰군에게 개를 잡아 대접하자는 것이었다. 다음에는 식량을 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식량은 누구나 연명에 관계가 있으므로 식량 각출은 실패했다. 그 대신 집에 있는 놋그릇 등 금속은 모조리 내놓으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일본이 전쟁할 때에도 유기 ‘원납’은 강요당했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하지 않았었다. 그런 방법이라고는 속을 잘 아는 반장을 통해 끌어모으는 것인데, 반드시 “협력 안 하면 좋지 못하다.”는 위협이 따라 있었다.

10 몰래 들은 방송

일본 도오쿄로부터 우리말 방송이 들어왔다. 방송 채널을 빼앗긴 우리 방송이 일본에서 하는 것이다.

이 방송을 통해 유엔군이 참전하여 완강히 공산군과 대전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소문으로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듣다가 붙잡히기만 하면 끝장이므로 라디오는 모두 이불 속에 감추고 들었다. 밤 중에는 포성이나 총성이 들리지 않고 통행 금지가 일곱 시부터이니까 사방이 교묘하다. 라디오 소리가 들릴 까닭이 없었다. 모두 이불을 뒤집어쓰고 들었기 때문이다. 귀에 익은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들렸다. 이 방송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서 서울 시민에 대해 담화를 직접 육성으로 하는 것도 들었다. 그것은 아마 대전 방송을 일본에서 중계하는 것임이 분명했다.

유엔군 참전의 소식은 침통에 빠진 서울 시민에게 용기를 주었다.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침략자가 제아무리 거짓말을 퍼부어도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어느 틈에 그 많은 공산주의 동조자가 생겼는가? 그럴 까닭이 없다. 사변 일어나기 전에는 몇 사람의 정치가·지식인·문화인이 대한 민국에 저항한 것을 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중에 비하면 극히 소수였다.

그들은 공산군이 침입한 뒤에 세상 만났다고 날뛰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보다 먼저 38선을 넘어서 이북으로 간 자도 꽤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이 많은 서울 시민을 장악할 수는 없었고, 다만 급작스럽게 ‘빨갱이’가 된 무리들이 그들의 앞잡이로 날뛰는 정도였다.

처음에 자진해 날뛰던 이 급조 빨갱이들은 처음에 무슨 공로를 세우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열성을 보이었지만, 방송을 통해 나오는 정보가 연연중에 깔리자 움찔 하고 들어간 자가 많다.

그리고 보면 공산주의의 조직력은 남한에는 거의 없었다. 공산주의는 조직의 힘으로 무엇이든 추진한다. 아직 평양에서 조직원이 도착하지 않은 때이고, 또 사태가 매우 급박했다.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였다.

선무 공작에 앞서는 것은 민생의 해결이다. 바싹 마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있는 것을 수탈하고 선무한다는 것은 도무지 실효가 없었다. 말하자면 평양에서 식량을 바리로 실어다가 굶주린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선무 공작을 했더라면 혹 양상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솟게 건강강이로 말로만 협력을 빌고, 빼앗아가기만 해서는 대중을 움직일 수가 없다.

처음에 부여하던 자들이 차차 떨어져 나간 것은, 그들에게 조금도 이롭지 않았다.

그들의 크나큰 오산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침략하면 시민들이 자진해 환영하고 저희들 공작에 적극 협력해 침략 목적이 급진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믿은 그것이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몰랐고 그것을 아는 것은 처음으로 대하는 그들을 통해서 알 수 밖에 없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했던가?

II '사람 사냥' 과 약탈

아군 비행기가 하루에 몇 차례 다녀가는 것을 보고 시민은 방송에서 얻은 유엔군 참전을 확인했고, 피뢰군은 초조해하는 기색이었다.

여기서부터 놈들이 '사람 사냥'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 '자수' 종용이 실패하자 이제는 막 수색에 나섰다. 그것은 소위 반동으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사사로운 원한으로 고발당한 무고한 사람까지 닥치는 대로 데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비전투원을 붙잡아 가는 사례는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악질적 처사였다.

그런가 했더니 새 포고가 나왔다. 그것은 37세까지의 남자는 모두 '의용군'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나는 37세였다. 어느 날 아침 새벽같이 동원령이 내려서 우리들은 동회로 나갔다. 식구들은 또 불러 나가서 지겨운 공산주의 강의를 듣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나 부르다가 울 줄로 알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다.

거기서는 전황 설명이 있었다. 남침군이 승승장구로 밀고 내려가 이제는 대구·부산만 남겨놓고 있다. 이들(국군)을 모두 부산 앞바다로 미는 것에 우리는 참가하자는 것이다. 하루속히 이 과업이 달성되어야 '남조선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군대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모두 열빠진 사람처럼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식구들에게 사유를 전할 겨를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러보니 착검한 총을 든 피뢰군이 서너 명 둘러싸고 있으니 빠져나갈 도리가 없었다. 꼼짝 없이 나는 당하는구나 생각했다. 거기 모여든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였다.

그 때 의외의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는 소설가 열상섭 선생이었다. 그 분이 나타나 나를 찾는다. 나는 얼른 나갔다.

"어찌 오셨습니까? 저리 나가시죠."

이렇게 낮은 소리로 한 다음 나는 그분과 함께 거기를 빠져나왔다.

여기서 설명이 필요하다. 놈들의 조직에는 횡적 연락이란 도무지 없었다. 난데없는 중늬승이가 나타나 한 사람의 청년을 불러 내어도 그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것도 없이, 필시 무슨 ‘기관’의 요원인 것으로 알고, 그 ‘기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다. 나는 우선 그 악마의 그물에서 빠져나온 것을 다행으로 횡보 선생과 안암천 다리계로 걸어갔다. 선생이 나를 찾은 것은, 자기의 저술을 내어주기로 하고 선금을 얼마만 내라는 이야기였다. 우리 집을 간신히 찾아갔더니 동회의 쫓기 대회에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웬만하면 내 집에서 기다릴 터이건만 워낙 사정이 다급해서 동회까지 쫓아와 찾은 것이었다.

나는 눈물이 났다. 나를 구제해 준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이 작가가 얼마나 뾰박했으면 나를 찾아왔겠는가 생각해서 가련한 생각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물론 나는 한 푼도 드릴 돈이 없음을 설명하고 사죄했다. 그는 터덜터덜 걸어 돌아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곧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의논했다. 더 이상 서울에 있다가는 그 무차별 사람 사냥에서 빠져날 도리가 없으므로 어디로든 서울을 빠져나가야겠다는 것이었다. 집안에는 이미 식량이 떨어져 있었다.

나는 둘째딸(5세)과 아들(3세)과 식모를 데리고 고양군 벽제면에 있는 먼 사돈이 되는 농부의 집으로 피신할 것을 생각하고, 아내와 큰딸(8세)은 집에 두고 떠나기로 했다. 식구가 흩어져 사는 것이다.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선 것은, 혹시 가다가 붙들리더라도 어린애를 동반한 사람이야 어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 그들을 우리네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동행하는 사람이 아이이건 늙은이건 젊은이의 몸만 확보하면 나중은 어찌되든 상관인 없는 것이었다.

다행히 서울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것은 이따금 습래하는 아군의 비행기 때문에 길가에 나왔던 괴뢰군이 몸을 숨겼기 때문이다.

시골 집에서는 잘 곳이 없었다. 나는 원두막에서 잤다. 마침 장편 소설

책을 가지고 갔길래 낮에는 그것을 원두막에서 읽었다. 심심치 않게 아군의 비행기가 모습을 나타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어서 자꾸 자꾸 오너라.”

속으로 기원했다.

며칠 지내니까 서울이 궁금하다. 멀다면 모를까 걸어서 8~9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니까 더욱 궁금하다. 식량을 보급 안 하면 집에 둔 식구가 굶어죽는다. 주인에게 청해 쌀 한 말을 자루에 넣어 짊어지고 나섰다. 나는 수염을 깎지 않았으므로, 게다가 영양 실조로 얼굴이 수척해 40은 넘어 보였다. 위험한 줄은 알면서 서울 집으로 향했다. 무악재 고개를 넘어서려는 길목에서 어느 청년 하나가 나서면서,

“시방 서울 시내에서는 사람을 막 잡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일러 주었다. 그러나, 나도 사정이 급했다. 길을 인왕산 능선으로 잡아 세검정으로 해서 미아리 고개로 걸었다. 그 때는 세검정에서 정릉으로 빠지는 큰 길이 개발되지 않아서 산이요 숲이었다. 집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왔소? 그 동안 두 번이나 공산군이 와서 당신을 찾고 집을 뒤졌소.”

하고,

“어디 갔느냐고 물기에 어디 간지 모른다고 대답했소.”

라는 것이었다. 무차별로 젊은 사람을 잡아간다는 말이 입증되었다.

이들이 젊은 사람을 잡아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 첫째 한국의 전력을 감소시키려는 것, 둘째 젊은이가 있으면 갖가지로 곤란한 일이 많다. 벌써 이맘때쯤은 밤에 느닷없이 신호탄이 오르고, 날이 밝으면, “우리는 곧 해방된다. 아군의 수도 탈환은 목전에 있다.” 하는 따위의 격문이 도처에 붙었다. 우리측의 민간 계령라 부대가 활약하는 것이다. 이들이 모두 활기찬 젊은이들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서울 안의 젊은이들은 어쨌든 제거할 필요가 그들에게 있었다.

소위 인민군이라는 작자들은 모두 나이 어린 소년이 많았다. 우리 같은 중·고등 학교에 다닐 연령이다.

이들은 시계 한 개만 주면 쌀 한 가마를 배달까지 해 준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잡혀 간 젊은이도 돈을 주면 빼돌려 준다는 것도 널리 알려졌다. 그것을 안 것은 훨씬 뒤였다. 매춘부들이 왕성히 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워낙 보급이 시원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현지 조달'을 한다는 것이 이 지경이었다.

나는 서울에 와서 아군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가장 위험하기는 이 때였다. 뒤가 물린 피뢰군들은 미친 듯이 난폭한 행동을 자행했다.

첫째는 시민의 학살이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을 많이 죽인 자는 전선에서 군인을 많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되는 것인지 덮어놓고 죽였다. 우리 집 골목 저편의 한 여성은 반장 노릇을 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정 주부일 따름인데 끌려 나가서, 뒷동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더기로 총살되었다. 이런 일이 전 서울 시내의 도처에서 일어났다.

둘째는 방화다. 종로구 관찰동은 군사 시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군이 폭격할 목표물이 없었다. 그것을, 피뢰군의 방화로 그 일판이 온통 잿더미가 되었다.

세째는 사람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서 미아리 고개로 해, 북쪽으로 납치해 갔다. 학자·사업가·공무원, 젊은이·늙은이 할 것 없이 떼려갔다. 떼려가다가 폭격을 당해 도망쳐 온 사람이 있으나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은 가다가 귀찮으니까 처치했다.

네째는 약탈이었다. 공공 기관이나 개인 집에서 값나가는 물건은 모조리 약탈했다. 그것이 명령에 응한 것인지 재물에 눈이 어두운 피뢰군의 독자 행위인지 모르지만 재물을 닥치는 대로 겁탈해 갔다. 명령에 의한 것이 분명한 것은, 국립 박물관의 보물을 이북으로 운반하려던 것이다. 박물관원을 시켜 모든 국보들을 포장시켰다. 관원들이 일부러 포장을 늦춰서 어물어물 시간을 끌었지만 빗발 같은 재촉에 여러 날에 걸쳐 단단히 포장했

다. 그것을 피뢰군 부대가 군 트럭에 싣고 가다가 의정부에서 아군의 폭격이 심하니까 버리고 도망쳤다. 그렇지 않았던들 오늘날의 국립 박물관은 없을 뻔했다.

몸서리쳐지는 악몽의 90 일이었다. 그들은 ‘공산주의 해방군’은 절대로 아니고 현대 무기를 가진 ‘산적’들이었다.

12 민심 이탈에 대한 책임 회피

우리가 수도를 탈환한 뒤에는 공산군은 지리멸렬되어 산을 타고 도주하고, 또 많이 붙잡혔다. 그러다가 중공군의 개입을 당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1·4 후퇴’를 하였고, 이번에는 중공군을 주축으로 하는 공산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했다.

중공군은 서울에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에는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아주 빈곤한 부녀자만 더러 남았고, 대부분의 인구가 모두 빠져나가 서울 안이 텅 비었다. 이것은 어찌된 것인가? 적어도 무산 대중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할 줄로 알았다. 대중이 피난을 갔으면 그 몫쓸 놈의 미군과 한국군의 비호를 받으러 갔다는 것인가? 이것은 듣던 것과는 사실이 다르지 않은가? 저희들이 중국 대륙을 석권할 때에는 가는 곳마다 민중이 나와 환영했던 것이다.

여기서 중공군 사령부에서는, “절대로 조선 인민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려 침공한 중공군은 민중과 접촉을 피했고, 다리 밑이나 창고 등에서 묵었다고 한다.

이는 필자의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다. 병들어 1·4 후퇴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노약자가 입을 모아 한 말이요, 나중에 공산군의 처사로 보아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정권 협정이 성립된 뒤에 김일성은 남로당의 박헌영을 비롯해 점령시 서울시 인민 위원장을 지낸 이승엽 등을 처단했다. 박헌영은 6·25 직전의 상황 판단을 그르쳐서, 피뢰군이 밀고 내려가기만 하면 대한 민국을 부정하는 민중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전체 인민’이 협조

하여 ‘혁명 과업’은 조속히 달성되리라던 정보가 근본적으로 빛나간 때문이고, 이승엽은 점령시 서울 시민의 민심에서 이탈했다는 죄과였다. 그들은 미국의 스파이라는 터무니 없는 죄명으로 사형대의 이슬이 되었다. 이 밖에도 점령군의 간부들도 몇몇이 숙청되었다고 한다.

13 맺는 말

6·25 사변은 동족 상잔이라는 씻을 수 없는 민족의 부끄러움을 세계 역사에 남겼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후진성을 드러내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의 정체를 일찍부터 파악하지 못하고 종래의 상식으로만 그들을 보고 있었다. 사변 직전에 조만식을 김삼룡, 이주하 등과 교환하자는 교섭이 남침의 준비 기간을 벌려는 것임은 꿈에도 모르고 속아 넘어갔다. 그리고 적침이 있을 때의 장비는 빈약한 대로 내버려두었다.

다음은 김일성의 괴뢰 집단인데, 해방 후 정권을 잡은 그 때부터 남침 준비에 광분했었다. 주민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 가니까 공산 통일을 서둘렀다. 여름을 개전의 시기로 삼은 것은 식량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령만 하면 모든 인민이 그들에게 협력하리라는 그릇된 판단을 내려 감행한 것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아주 단순히 판단한 것이다. 유엔군이 참전할 것은 김일성도 상상 못 했으며, 그를 사주한 클레멘틴의 스탈린 역시 그러했다. 이 때문에 진격이 더디었고, 반격을 받는 바람에 ‘예정’은 아주 뒤집혔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남한의 사기가 부쩍 앙양되니까 형세가 역전되었다. 그리하여 살인·약탈·방화·파괴를 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것이 북괴이며, 하는 것을 보아도 비겁하고 비논리적이고 비인도적인 행패만 자행하고 있다. 중립국, 이를테면 일본 같은 나라의 지식인들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 공산주의를 낙명시킨 것은 바로 김일성이라고 한다. 김일성은 이 비판의 소리를 회피하기 위해 부내의 숙청을 단행하고 ‘주체 의식’이란 말을 창안했다. 곧, 독자

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니 공산주의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한편 국제 공산당은 한 귀퉁이에서 무너지고 있다. 대국인 중공과 소련의 논쟁을 비롯해 베트남에서의 분쟁이 그것을 증명한다.

대한민국은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았으나 얻은 것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그것은 거죽으로 보아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사변중에 정체를 드러낸 것이었다. 적·백이 뚜렷하게 구별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 김일성은(그 아들 김정일을 포함) 자나깨나 우리 나라의 적화 통일을 꿈꾸고 재침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배경의 두 공산 대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이 있는 것을 마음 든든히 생각하지만 그들을 전적으로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주 국방’이란 말은 이래서 생긴 것이다.

필자로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사변의 체험이 없는 젊은 세대가 공산 침략의 감각에서 무디어져 가는 현상이다. 지금도 실제 침략은 없지만 ‘사상전’은 잠시도 쉰 적이 없다. 이들에게 사상적인 무장을 어떠한 수단으로 시키느냐가 위정자를 비롯한 기성 세대의 크나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나의 6·25 體驗

李 炳 注
(作 家)

같은 또래의 나이를 가진 사람이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지금도 때때로 절박한 꿈을 꾸곤 밤중에 벌떡 일어나는 발작을 일으킬 경우가 있다.

어떤 危急한 꼴을 겪고 보면 그 극한 상황이 오래도록 신경의 심층에 잠재되어 있다가 문득 문득 고개를 쳐드는 것일까. 나는 그것을 '25時的'인 발작이라고 부른다.

'25시적'이란 물론 게오르규의 소설 '25시'에 연유한 착상이다. '25시'의 주인공은 자기의 죄도 책임도 아닌 일로써 박해를 받는다. 어떤 의미에 있어선 우리의 상황은 한때 '25시'적이었다. 그리고 언제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휩쓸어 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지금도 있다.

참으로 6·25 동란은 어처구니 없는 재난이었다. 그 때를 회상할 때마다 金日成과 그 범죄적 집단에 대한 증오를 새롭게 한다. 이것은 아마 나만의 감정은 아닐 것이다.

내 나름대로 그 때 내가 겪었던 일을 적어 보기로 한다.

그 날 晋州의 날씨는 지금 생각을 해도 지긋지긋할 만큼 무더웠다. 그 무더운 오후, 나는 친구들과 함께 鄭琪永 군이 갖 이사한 옥봉동 소재의 집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삿짐이 이곳 저곳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때 모인 친구들의 면면을 회상하면 우선 집주인 정기영이 있었고, 농림 고등 학교의 교사로 있다가 전주 고등 학교로 전근한 지 2개월째인 李光學, 농림 고등 학교의 교사인 徐瑛德, 전직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秋淵栢, 대중 가요의 작곡가 李在鎬 등이 있었는데 例外的 인물로선 閔忠植 군이 끼어 있었다.

민충식 군을 예외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주 사람이 아니고 마산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제 있었던 이진영 군의 결혼식에 참가했다가 진주에 온 김에 한 이틀 놀다 갈 작정으로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들 같은 시절에 동경 유학을 했고 이재호를 제외하곤 학병에도 같이 간 사이여서 격의가 없는 분위기였다. 우리는 해가 지기만 하면 料亭에서 한바탕 할 작정을 하고 대기하고 있던 참인데 아까 말했듯 지긋지긋하게 더웠다. 창이란 창을 죄다 열어 놓았는데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꽤 넓은 뜰에 서 있는 정원수가 이파리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숨막힐 지경이었다.

“무슨 일이 터지고야 말 것 같다.”

하고 누군가가 말하자,

“그렇다. 이 모양으로 그냥 지속될 수는 없겠지.”

하고 맞장구를 치는 자도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무슨 재앙을 예시하는 것 같은 답답하고 후텁지근하고 지긋지긋한 더위에 모두들 흥건히 땀을 흘리고 있었다.

갓 이사한 때문인지 선풍기도 없었다. 아뭏든 밤이 되길 기다릴 뿐이었다. 밤이 되면 요정으로 가서 활활 다 벗어재껴 놓고 실컷 술이라도 마시리라. 그것이 오직 현재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희망처럼 되어 있었다.

시계가 여섯 시를 가리킨 직후의 일이다. 돌연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사이렌 소리다.”

“이상하다.”

“불이 났는가?”

더위에 지치고 보니 호기심에도 정열이 없어 이런 소리를 그저 지껄이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는 좀처럼 멎질 않았다.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사이렌 소리가 차차 불길한 징조처럼 들리게 되었다. 사이렌이란 묘한 작용을 한다. 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이면 또 모르되 까닭을 알 수 없는 사이렌이 10분, 20분 계속 울리고 있으면 가만 앉아 있을 수 없는 기분으로 된다.

우리는 어느덧 더위를 잊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의 사이렌인가를 알아보아야만 했다. 우루루 대문 밖으로 나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으나 그들도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돌다리를 건너 30m 저점에 대한 청년단 지부가 있기에 나는 그 곳까지 가 보았다. 그 지부 앞에 평소 면식이 있는 청년단장이 서성거리고 있기에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또 저리산 빨치산들이 야로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고 그는 덧붙였다.

“하여간 무슨 비상 사태가 벌어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잔뜩 불안했던 참이라 내가 이 말을 전하자 모두들 헤어져 각각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민군은 同行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리로 가고, 나는 일동과 헤어져 칠암동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엔 라디오도 없고 전화도 없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으로 연락해 보았자 그 날은 일요일이어서 사정을 알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다 더위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냉수욕을 하고 저녁밥을 먹고 책을 보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다.

그 때 이미 38선을 뚫고 북괴가 서울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끔찍스런 사실을 모르고 6·25의 그 날을 지나 버렸다.

대강의 내용을 안 것은 그 이튿날 아침 대학에 출근해서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하는 학장은,

“일시적인 전쟁 상태겠지 별일 있겠습니까? 미군도 있고 국군도 있으니 곧 격퇴할 겁니다. 라디오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태평스러운 얼굴이었다.

나도 그러려니 싶었다.

38선과 진주는 천여 백 리의 상거이다. 그 곳에서 砲聲이 났기로소니 실감으로써 전달될 까닭이 없었다. 38선이 그어진 이래 간혹 서로 충돌이 있었다고 듣고도 있어, 이번의 경우도 그런 사건이 조금 확대된 상황일 것으로만 짐작했다. 그러니 약간의 불안이 없진 않았지만 평소대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서울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어 대전에서 전투중이란 풍문이 돌았다.

7월 10일 경에 이르자 진주 시가의 양상이 들변했다.

“제○사단 장병 모여라.”

“제×사단 장병은 지정한 곳으로 오라.”

는 등의 벽보가 눈에 띄었다.

질서 없이 후퇴를 한 결과 저런 벽보를 필요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다. 그 때야 我軍이 不慮의 기습을 받았구나 하는 실감이 났다. 아무런 대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병을 외출까지 시키고 있었던 일요일의 기습이고 보니 당해 널 도리가 없었을 것이란 짐작도 갖다.

저리의 벽마다에 아머어마한 布告文이 나붙기 시작했다.

“유언비어를 하는 자는 총살한다.”

“적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자는 총살한다.”

기타, 항목마다에 총살이 붙어 있었다.

어느덧 거리마다 전신주마다 ‘殺’자 투성이가 되었다.

이 무렵, 이범석 장군이 진주 공원에 사람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모두들 죽는다.”

하는 요지의 연설이었다.

신익희 국회의장의 연설도 있었다.

“민족의 슬기를 다해 국난을 극복하자.”

는 것이 연설의 골자였다.

나는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의 연설이 있다고만 들으면 달려가서 띄약별
을 무릅쓰고 들었다. 희망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런 가운데 내가 가장 감
동한 것은 조병옥 씨의 강연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민주주의를 하려는 죄밖에 없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루빨리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
친 죄밖에 없다.

물론 나라가 어리고 보니 갖가지 시행착오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는 고쳐 나갈 수 있는 시행착오이다.

그런데 김일성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깡그리 유린하려고 장난을 시
작했다. 이런 자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 자는 바로 민족의 원
수이다. 원수의 노예가 되려느냐, 원수를 타도하고 자유민으로서 살겠
느냐. 우리가 나갈 길은 명백하다. 일순의 주저도 있어선 안 된다.”

이러한 연설이 있었고, 그로 인해 격양된 감정은 있었지만 우리의 힘으
른 사태를 어찌할 수 없었다. 망연했다.

7월 20일 경이 되자 포성이 들려 왔다. 전라도를 석권한 피뢰군이 하동
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피뢰군의 진격이 그
처럼 빠를 줄이야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대학뿐 아니라 각급 학교의 수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때마침 방학 시기이기도 했다. 학생들 가운데 의용병을 지원하는 자가 있었다. 진주 역두에선 의용병으로 나가는 학도들을 환송하기 위한 환송회가 연일 있었다.

한편 예비 검속한 保聯員들을 지결 처분하고 있다는 풍문이 거리를 휩쓸고 있었다.

어느 날 곤양에까지 괴뢰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학생이 내 집을 찾아왔다. 곤양이라면 진주완 20 km 남짓한 상거의 지점이다.

“선생님, 피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너는 어떻게 할테냐.”

“전 부산 쪽으로 가렵니다. 경우에 따라선 군에 입대하겠습니다. 인사 겸 찾아왔습니다.”

“잘 가거라. 다시 만날 날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선생님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하고 글썽한 눈물을 고인 채 그는 떠났다. 그 학생의 이름은 조학신이다. 지금 진주에서 살고 있다.

채병덕 장군이 하동 赤良에서 전사했다는 소문이 들려 왔다. 뒤에 안 일이지만 7월 27일에 있었던 일이다.

그 무렵, 내가 근무하고 있던 진주 농과 대학 학장 황운성 씨가 피난길을 떠났다. 나도 피난을 해야 하겠는데 갈 곳이 막연했다. 부모님이 계시는 학동 北川으로 가야 했지만 그 곳은 이미 敵地가 되어 있었다.

초조해진 나머지 나는 아내와 네 살 난 아들, 두 살 난 딸을 데리고 固城에 있는 처가로 가기로 했다.

7월 29일, 나는 네 살짜리 아들을 업고 아내는 두 살짜리 딸을 업고 십 부름하는 소녀를 데리고 고성으로 떠났다. 진주서 고성까지는 백 삼십 리의 거리다.

찌는 듯한 햇볕이 쪼이는가 하면 간혹 비가 내리기도 했다. 진주서 개

양까지의 길엔 피난민이 넘쳐 있었다. 피난민 무리 속에는 귀에 익지 않은 사투리가 섞여 있기도 했다. 서울서 왔다는 사람도 있었고 38선 접경 지대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었다. 형편이 어떻더냐 묻기도 했지만 모두들 기진맥진한 탓인지 ‘탈 마슈.’ 하는 표정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

삼천포, 부산, 마산으로 가는 大路는 붐비고 있어 나는 文山에서 산길을 택해 고성읍 쪽으로 빠질 작정을 했다.

그늘진 곳을 찾아 쉬어 가며 걸어가는데 내 마음은 착잡했다. 그런 가운데서 연상한 것은 스페인 內亂이다.

스페인 내란은 1936년부터 1939년까지 계속된 골육 상쟁의 전쟁이다. 청년 시절 나는 그 전쟁의 보도를 읽고,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개탄했었다.

무슨 까닭으로 동쪽끼리 죽이고 죽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스페인에 비교하면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망정 조선의 형편이 나은 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스페인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의 꼴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절망 적전의 한숨이 저절로 났다.

긴 여름해가 지고 나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장모와 장인은 우리들의 물골을 보자 실색할 정도로 놀랐다. 그러나 저러나 일시적이거나 난을 피할 곳에 왔다는 사실에 일단 안심했다.

7월 31일에 진주가 점령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동시에 유엔군 항공기에 의한 폭격이 진주시에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7월 31일의 전세는 뒤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피뢰군은 공세의 주력을 중부로부터 서부와 동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적의 총 병력은 약 20만.

적은 진주, 거창, 함천을 점령했다. 전선은 진주의 서남, 함양의 서쪽, 거창, 김천, 예천, 영덕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전투 태세를 강화시키고 있었고, 더우기 압도적으로 우세한 空

軍力으로써 적의 銳鋒은 이미 꺾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었으랴. 절망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비행기의 폭격을 피하느라고 이 산골 저 산골을 헤매다니고 있었다.

8월 중순에 접어들었을 때 적이 함안을 점령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고성은 무사했다. 적의 진격 속도가 그만큼 느리게 된 것이라고 짐작되어 한편 안심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저녁나절, 난데없이 미군의 전투기가 고성읍을 폭격하기 시작했다. 내 처가와 고성읍의 거리는 불과 4 km 정도이어서 그 폭격 광경을 산비탈에 숨어 앉아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었다.

약 30분 동안 폭격이 계속되었을까? 인구 2만도 채 못 되는 小都市인지라 그만 하면 거의 전멸되었으리라고 판단되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비행기가 사라지자 불쭙 이런 말을 했다.

“고성읍엔 아직 피뢰군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격이 웬 일일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뢰군이 들어왔겠지.”

누군가의 말이었다.

“아냐, 피뢰군은 들어오지 않았어. 바로 한 시간 전에 내가 읍에서 돌아왔는데 그 때만 해도 경찰관이 그대로 있었거든. 어느 사이에 피뢰군이 들어왔겠어?”

“그렇다면 잘못 알고 폭격한 건가?”

“설마 그럴 수가 있을라구.”

이튿날 아침 그 폭격이 誤爆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피뢰군은 아직도 고성읍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이었고, 피뢰군의 현 위치는 고성읍과 사천읍과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는 몇 사람과 함께 고성읍에 가 보기로 했다.

한 마더로 말해 처참했다. 군청, 경찰서, 읍사무소를 비롯한 공공 건물은 물론이고 집 같은 집은 번두리를 제외하곤 남아 있지 않았다. 시장 이

곳 저곳에 까맣게 탄 시체들이 뒹굴고 있었다. 그 시체들은 공기의 탓으로 조그마한 동산 크기만큼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전쟁 자체가 이미 비극이려니와 전쟁 중엔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이런 실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싶으니 암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시냇가 그늘 밑에 앉아 있었다. 모두들 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공격 목표로 안할 것이란 짐작도 있었지만, 그 무렵 시작된 함포 사격으로 산 속과 집안이 되려 위험했기 때문이다.

해가 질 직전이었다.

석양이 푸른 들판 위에 비끼고 있었다. 어떤 찰나의 일이다. 시선을 시내 아래쪽으로 돌렸을 때 붉은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자세히 보았다. 끝간 테를 모르는 괴뢰군의 대열이 시내의 흐름을 사이에 두고 양편 강언덕 밑으로 바짝 붙어 소리 없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붉게만 보인 것은 땀에 뵈 군복의 카키색이 석양을 쏘였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숨을 죽였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였다. 그 때 네 살 난 아들놈이,

“아빠, 국군 국군.”

이라고 하는 바람에 얼마나 혼이 났는지. 아들놈은 내 얼굴빛에 짓눌려 입을 다물어 버렸다.

분명히 아들놈의 말을, 바로 코앞을 지나가는 괴뢰군이 들었을 것인데도 시선을 전방에 고착시킨 채 전진하고 있었다. 다음 다음으로 괴뢰군은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들 앞을 지나갔다. 그 긴박한 거동으로 보아 금방 어디선가 白兵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들이 가고 있는 전방에 미군 부대가 있는 것은 확실했다. 고성읍에서 서쪽으로 2km 저점에 있는 고개에, 미군의 機甲部隊가 잠복하여 사천 방면에서 내려오는 괴뢰군을 요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괴뢰군은 전연 반대 방향에서 나타났으니 어떻게 된 일일까. 미

군은 피뢰군이 사천 쪽에서 울 줄 알고 있을 터인데 피뢰군은 미군의 배후에 나타난 것이다.

피뢰군은 골짜기와 숲 사이를 기어 迂回作戰을 계획했음이 확실했다. 미군도 그 기미를 알고 기선을 제압할 목적으로 고성읍에 맹폭을 감행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아군을 몰살한 오폭으로 된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전투는 그 날의 황혼 두 시간 사이에 끝났다. 그 전투 상황을 상상해 보면——

사천 쪽에서 피뢰군의 포격이 시작되었다. 사천 쪽 10 km의 전방에 있는 지점에서, 피뢰군의 행동 개시가 무전으로 전달되어 왔다. 고개에 대기하고 있던 미군은 일제히 배치된 장소로 갔다. 신경은 오로지 전방에만 있었다. 그 때 돌연 배후에서 함성과 더불어 총탄이 비 오듯 날아왔다. 미군은 독 안에 든 쥐처럼 되었다. 운수 좋은 일부는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나머지는 전멸했거나 포로가 되었다. 그 지점에 있던 미군은 전투다운 전투도 하지 못하고 패배해 버린 것이다.

그 밤 사이 피뢰군은 질풍같이 고성읍을 지나 진전하여 진동 방면으로 진출하고, 그 이튿날 폐허가 된 고성읍 변두리 집에 ‘인민 위원회’의 간판이 붙었다. 전투 부대의 깃무늬에 정치 공작대가 휘파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묵고 있는 처가 마을에 정치 공작대가 들이닥친 것은 그 날 오후의 일이다. 나는 위험을 느꼈다. 그 지방 사람이 아닌 사람이 피난을 와 있다고 하면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이쪽도 저쪽도 이미 敵地가 된 바에야 부모님 곁에 있어야만 했다. 부모의 소식도 궁금하고 진주의 소식도 궁금했다. 아내와 아들딸을 처가에 맡겨 두고 나만 고향으로 떠날 차비를 했다. 저삼촌이란 사람이 인민 위원회를 찾아가서 ‘여행증’을 얻어 가지고 왔다.

8월 20일, 나는 처갓집의 친척이며 농과 대학에선 내 제자인 이창수란 학생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길을, 며칠 전에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잡은 것은, 戰跡에 대한 다소간의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성읍에서 2km의 지점인 고개에 이르렀을 때, 텅굴고 있는 장갑차와 찌그러진 전차, 풀 속에서 썩고 있는 미군의 시체가 시야에 들어왔다. 값진 무기들이 무수히 산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두고 도망을 쳤다는 것은, 내가 며칠 전 본 괴뢰군의 기습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놈들의 전법이 비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미움도 치밀어 올랐다. 동족을 죽이기 위해 그와 같은 훈련을 했는가. 그 훈련에 들인 정성을, 민족을 복되게 하는 방향으론 쓸 수가 없었던가.

곳곳에서 썩고 있는 미군의 시체를 보곤 두려움과 동시에 비참한 감회를 자아냈다. 희망도 있었을 것이고 포부도 있었을 것인데, 그 희망 그 포부를 죄다 포기하고 청춘의 몸으로 저게 저렇게 썩고 있다 싶으니 비참한 감회를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고개에서 사천까지 떨어진 장장 50km의 길! 한여름의 태양에 바래져 있는 길은 무인지경으로 펼쳐져 있었다. 나와 이창수는 서로 주고받는 말도 없이 타박타박 걸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걸었을까. 침통한 기분만이 막연하게 남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속에 없다.

어떤 고깃길에서 괴뢰군의 분대 병력을 만났다. 그들은 길가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아도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창수가 쉬어 가자고 귀엣말을 했다.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 동의를 하고 그들 가까이에 가서 자리잡고 앉았다. 모두 15,6세로 보이는 소년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이 나이를 먹어 보였다. 그 사람이 분대장인 것 같았다.

다음과 같은 문답이 이창수와 그 분대장 사이에 오간 것으로 기억한다.
분대장 “어딜 가오.”

이창수 “잠깐 전쟁을 피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오.”

분대장 “고향에 돌아가거든 우리 사업에 협력하시오.”

이창수 “전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소. 앞으로 어떻게 되겠소.”

분대장 “그런 것 우리는 모르오. 뒤에 정치 공작원과 문화 공작원이 올

것이니 그들에게 물어 보시오.”

그 이상의 문답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분대장은 곧 병정들을 일으켜 세우더니 무엇을 찾으려는 듯 길 양편을 살피며 걸어갔다. 그들이 가는 방향은 우리와 반대 방향이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나는 그 소년병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다. 훈련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지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끼리도 말을 주고받는 일이 없었다. 게다가 분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침울한 표정도 인상에 남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사와 탄환으로 끌려나온 신세임이 틀림없을 것이었다. 가련한 사람들!

사천읍이 가까워지자 긴 여름해도 기우려 들고 있었다. 사천읍을 십 리쯤 앞으로 둔 지점에 정동면 파출소가 있다. 그 파출소 간관은 정동면 내무서로 바뀌어 있었다. 내무서 앞에 앉아 있던 사나이가 우리들의 신분을 살폈다. 여행증을 내보이자 그는 가라고 했다.

정동면 내무서에서 백 m쯤 걸어왔을 때이다. 총원 20명쯤으로 되어 보이는 피뢰군의 일개 소대를 만났다. 소대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대열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와 우리를 불러세웠다.

여행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그로써 끝내지 않고 물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나.”

“진주 농과 대학의 교수이다.”

“증명서가 있느냐.”

“있다.”

하고 나는 속주머니에서 신분 증명서를 꺼내 보였다.

그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더니,

“대학 교수인 것을 보니 반동이구나.”

하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고, 이창수더러는 명령조로 말했다.

“당신은 가시오.”

“선생님을 모시고 가다가 어찌 나만 갈 수가 있소. 나도 같이 가겠소.”

그랬더니 그는 대뜸 고함을 질렀다.

“시키는 대로 해. 당장 가. 안 가면 쏠테다.”

하고 메고 있는 총에 손을 댔다.

“창수야, 너 먼저 가라.”

고 손짓을 하고 나는 그를 따라 걸었다. 그 때의 내 짐작은, 자기딴으론 의심스럽게 본 나를 정동면 내무서에 잘 조사해 보라는 요구를 곁들어 맡길 것으로 알았다.

내무서 앞에 아까 나를 조사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병정은 그냥 그 앞을 지나쳐 버렸다. 당황했다. 이 곳에 맡기지 않으면 나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겠단 말인가.

내무서에서 조금 지나니 모퉁이가 나타났다. 그 모퉁이를 지나니 조금 전 내가 타박걸음을 걸어온 길이 이곳 저곳에 굴곡하면서 쿼터롭게 떨어 있었다. 그 병정이 끼여 있던 소대가 간 곳은 보이지 않았다. 빠른 걸음이었기 때문에 벌써 상당한 거리를 앞선 것이리라 싶었다.

길은 어느덧 반쯤 산 그늘에 덮여 있었다. 맹렬한 피로가 엄습해 음을 느꼈다. 긴 길을 걷다가 목적지 바로 앞에서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 걸어야 하는 것처럼 맥풀어지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참이오.”

하고 내가 물었다.

“내가 소속된 중대가 있는 곳까지 가야 한다.”

그는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그게 어디에 있소?”

“고성읍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요.”

가슴이 쿵 했다.

(장장 백수십 리 길을 다시 가다니)

나는 안 되겠다 싶었다.

“내가 의심스러운 사람이면 아까 그 내무서에 맡길 일이지 뭇 때문에 고성까지 가자고 하는 거요.”

“잔소리 말고 따라와요.”

그는 거칠게 말하며 나를 앞세웠다.

한없이 뻗은 길이 앞에 있었다. 그 길 위에 사람 하나 보이질 않았다. 멀게 가깝게 마을은 있었으나 저녁 식사를 만들기 위한 연기 한 자락 보이질 않았다. 아직 피난처에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탓일 것이었다.

어느덧 들과 길은 완전히 그늘에 덮였다. 이윽고 밤이 되고 말 것이었다. 나는 겁이 덜컥 났다. 밤길을 이 사나이와 같이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공포로 변한 것이다.

(이 자가 나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내 너리를 이런 상념이 스쳤다.

(공명정대한 이유로써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빨갱이가 가지고 있음직한 적개심에 과잉 충성심 같은 것이 있다고 쳐도 내무서에 맡길 일이 아닌가. 굳이 고성까지 데리고 갈 이유란 없지 않은가. 하물며 전투 부대가 민간인을 조사할 까닭이 없다. 중무장을 한 것으로 보아 결코 수사 임무를 가진 자는 아니다.)

이런 상념 끝에, 그럼 나를 굳이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순간 너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시계다.)

이 자는 내가 차고 있는 팔목 시계를 노리고 있는 것이로구나. 소련군이 북쪽에 들어왔을 때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들은 적이 있었던 것인데, 그 가운데 소련병은 팔목 시계만 보면 빼앗아 간다는 얘기가 있었다.

나는 얼른 팔목 시계를 풀어 들고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소? 거cken 내 주수가 써어 있소. 나는 아무데도 도망치지 않을 것이요. 나를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전쟁이 끝난 후 진주에 와서 나를 취조하시요. 이 시계는 내 귀중한 재산이요.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는 담보로 당신에게 이걸 맡기겠소. 나를 이대로 고성까지 데려가 보았자 상세한 조사를 하려면 결국 진주로

데리고 가야 할 것 아뇨. 나는 다리가 아프오. 도저히 이 이상 걸을 수가 없소. 이 시체를 담보로 잡고 후일 나를 찾아 취조하시오.”

두서 없이 이렇게 지껄었던 것이데 그는,
“꼭 도망가지 않지?”

하고 물었다.

“왜 내가 도망가겠소.”

나는 일부러 거칠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알았소. 당신은 이 주소지에서 움직이면 안 되오. 움직였다간 좋지 않을 테니까. 그럴 이 시체는 그 때까지 내가 맡아 두지.”

하고 나를 놓아 두곤 총총한 걸음으로 떠나 버렸다.

어둑어둑한 황혼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피로가 일시에 엄습한 것이다.

참으로 아찔했다.

그는 그 하잘것 없는 시체 때문에 나를 죽일 작정을 한 것이 명백했다.

그래서 그의 소대원 일부러 거리를 두고 걸었다. 해가 지고 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진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총 한 방 쏘는 게 대단할 까닭이 없다. 무수히 사람을 죽였고, 죽은 사람의 시체에 익숙해 있는 그로선 나 하나 죽여 버리는 것쯤은 개구리 한 마리 죽이는 거나 별반 틀릴 것이 없었을 것이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그 때 내 옆으로 다가서는 그림자가 있었다. 이창수였다.

“선생님, 걱정했습니다.”

하고 그는 내 팔에 얼굴을 묻고 울먹거렸다. 이창수는 길로 따라올 수가 없어서 산 속으로 걸어 우리를 따라왔다고 했다. 그의 고마운 배려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 이상 걸을 수가 없었지만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워, 그 날 밤은 정동면 어느 집을 찾아 하룻밤의 잠자리를 청했다.

정동면에서 진주까지는 40리의 거리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걸었다.

진주는 이미 변두리만 남기고 전면 폐허로 되어 있었다. 내 집 가까이 에 와서 보니 콩교롭게도 남아 있는 집은 내 집뿐이고, 근처의 집, 바로 이웃집까지도 폭삭 내려앉아 처량한 광경이었다.

내 집도 들어가 보니 몸채만 덩실하게 남아 있을 뿐, 담장은 허물어지고 벽과 유리창은 군데군데 부숴지고 방과 마루에 기층의 탄환이 구르고 있었다.

자기 집을 둘러보고 오겠다면 이 창수가 떠난 후 나는 펜츠 바람으로 셈으로 갔다. 내 집엔 두레박으로 떠 올리는 셈이 있었다. 겨울이면 따스하고 여름이면 차가운 물이라서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는 셈이기도 했다.

두레박으로 물을 떠 올려 세수대야에 가득 채우곤 마악 세수를 하려는데 소리도 없이 크라맨 전투기가 나를 향해 기층을 쏘아 댔다. 나는 머리를 세수대야에 처박고 엎드렸다. 폭음은 뒤에야 들렸고, 그 비행기가 쏜 기층의 목표는 晉州橋 근처였다는 것을 짐작했다.

나는 집 근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창수가 찾아왔을 경우 보라고 몇 마디를 적어 현관 문 틈에 쪽지를 꽂아 놓고, 고향 북천으로 갈 참으로 집을 나섰다.

행길로 나왔다.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시내로 들어가는 다리는 중간 중간 파괴되어 있었으나 건너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 나는 걸음을 빨리 하여 다리를 건너 사범 학교 있는 쪽으로 방향을 취했다. 고향 집으로 가는 첩경이었다.

西將臺 밑을 돌고 있을 때였다. 남방서즈를 허술하게 입은 청년 세 사람이 내 걸을 지나가다가 그 중 하나가 나를 불러세웠다.

“혹시 농과 대학의 이 교수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다.

그는 같이 있는 사람과 뭐라고 소곤대더니 같이 가자며 내 팔을 끌었

다.

“부모님 걱정이 되어서 고향으로 가 보아야 하겠다.”

하며, 머뭇거렸지만 그는 얼굴에 냉소를 띠우며,

“당신 참 간도 크오. 백주에 거리를 나다니는 것을 보니까.”

하곤 거칠게 덧붙였다.

“같이 잡시다.”

그들이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옥봉동에 있는 어떤 집이었다. 내무서관
것은 그 뒤에야 알았다.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내무서장에게 이렇게 말
했다.

“이 사람은 농과 대학의 교수이며 학도 호국단의 부단장을 한, 우익의
거물입니다.”

우익의 거물이란 표현은 지나쳤지만, 내가 진주 지구 학도 호국단의 부
단장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직책도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니다. 당시 진주의 최고 학부는 농과 대학이었으며, 진주에서 연합 학도
호국단을 결성하려면 농과 대학의 학장이 단장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런데 사무적 편리를 보아 단장이 나온 학교의 교수가 부단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부단장으로 선출된 것이었다.

내무서 책임자는 알았다 하고 나를 붙들어 온 사람을 돌려보낸 후, 내
게 자리를 권하곤 학도 호국단 단장이 무엇을 하는 직책인가를 물었다.

나는 곧이 곧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이어,

“인민의 적으로서 행동한 적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런 일이 없다.”

하고 답했다.

이런 문답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방으로 들어왔다. 이름은 몰라도
안면은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보고 내무서장이 물었다.

“동무는 이 사람을 압니까?”

“잘 압니다.”

하고 그 사람이 말했다.

“대학 선생입니다. 이런 사람까지 붙들어 들이면 일할 사람 어디 있겠소.”

내무서장은 그 사람을 데리고 별실로 갔다. 이야기가 상당 시간 계속되었다.

다시 나온 내무서장이,

“대학 교수 하나 만들자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거요. 잘못이 있으면 훗날 챙겨 보기로 하고 돌려보내니 이 동무 말 잘 들으시오.”

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맡겼다.

내무서에서 풀려 나오자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피차 조심합시다. 잘 가시오.”

하는 말을 남기고 그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그 근처에 정기영 군의 집이 있었다. 소식을 알 겸 들여다보았더니 안채는 피뢰 기관이 살고 있는 모양이고, 아래채에 식모가 집을 지키고 있었다. 식모의 말에 의하면, 정군은 봉곡동에 가 있는데 식사 때가 되면 오니까 잠깐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점심때가 되자 정 군이 나타났다.

우리는 그 곳에서 요기를 하고 정 군을 따라 봉곡동으로 갔다. 정 군이 거처하고 있는 집은 진주 고등 학교 담 서편 대밭 속에 있었다. 정 군과는 친척 되는 사람의 집으로, 주인 가족은 시골로 피난가고 정 군 혼자서만 거거한다는 것이었다.

주위가 대밭이고, 정군이 가져다 놓은 책도 몇 권 있고 해서 그 집에서 며칠 쉴 작정을 했다.

그런 동안에도 하루 몇 차례씩 폭격이 있었다. 이 집도 오래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했지만 우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바로 그 이튿날의 일이다. 다발총을 멘 청년 둘이 나타나더니 나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무슨 까닭이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무표정한 탈을 쓴 것 같은 청년들이었다.

그들에게 끌려간 곳은 정군의 집 바로 인근에 있는 천주교 성당의 별관이었다. 간관은 없었으나 그 곳이 이른바 괴뢰의 政治保衛部란 것을 그들이 주고받는 말로서 짐작할 수 있었다.

그 곳에 가자 아무런 말도 없이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유치장은 그 건물의 2층에 있었다. 내가 들어섰을 땐 텅 비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한 쪽 구석에 사람이 하나 누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벌떡 일어났다.

“이 교수 어떻게 된거요.”

그는 南電晉州支店의 지점장 鄭龍煥 씨였다.

두 사람은 서로 손목을 꼭 잡은 채 말이 없었다. 그 때 사이렌이 울렸다.

‘항공’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이윽고 비행기의 폭음 소리가 나고 폭격하는 소리와 진동으로 우리가 있는 이층 건물이 흔들흔들했다.

“놈들에게 맞아 죽기 전 폭격으로 죽을 것 같소.”

하며 손목을 풀곤 정용환 씨가 한숨을 쉬었다.

비행기가 사라지고 난 후에 내가 물었다.

“여기가 텅텅 비어 있는 까닭이 뭐요.”

“아까까지 가득 차 있었소. 대강의 취조가 끝나면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모양인데, 당장 즉결 처분을 해 버리는 건지 별도로 수용하는 곳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며 정용환 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와 정용환 씨는 벽을 등지고 나란히 앉았다. 할 얘기가 있을 까닭이 없었다. 거의 한 시간 간격으로 비행기가 날아왔다. 그 때마다 가슴을 조였다.

지루하고 불안한 시간은 느릿느릿 흘렀다. 오후 네 시쯤 되었을까. 괴뢰군 병사가 나를 불렀다. 내려가 보니 시 인민 위원회의 문화부장을 한다는 강달현 군이 정치 보위부장실에 있었다.

“이 형 수고했소.”

그의 첫말이었다.
 나는 잠잠고 있었다.
 그랬더니 강달현이,
 “이분을 모르나?”

하고 저편 의자에 앉아 있는 정복 차림의 피뢰군 군관을 가리켰다. 그 방에 들어설 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게 누구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내가 입을 열기 전 그 군관이 일어서서 다가왔다.
 “오래간만이군.”

그는 나와 학병을 같이 갔던 구호택이었다. 그는 북지로 갔었는데 해방 직전 연안으로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가 피뢰군 소좌(少佐)가 되어 돌연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반갑다.”

하고 한 마디 하기가 겨우였다.

구호택의 말이 있었다.

“명령을 받고 진주에 온 것은 어제였다. 그런데 강 군이 나타나 자네가 여기에 있다고 하잖나. 자네가 반동질을 했다는 것, 아니 반동 진영에 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강군의 말을 들으니 반동 가운데서는 비교적 양심적으로 행동했다더군. 그것보다도 지금 사람이 모자라. 이 진주 지구에 정권 기관과 사회 단체는 결성 정비되었는데, 문화 단체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더군. 진주가 이처럼 반동적 도시였다는 것을 알고 나는 분개했다. 강 군의 말을 듣고 정치 보위부 책임자 동무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자네가 조국 사업에 협력하도록 기회를 주겠네.”
 그러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는 서약서를 써서 정치 보위부장 앞에 내놓았다.

정치 보위부장이 일장 훈시를 하고 특히 강달현에게,
 “항시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당의 지시에 따라 이 사람에게 과업을 줄 것. 기타 이 사람에게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하고 못을 박았다.

그 때가 벌써 9월 초순이었다.

문화 단체를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문학 동맹·음악 동맹·연극 동맹·도립 극장·이동 연극단을 만들어 재끼긴 했지만 모두 書面上의 조작이었지 실제로 만든 것은 없었다.

우리들은 그 뻔 은밀히 들은 라디오를 통해 낙동강 전선이 교착되어 있는 것을 알았고, 유엔군이 착착 증강되어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주 교외의 집현면에 모여 앉아 눈가림 작업만으로 지연 작전을 하고 있었다.

9월 15일의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을 안 것은, 9월 20일이다. 의용군으로 끌려온 서울 출신 대학생이 우연히 집현면 우리 숙소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가 그 사실을 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탄 운반에 동원되어 1선 가까이까지 갔다 온 농부들의 말에 의해서도, 우리는 피뢰군의 敗退가 필지의 사실이란 것을 알았다.

9월 26일, 나는 제반 정보를 종합한 결과 집현면에 그냥 머물러 있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달현에게 내 의견을 말했다.

“인민군이 언제 후퇴할는지 모른다. 이 곳은 그들의 기관에서 알고 있는 곳이다. 일단 후퇴를 결정하면 우리에게도 강제 후퇴를 명령할지 모른다. 아니 강제 연행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자리를 바꾸는게 어떨까. 그들이 모르는 곳으로. 아뵤든 여기에 있는 것은 위험해.”

그랬는데 강달현은 응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나만은 별개 행동을 취하겠다고 했다. 기술껏 해 보라는 승인을 그로부터 얻었다.

나는 ‘이동 연극단’을 편성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그들을 이끌고 고향인 하동 방면으로 나갔다. 여차하면 적당한 골짜기를 골라 숨어 버릴 작정이었다.

잊지도 않는다. 나는 17 명을 데리고 하동의 어느 산골짜기에 숨었다. 후퇴하는 피뢰군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구경하게 되었다. 도망치는 피뢰군 가운데,

“당신들은 왜 거기 그렇게 있느냐?”

하고 힐문조로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상부의 명령으로 여기에 집결해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로써 위급을 모면할 수 있었다.

9월 28일은 음력으로 추석날이다.

교묘한 명월이 물들인 산 속에서 나는 데리고 온 일동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렀다.

“절대로 산으로 가지 말라. 기술껏 친척과 아는 사람을 찾아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꼭꼭 숨어 있거라.”

우리가 집현면을 떠난 바로 그 날 밤 강달현을 비롯해서 거기 남아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강제 후퇴 명령으로 지리산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행방은 아직껏 묘연하다.

피퇴군은 후퇴할 때 진주 형무소에 감금해 놓았던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해 가산 산청과 함양의 산 속에서 모조리 사살해 버렸다.

天人이 共怒할 사실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한다.

내가 겪은 6·25의 참화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럴 때 나라 전체가 입은 참화의 규모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첫째 6·25를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며, 그런 참화를 잊게 한 장본인 김일성과 그 도당을 용서하지 않아야 하며 그 원한을 뼈에 새겨 두어야 하는 일이다.

공산주의는 이미 세계관으로선 파산된 지가 오래지만, 그 독소적 선전은 지금도 계속되어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6·25라고 하는 참화를 통해서도, 이 땅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일이다.

그러니 6·25를 모르는 세대 가운데서 일부분이 터무니 없는 망상을 키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여 통탄스러운 것이다.

내가 겪은 6·25

金 亨 錫

(延世大 教授)

Ⅰ

1945년 초가을 어떤 아침이었다.

나는 동네 몇 사람과 같이 앞 마을에 있는 김성주의 집을 찾아 나섰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던 김성주가 돌아왔기 때문에 몇 사람이 환영을 가는데 나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청을 받은 때문이었다.

늦은 조반을 나눈 뒤, 우리는 해방된 조국의 앞날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얘기할 차례가 되었다.

그 때 김성주는 첫째는 친일 분자 숙청, 둘째는 인민 정부 수립, 세째는 토지 개혁…… 등을 들어 가면서 일곱 가지쯤을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로 높은 교육도 받은 바 없고, 어떤 지도층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젊은이가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했다. 그것은 김성주 자신의 발언이 아니고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대변임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저가 혹시 공산 당원이 된 것이 아닐까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났다.

마을 어른들이, 평양 공설 운동장에서 김일성 환영식이 있다는데 가지 않겠느냐고 동행을 요청해 왔다. 나는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사양을 했다.

저녁때, 공설 운동장에서 돌아온 한 사람이,
 “김 선생, 우리는 김일성을 환영하기 위해 갔었는데, 김일성 대신 나타
 난 사람이 바로 앞 동네의 김성주야.”
 하고 말해, 어떤 의구심 비슷한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2]

1950년 6월.

그 때 나는 지금도 종로 계동에 있는 중앙 중고등 학교에서 교편을 잡
 고 있었다. 47년 10월부터 2년 9개월을 봉직한 때였다.

어딘가 학교를 중심삼는 나의 주변에는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북에서 38선을 넘어온 어떤 선생의 책상 서랍에는 ‘민족 반역 분자는 죽
 여 버린다.’는 투서가 들어와 있었고, 우리 집으로는, 북한을 배반하고 반
 역을 일삼는 너 같은 사람은 없애 버린다는 우편물이 날아들곤 했다.

그 때문에 나와 가족들은 집을 비우기도 했고 옆 집에서 밤을 보내는 일
 도 있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학교 당국에 상의해 보았으나, 당시의 책임
 자는, 너무 앞장서서 반공을 주장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는 식의 대답이
 었다.

북에서 살아 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정치와 사회 변동에 민
 감해지는 법이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사회상과 좌익 계열의 움직임 속에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것이
 었보였다.

그러는 동안에 6·25가 다가오고 있었다.

공산군들은 대한 민국의 군사적 실정을 탐지하기 위해서, 또 후일의 전쟁
 책임을 대한 민국으로 돌리기 위해 개성 북쪽에서 가벼운 전투를 획책하
 기도 했었다. 그것을 격퇴시킨 국군은 의기양양해 전쟁만 벌어지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된다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북한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K목사가 조만식 선생을 남으로 보내 줄 테니까 서대문 교도소에 있는 이주하, 김삼룡과 교환하자는 방송 제안도 해왔다.

그러던 어떤 날이었다.

나는 퇴근 길에 중앙청 부근 어떤 조용한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 담장 밑에서 같은 연대의 사람과 밀담을 나누다가 쪽지 비슷한 것을 건네준 뒤에 둘 다 총총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았다.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뒤쫓아 보았으나 여러 갈래의 골목길이어서 허탕을 치고 말았다. 그들의 모습과 동작으로 미루어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추측되었기 때문이다.

작은 일들도 쌓이면 큰 사태에의 예감을 느끼는 법일까.

③

6月 25日 아침.

38선 일대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휴가중이던 군인들은 소속 부대로 돌아가라는 확성기 소리가 서울 장안을 뒤흔들었다. 영화를 상영하던 극장마다 같은 방송이 들려 왔고, 군인들은 허겁지겁 소속 부대를 찾아 귀대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당시, 고등 학교 상급반 학생들을 위한 성경 공부반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오후 두 시 덕수 교회에 모인 어린 학생들은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표정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눈치였다.

나는 성경 공부를 끝낸 뒤, 아무래도 이번 싸움은 예사로운 전투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 모임이 계속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의 앞날과 국가의 장래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헤어졌다.

다음날 아침 나는 출근하는 대로 학교장을 만나, 이번 전쟁은 대규모 전쟁이 될 것 같으니까 학교의 예금을 찾아 어느 정도는 교사들에게 분배

해 주고, 공산군의 진출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았다. 지난번 개성 부근 전투와 같이 소규모로 끝날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었고, 국군의 승리는 낙관적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일부 교내에 있던 좌익 계열 사람들이 더욱 그 점을 강조했을지도 모른다. 또 우리 학교는 고려 대학과 같은 재단이었기 때문에 고대가 앞서지 않는 일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때도 어느 정도는 은행 돈을 인출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전황은 혼란 그대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구도 그 당시의 전쟁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이복 출신의 한 대령은 당시 보사부 장관이었던 이 모씨에게 빨리 한강 이남으로 피신하라고 권고했다. 도저히 저항할 병력과 화력이 없다고 실토했다. 그 소식을 계기로 모인 국무 회의에서 신 국방 장관은 3일이면 전세는 가라앉는다고 진술해서 대통령도 안심했다는 후일의 소식이었다. A지휘관은 패주했기 때문에 절망적이라고 보고했고, B지휘관은 한 부분에서 약간 전진했기 때문에 승리는 낙관된다고 보고하는 실정이었다는 것 같다.

4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졌다. 서울 북쪽에서는 포성이 들려 오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침착을 호소하는 정부의 전달을 믿고 따라야 했다.

시민들의 표정도 제각기 달랐다. 좌익 계열 사람들은 기대와 환영의 뜻을 노골화시키고 있었다. 내가 있던 학교의 좌익 책임자였던 한 선생은 6·25 직후부터는 기대에 부응 표정을 누를 길이 없었고 무엇인가 부산히 움직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어디 두고 보자, 공산주의라고 해서 지금보다 더 심한 무능과 부패야 저지르겠느냐.’는 식으로 방관하는 눈치였

다. 나와 같이 북에서 온 사람들은 무엇인가 생명을 건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 밖의 시민들은 '전쟁'이라는 불안에 휩싸여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5

27일은 수업이 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좌익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어 신변을 걱정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던 제자들이다.

그들은 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물었다. 나는 좌익 학생들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치 이념보다 귀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중 몇 학생이 좌익 학생들에게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후에 알게 되었을 때는 가슴이 아팠다. 이데올로기와 정권이 무엇이길래 친진난만한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삶과 생명을 희생시켜야 하는지 알 바가 없었다.

후에 그들의 대부분은 국군에 지원해 갔다. 적지 않은 수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아직 20도 안 된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27일 오후, 나는 두 젊은이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때는 협조를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젊은이는 후에 목사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충남이 고향이었는데 피난을 가게 되면 서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나는 27일 밤, 두 젊은이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한강으로 나갔다. 비는 계속되었고 여기저기서 '시민들은 안심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대통령의 방송이 들려 오고 있었다. 그 때 이 박사는 이미 대전에 가 있었고, 그 방송은 후에 시민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늑음이었다.

그 날 밤중으로 한강을 건너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불상사가 벌어졌다. 하나밖에 없던 한강 다리가 폭파된 것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신촌 집으로 돌아왔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밖으로 나갔던 한 청년이 이화 대학 뒷산에 인공기가 꽂

혀 있다고 전해 주었다. 나는 이번 전쟁은 대한 민국이 일으켰다고 말하던 이때 기숙사의 한 조교의 말을 뇌리에 떠올렸다. 이복 방송을 들었던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거기에도 사전 연락이 있었을까 하고.

이제는 피난도 시각을 다투는 정세로 바뀌었다. 한강 이남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가족을 찾기 위해 강북으로 돌아오는가 하면, 강북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한강 이남으로 넘어서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법이다. 우선 돈이나 귀중품을 챙겨 가진 뒤에는 어디론가 집을 나서야 한다. 옆 마을에라도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가족을 기다리게 한 채, 두 청년과 같이 마포 강 가로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한강을 건너고 있었다. 나룻배마다 널칠 정도로 만원이었다. 이런 처지가 되면 길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일까. 나는 두 젊은이와 같이 우선 한강은 넘어야겠다고 판단했다. 가족들 생각으로 마음은 가득 차 있어도 우선 두 청년과 나는 공산군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피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다행히 학교에서 선불해 준 돈으로 양식은 준비되어 있었고, 아녀자들은 우리와 같이 위험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었다.

우리 셋은 혜엄을 쳐서 한강을 건넜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변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한 발자국이라도 남쪽으로 가야 했다. 또 강변은 앞으로 작전 지역이 될 테니까 민간인들은 남으로 가야 안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우리도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양을 지나면서 늦은 조반을 사 먹었다.

어떤 식당에서 피난민들이 가져온 쌀을 받아 식사를 제공해 주었다. 그 날 늦게 수원에 도착했다. 몹시 피곤했다. 그러나 또 걸기 시작했다. 밤 자정이 되어서야 오산에 도착했다.

길가의 집들은 모두가 주막이 된 셈이다. 쌀을 내는 피난민이 있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사 먹는 사람이 있다. 두 청년은 빈손이었지만 나는 학

교에서 선불받은 돈이 있었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일을 해 주면서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가. 공산군 비행기들이 우리가 걸어온 뒷길을 폭격했다는 소식이었다. 희생자를 낸 가족들은 그 때문에 길가에 주저앉아야 하는 비극을 강요당했다는 얘기였다.

다음날 밤은 온양에서 지내게 되었다. 가는 시간보다는 멎는 시간이 더 많은 기차로 온양까지 갈 수 있었다. 또 곧 서울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풍문이 떠돌기도 했다. 방송은 끊겨졌고 사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일행 중 한 제자의 고향이 충남 홍성이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홍성으로 떠났다. 약간 멀기는 하지만 한 곳에 정착해 있다가 서울로 환도하자는 생각의 일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또 그 제자는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홍성은 조용한 곳이었다. 동네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른 도시까지 가서 전쟁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저녁이 되면 그 뉴스들을 종합해 보는 것이었다. 가장 희망적인 뉴스는 미군이 도착했고 미국 비행기들이 북한 전투기들을 격파시키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나 자신도 너무 멀리까지 남하한 것을 후회스러이 생각했을 정도였다. 미군을 마치 다섯 살 된 어린애를 두들겨 주는 아저씨같이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대로 며칠이 지났다. 공산군이 한강을 넘어 섰다는 이야기, 피난민들이 대전까지 가득 찼다는 소식, 작전상 대전까지는 후퇴한다는 뉴스들이었다. 우리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나는 결국 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대전서 얻어 온 신문들을 보면 대부분이 전진과 승리의 보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도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홍성을 떠나기로 했다. 동행해 온 제자는 집에 남기를 종용했으나 마침내는 그 제자의 남자 가족들도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바가 없었다.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송구스러우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을 이끌고 나왔어야 했다. 이 이상 더 남쪽으로 가기는 무거운 죄책감을 누를 길이 없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 구석에는 안도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피난을 떠난 첫날 밤 오산에서, 둘째 밤 온양에서, 셋째 밤 홍성에서 꼭 같은 꿈을 꾸었다. 영롱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하늘 한가운데 떠 있었다. 마치 별빛이 쏟아져 흐를 것 같은 밝음이 충일된 별이었다. 세 차례 꼭 같은 꿈을 꾸었다.

나는 별을 상서로운 상징으로 믿고 있었다. 셋이라는 숫자가 이상히 여겨졌다. 세 번째 같은 꿈을 꾸 이른 아침에 나는 마을 예배당에 꿇어앉아 기도를 드렸다.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에 빠졌는데 가족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그 대신 가족은 하느님의 보호하심 밑에 맡기겠다는 기도였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없어도 하느님은 가족을 보호하실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⑥

우리는 걸어서 청양, 공주, 논산을 거쳐 대전으로 갔다.

대전은 온통 피난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착한 날 저녁에는 이범석 총리의 강연회가 있었던 모양이다. 빠르면 1주일, 늦어도 2주일이면 서울로 환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이었다. 그는 일제 때 전투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고 증책을 맡고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믿는 듯싶었다. 또 그럴 수 있는 것이, 새로 도착한 미군들이 대전을 거쳐 전방으로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모든 판단을 내가 내리기로 했다. 이들이 지난 날 아침, 나는 두 사람과 같이 기차가 운행을 정지하기 전에 목포로 가기로 했다. 목포에는 내 대학 동창이 있었고, 지도를 살펴보면 호남선 끝인 목포가 전선에서 가장 먼 거리였고, 먼 거리가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대전역으로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던 한 가족을 만났다. 아버지는 서울 모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머물고 그 가족들이 피난에 나선 것이었다. 그 가족 중 가장 어린애가 나에게 ‘자기들은 부산으로 가고 있으니깐 같이 가자.’고 간곡한 청을 하였다. 서로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나도 그 뜻을 저역하기가 어려웠다.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꼭 같이 가자.’는 권유가 소망스러운 뜻일 수도 있다.

두 젊은이는 목포로 떠나고 나는 부산으로 가는 열차 짐칸 위에 자리를 잡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행스러운 선택이었다. 두 청년은 이승만 대통령도 목포로 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고집했으나, 크게 고생을 한 후에야 해로를 거쳐 부산까지 왔다. 하루에 2백 리 길을 뛰다시피했다는 이야기였다.

내가 처음 부산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부산에는 공간의 여유가 있었다. 광안리나 해운대 바닷가는 조용한 농촌 분위기 그대로였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다르게 부산은 군인, 피난민, 정부 시설 등으로 채워져 갔다. 중앙 정부가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고, 유엔군의 상륙 기지가 부산이 되었다. 부상병들이 후송되어 왔고 큰 건물은 모두가 군 시설이나 공공 기관으로 흡수되었다. 학교는 군인들의 숙소가 되었고 예배당들은 피난민의 수용소로 변했다.

나는 광안리 바닷가까지 갔다가 한 작은 교회의 십자가를 발견했다. 그 예배당에 기도를 드리려고 들어갔다가 교회 책임자의 안내를 받아 그 교회에 머물기로 했다. 그것이 후일에도 광안리가 나의 피난지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매일같이 부산 시내까지 도보로 왕복을 했다. 새로운 뉴스와 변해 가는 현실을 보고 싶어서였다. 기독교 청년들은 십자군을 형성해 일선으로 나가고 있었다. 곳곳에서 지원병을 뽑았으며 젊은이들은 징집되어 별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방으로 이송되어 갔다. 어떤 이들은 고등학교 때 동창생들끼리 모여 군으로 입대하기도 했다. 역시 결혼을 하지 않

은 젊은이들이 흥분하게 군문으로 뛰어 들 수 있었다.

그 동안에도 전황은 불리해져 갔다. 경주~대구~마산~진해 선이 남았을 뿐 다른 모든 지역은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육군 본부가 대구에서 후퇴했고, 포항은 적과 우리가 교대해서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격전지로 변했다.

실상가상으로 미국을 출발한 해병대가 폭풍 때문에 2주간쯤 늦어졌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나는 잠시 경남 진영읍에 들렀다가 가슴 아픈 소식에 접했다. 그 당시 한얼 학교를 운영해 오던 K 목사가 좌익 분자라는 누명을 쓰고 정식 재판도 없이 낙동강 가에서 총살형을 당한 것이었다. 그 당시의 지방 행정가들은 사상적 이해을로기를 구별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역시 사회의 혼란기에는 모든 면에서 침착하고 안정된 길을 걷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나는 전쟁의 승리보다는 패전 후의 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대구와 낙동강 선이 뚫리면 적은 파죽지세로 쳐들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어떤 날 오후 늦게 나는 한 장의 신문을 손에 들었다. 거기에는 맥아더 장군의 사진과 글이 실려 있었다. 그 내용은 간단한 것이었다. 전쟁은 안심해도 좋으니까 연로한 대통령을 잘 보좌해 드리라는 국방 장관에 남긴 이야기였다. 그 때까지 나는 누구의 이야기나 성명도 믿지 못했으나 맥아더 장군의 말에는 뜻이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위기를 넘긴 경험 많은 지휘관의 발언이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다. 우리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나는 부산에 들렀던 김성수 선생을 방문했다가 그 소식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드디어 전세는 급변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공산군들에게 모든 작전을 중단하고 북으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공산군들은 야음과 산간을 이용하여 후퇴하기 시작했다.

전쟁이란 이상한 것이다. 승리의 기세를 타면 배전의 용기를 얻을 수 있으나, 패주의 경우에는 용기 있는 군인들까지도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공산군들이 득세한 전투였으나 이제부터는 유엔군과 국군이 승세를 잡는 전투로 변했다. 뉴스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군의 진격을 전해주고 있었다. 38선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성급하게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생겼고, 나 같은 상태의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 이북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을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38선을 달려진 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이 열려진 셈이기 때문이다.

7

부산에 모여 있던 피난민들은 새로운 희망과 꿈에 부풀었다. 서울로 곧 가게 될 것이며, 가족들이 서로 만나게 된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50년 9월 28일, 수도 서울의 행정권이 우리 정부에 반환되었다는 뉴스는 꿈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누가 먼저 서울로 돌아가는가 하는 선의의 경쟁심에 모두가 휩싸였다.

얼마 후 나도 서울행 기차를 탔다. 그리 이른 편은 아니었으나 선발대의 일원으로 부산을 떠났다. 대구 이북은 어디나 전화의 잔재가 전쟁화를 보는 것같이 깔려 있었다. 아직도 연기가 가시지 않은 채 불타는 집들이 보였고, 도로에는 여기저기 공산군 탱크가 버려져 있었다. 피난에서 돌아온 주민들이 폐허가 된 집 터에 천막을 치고 식사를 끓여 먹는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눈에 띄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허탈 상태에 빠져 있었다. 부모를 잃은 어린애들이 집 모퉁이와 길가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왜관, 김천을 비롯한 戰線 지역의 도시들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아직도 진화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참한 모습은 상상을 넘어 서는 것이었다.

2,3일 후에 우리 열차는 가까스로 영등포에 도착했다. 한강 다리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내려 나룻배로 한강을 건너야 했다. 6,7명씩이 탄 나룻배 두세 척이 교대로 우리를 옮겨 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빨리 서울에 도착하고 싶은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한강 남쪽에 이르고 보니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가족들의 생사를 알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서 마포를 거쳐 지금 서강 대학이 있는 논밭길을 재촉했다. 모두가 서울 시내 쪽으로 갔기 때문에 나 혼자 마포 길을 택했던 것이다. 서강 대학 자리에는 초가집이 두세 채 있었다. 한 사람을 만나 물었다.

“이 언덕을 넘으면 노고산인데 모두들 어떻게 되었나요?”

“피난 갔다가 오세요? 사흘 동안이나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그 사람의 반문이였다.

나는 숨을 죽여 가면서 언덕 위까지 올라섰다. 내가 세들어 살던 집 쪽을 바라보았다. 이 어쩐 일인가. 우리 집만을 남겨 놓고는 주변의 집들이 모두 자취를 감춘 것이였다. 포격에 무너졌거나 불타 버린 것이였다. 바로 그 때였다. 두고 갔던 큰아들애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저놈은 살았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눈물이 쏟아졌다. 만 배 살짜리였다. 그 애의 표정으로 보아 아내도 살아 있음이 틀림이 없다. 집으로 걸어들어오는 인상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집까지 달려왔다. 아내는 반가운 표정도 없었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내가 출근했다가 돌아오는 것을 맞을 때와 비슷했다. 너무 심한 어려움을 이겨 냈고, 또 내가 별일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거센 파도들이 지나갔으니 까 오히려 안정된 기분 같았다. 그 밀의 두 살짜리 딸, 갓 태어났던 둘째 아들도 영문을 모르면서 반기고 있었다. 나는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내와 함께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다.

8

얼마 동안 서울은 슬픔과 기쁨이 엇갈리는 수라장이 되었다. 집과 시설들이 파괴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어졌고 만나

야 할 가족들이 증적을 감추었기 때문이었다.

가족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직장에서의 복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날 종로 거리를 걸다가, 맞은쪽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는 P선생을 만났다. 그는 내 손을 붙들면서 서로 살아 남게 된 것을 감사했다.

“김 선생은 피난을 가셨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3개월을 보내셨어요?”

“저는 김 선생이 틀림없이 남았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여기 계셨으면 그놈들에게 붙잡혀 죽었을 테니까요. 저도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악랄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도 대한 민국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정의감은 있을 테니까 하고 일말의 기대도 없지는 않았읍니다.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학교에 나타났다가 한두 친구가 잡혀 가 희생당하는 것을 알았고, 학생들이 스승들을 때려 죽이는 것을 본 뒤에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도 점점 그 자들의 마수가 가까와 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변장을 하고 다녔지요. 아무 때나 죽을 작오를 하고 주머니 속에 독약을 넣고 다녔읍니다.”

라는 것이었다. 그는 또,

“숨어서 지나면서 여러 번 김 선생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김 선생이 지성인답지 않게 공산주의를 악명한다고 생각했고, 대학 때 읽었던 마르크스의 사상 등도 머리에 그려 보았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겪어 보니까 오히려 김 선생의 평이 점잖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있던 S선생, U선생이 피살당했고 Y선생은 이북으로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 착하고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사랑한 스승들이 아니었어요?”

라고 덧붙였다.

P선생은 우리 모두가 수궁하는 자유주의자였다. 불문학을 전공했고 후에는 모대학에서 정년까지 교편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6·25 이후부터는

나보다도 더 강경한 반공 노선을 지키고 있었다.

서울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어떤 날 저녁 두 젊은 제자가 집으로 찾아왔다. 국방부 후생 관계의 열차가 처음 평양으로 떠나게 되는데 나도 동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요청이었다. 한 제자의 매부가 중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베풀어 준 배려였다.

나는 처음 북행하는 열차로 서울을 떠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평양까지 24 시간 이상이 걸렸던 것 같다. 38선 이북은 유엔군의 폭격이 있었으나 그리 심한 전화는 입지 않았던 것 같다. 지상군들의 치밀한 전투가 적었던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누구의 얼굴에서도 미소나 즐거운 표정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 후에 여기저기서 확인한 일이지만 독재 국가 백성들은 마소를 잃고 산다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열차는 동평양에 정차했다. 대동강 철교가 끊겼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북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날도 안개가 짙은 이른 아침이었다. 내가 마포 나루를 지날 때와 꼭 같은 분위기였다. 나는 대동문 맞은쪽 대동강가에 임시로 마련된 선창가에서 나룻배를 탔다. 배는 대동문 옆에 손님들을 풀어 놓았다. 평양 시민들은 지쳐 있었고, 불안한 속에서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옛날 자주 다녔던 낮익은 길들을 통해 보통교까지 왔다. 그 다리는 예전과 변화가 없었다. 다리를 조금 지났을 때, 지나가는 미국 군용 차량의 도움을 얻어 만경대 뒷동네인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미군 차량도 뒷마을에 있는 군관 학교나 만경대에 있는 유가족 학교 부근으로 가던 것 같았다.

차에서 내려 앞산을 올라다보았다. 3년 3개월 전에 떠났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을의 몇 사람들이 크게 반겨 주었다. 사실 나는 풍산 치하에 살 수가 없어 고향을 등졌었지만, 그들은 반공이라는 신념 밑에 여전히 나는 반겨 주는 것이었다.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두 남동생, 한 여동생이 반겨 주었고 만 6살짜리 큰딸이 뛰어 안겨 왔다. 나는 고향을 떠나 38선을 넘을 때, 큰딸애를 부모님께 맡겨 두었었다. 딸애는 앞으로는 절대로 아빠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터라고 했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눈물 없이 재회를 가질 수 있었다.

고향에서 들은 이야기는 모두가 가슴 아픈 사실들이었다.

내 사촌 동생 중 하나는 평양에서 계약사로 일하고 있었다. 비밀리에 남한 방송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에 관해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하루는 모든 일을 정리해 놓고 직장을 탈출해서 피신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다. 그런데 퇴근 시간에 사무실 밖으로 나오다가 보안 대원들에게 붙들려 갔다. 그 날 밤 꿈에 그 동생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나의 숙모에게 나타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 뒤부터 수소문을 하고 시체를 찾기 위해 애를 태웠으나 결국은 허사였다. 약 일천이 넘는 시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살폈다. 참호 속에서, 우물 안에서, 호수 속에서……. 그러다가 단념해 버렸는데 대동강 동쪽 미림 저수지에서 약 2백구의 시체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싶어 달려갔다. 이미 썩은 시체들이었고 축창과 깔자국으로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결국은 허리띠에 남아 있는 중학교 졸업 때 받은 바클에서 단서를 찾아, 썩은 시체를 옮겨 장례를 치른 것이다.

내 친동생들은 인민군에 붙들려 나가지 않기 위해 잠자리와 숨는 장소를 매일같이 옮겨야 했다. 마지막에는 궁여지책으로 굴뚝 속에 들어가 다리를 온돌 쪽으로 하고 앉아서 하루씩을 지나기도 했다. 몇 젊은이들이 짜고 교회당 마루 밑에 숨은 뒤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들이 식사를 숨겨가면서 날라다 준 일도 있었다. 땅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옮겨다 주는 음식으로 세월을 보낸 사람들도 허다했다. 마을 젊은이들이 산 속에 숨어서 서로 암호를 짜 가지고 도망치던 이야기도 들었다.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책임 맡고 있던 학교의 책임자는 공산주의자로 활약하다가 마을 청년들에게 희생을 당하기도 했다. 어떤 이야기를 들던지 모두가 지옥 생활을 방불케 하는 내용들이었다. 나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는 공산 정부와 더불어 종적을 감추었고, 그 친구의 아버지는 다른 마을로

피신을 갔다가 본성이 드러나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서울로 온 뒤의 사실이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태도 일어났다.

내 외가 쪽으로 아저씨 되는 3형제가 있었다. 그들은 공산 치하에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 들어올 때 공산 분자들을 찾아 치안 재판에 넘기는 일을 했다. 그 뒤에 중공군이 들어와 세형제는 남한으로 떠났다. 그러나 위로 두 아저씨는 길을 잘못 택해 해주 부근에서 다시 복상하면서 황해도 등지를 헤매던 중 체포되었다. 그 형제를 마을 공산주의자들이 쇠사슬로 손바닥을 꿰뚫고 연자맷돌이 있는 곳에 묶어 놓았다. 그리고는 구약의 삼손 이야기 그대로 연자맷돌을 굴리게 했다.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 모친이 보는 앞에서 두 눈알을 빼어 불구로 만들었다. 다시는 도망을 쳐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에서였다.

결국은 많은 마을 사람들을 억지로 모아 놓은 자리에서 타살해 버렸다.

나는 그 때 이런 생각을 했다. 김일성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은 후일에 용서받을 수 있어도, 그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런 며칠을 보내고 있을 때, 또 답답한 비보가 들려 왔다. 중공군이 가담해 왔고 아군은 후퇴하게 되었다는 뉴스였다. 조용한 밤중에는 멀리 북쪽에서 포성 비슷한 소리가 들려 오기도 했다. 나는 우선 서울로 가야겠다는 뜻을 세웠다. 큰동생에게는 다시 돌아가 부모님을 모시고 하루빨리 남하하라고 부탁한 뒤, 큰말애, 작은남동생과 여동생, 두 사촌을 데리고 마을을 나섰다. 우리 집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전황 뉴스에 어두웠던 것이 큰 불찰이었다.

만경대 앞, 대동강을 건너 경의선의 한 정거장인 역포역에서 남하하는 터키 군 열차에 몸을 의탁했다. 물론 탈 곳이 없어 석탄을 싣는 연료칸 위에 몸을 의탁했다. 기차 주변의 도로들과 기차길 가는 앞을 다투어 남하하는 피난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군용 열차에 몸을 싣게 된 것을

감격스러울 정도로 감사해야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또 실수는 저질러졌다. 큰동생이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떠나려 했을 때는, 이미 부친은 삼촌과 같이 마을을 떠나 있었으므로 큰동생은 모친과 다른 사촌들을 이끌고 집을 나섰다. 그 뒤 모친과 동생이 겪은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 결국 부친과 삼촌은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부친을 뵈는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전쟁은 너무 비참한 운명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9

3일 뒤 나는 일행과 같이 서울에 도착했다.

아내는 세 어린것들을 이끌고 나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었다. 서울은 평양보다도 뉴스가 빠르고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6.25 직후에 남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은 시민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앞을 다투어 피난짐을 싸 들고 남하하기 시작했다. 모든 기차는 기관차 지붕까지도 만원이 되었다. 환자들은 화물차 안에 태우고 임산부들은 그 속에서 해산을 하기도 했다. 젊은이들은 화차 지붕 양쪽 경사진 곳을 이용해서 줄을 매고 누워 있었다. 떨어지면 위험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서울은 텅텅 비기 시작했다. 군인들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군용 차량에 제법 이삿짐을 갖추고 떠났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피난 보따리를 짊어진 채 정처없이 남으로 떠나는 것이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정리하다가 우선 손아래 가족들은 부산으로 피난을 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결국은 우리가 6.25 당시의 뉴스에서 보는 그 모습대로의 피난 열차를 탔다. 화물 열차 지붕 위에서 잠을 자면서 얼얼불은 하늘을 쳐다보던 심정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나는 며칠이 지난 뒤, 여름에 머물렀던 부산 대연동 교회에 피난짐을 풀었다. 그러나, 뒤따라와야 할 부모와 큰동생의 생각은 계속 무거운 부담이 되었다. 이삼 일이 지난 뒤 나는 같은 학교에 봉직하고 있던 육군

대위 J선생과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학교에서 배속 장교 일을 맡고 있었다. 서울은 흰 눈으로 덮혀 있었고 인기척은 거의 없었다. 모두가 피난을 떠난 것이었다. 밤중에 나는 나의 빈 집에 도착했다. 아무 소식도 없었다. 나는, 만일 동생이 여기에 오게 되면 부산 교회로 오기 바란다는 쪽지를 남기고 다시 남하하는 열차를 탔다. 군인과 동행이기도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서울 시민이 떠난 뒤였기 때문에 전보다는 수월한 길이었다.

부산은 피난민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부산진 역 앞에는 쏟아져 내려오는 피난민들이 노숙을 하는 것이었다. 저녁때가 되면 저녁을 짓는 연기로 가득 찼고 거리는 비껴갈 수가 없을 정도의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여름 전투 때 부산만이 안전 지대였기 때문에 모두가 최후의 목적지를 부산에 두었던 것이다.

나는 남모를 고통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다. 부모님은 고향에 머물더라도 공산주의자들에게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 같았다. 이미 연로한 편이었으니까. 그러나 동생의 경우는 달랐다. 공산주의자들을 해치지 않는다고 그들이 내버려둘 리가 만무했다. 그랬다면 그것은 내 잘못된 판단의 결과인 것이다. 나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동생과 부모의 소식을 알게 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다. 교회에서는 전쟁중이지만 평화의 왕을 모시는 행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저녁때 누군가가 나를 찾았다. '고향에서 손님들이 왔다.'는 것이다. 나가 보니 동생과 어머니가 교회 문 안에서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도 그 해의 크리스마스를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부친과 이미 결혼을 한 누나와 여동생을 제외하고는 온 가족이 부산 피난지에서 모두 만나게 된 것이다. 또 몇 사촌들과 고향 사람들도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10

가족이 모였으나 이제부터는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 가는 길이 열려야

한다. 특수층에 속하는 사람이나 공무원들은 생활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굶기야 하겠는가. 그러나 나와 같은 서민층 사람들은 우선 자고 먹고 입어야 한다.

처음 얼마 동안은 예배당이 숙소로 제공된 셈이다. 그래도 위위가 되는 것은 잠들기 전과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대부분의 국민 학교들이 군이나 공영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피난민의 숙소로 제공되어졌다. 식사는 제각기 재간껏 끓여서 먹어야 한다. 그러나 얼마 뒤부터는 모두가 제각기 살 길을 개척해 나갔다.

미군 부대가 적지 않은 피난민들에게 취직 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군속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녀자들은 장사를 하는 것이었다. 서로가 사 주고 팔아 주면서 사는 것이 장사의 길인 것 같았다. 군수 물자가 수송되는 부산 부두는 적지 않은 피난민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부산시 가까운 곳의 산들에는 판잣집이 날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판자라고 해서 널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마분지가 벽이 되고 깡통 껍질이 지붕이 된다. 가는 각목들이 기둥을 대신하게 된다. 큰 집을 짓는 것도 아니다. 한두 평짜리 방에 여러 식구가 가득히 살면서 오손도손 살림을 꾸려 나갔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변소였다. 몇 십 채의 집이 있는 곳에는 공중 변소가 지어진다. 아침이 되면 그 변소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야 한다. 어떤 때는 30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도 부산은 생선이 흔한 곳이다. 식사 때가 되면 생선 끓이는 냄새가 식욕을 돋구어 주기도 했다.

고마운 것은 미국에서 많은 구제품을 보내 준 일이다. 분유가 들어왔고 군인들이 먹다 남은 간식 식품이 어디에나 있었다. 또 수많은 옷들과 내의가 배급되어 추위를 이길 수 있었다.

어떤 프랑스의 기자가 썼던 글이 생각난다. 부산 영주동 산에 갔더니, 한 어머니가 한 어린애는 업고, 한 어린애의 손목을 이끌며 가면서 머리에는 물통이를 이고 비탈길 판잣집 사이를 걸어가더라는 얘기가. 저렇게

생활력이 강한 사회라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감탄어린 기사였다. 그러나 전시에는 한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내 가족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삶을 위한 본능은 무한한 것이다. 이런 역경을 이겨 내면서도 사회는 점차 안정되어 갔다. 서울에서 피난을 내려온 학교들이 자기 학생들을 모아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나는 중앙 학교에 봉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보성 학교와 연합해서 학교를 운영하다가 후에는 보수동 산 속에 독자적으로 학교를 세웠다. 판잣집 교실과 흑판이 있으면 되었다. 운동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모여서는 배우고 배우 뒤에는 흩어지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정신적 안정과 사회의 정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후에는 대학들도 문을 열었다. 남학생의 대부분은 전선으로 나갔으나 여자 대학생들과 군에 갈 수 없는 젊은 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는 동안에 행정도 자리잡혔고 민심도 안정을 가져왔다. 앞으로는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이 이하로는 생활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현실이 벌어졌다. 서민들은 생활의 안정을 위해 모두 선의의 노력을 쏟고 있는데, 정치나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상식 이하의 정권 및 교권 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신문에는 30여 년이 지난 요사이와 비슷한 사회 범죄나 걱정스러운 범법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다. 서민들은 모두가 착하고 진실하게 살았다.

그런데 자유당의 정권을 위한 모략과 그에 대하는 야당들의 싸움은 나라의 장래나 국민들의 민생고와는 아랑곳 없이 벌어졌다. 창피스럽고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종교 중에서는 기독교 장로회가 선도적인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 지도층이 벌인 교권 싸움은 역사에 남을 창피스러움이었다. 언제나 선량한 양심은 민중에게 있고 부끄러운 사태는 지도층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았다.

II

그러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만 풀려 간 것은 아니다.

전선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변화가 계속되었다. 중공군의 내습은 유엔군과 국군을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까지 몰아갔다. 우선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 주요했던 것 같다. 유엔군은 필요 이상의 공포심에 붙잡혔다. 마치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백 명 앞에 한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상을 남겼다.

맥아더 장군이 해임되었다는 보도는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워커 사령관의 죽음은 더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중공군이 남침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나는 창녕에 있는 부상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다가 그 부근에 포대를 쌓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곳들이 최후의 교두보인 워커라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유엔군은 최악의 경우 부산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상황까지 생각했던 모양이다.

사태가 이쯤 되자, 공산군에게 희생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크리스찬들은 제주도도 옮기고, 군인 가족들은 오끼나와로 피난을 시킨다는 조용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물래 배를 준비해 든다는 풍문도 자자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근거가 있는 사실이었다. 전세는 일단 후퇴를 전제로 삼아야 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의 유엔군은 중공군을 과대평가했던 것 같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무기란 대단한 것이 못 되었고 현대전을 치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 후일에 알려진 내용이었다.

워커 장군의 뒤를 계승한 릿지웨이 장군은 그 점을 파악했던 것 같다. 그는, 전선은 조치원 선 이하로는 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고 서울을 지키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다. 중공군의 보급로는 장거리로 바뀌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었고, 공산군은 이미 초전 때와 같은 공격력을 잃고 있었다. 그 결과로 전세는 백중한 상황

으로 변했다. 중부 전선을 오르내리는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전열을 가다듬은 유엔군과 국군은 다시 전진을 거듭해 지금의 휴전선 일대에서 손실이 심한 육박전을 되풀이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전쟁은 무조건 상대방의 힘을 아는 일이 중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우리 국군은 전쟁이 벌어질 때부터 공산측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 북한은 1년 전부터 전쟁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경제의 동태를 보아서도 그 의도는 짐작할 수 있었고, 청소년들을 강제로 군사 훈련에 참가시켰다는 사실도 이미 國民皆兵이라는 전쟁 준비의 고비를 넘겼던 것이다. 평양역을 동양에서 제일 큰 정거장으로 신축한다고 막아 놓는 다음, 군수 물자를 평양 이남으로 수송하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50년 3·1절에 행군했던 탱크들이 평양 이남으로 자취를 감추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은 무책임에서도 한계를 넘어 서는 것이었다.

영국의 전쟁 지도자였던 처칠의 생각을 따르자면 미국은 전체적으로 공산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정부도 북쪽에 관해서는 거의 무지 상태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더 답답한 사실은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의 은폐된 책략에 휘말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전력은 8대 2 정도의 격차로 출발했을 정도였다. 지금에 와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모두와 더불어 지도층 사람들의 뉘우침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되었다.

12

전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국민들의 생활 질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피난민들은 제각기 생활 근거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물론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은 부산에서 서울로의 환도 길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소련이 전쟁을 일으키고는 소기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배후에서 휴전이라는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도 전쟁을 더 확대시키거나 연장시키는 길을 원치 않게 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파주의 처지에서 원상 복구의 휴전으로 가는 것은 기대되는 바이기도 했을 것이다. 억울한 것은 우리의 입장이다. 힘껏 두들겨맞고 얻는 바도 없이 화해를 강요당하는 실정이었다. 그럴 바에는 원산에서 청천강을 잇는 휴전선이라도 보유했더라면 싶은 욕망이었다. 그러나, 분단도 의세에 의해 이루어졌듯이 휴전도 의세에 의해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이 올 수 있다면 억울한 휴전도 감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 당장 남편과 아들을 전선에 보내고 있는 아내와 부모의 심정을 살핀다면 휴전은 거부할 수 없는 결말이기도 했다.

휴전설을 계기로 부산에 있던 많은 기관들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나도 서울로 갈 준비를 갖추어야 했다. 그때 나는 중앙 학교의 부산 분교 교감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광안에 있는 육군 피복창 교회를 돕고 있었다. 피복창에 군복이 배정되면서는 그 맞은쪽에 있는 작은 장로 교회를 돕게 되었다. 목사가 없었고 피난민 교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앞을 지나게 되면 내가 시작했던 광안 교회를 생각하게 된다.

나는 학교 일을 다 정리해서 서울로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는 교회의 일들도 후임자에게 맡기기로 했다. 내 일터는 서울에 있었고 목사가 아닌 내가 교회를 더 돕는다는 것은 소망스러운 뜻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점으로 미루어 이렇게 엄청난 민족과 역사의 수난 속에서도 나름대로 교육과 신앙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감사의 뜻을 더 새로운 차원에서 봉사의 열매로 거두어야 하는 것이었다. 가족과 더불어 서울로 오는 길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길이었다. 기쁘다기에는 민족적 희생이 너무 컸었고, 슬프다고 생각하기에는 대한 민국이 파국에서 전진을 받았다는 감사의 뜻도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90을 노렸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셈이나 우리는 90을 빼앗겼다가

원점으로 되돌아간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어리석고 비극적인 동족간의 전쟁이 어찌서 가능했을까. 다시 한 번 공산주의자들의 어리석은 패권주의를 저주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

서울에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시 출발하려는 삶의 의지는 어디에나 가득 차 있었다. 그 의지가 새로운 건설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언제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는 것은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이러한 전쟁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유감이나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었다. 오히려 도강파와 잔류파로 나누어 6·25 직후에 서울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용공 내지는 공산군에 협조한 혐의로 닦아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휴전이 된 20년 후에도 신원 조사를 하게 되면 도강파와 잔류파를 가려 쓰는 의무를 강요하곤 했다. 나 같은 사람은 도강파였으나 그 태도와 처사는 언제나 불쾌하기 그지없었다.

막상 서울에 정착해 놓고 보니 너무 심한 인명 피해가 있었다. 이복으로 납북되어 간 인사들에 대해서는 살아 남은 것이 미안할 정도였고, 뜻있는 젊은이들의 희생은 그 댓가를 찾을 바가 없어지고 말았다. 물론 그 모든 희생이 자유를 위한 제단에 바쳐졌다고 생각하면 위안을 받을 수 있으나 누구의 잘못으로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를 물으면 우리는 누구도 그 해답을 얻을 길이 없어진다.

나는 같은 고향에서 온 한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가 어디서 죽었는지 그 장소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면서 눈을 감은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랑하는 둘째아들을 군문으로 보낸 뒤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소식도 없이 눈을 감아야 했던 것이다.

☆ ☆ ☆

우리는 6·25를 회상할 때마다 다짐해 본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통일이 우리 민족 전체의 지상의 염원이라는 사실을.

프랑스軍의 韓國戰爭 參戰背景

洪 淳 鎬

(梨花女大 教授)

目 次

- | | |
|---|-----------------------------|
| ① | 序 言 |
| ② | 參戰以前까지의 韓·佛關係 |
| | (1) 舊韓末時代의 韓·佛軍事關係 |
| | (2) 프랑스 臨時政府의 大韓民國臨時政府 承認 |
| | (3) 韓·佛 國交樹立 |
| ③ | 프랑스軍의 韓國戰爭 參戰過程 |
| | (1) UN 安保理事會의 決議와 프랑스의 參戰決定 |
| | (2) UN軍 프랑스大隊의 創設과 派韓 |
| | (3) 戰果 |
| ④ | 休戰後 UN프랑스軍의 動向 |
| | (1) 休戰과 프랑스軍의 撤收 |
| | (2) 프랑스 韓國戰參戰勇士會 創設 |
| | (3) 프랑스 知性的 韓國戰爭觀 |
| ⑤ | 結 言 |

① 序 言

美·蘇強大國政治의 이데올로기의 兩極化 冷戰體制의 희생물이 된 韓國의 6·25動亂에 있어서 UN 參戰 16個國의 一員으로 韓國戰爭에 參加한 프랑스는 戰爭發勃 34周年이 지난 오늘날, 韓國의 가장 友好的인 經濟協力

諸國中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은 兩國間的 關係增進은 프랑스의 韓國戰 參戰에 의해서만 起因 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지난 1世紀에 걸쳐 쌓아 올린 兩國間的 傳統的인 友好增進이 礎石으로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는 1986년 兩國修交 100周年을 맞이하게 되는 傳統的인 韓·佛紐帶가 政治·外交·軍事·文化 등 모든 部門에 걸쳐 꾸준한 發展을 거듭해 왔음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兩國國民들은 지난 1世紀 동안의 兩國間 諸關係發展의 찬란한 業績을 相互 있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더우기 프랑스는 6·25動亂을 통하여 韓國과는 血盟으로 굳힌 友邦으로서 오늘날에도 持續的으로 兩國間的 諸關係發展을 꾸준히 摸索해 왔다.

따라서 6·25戰爭 34周年을 맞이한 現時點에서, 兩國間的 關係發展에서의 原動力이 무엇인가를 把握하여 再認識해 보고자 하는 것이 本研究의 第1次的 目的이며, 이를 위해 歷史的 接近法으로서 프랑스軍이 UN軍의 깃발 아래 韓國戰爭에 參戰하게 된 歷史的인 背景과 參戰過程을 再照明하고자 한다.

프랑스軍의 韓國戰爭에의 參加에 관한 研究는 UN軍의 一員으로 포괄적으로 취급됨으로써 프랑스의 國內의 諸與件에 副應하여 研究된 단편적인 研究는 흔치 않은 事情이며, 또한 公開된 資料 역시 軍事·外交的 觀點에서는 지극히 制限되어 있으므로 研究의 1次的인 難關이 있다. 이러한 資料에 대한 難關은 韓·佛兩國이 同一한 樣相下에 있으므로, 本研究는 接近可能的인 客觀的인 資料를 총망라하여 歷史的인 韓·佛軍事關係는 물론 프랑스의 韓國戰爭參戰過程에 대한 分析에 焦點을 들까 한다. 특히 프랑스軍의 韓國戰爭에의 參加와 이들이 이룩한 戰果는 韓國戰爭史上 불멸의 공훈을 쌓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프랑스軍의 參戰經緯와 歷史的·政治外交의 背景 등을 實證的으로 分析하는 데 主眼點을 두려고 한다.

오늘날 韓·佛關係는 美·日에 비해 統計上의 數値로서는 微弱하다 해도, 이는 韓國의 地政學的·政治的 結果에서 온 當然한 歸結이지만, 歷史的으로나, 傳統的으로 兩國 國民間的 精神的인 相互理解度는 상당히 높은

水準에 와 있으므로 앞으로의 兩國 關係發展增進을 期約해 볼 만하다. 왜냐 하면, 兩國은 우리의 悲劇的인 6·25動亂의 體驗을 함께 겪었으며, 韓國人은 自由를 사랑하고 民主主義를 熱望하며, 藝術을 發展시키는 創意的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 프랑스의 自由·平等·博愛 그리고, 프랑스의 藝術을 사랑하며, 프랑스인들도 韓國人이 같은 意志를 가지고 傳統文化와 現代文明을 發展시키는 文化民族이라는 것에 대해 깊은 好感과 理解를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現代 韓·佛關係史에 있어서 프랑스의 6·25動亂에의 參戰은 兩國 關係發展의 一大 轉換期를 이룩하였다는 데에 프랑스軍의 參戰에 관한 考察의 重要性이 있으며, 여기에 政治·外交的, 軍事的, 經濟·文化的인 새로운 意味가 賦課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參戰에 대한 새로운 意味의 把握이 또 하나의 本研究의 重要한 課題로 부각되는 것이며, 이러한 土臺의 定立下에서 앞으로의 兩國의 諸關係에 있어서 보다 더 強化되는 紐帶와 協力增進을 기대할 수 있음을 韓·佛兩國은 銘心해야 한다.

그러므로 6·25戰爭을 통해 結束된 韓·佛軍事紐帶가 오늘날의 兩國間의 모든 部門에서의 協力增進의 現代의인 始發點이 되었음을 감안하여, 프랑스軍의 韓國戰爭參戰意義를 다시 밝히고자 하는 데에 이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

② 參戰以前까지의 韓·佛關係

(1) 舊韓末時代의 韓·佛軍事關係

歷史上 韓·佛間의 最初의 接觸은 먼저 宗教的인 面에서, 그 다음은 이를 契機로 軍事的인 衝突로써, 나중에 外交的인 關係樹立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즉 1831년 로마敎皇廳이 朝鮮敎區를 創設하고 朝鮮의 布敎를 파리外邦

傳教會(La Mission Cathorique Etrangère de Paris)에 委任함으로써 朝鮮에 프랑스 宣教師들이 派遣되기에 이르렀고, 1836년 이래 3년에 걸쳐 3명의 宣教師(Imbert 主教, Chatan 神父, Mauban 神父)가 朝鮮에 入國하여 布敎活動을 展開했다. 1839년에는 소위 己亥迫害로 그간 朝鮮에서 布敎에 從事하던 3명의 프랑스 宣教師를 모두 희생시킴으로써, 이 事件은 프랑스가 朝鮮에 干涉하게 되는 口實이 되었고, 나아가서 프랑스 군함을 朝鮮海岸에 파견시키는 契機가 되었다.¹⁾

1846년 프랑스 極東艦隊司令官 세실(Cécile) 海軍大領은 이 消息에 接하여 天津에서 軍艦 3隻을 이끌고 忠淸道 外煙島에 나타나 3명의 프랑스 宣教師의 학살을 問責하는 편지를 朝鮮政府에 보내고 다시 天津으로 돌아가면서 이에 대한 回答을 要求했다. 10월 12일 라피에르(Lapierre) 大領이 이끄는 2척의 프랑스 군함(La Gloire, La Victorieuse)은 全羅道 古群島에 다시 나타났으나, 난파됨으로써 그들은 朝鮮政府에 回答을 要求하기는커녕 오히려 朝鮮政府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급급히 중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도 프랑스側은 朝鮮遠征을 꼭 實現시키려 했으나, 1848년의 2月革命 등 國內事情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1866년 朝鮮에서 또 迫害가 일어났고, 이 迫害로 인하여 當時 朝鮮에서 宣敎活動을 하던 프랑스 宣教師 12名 中 9名이 살해되었다. 그 때 살아 남은 리델(Ridel) 神父는 天津으로 건너가 프랑스 極東艦隊司令官 로즈(Roze) 海軍少將에게 그 간의 迫害事實을 報告하고, 로즈는 이를 駐北京 프랑스 公使代理 드 벨로네(De Bellonet, Berthémy 公使는 不在中)에게 報告함으로써, 드 벨로네는 로즈 提督으로 하여금 즉시 軍事的 報復을 指示했다.²⁾ 로즈는 2次에 걸친 朝鮮遠征을 斷行하고 江華島까지 占領하였

1) 이에 관한 중요한 研究로서, Charles Dallet,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Paris, 1876; 韓國語 번역版으로 安應烈·崔爽祐 共譯, 韓國天主敎會史, 上·中·下, 분도出版社, 1979~1980; Adrien Launay, *Les Missionnaires français en Corée*, Paris, 1895, p.22; Frederie Nelson, *Korea and Old order in Eastern Asia*, Boton Rouge, 1946, p.109 참조.

2) Emile Bourgeois, *Manuel d'histoire de politique étrangère, le temps présent*, vol. III. pp. 586~587.

으나(1866년 11월), 이 丙寅洋擾는 결국 朝鮮의 勝利로 끝났다. 나폴레옹 Ⅲ 세는 이 朝鮮遠征의 責任으로 드 벨로네 公使代理를 召還하고, 후에 1872년 美國商船 General Sherman 號 事件(辛未洋擾)으로 美國이 被害國으로서 프랑스政府에 提議한 佛·美 對韓共同作戰에 대해서도 ‘朝鮮에서의 完全한 武力行使의 회피 태도’³⁾를 決定함으로써 美國의 同盟提議를 拒否했다.

프랑스 宣教師들의 迫害와 丙寅洋擾로 프랑스는 韓國에 대해 나쁜 感情을 가지게 되었으나, 1882년 韓·美修好條約을 筆頭로 英·獨(1883)·러·伊(1884)가 각기 韓國과 修交하게 되고 韓半島에서 宣敎의 自由가 保障되자, 프랑스는 뒤늦게 1886년에 이르러 韓·佛間의 外交交渉이 開始되어, 宣敎問題로 옥신각신 論難 끝에 6월 4일 프랑스側을 代表하여 프랑스 全權特使(F. G. Cogordan, 5월 1일 來京)와, 韓國側을 代表하여 漢城判尹 金晚植과 高宗의 外交顧問官 美國人 데니(O. N. Denny) 사이에 韓·佛修好通商條約이 締結됨으로써 國交가 樹立되었다.⁴⁾

條約締結 1年 후에 批准書를 交換한 兩國은 政治·經濟·文化 등에서 비약적인 發展을 거듭했으나, 天主教問題로 인한 프랑스 宣教師와 地方官吏, 敎人과 民間人 사이의 紛爭이 韓·佛間의 外交問題로 擴大됨은 물론, 이러한 不美스럽고 지루한 敎案時代는 敎民條約(1899)과 宣敎敎約(1904)이 成立되기까지 갈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宗教問題로 因하여 이 期間 동안 프랑스軍艦의 軍事的인 示威가 濟物浦를 위시한 韓半島 海岸에서 끊임 없이 있었다.

특히 1896년 淸日戰爭 후 프랑스가 러·獨과 함께 3國干涉의 一員國이 되면서부터 韓半島에 影響力을 과시하게 되자, 프랑스는 京義線 鐵道 부설권을 획득하고 韓國政府內의 主要官職에 프랑스人을 進出し켰는데, 俄

3) *ibid.*, Soohn-Ho Hong, *La question coréenne face aux conflits sino-coréen de 1894~1895*, Paris, la Sorbonne, p.16.

4) 韓·佛條約締結過程에 관한 훌륭한 研究로 數編의 論文이 收錄된 것으로서, 崔爽祐, 「韓國敎會史의 探究」, 韓國敎會史研究所, 1982. 가 있다. 拙稿, “韓·佛人士交流와 프랑스顧問官의 來韓(1886~1910)”, 「韓佛 100年史」, 國史編纂委員會, 1984. 參照.

館播遷 이후 러시아가 韓國政府內 主要 顧問官職을 모조리 차지한 다음, 니시-로바노프(西·Lobanov)協定(1896. 9)과 韓國人의 輿論으로 러시아 顧問官들이 물러가게 되자, 러시아人 軍事顧問官 로미노프(Rominoff)의 後任으로 1901년 2월 19일 프랑스人인 페이의(韓國名 裴堯乙, G. Payeur, 프랑스 陸軍砲兵大尉)가 그의 補佐官 루이(路易, L. Louis) 中尉와 함께 大韓帝國政府에 雇聘되었다.⁵⁾

이밖에도 韓·佛軍事關係의 중요한 事實로서 大韓帝國時代 駐美·駐佛·駐露公使를 지낸 李範晉의 아들 李瑋鍾이 프랑스의 생 씨르 陸軍士官學校(Ecole Militaire de St. Syr)에 入校한 事實이다.⁶⁾

韓半島에서 프랑스의 影響力이 增大해지고, 특히 韓·佛軍事關係도 重要性이 加重되자 高宗皇帝는 파리의 장송 드 랄리 中學校(Lycée Janson de Lally)에 在學中인 李瑋鍾(李範晉이 1900년 4월 24일 駐佛公使로 프랑스 大統領에게 信任狀提呈 후 러시아로 떠나면서 瑋鍾의 프랑스 陸士入學을 高宗에게 要請했음)의 卒業時 프랑스 陸軍士官學校入學을 裁可하고 朴濟純 外部大臣이 프랑스政府에 要請함으로써 李瑋鍾의 入校가 이루어진 것이다.

韓·佛間의 軍事關係는 비록 武力的인 충돌로 시작했으나, 舊韓末 軍事

- 5) 韓末의 最初의 西洋人 軍事顧問은 처음에 美國人 General J. H. Dye (1896. 4~1899. 8.), 제 2대 러시아人 Rominoff(1897. 10.~1899. 12.)는 兵器廠顧問을 兼했으며, 제 3대 프랑스人 Payeur 大尉는 器械局兵器廠士官으로 任命되었으나 通稱 軍事顧問官으로 불렸다. 그는 韓國政府의 要請에 의해 1901년 2월 7일에 任命되어 日帝의 對韓積極干涉의 時期인 1903년까지 在任했다.; *Ministre des Affaires le France, Archives Diplomatiques Français, Nouvelle Série 13; Coree Relations avec la France, 1900년 1월 13일 pp. 118~128 및 拙稿, ibid., 참조.*
- 6) 1907년 헤이그에서 開催된 第2回 萬國平和會議에 參席한 '海牙密使事件'의 主人公인 3列士中의 한 사람인 李瑋鍾은, 1900년 3월 26일 Collin de plancy 駐韓 프랑스 公使의 協助로 1901년부터 1903년까지 약 2년간 프랑스 陸士에 在學하였는데, 그의 탁월한 語學實力으로 外交官으로 進出하여 駐露書記官으로 在任中 헤이그의 3列士 李儁, 李相高과 함께 合流했던 것이다. 「舊韓國外交文書」, 法案 2 1380, “留學生 李瑋鍾의 法國陸軍士官學校入學件(勝 17册)”, 1901. 3. 26., 1389, 1901. 3. 20.; *Archives Diplomatiques Français, op.cit., “Proposition d'admission d'un Coréen à l'Ecole militaire de St. Syr” Collin de Plancy, ministre à Séoul, au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e Paris, Délcassé, Séoul, le 27 mass 1901.*

的인 人士交流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兩國間에는 이는 韓末時代부터 獨
特한 軍事的인 유대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2) 프랑스 臨時政府의 大韓民國臨時政府 承認

舊韓末時代 韓·佛間에 이룩한 모처럼의 機會는 1905년 11월 18일 強壓
的인 日帝에 의해 強要된 乙巳保護條約으로 大韓帝國이 主權과 外交權을
박탈당함으로써 韓·佛間에는 1906년 3월부터 國交가 斷絶되는 悲運에 빠
지게 되었다. 그러나 1919년 3·1 運動 以後 上海 프랑스租界에 大韓民國
臨時政府가 樹立되고, 곧 이어 파리에서 열리는 第1次世界大戰 講和會議
에 韓國代表團이 上海臨時政府로부터 파견됨으로써 프랑스人들에게 韓國
에 대한 關心을 가지게 하기도 했다.⁷⁾

兩國間에는 1906년부터 國交空白期를 초래했으나, 프랑스人들은 上海
大韓民國臨時政府를 同情하는 人士들이 많았으며, 파리의 講和會議 代表
團(團長 金奎植)에 物心兩面의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았다. 더우기 프랑스
는 第2次世界大戰中 1940년 6월 3일부터 1944년 8월 25일까지 파리를 비
롯한 國土의 3分の 2가 나찌 獨逸軍에게 占領當함으로써, 日帝에 國土와
國家를 송두리째 강탈당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對外活動을 精神的으로 깊
이 同情하고 있었으며, 1919년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35名의 僑胞(露領에서
勞動移民으로 集團移住한 韓人들) 중에는 獨逸占領軍治下에서 프랑스人들과
함께 對獨 레지스탕스(la Résistance) 運動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었다.

獨逸占領期間 4년 동안 프랑스人들은 韓國人의 植民地狀態를 분개하고
있었으며, 그 結果 1941년 12월 8일 太平洋戰爭이 발발하자, 9일 大韓民
國臨時政府가 對日 宣戰布告를 하고, 45년 2월 28일에는 對獨宣戰布告를
하자, 드 골 將軍을 首班으로 하는 프랑스 臨時政府는 2월 歐美列強中 유일
하게 駐中 프랑스大使를 통하여 大韓民國臨時政府를 承認했던 것이다(中
華民國은 1942년 4월에 承認).⁸⁾

7) *Archiv. Dipl. Fr., op. cit., N.S., N. 1917~1919* 및 國會圖書館(編),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文書」, 1974, pp. 5~25 참조.

8) *ibid.*, pp. 826~828 : “臨政外務部 政務報告書” 및 “對獨宣戰布告文” 참조.

兩國의 外敵으로부터의 解放(la Libération)은 第2次大戰中 프랑스는 44년 8월 25일, 韓國은 45년 8월 15일에 각각 나찌 獨逸과 日帝로부터 '自由'를 찾았다는 歷史的인 共通點이 있으나, 프랑스는 聯合軍의 一員으로서 勝戰國으로, 韓國은 臨時政府의 承認을 中國과 프랑스 以外の 列強으로부터 얻어 내지 못함으로써 第2次世界大戰의 終戰과 함께 美·蘇의 冷戰體制의 희생의 祭物로 分斷되어, 悲劇의 길을 걷게 되었다.

따라서 프랑스臨時政府의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承認으로 重慶臨政은 3월 3일 國務會議을 召集하고 12일에는 在佛僑胞인 徐領海를 駐法 大韓民國臨時政府 代表로 任命하여” 프랑스와 積極外交를 벌이려 했었다.

실제에 있어서 1944년부터 大韓民國臨時政府는 美·蘇·英·中·佛 등 聯合國과의 外交를 強化하기 위해 李承晩을 主軸으로 하는 臨政 駐美委員會를 통해 美·英에 대해 臨政에 대한 承認外交를 積極展開했으나, 美·英의 微溫的인 態度로 外交交渉의 進展이 없었으나, 프랑스臨時政府가 우리 臨政을 承認하자 活氣 있는 對聯合國外交를 展開하여 貧弱한 光復軍이 對日戰에 聯合軍의 一員으로 參戰시킨 計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관철되지 못했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45년 終戰과 함께 10월 드 골(Charles de Gaulle)을 臨時大統領으로 하는 過渡期를 거쳐, 1946년 第4共和國政府를 樹立하고, UN의 創設會員國으로서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의 一員이 됨으로써, 앞으로 韓半島에서 展開되는 諸般事態에서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게 된 것이며, 또한 歐美列強中 唯一하게 終戰에 앞서 大韓民國臨時政府를 承認한 나라로서 韓國의 獨立과 自由, 그리고 安全保障에 至大한 關心을 가진 나라가 된 것이다.

(3) 韓·佛 國交樹立

1945년 8월 15일 韓半島의 日帝로부터의 解放은 美·蘇 兩軍의 韓半島

9) *ibid.*, pp. 854~855, “駐法外交代表交換案”; 申載洪, “大韓民國 臨時政府 外交史研究”, 『史學研究』, 第29號, 1979. 12, 韓國史學會, pp. 98~99.

進駐와 함께 韓國分斷의 시작이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三相會議(美·英·蘇)와 46년 1월 16일 美·蘇共同委員會가 韓國問題에 대해 아무런 解決策을 찾지 못하자, 韓國獨立 問題는 美國에 의해 第2次 UN 總會에 提起됨으로써, 韓國問題의 UN 移管은 安保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인 프랑스의 積極的인 介入의 契機가 되었다. 47년 10월 28일부터 韓國問題를 다루기 시작한 UN 總會 政治委員會에는 또한 美國의 提議에 따라 UN 韓國臨時委員會(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의 設置가 要求되어, 11월 14일 同決議案이 採擇되었는데, 여기서 프랑스는 美國側案에 積極的으로 贊成을 表明했다.

이 決議에 따라 設置된 UNTCOK는 48년 1월 12일 最初의 會合을 서울에서 가지게 되었는데, 프랑스政府는 폴발퀴(Folvarquier)를 代表로 派韓한다. 48년 5월 10일에 南韓單獨總選舉는 곧 UNTCOK의 監시하에 施行된 것이며, 大韓民國은 8월 15일 李承晩을 初代大統領으로 政府를 樹立하게 된 것이다. 이 날 0時를 기해 美軍政廳은 閉鎖됨으로써, 大韓民國은 完全한 獨立國家로서 機能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남은 問題는 UN 總會에서의 承認이었다.

政府는 UN 承認外交를 위해 이미 8월 5일 趙炳玉을 美國派遣 大統領特使로, 11일에는 파리에서 개최되는 第3次 UN 總會派遣 韓國代表로 張勉(團長), 張基永, 金活蘭을 任命하고, 이들 一行은 9월 9일 美國에서 趙炳玉과 合流하여 파리의 샤이요 宮殿(Palais de Chaillot)에서 열리는 UN 總會(9월 21일~12월 21일)에 58個國代表와 함께 參加했다. 韓國代表團 9名은 各國代表들과 接觸하면서 承認外交에 열을 올리고, 프랑스 言論界 人士들을 歷訪하여 韓國實情을 詳細히 說明하면서 韓國承認을 위한 프랑스 輿論에 呼號했는데, 파리의 모든 매스컴은 總動員되다시피 하며, 특히 韓國問題를 新聞紙上에 大書特筆하여 大韓民國을 承認해 줄 것을 積極支援했다.¹⁰⁾

그 結果, 9월 말까지에는 프랑스의 UN 代表 쇼벨(Jean Chauvel)을 비롯

10) *Le Monde, Le Figaro* 紙, 1948. 9. 10~10. 5.

하여 美·英·中·필리핀·칠레·아르헨티나 등 20個國의 代表들로부터 承認約束을 받았으며, 12월 6일부터 韓國承認問題가 政治委員會에서 討議되기 시작하여 共產側이 提議한 北傀代表招請案을 否決시키고, 7일 벨기에 代表 스팍(Spaac) 外相이 議長으로 된 政治委員會에서 韓國代表團의 參席裡에 舌戰이 계속되고 12일(일요일) 續開된 總會에서 48對 6의 絶對多數票로 大韓民國의 獨立이 承認되었다.¹¹⁾

이와 같이 韓國은 政府樹立 이후 최초의 外交의 課題를 빠리에서 열렸던 第3次 UN 總會에서 많은 自由陣營의 友邦諸國의 支持를 받아 政府樹立 직후부터 外交의 支持基盤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프랑스는 韓國을 積極支持했던 것이다.

UN에서 韓國의 獨立이 承認되자, 1949년에 접어들면서부터 美國을 비롯한 많은 友邦들이 계속 韓國을 正式으로 承認하는 外交節次를 밟게 되었다. 이미 서울에는 로마敎皇使節團이 駐在하고 있었는데, 1949년 한 해 동안 韓國을 承認한 友邦은 22個國이었다.

프랑스 第4共和國은 美國(1월 1일), 中華民國(1월 3일), 英國(1월 18일)에 이어 4번째로 2월 15일, 承認함으로써 國交를 再開하게 되었다.¹²⁾

이에 따라 프랑스 第4共和國政府는 같은 해 4월 駐韓 프랑스 公使館을 서울에 設置하고 初代公使로 앙리 꼬스틸레스(Henri Costilès)를 任命하여 13일 李承晚 大統領에게 信任狀을 提呈하게 했다. 이와 相應하는 措置로서 大韓民國政府도 같은 해 5월 駐佛 大韓民國公使館을 빠리에 設置하고 初代公使로 孔鎭恒을 任命하였다.¹³⁾ 7월 6일 孔公使는 프랑스 第4共和國 初代大統領인 오리올(Vincent Auriol)에게 信任狀을 提呈함으로써, 半世紀以上 동안의 國交空白期를 거쳐 兩國은 國交를 正常化시킨 것이다.

11) 拙筆, “政府樹立後의 韓·佛關係(政治·外交)—1945~1984—”, 「韓佛 100年史」, 國史編纂委員會, 1984, Ⅱ. 兩國間 ‘解放’ 以後부터 ‘國交再開’ 以前까지의 關係, 3. ‘UN에서의 韓國獨立承認問題와 프랑스의 役割’ 참조.

12) 外務部(編), 「韓國外交 30年, 1948~1978」, 1979, p. 50.

13) 初代駐佛 孔公使는 51년 4월 26일까지 在任했으며, 駐韓 프랑스公使, de Costilès는 50년 9월 26일까지 在任했다. 國會圖書館(編), 「韓國外交年表」, 1974.

프랑스는 NATO 加盟國으로서 英國·西獨처럼 自國의 安保를 美國에 依存하므로, 당시 對美 一邊度外交인 딜레스의 外交를 志向하던 韓國外交와 全的으로 符合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韓·佛兩國 相互間에는 特殊한 相對方에 대한 外交政策이 있을 수 없었는데, 특히 프랑스와 韓國은 모두 第2次世界大戰의 終戰과 함께 ‘解放’된 國家들로서 戰後 프랑스의 第4共和國 出帆, 韓半島의 分斷과 大韓民國의 政府樹立 등에 따르는 國內의인 混亂과 더불어 經濟의 飢饉 등으로 韓·佛兩國內에 별다른 協力關係는 없었다.

③ 프랑스軍의 韓國戰爭 參戰過程

(1) UN 安保理事會의 決議와 프랑스의 參戰決定

1950년 6월 25일 北傀軍의 南侵 3時間 만에 美國의 要請으로 北傀의 武力行爲에 대한 對策을 論議하기 위해 UN 安全保障理事會가 열렸다. UN 韓國委員團과 駐韓美國大使의 報告를 討議한 結果 9對 0, 기권 1(유고), 결석 1(소련)로 採擇하고, 北傀의 敵對行爲의 即刻中止와 北傀軍의 38線이 북까지의 즉시 철수를 요구했다. 물론 常任理事國의 一員으로서 프랑스도 贊成한 이 決議는 또한 모든 會員國에 대하여 이 決議의 移行에 있어서 UN에 支援을 提供할 것을 促求했다. 이 決意에도 不拘하고 北傀가 侵略行爲를 계속하자, 6월 27일 Truman 美大統領은 韓國軍을 支援하기 위한 美海·空軍의 出動을 命令하고, 같은 날 UN 美國代表로 하여금 모든 UN 會員國들이 韓國에 대한 武力侵攻을 격퇴하고 이 地域의 國際平和와 安全을 支援하는 데 필요한 援助를 提供할 것을 권고한 決議案(S/1511)을 安保理事會에 提出하도록 하여, 7대 1, 기권 2, 결석 1로 채택되었다. 또한 韓國의 방위를 위한 會員國들의 軍事行動의 統一성과 集團性을 부여하기 위해 安保理事會는 7월 7일 7대 0, 기권 3, 결석 1로 決議案(S/1588)을 채택함으로써 UN 軍을 韓國에 파견하게 된 것이다. 이 決議案은 ㉠ 會員國

들이 提供하는 兵力 및 기타의 支援을 美國이 主導하는 UN 軍司令部下에 集結시킬 것을 권고하면서, ㉠ 美國에게 UN 軍司令官을 任命할 것을 委任하고, ㉡ UN 軍司令部에게 參戰 各國의 國旗와 함께 UN 旗를 사용할 權限을 賦與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決議案에 의해 트루만은 맥아더 元帥를 UN 軍司令官으로 任命한 것이다.

常任理事國의 一員으로서 이상의 모든 決議案에 贊成한 프랑스는, 그러나, 프랑스國內의 輿論이 韓國派兵에 대한 贊反兩論으로 沸騰하고 있었다.

共產黨機關紙인 위마니테(L'Humanité)紙를 除外한 프랑스의 輿論들과 프랑스政府는 美國政府가 취한 韓國事態에 對應하기 위한 諸措置를 支持하고 있었는데, 르 몽드(Le Monde)紙는 “向後 美國의 保障과 約束의 無效를 納得하게 될지도 모르는 유럽과 아시아의 自由民들이 어떤 겁먹은 회피나 또는 모스크바 當局이 어떤 對應保障策을 찾으려 해도, 美國의 提議나 措置들을 拒否하려는 傾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다.”¹⁴⁾고 프랑스政府의 對美同調措置를 격려했다.

7월 7일 駐UN 프랑스大使 쇼벨(Jean Chauvel)은 UN 事務總長 트리그브 리(Trygve Lie)에게 프랑스政府가 UN 에 대해 積極的인 支持를 保障한다는 公翰을 發送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UN의 基本的인 第1次的 目的으로서 平和維持를 規定한 UN 憲章의 諸原則을 忠實히 尊重하는 프랑스政府는, 大韓民國의 支援에 관한 安全保障理事會의 권고를 確認할 것을 모든 會員國처럼 義務로 생각한다.”¹⁵⁾고 闡明했다.

UN에서의 프랑스의 韓國戰參戰決意와는 달리 프랑스國內의 輿論은 贊反의 意見이 紛紛한 狀況下에서, 7월 22일 프랑스政府가 派兵을 決定한 다음날인 23일 오리올(Vincent Auriol) 大統領은, “오늘날 모든 人民들은 또 다시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戰爭이 UN 憲章에 記載된 諸原則을 無視하고, 이 世界의 한 部分에서 發生했다. 이러한 無秩序와 괴로움에 처하여,

14) *Le Monde*, le 27 juin 1950. 및 *le Rapport de la Commission des Nations Unies pour la Corée du 15 décembre 1949 au 4 September 1950*, p. 4.

15) *Le Monde*, le 8 juillet 1950.

하나의 希望이란 侵略이 더 이상 자행되지 못하도록 侵略者에게 理解시키는 일이다.……그래서 우리는 世界의 安全保障을 위해 UN 機構의 諸措置에 同意하는 바이다.”¹⁶⁾라고 프랑스의 韓國參戰을 再確認했다.

反共精神이 투철하고 勇氣 있는 政治人으로 알려진 줄르 모흐(Jules Moch) 首相은 7월 22일 英國, 터키, 오스트레일리아에 뒤이어 프랑스도 UN 軍에 參加하는 것을 公表했다. 그러나 몇 週後 英國과 터키는 各各 1個旅團兵力을 派遣했으나, 프랑스는 第1次 措置로 겨우 10餘名の 高級將校를 포함한 傘저버團을 파견하고 海軍의 小型 구축함 1隻을 파견하는 데 그침으로써, 國內外로부터 政治的 사기라는 비난을 받았다.¹⁷⁾

그러자 美國政府는 프랑스 傘저버團이 極東地域에 到着한다 해도 그들에게 日本을 떠날 것을 許可하지 않을 것이라고 프랑스政府에 通告하면서 프랑스政府의 기만적인 行爲에 失望을 表示했다.

프랑스 내에서도 많은 市民들과 軍人들, 그리고 輿論들은 단지 象徴的이 아닌 實質的인 派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陸軍參謀總長인 블랑(Blanc) 將軍과 당시 알제리아 外人部隊 監督官인 마그랭 베르네(Général Magrin-Bernet; 그는 흔히 Ralph Monclar 라는 이름으로 알려짐) 역시 일반 여론에 同調하고 있었으나, 陸軍省長官 막스 르죈느는 쉽사리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¹⁸⁾

16) *ibid.*, le 24 juillet 1950.

17) 豫備役 將校出身으로 從軍記者·作家인 Erwan Bergot 의 *Bataillon de Corée, Les volontaires français*, 1950~1953, Paris, Presses de la Cité, 1983. 韓國戰爭에서 프랑스大隊가 겪은 實戰記錄을 實感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 冊의 번역판 p.38에 프랑스의 參戰背景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韓國語 번역版으로는 金丙一·李解放 共譯, 「6·25전란의 프랑스 대대」, 東亞日報社, 1983이다.

한편 7월 22일 프랑스政府가 派韓을 決定한 후, 29일에 小型驅逐艦 라그랑디에르(La Grandière)號는 프랑스 海軍 極東艦隊所屬으로 歷史的인 9·15 仁川上陸作戰에 韓國 15隻, 美國 226隻, 英國 12隻, 캐나다 3隻, 濠洲 2隻, 뉴질랜드 2隻과 함께 參加하여 作戰을 수행했으며, 動亂期間 중 UN 軍의 海上作戰을 支援했다. La Grandière 號는 후에 言及하는 프랑스地上軍大隊처럼 UN 軍司令部 麾下에서 作戰中인 美海軍艦隊에 配屬되어 作戰任務를 遂行했다. 陸軍士官學校(編), 「韓國戰爭史」, 日新社, 1984, p. 433 참조.

18) *ibid.*

그 당시 프랑스는 第2次世界大戰의 폐허 상태에서 서서히 일어서려고 하는 어려운 時期였다. 또한 軍事的인 側面에서는 NATO軍 加入과 印度支那半島의 戰爭 때문에 軍豫算은 이미 상당한 壓迫을 받고 있던 힘든 時期였다. 政治的으로도 議員內閣制에서 오는 모순 때문에 內閣이 빈번하게 總辭退하면서 安定을 찾지 못함으로써 一貫된 政策과 對外政策遂行이 어려웠던 時期였다. 특히 經濟的으로도 '30年 停滯(1910~1938년까지 經濟成長水準이 1910년의 水準을 겨우 유지했음)'에서 겨우 벗어나 1947년부터 第1次 經濟開發計劃을 시작하여 戰災復舊, 基幹產業復興, 生産施設의 近代化 등을 目標로 어렵게 推進하고 있었던 形便이었다.¹⁹⁾

그러나 프랑스 第4共和國의 모호政府는 UN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의 一員으로서의 國際的인 威身과 體面, 그리고 프랑스 國內輿論 등을 참작하여 韓國動亂發勃 2個月 단인 8월 24일, 地上軍 1個大隊兵力을 UN軍의 一員으로 派兵하기로 決定을 내렸을 때, 모호 首相은 순전히 自由陣營의 結束을 儀禮的으로 示威하는 次元을 넘어서 物理的인 次元에서 프랑스가 參戰하고자 한 것이며, 그것은 프랑스를 위해 그만한 價値가 있는 일이었다.²⁰⁾

(2) UN軍 프랑스大隊의 創設과 派韓

프랑스의 對內外事情이 어려운 時期에 UN 參戰 16個國의 一員으로서, 프랑스軍의 UN軍으로서의 參戰이 決定되었을 때, 韓國派兵을 主張했던 블랑 參謀總長과 몽골라르 將軍은 막스 르쥬느 陸軍省長官과 함께 프랑스軍의 韓國派兵을 위한 새로운 地上軍 部隊創設에 合意했다.

이 部隊는 第2次 大戰 또는 인도차이나 戰爭에서 戰鬪經驗이 있는 豫備役들 중에서 志願兵을 모집하여 構成하기로 決定되었는데, 몽골라르 將

19) 프랑스 第4共和國의 政治·經濟의 諸狀況에 관하여는 拙稿, “프랑스의 政治狀況”, 「서울評論」, 第28號, 서울신문사, 1974. 5. 30, 및 “프랑스의 發展과 教育”, 「政治社會發展을 위한 教育의 役割」, 韓國教育開發院, 研究報告 第92輯, 1979. 등 참조.

20) Erwan Bergot, *op.cit.*, p. 35.

軍(陸軍中將)은 그러한 部隊가 創設되는 경우, 部隊長을 自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大隊編制上 將軍이 大隊長을 맡을 수 없으므로, 그는 中領階級으로 參戰할 것을 희망했다.²¹⁾

막스 르죈느 陸軍省長官은 줄르 모흐(Jules Moch) 首相에게 이러한 新部隊創設計劃案을 報告하여 흔쾌한 수락을 받았으며, 또한 首相은 議會에서 이 計劃을 옹호함으로써 確定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8월 24일 UN 軍 프랑스 大隊가 創設되었는데, 大隊의 全兵力數는 大隊長 몽끌라르中領 한 사람뿐이었다. 그 이튿날부터 韓國派兵募兵이 實施되었는데, 파리지역 리베레(Parisiens Libérés)紙는 다음과 같이 이를 公表했다. “프랑스政府는 韓國의 自由를 守護하기 위해 結成된 UN 軍의 一員으로 一個大隊規模의 志願軍을 募集하여 派兵하기로 決定했다. 參戰志願接受處는 巴黎市 第7區 생 도미니끄街 71番地…….”²²⁾

그리하여 위마니테(l'Humanité) 共產黨機關紙 등 一部 左傾言論의 비난 속에서도 志願兵募集은 순조로워 9월 18일 派韓을 위한 UN 軍 傘下 프랑스 地上軍(Forces terrestres françaises de l'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大隊가 將校 39名, 下士官 172名, 士兵 806名으로 編成되었으며, 또한 이들을 위한 별도의 補充部隊가 將校 10名, 下士官 40名, 士兵 350名으로 編成되었다. 志願兵은 現役과 豫備役에서 應募하였는데, 그 兩者의 比率은 將校가 50對 50, 下士官이 70對 30, 士兵이 10對 90이었다.²³⁾

韓國派遣 프랑스軍 大隊將兵들은 그들의 서로가 過去經歷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을 지휘하기 위해 陸軍中將으로서의 地位조차 떨쳐 버리고 中領階級으로 기꺼이 白衣從軍하는 그러한 部隊長을 두게 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²⁴⁾

部隊旗를 授與하는 記念式에서 르죈느 陸軍省長官은 “이 자리에 모인

21) *ibid.*, p. 39. “韓國派遣部隊創設計劃案”은 Blanc 參謀總長의 命에 의해 陸軍情報局將校인 De Castries 大尉의 研究計劃에 의한 것이다.

22) *ibid.*, p. 40.

23)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編), 「韓國戰爭 UN 軍參戰史」, 第10卷, 1979, p. 495.

24) Erwan Bergot, *op.cit.*, p. 48.

將兵 여러분들은 거의 모두 프랑스의 아들들이 치러야만 하는 兵役의 義務를 第2次世界大戰 동안, 그렇지 않으면 인도차이나 戰爭에서 이미 모두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용감히 싸웠고, 정말로 커다란 공훈을 세운 역전의 용사들로 여기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國際平和를 守護하기 위해 結成된 UN 平和軍의 一員으로 우리 프랑스를 代表한다는 高貴한 任務를 賦與받았습니다. 언제나 自由를 守護하고 프랑스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眞正한 平和의 戰士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²⁵⁾

士氣가 衝天한 이들 프랑스 大隊將兵들의 部隊는 10월부터 B.F.O.N.U. (UN 軍 프랑스 大隊)라는 略稱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망 近方 오부르 訓練所(Camp d'Auvours)에서 訓練을 實施했다. 이 部隊는 UN 軍 프랑스軍 司令官 랄프 몽끌라르를 頂點으로 參謀部와 프랑스軍 大隊로 編成되어 있는데 派韓 당시 編制는 뒷면의 표와 같다.²⁶⁾

各 中隊는 特性 있는 性格으로 構成되었는데 第1 中隊는 大部分 '植民地 步兵(Marouquins)' 出身들로, 第2 中隊는 기갑병들과 수송병 등으로, 제 3 중대는 공수대(낙하산 병과 외인 부대)와 헌병대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부 중대는 기술병과 포병 부대 출신으로 구성되어 각 中隊는 같은 兵科 出身들로 되어 있어 어떤 紐帶感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는 大隊長 르 미르少領의 發想이었다.²⁷⁾

프랑스 大隊는 10월 23일까지 所定의 훈련을 마치고 25일 輸送船 아토스 第2號(Athos II)에 승선, 마르세이유港을 떠나 1個月餘의 航海 끝에 11월 29일 釜山港에 上陸했다. 歡迎式이 끝난 다음, 大隊는 곧 列車便으로 大邱를 向하여 UN 軍收容隊(United Nations Reception Center)²⁸⁾에 旅裝을 풀

25) *ibid.*, 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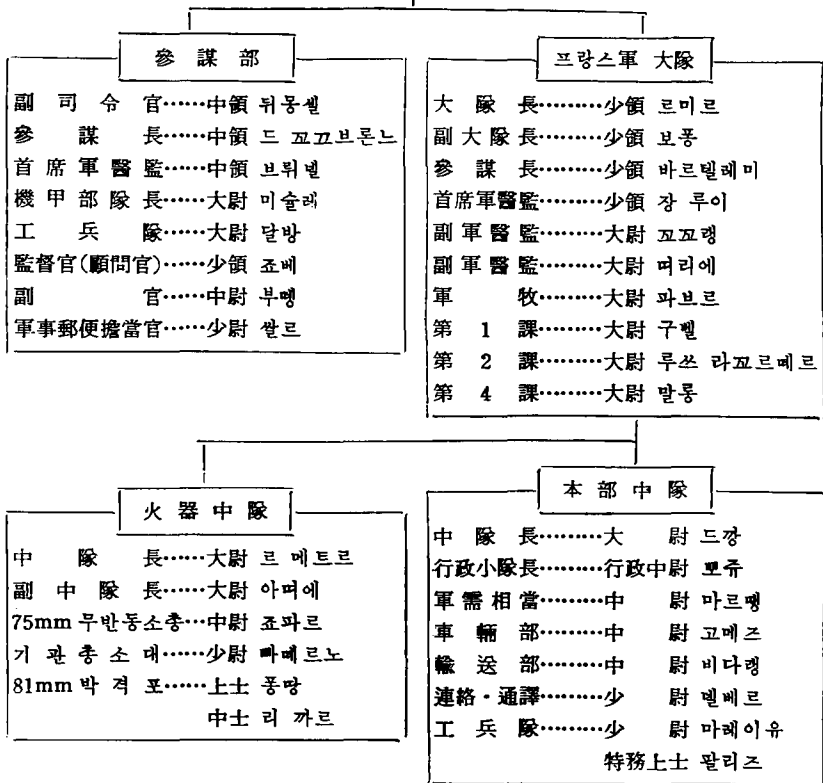
26) *ibid.*, p. 370.

27) *ibid.*, p. 50 및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編), *op.cit.*, p. 496.

28) *ibid.*에 의하면, 이 UN 軍收容隊에서는 韓國에 새로이 到着하는 모든 UN 軍將兵들에게 現地事情에 알맞은 각종 裝備의 操作 및 使用을 위한 特別한 숙달 訓練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 施設은 당시 美第8軍司令官 Walton H. Walker 中將이 開設한 것이다.

UN 프랑스軍(1950. 10. 26)

UN 프랑스軍 司令官 陸軍中領 몽골라르



직 무	제 1 중 대	제 2 중 대	제 3 중 대
중 대 장	대위 드 카스트리	대위 위 샤 르	대위 셰 르
부 중 대 장	중위 델 모 프	중위 르 루	중위 박 세 르
제 1 소대장	중위 레 넬	사관 후보생 중위 필 립	중위 니꼴라이
제 2 소대장	중위 르 루 에	중위 샤 프 롱	중위 르뵈리에
제 3 소대장	특무 상사 지 라 르 도	중위 에 프 베	중위 쇼 몽
화기 소대장	소위 라 라 귀	중위 드빌르브	소위 폴 라 르

었다. 여기서 出動命令을 기다리면서 兵器, 裝備 등의 손질 등 戰鬪態勢에 餘念이 없었던 이 프랑스 大隊은 車輛裝備의 現保有分이 트럭 18臺, 轎차 44臺에 不過하였으므로 戰鬪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追加적으로 確保할 것들이 많았다.

(3) 戰 果

韓國 땅에 도착한 지 12일째가 되는 12월 11일, 프랑스 大隊은 美步兵第 2師團 第23聯隊에 配屬되었다.²⁹⁾ 13일에는 水原으로 移動하여 美第2師團과 合勢했는데, 이 師團은 11월末 軍隅里地區戰鬪에서 中共軍과의 激戰으로 5,000名 이상의 兵力 및 95%의 工兵裝備, 그리고 全砲兵部隊와 車輛 등을 잃어 戰鬪機能이 마비된 채 12월 8일 水原近郊에 集結한 直後였다.

當時 戰況은 11월 13, 14일 압록강을 渡河한 中共軍의 介入 이래 韓半島의 一定線에서 中共軍의 진출을 저지할 전망이 회박한 가운데 UN軍의 全面撤收問題가 舉論되고 있던 중이며, UN軍을 추격하여 계속 南下하던 中共軍 28個師團 및 北傀軍 3個軍團은 38線 북쪽에서 일단 추격을 멈추고 次後 공세를 준비하면서 2個師團規模의 北傀軍 유격대를 산악 지대를 따라 春川~原州~大邱線의 沿邊에 출몰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主攻을 서울에 指向하고, 助攻으로서 中部戰線을 위협하고 있었다.³⁰⁾

이러한 狀況下에서도 프랑스 大隊은 몽골라르 司令官의 精神의인 指導力과 프랑스 特有的 國民性으로 비록 UN軍 산하 美軍部隊에 예속되어 있어도 士氣가 충천했으며, 美第2師團 第23聯隊와 相互支援·協助하면서 獨自의인 作戰을 수행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每戰鬪에서 赫赫한 戰果를 올렸다.

프랑스 大隊은 1951년 1월 10일 美 第23聯隊와 原州戰鬪에 投入되어 53년

29) 당시 韓國派遣 UN軍의 主力은 美第8軍으로, 그 傘下의 步兵 第2師團은 第10軍團下에 있었으며(24師團, 9師團과 함께), 2師團은 23聯隊의 프랑스軍 大隊 외에 9聯隊에 타일랜드軍 大隊, 38聯隊에 네덜란드軍 大隊이 配屬되어 있었다. *ibid.*, p. 371.

30)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編), *op.cit.*, pp. 497~499.

7월 27일 休戰이 成立될 때까지 10餘個의 大規模戰鬪에서 크나큰 戰果를 發揮했는데, 주요한 戰鬪는 다음과 같다.

雙터널 戰鬪(51. 2. 3~2. 5) : 이 戰鬪는 大隊가 韓國戰에 參戰한 첫번째 激戰으로서, 이 戰鬪에서 第3中隊 連絡將校 벨모프 中尉가 戰死했는데, 이는 韓國戰爭에서 프랑스 將校의 첫 戰死者이기도 하다. 大隊는 이 戰鬪에서 敵射殺 1,300名, 부상 3,600餘名の 戰果를 올렸으며, 戰死 27名, 失蹤 3名の 損失이 있었다.

이 戰鬪중에 몽골라르中領이 發揮한 指揮能力은 美大統領의 部隊表彰狀과 프랑스 陸軍으로부터의 部隊表彰狀으로 極讚되었다.

砥平里(地平里라고도 함) 戰鬪(51. 2. 13~17) : 이 戰鬪에서 프랑스 大隊가 실시한 용감한 戰鬪는 후일 李承晚 大統領과 美 大統領으로부터의 두번째 부대 표창, 그리고 프랑스 共和國의 Citation Française à l'Ordre de l'Armée 表彰을 받았다.

이 전투에 이어 1037高地戰鬪(3. 5), Kansas 방어선 장악(4. 5~22)을 거쳐 5월 17일에는 부채살 전투에서 공병소대가 전멸했다.

斷腸의 稜線激戰(第1段階 9. 13~26, 第2段階 10. 5~22) : 長期間에 걸친 이 戰鬪에서 大隊가 입은 人命損失은 구벨 大尉 등 60名の 戰死者와 200名の 부상자를 내었으며, 敵은 北傀軍·中共軍이 막대한 손실을 입어 당시 推計된 그들의 손실은 25,000名에 이르렀다. 이 激戰에 앞서 華川地區 進出戰(3월), 소양강 저구 戰鬪(4, 5월), 흥천·인제 진격전(6월), 편치불 攻守戰(7월)도 有名하다.

이러한 가운데 1951년 12월에는 몽골라르 中領이 그의 指揮權을 보레일(Borreil) 中領에게 引繼하고 12월 6일 歸國했는데, 이 때 몽골라르 中領은 參戰 1년 동안의 赫赫한 功勳을 認定받아 美第8軍司令官 James A. Van Fleet 大將이 表彰하고 美國의 Legion of Merit 勳章을 수여했다.

새로운 指揮官을 맞아들인 프랑스 大隊는 프랑스로부터 새로 到着한 補充兵으로 部隊를 再編成하고, 鐵의 三角地帶內의 金化地區에 있는 戰略的인 據點으로 移動했다.

프랑스 大隊은 金化地區戰鬪(52. 1. 24~4. 28), 鐵原地區戰鬪에서 계속 격전을 치르었고, T-Bone 高地戰鬪(52. 7. 18~29)에서는 敵射殺 15名, 포로 2名 등 150名 이상의 인명 손실을 주었다.

애로우 헤드(화살머리) 高地戰鬪와 281 高地戰鬪(10. 3~12) : 프랑스 大隊의 工兵小隊가 또 다시 전멸당한 이 격전이 얼마나 치열하였는가에 대해서는, 10월 14일 師團長 James C. Fry 少將이 프랑스 大隊長 보레일 中領 앞으로 보낸 다음과 같은 電文에 의해 알 수 있다.³¹⁾

“本官은 貴大隊가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英雄의인 戰鬪를 높이 칭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는 바이다. 이 高地를 공격하기에 앞서 敵이 퍼부은 野砲와 박격포에 의한 공격 준비 사격은 本官으로서는 이제까지 겪어온 軍事經驗上 그 類例를 찾기 어려울 만한 것이었으니, 이러한 사격은 人間으로서 견딜 만한 限界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이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든가는 我軍陣地에서와 그 前方에서 中共軍이 유기한 屍體가 확인된 것만도 600餘具에 달하였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日本의 東京으로부터도 Mark W. Clark 大將은 電文으로, “찬란한 방어 전투, 특히 프랑스 공병 소대원들의 영웅적인 전투는 현대의 가장 뛰어난 전투 중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다.”³²⁾라고 극찬했다.

이 戰鬪의 戰果로 프랑스 공병소대는 une deuxième citation à l'ordre de l'armée 의 표창을 받게 되었고, 12월에는 李承晩 大統領이 部隊表彰을 보냈는데, 이 방어 전투는 이 高地와 그 인접 지역 일대에서의 성공적인 것으로서, 1952년 도중 美第2師團이 中共軍의 大兵力을 격파한 戰勝의 代表的인 것으로 認定된 것이다.³³⁾

31) Jacques Delmote 中尉는 51년 1월 7일에 戰死했는데, 이에 앞서 정찰 임무 수행 중 火器中隊의 Fernand Bresseau 下士가 50년 12월 28일 프랑스軍中 첫번째로 戰死했다.; E. Bergot, *op.cit.*, p. 375.; 프랑스軍의 詳細한 戰鬪狀況은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編), *op.cit.*, pp. 497~555에 記錄되어 있으므로 이 研究에서는 省略한다.

32) *ibid.*, pp. 546~547.

33) *ibid.*, p. 547.

1952년 12월 1일, 드 제르미니(Le Begne de Germiny) 中領(11월 28일 交替要員과 함께 到着)이 보레일 中領으로부터 指揮權을 引受받고 프랑스 大隊은 새로운 戰列을 가다듬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 大隊의 勝戰報가 本國에 알려지자, 53년 1월 9일에는 빠리市 생 제르맹 앙 래街(St. Germain-en-Laye)에서 太極旗·프랑스旗·星條旗·UN 旗 등이 휘날리는 가운데 血盟의 友誼를 다짐하는 分列行進式이 거행되었는데, 이는 美第2師團의 戰友들이 韓國戰에서 나는 고난의 발자취를 記念하며, 동시에 世界平和를 위한 UN의 노력에 많이 공헌한 프랑스 軍將兵들의 勞苦를 기리는 것이었다. 이 式典에서 몽플라르 中將을 둘러싸고 있는 人士들 中에는 國防省次官 드 셰빈뉴(M. de Chévigney), 주앵(Juin) 元帥, 릿지웨이(Ridgeway) 大將, 프리먼(Freeman) 准將, 駐佛 韓國公使 全奎弘 등이 있었다.

새로운 指揮官을 맞이한 프랑스 大隊은 休戰調印時까지 38線 이북 임진강 위 후크 高地 주둔 후 송곡 능선 전투(53. 2. 10~25), Kansas 線 및 Wyoming 線 攻守戰(4. 1), 仲佳山地區戰鬪(7. 8) 등에서 많은 戰果를 올렸다. 이 마지막 戰鬪에서 7월 18일 자크 벨머에 一等兵 등 5명이 休戰 열흘을 앞두고 戰死했다.³⁴⁾

韓國戰爭에서의 프랑스 大隊의 공훈은 韓國戰史에서 길이 빛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 陸軍士官學校에서 펴낸 ‘韓國戰爭史’에서도 “프랑스軍은 UN軍 戰鬪部隊 가운데서 가장 強力한 戰鬪部隊로서 실력을 發揮하였다.”³⁵⁾고 오늘날 높이 評價하고 있다.

프랑스 大隊은 戰爭中 1個大隊에 불과했으나(52. 6. 30. 현재 1,185명, 53. 7. 1. 현재 1,119명) 延人員 3,421명이 動員되었으며, 戰死者 262名·부상 1,008名·실종 7名·포로 12名の 손실을 보았으나, 포로는 休戰成立 후 9월 6일까지 모두 송환되었다.³⁶⁾

34) Erwan Bergot, *op.cit.*, p. 378.

35) 陸軍士官學校(編), 韓國戰爭史, *op.cit.*, p. 497.

36)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編), *op.cit.*, p. 557 참조. 그러나 陸軍士官學校(編), *op.cit.*, pp. 501~504에서는 戰死者 288名, 戰傷 818名, 失蹤이 18名으로 되

④ 休戰後 UN프랑스軍의 動向

(1) 休戰과 프랑스軍의 撤收

1953년 7월 27일 午前 10시에 板門店에서 休戰協定이 調印되고, 이 날 밤 10시를 기하여 모든 敵對行爲가 中止됨으로써 7월에 들어서서 20여 일 간의 仲佳山地區戰鬪에서 마지막 血戰을 벌였던 UN軍 프랑스 大隊도 休戰協定에 따라서 非武裝地帶를 떠나 새로운 陣地를 占領하게 되었다. 移動을 앞두고 프랑스 大隊은 美第2師團 第23聯隊 이하 各部隊들과 함께 새로운 陣地占領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現地上의 모든 兵器와 장비의 철거 및 戰場整理 등을 실시하였으며, 곧 이어 陽地里(漢灘江 北쪽)로 移動하여 그 곳에서 새로운 陣地를 占領했다.³⁷⁾

이 곳에서 프랑스 大隊은 2개월 후 한국을 떠날 때까지 주둔하고 있었다.

10월 8일에는 그 동안 同大隊에 配屬되어 生死苦樂을 함께 한 韓國軍將兵들을 위한 환송식이 大隊練兵場에서 舉行되었으며, 그 이튿날 9일에는 美第9軍團長 Thomas F. Hickey 少將 앞에서 閱兵式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레일 中領은 戰爭期間中 이룩한 뛰어난 武功을 認定받아 Legion of Merit 勳章을 받았는데, 당시의 美第8軍司令官 Maxwell D. Taylor 大將도 同席했다.

10월 13일, 프랑스 大隊將兵들은 韓國政府의 關係官들에게 離韓人事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李承晚 大統領은 國防長官을 통하여 部隊表彰狀과 大隊長 드 제르미니 中領에게 乙支武功勳章을, 알렉상드르 少領과 데뷔르베 少領에게 各各 金星武功勳章을 授與했다.

10월 22일, 프랑스 大隊은 General Blake 號로 仁川港을 떠나 인도차이

어 있다.

37)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編), *op.cit.*, p. 555.

나로 向發했는데, 이들 主力部隊의 最終梯隊가 離韓한 것은 11월 6일이였다.

당시 프랑스 政府에서는 UN 軍 프랑스 大隊의 韓國戰爭 參戰의 象徴으로서 50名 정도의 分遣隊를 까달루(Cadarlou) 中尉의 指揮下에 韓國에 殘留시켜 UN 軍 傘下에 두었으나, 그 후에 15名の 連絡將校團만 두었다가 1965년 6월 중에는 全員이 완전히 韓國을 떠났다.

프랑스軍 大隊將兵들은 53년 10월 韓國을 떠나 인도차이나 반도(월남)로 移動하며 베트남과 接戰하게 되었는데, 54년 4월에는 당케에서 비극적 참사에 휩쓸려 막대한 人命의 損失을 보았다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 政府는 韓國戰爭의 休戰이 임박해지자, 53년 7월 13일 休戰을 反對하고 있었던 李承晩 大統領과 韓國國民들의 統一努力을 支持하는 共同聲明을 美·英·佛 外相을 통하여 發表하고, 27일 休戰協定이 調印되자, UN 參戰 16個國과 함께 ‘統一民主韓國의 守護와 共產側의 再侵에 대한 共同防衛의 原則’을 確認하는 共同宣言文을 發表하여 韓國과의 血盟의 友誼를 다짐했으며, 8월 9일에는 ‘共產側이 休戰協定을 파기하는 경우, 中國本土를 공격할 것’에 合意했다.

또한 54년 4월 26일에는 美·英·佛·蘇 代表들이 Geneva 에서 韓國問題에 관한 政治會議를 개최했을 때, 프랑스는 美·英과 함께 韓國의 立場을 支持함으로써, UN 軍 프랑스 大隊가 韓國戰爭에서 흘린 피의 代價가 헛되지 않게 노력하는 態度를 보였다.

(2) 프랑스 韓國戰參戰勇士會 創設

韓國戰爭 3년 동안 總兵力 3,421名이나 되는 프랑스軍 大隊出身 勇士들은 1955년 9월 10일 드 까스트리(De Castries)를 會長으로 韓國戰參戰勇士會를 Paris 에서 創設했다. l'Association Française des Anciens Combattants à la Guerre de Corée 라고 불리는 이 會의 會員은 約 350名이며, 프랑스 政府의 在鄉軍人省(le Ministre délégué auprès du Ministre des

Anciens Combattants)의 財政的 支援을 받고 있다. 會長 드 까스트리는 UN 軍 프랑스 大隊가 創設 당시 第1 中隊長(大尉)을 역임한 역전의 용사다.³⁸⁾

이들 會員들 中에는 各界各層에서 성공한 人士들도 많으며, 특히 프랑스 國民議會(下院) 議員인 비비앵(Robert André Vivien)은 下院內 佛·韓 議員親善協會(1971.5.18 創立)의 初代會長을 지내면서 韓·佛間의 友好增進에 크게 활약하고 있다.

프랑스側의 이러한 對韓親善活動은 兩國의 모든 部門에서의 關係發展에 크게 寄與되고 있는데, 韓國側에서도 1962년 9월 28일 軍事革命政府가 參戰16國 軍指導者를 招請하여 叙勳한 바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聯合參謀部次長 부싸리(Armand Boussarie) 海軍少將이 參席한 바 있다.³⁹⁾

또한 韓國動亂 34周年을 맞이하여 우리 政府는 參戰 16國의 역전의 용사들을 84년 6월에 초청한 바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韓國參戰勇士會 會長 드 까스트리와 6명이 夫婦同伴으로 招請되어 來韓한 바 있다.

韓國戰參戰 프랑스의 勇士들은 第2의 故鄉이 된 韓國을 永遠히 잊지 못하고 韓國의 번영과 發展을 빌면서, 그들이 韓國戰에서 最初로 接戰했던 當時를 지금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회상하고 있다.

“……1951년 1월 10일,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조그마한 분지 주위에 배치된 아군 병력은 고작 1,000명의 프랑스 보병 대대뿐이었다. 중공군은 마치 단순한 본능에 의해 단지 앞으로 앞으로 전진만 하는 수천 수만의 집요한 개미 떼들 같았고, 거기에 비하면 아군 병력은 거센 파도를 휘몰아치는 적의 공격 앞에 표류하는 배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⁴⁰⁾

(3) 프랑스 知性的 韓國戰爭觀

韓國에서 戰爭이 發勃하자, 프랑스의 輿論들은 일제히 이를 상세히 報道

38) 外務部歐洲局(編), 「佛蘭西概況」, 執務資料 82-8(歐一), 1982.9, p. 61.

39) 韓國軍事革命史編纂委員會(編), 「韓國軍事革命史」, 第1輯, (上), 1962. p. 739.

40) Erwan Bergot, *op.cit.*, p. 26.

함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韓國事態(les affaires de la Corée)’를 최초로 보도한 르 몽드紙는 1950년 6월 25일 北傀內務相이 公式的으로 發表한 하나의 커뮤니케——“南朝鮮傀儡國防軍(l’armée nationale des marionettes de la Corée du Sud), 이 6월 25일 새벽, 北傀에 대하여 北緯 38度線을 갑자기 侵入했는데, 北傀軍은 38線 北方 2 km까지의 3個地域으로 侵入한 南韓軍隊를 격퇴시켰다.”——를 引用하면서, “이러한 北傀의 口實은 大韓民國 大統領에 의해 명백히 否認되었으며, 더우기 UN 韓國委員團이, 1950년 6월 25일 南韓이 北傀를 絶대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軍事觀測報告書에 근거하여 滿場一致로 北傀의 侵略行爲를 申明했다.”⁴¹⁾고 論評했다.

共産黨機關紙인 위마니테(l’Humanité)紙를 除外한 모든 프랑스의 輿論들과 政府는 한결같이 美國이 UN에서 취한 事態에 對應하기 위한 諸措置를 支持하고 있었는데, 르 몽드紙는 “向後 美國의 保障과 約束에 대해서……美國의 提議나 諸措置들을 拒否하려는 傾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다.”⁴²⁾고 UN 安保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의 一員으로서 프랑스가 美國과 同調한 措置를 격려했다.

특히 프랑스가 韓國戰爭에 派兵할 것을 決定했을 때에는 贊反兩論이 紛紛했었으나, 대체로 프랑스의 輿論은 自由와 平和를 위해 參戰하는 것을 환영했었다.

프랑스軍이 UN의 깃발 아래에서 3년간의 戰爭을 치러, 크나큰 功勳을 이룩한 것에 대해서 프랑스의 知性들은 대체로 UN 安保理事會의 常任理事國으로서 당연한 歸結로 보고 있다. 파리 大學校의 國際政治學 大家인 뒤로젤르(Jean-Baptiste Duroselle) 教授는 韓國戰爭 勃發始初에 있어서, “소련은 南韓이 北傀를 먼저 공격했다고 宣言했지만, 소련의 완전한 支援下에 철저히 戰爭準備를 한 北傀가 공격한 것은 명백한 事實이다.”⁴³⁾라

41) *Le Monde*, le 27 juin 1950 및 *Le Rapport de la Commission des Nations, Unies pour la Corée du 15 décembre 1949 au 4 septembre 1950*. p.4 참조.

42) *Le Monde*, le 27 juin 1950.

43) Jean-Baptiste Duroselle, *Histoire Diplomatique de 1919 à nos jours*, Paris, Dalloz, 1966, p. 626.

고 주장하면서 韓國戰爭에서 北傀軍과 中共軍을 對抗하여 싸운 UN軍의 功勳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 現代 프랑스의 知性を 代表할 수 있는 아롱(Raymond Aron) 교수는, “프랑스·터키·英國 등의 參戰의 우연성은 國際的인 部隊의 性格으로 南韓側을 支援하여 싸운 UN軍을 支配했다.”고 프랑스軍의 參戰成果를 높이 評價하면서, “따라서 美國은 世界的인 機構와 世界輿論을 動員하여 ‘便宜와 自信感(거의 勝利를 確信하는)’을 가지게 되었으나, …… 中共軍의 介入으로 이길 수 있는 戰爭에서 勝利를 포기했다.”고 論評했다.⁴⁴⁾ 또한 “韓國戰爭을 10년 후(60년대를 말함)에 나타난 中·蘇 對立(l’antagonisme Soviétéo-Chinois)의 愼重하고 교묘한 第1次的인 示威(manifestation)”⁴⁵⁾라고 評價하는 分析도 있다.

이밖에도 파리 政治大學長(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 드파르즈(Philippe Moreau Defarges)는 뒤로켈르 教授처럼 北傀의 南韓에 대한 先制 공격을 주장하면서, 후르시초프의 回想錄을 引用하여, “金日成이 스탈린을 說得하여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南韓에 대한 무력 행위를 자행했다.”⁴⁶⁾고 보고 있다.

프랑스 言論界의 重鎮으로서 서울과 平壤을 차례로 訪問한 바 있는 르몽드紙의 論說委員 앙드레 폰페느(André Fontaine)는 韓國問題에 대한 심오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는 그의 力著인 ‘冷戰史’에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北傀軍隊의 南侵은 冷戰을 熱戰으로 만들었다.”⁴⁷⁾고 그의 冷戰의 論理를 展開하고 있다.

특히 韓國戰爭이 中共軍의 介入으로 돌변한 50년 11월 Washington에서 활약했던 Figaro紙의 델마스(Claude Delmas) 記者는, 韓國戰爭에서 原子

44) Raymond Aron, *Paix et Guerre entre les Nations*, Paris, Calman-Lévy, 1962. pp. 546~547.

45) Jean Mathieux et Gérard Vincent, *Aujourd’hui, depuis, 1945; Tome 2, Les Etats Capitalistes L’Europe, Les Relations Internationals Conclusion*, Paris, Masson, 1978, p. 362.

46) André Fontaine, *Histoire de la guerre froide, II, de la guerre de Corée à la Crise des alliances, 1950~1967*, Paris, Fayard, 1967, p. 13.

47) *Le Figaro littéraire*, juillet 1970.

爆彈 使用檢討에 얽힌 자세한 경위를 20年 만인 지난 70년 11월에 發表했는데, “50년 11월 30일 트루만 大統領은 記者會見席上에서 原爆投下의 可能性을 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中共軍의 韓國戰爭 介入으로 韓國事態는 핵무기 사용 문제가 國際關係에 개입된 첫 事件이었다.”⁴⁸⁾고 보고 있다.

프랑스의 대부분의 知성과 輿論은 韓國戰爭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北傀의 南侵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으나, 共產黨 機關紙인 위마니에紙는 6·25 動亂 이후 始終一貫 共產國側의 論調와 같이하면서, 특히 프랑스 大隊의 韓國戰 參戰이 決定되었을 때는 連日 갖은 욕설을 퍼부었는데, 특히 프랑스 大隊가 韓國을 向發할 때는 “피에 굶주린 놈들”이란 表現을 쓰면서 신랄한 記事를 실었다. 그밖에 左傾知識人들은 美國에 대해 批判의 화살을 퍼붓고 있었는데, 파리 大學校의 몇 안 되는 東洋關係 專門教授인 셰노(Jean Chesneaux)는 “韓國戰爭은 Washington 當局에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從屬된 韓國이 美軍의 軍事占領에 의해 야기된 것”⁴⁹⁾으로 보고 있다.

韓國戰爭에 대한 프랑스人的 態度는 그들의 參戰으로 다른 參戰國처럼 일반적으로 西方側의 보편적인 見解와 동일한 樣相을 띠고 있으나, 左傾 勢力이나 共產黨員이 많은 프랑스에서는 北傀의 허무맹랑한 날조와 主張이 때에 따라 說得力을 가지는 경우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㉔ 結 言

韓國戰爭은 美·蘇間의 冷戰이 絶頂에 달했던 時期에 冷戰史上 최초로 벌어진 局地戰爭으로서 第2次世界大戰 이후 國際關係의 本質과 強大國政治의 實相을 보여 주었으며, 韓半島에 대한 그들의 態度와 政策이 드러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方向을 提示해 준, 그리고 우리에게 크나큰 敎訓을 준 戰爭이기도 했다.

48) Erwan Bergot, *op.cit.*, p. 55에서 再引用.

49) Jean Chesneaux, *L'Asie Orientale aux XIX^e et XX^e Siècle*, Paris: P.U.F., 1966., p. 221.

우리는 이 戰爭을 통해 우리와 歷史的으로, 그리고 軍事的으로도 인연이 있는 프랑스를 再發見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는 國內外的 惡條件을 무릅쓰고, 그리고 一部 北발치는 參戰反對의 輿論에도 불구하고 韓國戰爭을 통해 우리와 友誼를 두텁게 했다.

오늘날 韓·佛關係는 政治的으로 現 社會黨政權인 미메랑 行政府의 對東歐 및 共產圈과의 關係改善策으로 北傀에 대한 承認問題가 擡頭되고 있어 政治·外交的인 현안 문제가 解決되지 않고 있으나, 이미 兩國 大統領의 相互訪問計劃이 合意된 바 있고, 프랑스의 首相이 訪韓할 것으로 豫定되어 있으므로 兩國間的 紐帶의 強化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經濟的으로는 프랑스가 韓國과의 첨단 기술 분야에 관심을 두고 兩國間的 經濟協力이 相當水準에 있으며, 또한 文化的으로도 兩國間에는 긴밀한 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軍事部門에서도 프랑스는 UN 參戰 16個國의 一員으로 韓國戰爭에서 血盟의 友誼를 돈독히 함으로써 계속 韓·佛 軍事關係가 增進되고 있다. 6·25 動亂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軍高級將校를 비롯하여 많은 軍 엘리트들이 프랑스의 各種 軍事關係 教育機關에서 教育을 받았으며, 특히 프랑스의 學問分野에까지 進出하여, 이미 陸軍의 車榮九 中領(國防管理 研究所)과 空軍의 崔明相 中領(空軍本部) 등은 파리 大學校에서 國際政治學 博士學位를 획득했다.

韓國戰爭을 통한 프랑스軍의 參戰이 軍事關係뿐만 아니라 모든 部門에서 우리에게 미친 影響은 直·間接的으로 매우 큰 것으로 分析된다. 그러면 血盟으로 맺어진 兩國間的 諸關係는 오늘날 어떤 結果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再檢討해 보자.

우리 韓國側으로서서는 첫째로, 解放 후 絕對的으로 優勢한 影響下에서 韓國을 支配했었던 美國文化 一邊度 受容에서 脫皮하여 對外로부터의 文物·制度 受容過程에서 프랑스式 모델을 참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6·25 動亂 후 30餘年이 지난 오늘날에도 美國文化의 압도적인 영향은 否認할 수 없으나, 오늘날의 韓國人은 프랑스에 대한 지대

한 關心을 가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 예로서 프랑스 第5共和國憲法으로부터의 영향, 附加價値稅 制度의 導入, 大學入試 學力考查制度의 導入 등 일일이 列擧할 수 없을 정도이다. 둘째로 政治外交的인 觀點에서 프랑스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韓國獨立 承認過程에서 積極的으로 우리를 도왔고, 動亂 후에도 持續的으로 우리의 충실한 友邦으로서 UN, 각종 國際會議, I.P.U. 등에서 우리의 立場을 支持해 왔다. 특히 프랑스의 參戰後 50년대 말부터는 韓國과의 諸 外交協定の 締結로 關係增進을 도모해 왔다. 그 결과 우리 留學生의 大學 초청,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經濟的 富 때문에 많은 自費留學生의 渡佛이 促進되었다는 사실이다. 세계로 經濟的으로 어려운 EC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對佛貿易은 최근 계속적인 黑字를 기록하게 됨은 물론, 韓國의 經濟開發計劃에 지대한 關心을 보여 왔던 프랑스는 오늘날 韓國의 중요한 經濟·技術協力國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 할 수 있다. 끝으로 軍事的인 側面에서도 韓·佛 軍事交流는 물론 防衛産業分野에 이르기까지 兩國間의 유대가 긴밀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6·25 動亂에서 프랑스의 參戰으로 맺어진 持續的인 軍事關係發展으로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

다음 프랑스側에서도 韓國戰爭에의 參戰은 하나의 큰 視野를 提供받은 것이다. 첫째로 인도차이나 戰爭의 失敗로 東洋과의 關係가 소원해졌던 프랑스는, 韓國戰爭을 통해 極東諸國에 關心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韓國을 비롯한 日本·印度·필리핀 등과의 관계 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둘째로 韓國의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한 관심은 아시아 諸國에의 經濟進出을 積極化할 수 있는 經驗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계로 韓國戰에서 얻은 경험, Asia 諸國과의 經濟·文化交流를 통해 傳統的인 프랑스 文化를 輸出할 수 있었고, 프랑스의 對外的인 威信을 고취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綜合的인 觀點에서 韓國은 6·25 動亂을 통해 맞아들인 프랑스軍의 參戰으로 프랑스의 강인한 國民性과 그들의 文化를 더욱 존중하게 되고, 프랑스를 새로이 認識하게 됨으로써 韓·佛 協力時代의 새로운 章을 여는 계

기를 얻게 되었으며, 우리의 對美·對日 一邊度指向性を 多元化하는 데 프랑스의 役割과 影響이 至大했음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프랑스 역시 아시아에서의 가장 有望한 協力國을 發見했다는 데에 異論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韓國戰爭을 통해 260餘名の 戰死者와 1,000餘名の 부상자를 감수해야 했던 너무나 값진 代價를 치렀던 것이다. 또한 韓·佛間의 密着된 諸關係가 韓國이나 프랑스 相互間 각각 다른 友邦의 질투의 대상이 될 可能性은, 오늘날 國際關係에 있어서 留意해야 할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를 提起하고 있음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韓國이 原子爐 2基(9,10 號基)를 프랑스로부터 導入할 때 나타났던 國際的인 갈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次元 높은 外交로서 解決해야 할 代案도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分析은 客觀性を 상실한 편견으로, 韓·佛關係에만 執着하여 究明한 結果로 지적받을 可能性도 없지 않겠으나, 解放 直後부터 6·25 動亂의 休戰 이후 60년대까지, 韓國의 對外關係가 보여 준 對美偏重性에 의한 우리의 美國的인 影響圈에서의 諸般 受容態勢를 회고해 볼 때, 프랑스의 韓國戰爭參戰이 가져온 결과는 徐徐히 強度를 加할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兩國間에는 血盟의 友誼를 다지는 노력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韓國戰爭參戰勇士會'가 主動이 되어 韓國戰參戰記念館 建立을 推進하고 있는데, 우리 國防部는 이 記念館에 展示할 記念物을 協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프랑스의 韓國戰爭 參戰은 앞으로도 兩國關係發展에 있어 모든 部門에서의 協力을 기약하는 象徴이 될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의 參戰意義를 새로운 視覺으로 認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새로운 認識을 위해 韓·佛間의 傳統的인 關係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解答이 곧 프랑스軍의 韓國戰爭 參戰의 歷史的인 背景이 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6.25 動亂時 이 땅에서 피흘린 프랑스 志願兵으로 構成된 UN 軍 프랑스 大隊의 戰爭手記를 쓴 Bergot가 韓國人에게 주는 글을 引用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30여 년 전, 여러분들의 祖國이 共產軍에 의해 侵略 당했을 때, 全世界의 많은 나라로부터 勇氣 있는 많은 사람들이 危險 속에 빠진 여러분들의 自由를 求하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들과 함께 여러분의 나라의 獨立과 平和를 다시 찾아 주기 위해 여러분의 땅에 왔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날, ‘붉은 帝國主義’가 여러분들의 國境地域에서 벌이는 가공할 만한 軍事的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自由롭고 운택하고 행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희생과 外國에서 파병된 軍人들의 피의 代價라는 事實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건너왔던 프랑스 兵士들은 비록 이 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韓國人이 되었던 것입니다…….”⁵⁰⁾

50) Erwan Bergot, *op.cit.*, p. 4.

韓國戰爭의 初期戰役分析

金 成 熙

(大領, 陸士 秘書室長)

目 次

序 言

- ① 情報的 側面
- ② 作戰的 側面
- ③ 軍需的 側面
- ④ 指揮的 側面
- ⑤ 動員的 側面

結 語

序 言

1950년 6월 25일 새벽 04:00시 北傀軍은 38線 全戰線에 걸쳐서 일제히 砲門을 열고 평화로운 이 강산에 전면 南侵을 개시하였다. 이 날 이래 6월 28일까지 北傀軍은 破竹之勢로 수도 서울을 점령하여 그들의 南侵計劃대로 진행되는 듯하였다.

이렇듯 北傀가 侵略開始 3日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初期戰役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敎訓은 무엇일까? 많은 專門家들에 의하여 韓國戰爭이 여러 모로 分析되었으나, 오늘날 우리가 평화 통일 國是 아래 北進에 대한 考慮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옛날과 같이 北傀에 의한 奇襲南侵일 것으로 믿는다. 또한 오늘날의 전쟁은, 그것도 강대국이 끼지 않은 전쟁은, 강

대국의 압력에 의하여 戰爭當事國인 약소국들은 빠른 시일 안에 休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되므로(이런 뜻에서 이란·이라크 전쟁은 예외적인 기간에 걸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北傀에 의한 奇襲的인 打撃을 받은 후 우리가 회복하기도 전에 現象承認의 압력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고, 또 現在의 休戰線이나 과거의 38線이나 간에 수도 서울까지의 거리는 비슷하므로, 한국전쟁 당시에 어떻게 하여 수도 서울을 早期에 被奪당하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보는 것도 유익한 일로 믿어 이에 대해 分析을 해 보려 한다.

역사는 과거와 꼭 같이 되풀이되지는 않는다. 過去에 우리가 실시했던 方式을 그대로 쫓아서는 안 되며, 단지 우리가 과거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은, 다시는 과거에서의 같은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겠으며, 과거의 成功에서 새로운 方法을 摸索할 줄 아는 炯眼을 갖추는 것이라 하겠다.

이 같은 觀點에서 한국전쟁의 初期戰役을 정보, 작전, 군수, 지휘, 동원적 측면에서 아군의 失策을 중심으로 하여 分析해 보겠다. 물론 우리의 선배들은 그야말로 병력, 화력 등의 절대적인 열세하에서도 맨주먹으로 敵과 맞붙어 이 강산을 지키기에 노력하였으며, 더군다나 당시 軍民의 士氣는 오늘의 우리가 본받아야만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 목숨 초개와 같이 던짐으로써 동료와 부대를 건진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같은 자랑거리는 짓혀 놓고 주로 我軍의 過誤에 대하여 分析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觀點에서 叙述하겠다.

Ⅰ 情報的 側面

北傀의 攻撃은 我軍에게는 奇襲이었다. 이 같은 奇襲은 北傀의 기도 비익과 기습 수단이 교묘하여 我軍이 그 徵候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我軍의 잘못에 의하여 적에게 그 허를 찔린 격이었다. 6·25 발발 전 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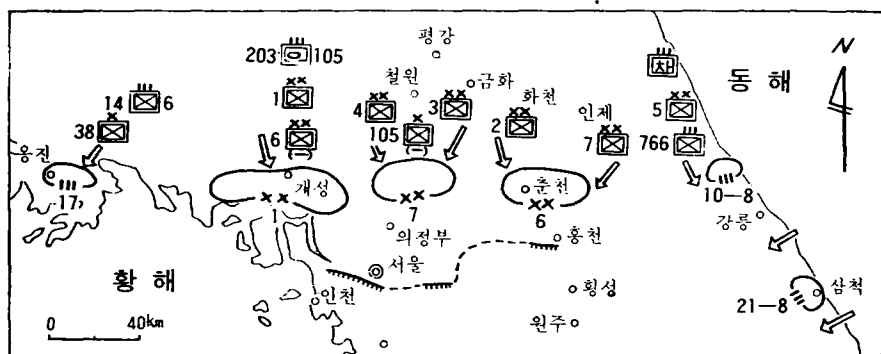
軍은 너무나 많은 남침 위협 첩보에 따라 수많은 비상 경계를 취해 왔으며, 이 같이 여러 번에 걸쳐 실시된 非常警戒은 우리 將兵들에게 非常警戒에 대한 중요성을 輕減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이한 자세로 “또 먼젓번처럼 흐지부지 비상이 끝나겠지?” 하는 심리를 안겨 주게 되어 비상 경계에 임하는 심적 자세가 무디어지게 되었다. 5월 1일 勞動節 경계 비상, 5월 10일 選舉 非常, 5월 30일 選舉妨害沮止 非常, 6월 10일 萬歲 非常 등 잇달아 非常이 召集되었고, 이 여러 번의 “Wolf Cry”(옛날 이솝 우화에 나오는 말. 양치기 소년의 “이리가 나왔어요!”라는 거짓에 동네의 여러 사람이 몰려나오니, 이에 재미를 내어 여러 번에 걸쳐 거짓 호소를 하다가, 실제 이리가 왔을 때는 하도 많이 속은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결국은 이리에게 참변을 당하게 된다.)는 韓國軍의 경계 태세를 이완시키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다.

정보 분야에서 근무했던 장병들은 6월 25일에 北僞가 南侵해 오리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며 이를 上部에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이 같은 건의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情報로서의 價値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는 情報로서 分析建議한 내용의 설득력이 부족하였던지 아니면 지휘관이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아무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첩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휘관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北僞가 戰前 1個月 전부터 38線 부근의 민간인을 모두 소개시키고, 훈련을 빙자하여 후방에서 훈련시킨 부대를 D日 直前에야 38선으로 이동시킨 것은 그들의 기도 비닉 措置가 훌륭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作戰的 側面

숫자상으로 나타난 北僞軍과 我軍 師團數는 10:8로서 거의 대등하였으나 6·25 당시 38線에 투입된 戰鬪力을 고찰해 본다면, 北僞의 약 8개 보병사단 및 1개 전차여단에 비하여 我軍은 4개 보병사단이 투입되었고, 그나 다도 실제 전방 투입 연대는 7개 연대(17연대, 1사단 12, 13연대, 7사단 1연대, 6사단 7·2연대, 8사단 10연대)에 불과하였다.



6·25 直前의 彼我 配置

투입 병력의 大小보다 더 큰 문제는 戰鬪正面이 너무 넓었다는 것이다. 全戰線에 병력을 신장 배치하여 적의 돌파를 저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我軍은 기동성 있는 기동 방어의 효과를 십분 발휘하였어야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동 장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선결 문제였던바 我軍은 輸送力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有事時 동원에 의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후방 3개 사단(大田의 2사단, 大邱의 3사단, 光州의 5사단)의 전투력을 前方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생각조차 않고 있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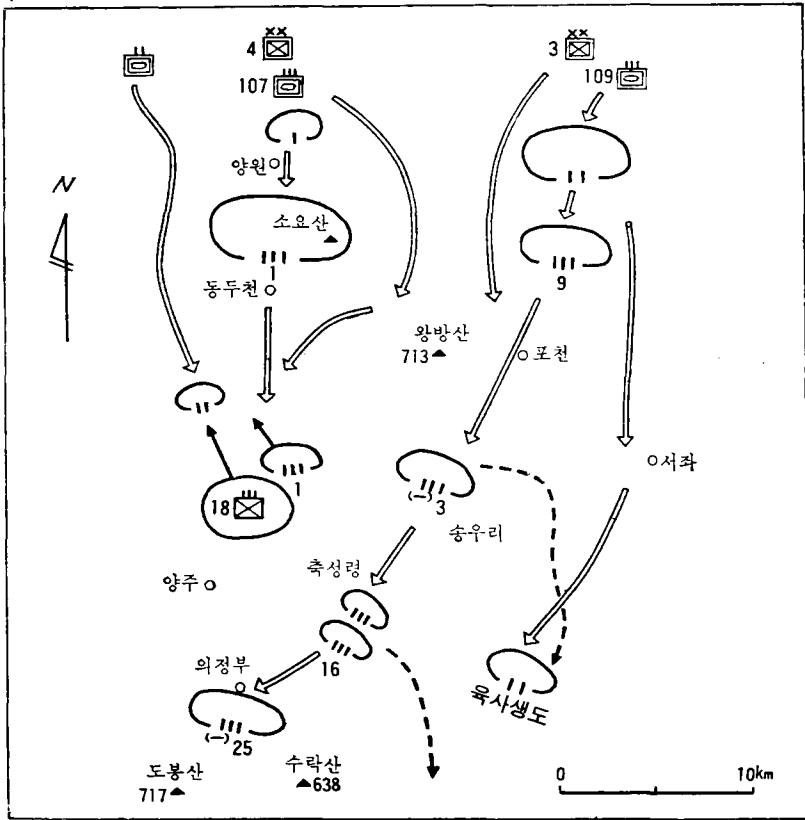
작전상의 또 하나의 過誤는 병력의 逐次의인 投入이다. 의정부 지구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總參謀長은 이 지역을 觀察하고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병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였다. 즉 大田에서 上京한 제 2사단 兵力, 陸士生徒隊兵力, 警察兵力 등을 아무런 협조 체제도 마련해 주지 않은 체 그나마의 重裝備도 없이 마구 투입시켜 我軍의 敗戰을 자초하게 하였다.

다음은 防禦線 選定問題로서 我軍은 의정부 방어선이 무너진 후, 그 후방 약 10 km線에 위치한 倉洞에 방어선(창동~퇴계원)을 구축하였다. 이線은 의정부에 너무 근접하였고, 병력의 여유가 많았다면 하나의 가능한 선이었다. 또 서울 死守를 위하여 전 시민과 병력이 미아리~망우리 방어선 구축을 위하여 시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가능한 遲延線으로 고려될 수 있겠으나 가뜩이나 부족한 병력으로서는 오히려 손실만

더 입게 될 선이었다. 차라리 미아리~장위동~망우리 線으로 防禦線을 縮小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③ 軍需的 側面

我軍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8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訓練 정도는 대부분이 중대 훈련을 겨우 마쳤을 뿐이며, 훈련이 안 된 부대는 烏合之卒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倉洞 및 미아리 防禦線

이 8개 사단도 전투력의 要素中 중요한 화력 요소에서 我軍은 北傀軍에 비교가 되질 못하였다. 우선 編制·火力面에서 我軍의 각 사단이 오늘날 처럼 4개 砲兵大隊를 갖추게 된 것은 1951년도 후반기에 가서야 가능하였고, 그전에는 대부분의 사단이 1개 砲兵大隊 또는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火力으로 싸워야 하였다.

編制火力 이외의 支援火力面에서 我軍은 거의 전무하였음에 비추어, 北傀는 122 mm 곡사포 및 自走砲를 갖추고 있어서 我軍은 火力面에서 3:1 이상의 열세를 면할 수 없었다.

또한 가장 위협적이었고 我軍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北傀의 탱크에 대하여도 거의 방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다. 즉 我軍은 敵의 戰車에 대응할 만한 戰車를 지원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戰車를 파괴할 수 있던 기타 수단도 갖추지 못하였다. 즉 3.5" 로켓포나 對戰車砲彈, 대전차 지뢰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이 같은 경우는 韓國戰線에 최초로 투입된 美 제24사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들이 투입된 지 보름이 지난 후 벌어진 大田 전투에서 사단장 딘(Dean) 장군이 직접 병사들에게 3.5" 로켓포로 示範을 보이며 大田 시가지 내에서 敵戰車를 3대나 격파하다가 실종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 전투력 즉 후방에 共匪討伐을 위하여 배치되어 있던 3개 사단을 일 단 유사시 輸送할 輸送計劃도 세워져 있지 않아 응급 임시 조치로 열차를 이용하여 서울로 상경하였던 것이며, 급한 나머지 重裝備는 두고 小火器와 병력만 移動하는 결과를 빚었으며 서울역으로부터의 陸路輸送은 더욱 어려웠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情報·作戰 分野뿐만 아니라

彼我 戰力 比較

區 分		國 軍	北 傀 軍
陸 軍	兵 力	輕裝備師團：8 (21個 聯隊)	重裝備師團：7
		獨立聯隊：1 其他 支援部隊 等	豫 備 師 團：3 (總 30個 聯隊)
			戰 車 旅 團：1
			其他 機械化 步兵聯

陸 軍		計 94,974名	隊, 38警備隊, 特殊 部隊 等 計 182,680名
	軌道車	裝甲車: 27	T-34戰車: 242 裝甲車: 54 SU - 76: 176 自走砲
	曲射砲	105 mm M ₃ : 91 (3門은 使用不可)	122 mm: 172 76 mm: 380
	迫擊砲	81 mm: 384 60 mm: 576	120 mm: 226 82 mm: 1,142 61 mm: 360
	對戰車火器	57 mm 對戰車砲: 140 2.36" 로켓砲: 1,900 (敵戰車破壞不可能)	45 mm: 550
	高射火器	全 無	85 mm : 12 37 mm : 24 14.5 mm高射機關 銃 : 多數
海 軍	兵力	7,715名	4,700名
	艦艇	警備隊: 28	警備隊: 30 海岸砲: 多數
空 軍	兵力	1,897名	2,000名
	航空機	L-4: 8 L-5: 4 T-6: 10	YAK-9 IL-10 IL-2 等 計 210臺
海兵隊		1,166名	9,000名
兵力總計		105,752名	198,380名

軍需支援面에서도 準備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指揮的 側面

당시의 蔡秉德 總參謀長의 자격 문제는 별개라 하더라도 그의 작전 지휘에도 문제가 많았다. 序列·年齡·補職 등을 둘러싼 軍高位指揮官들의 마찰은 北傀의 전면 남침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 하에서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다. 6월 26일의 逆襲命令에 불복한 제 2사단장의 행동은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아무리 原則的으로 제 2사단장의 주장이 옳았다 하더라도(즉 병력의 逐次的인 투입은 병력 運用上 禁忌라고 그는 주장하면서 좀 더 시간을 얻어 나중에 逆襲해야 한다면서 總參謀長이 내린 命令에 不服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상황이 위급한 경우에는 병력의 逐次的인 투입도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아무리 부당한 命令이라도 일단 上級者의 명령은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어겼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總參謀長의 권위가 확립되지 못하였던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적절한 中間梯隊의 필요성으로서, 당시의 通信 수단으로 보아 中間梯隊 없이, 38線 全域에서 싸우는 4개 사단 및 후방 4개 사단(서울의 수도사단, 그리고 2, 3, 5사단)을 육군 본부에서 직접 통제하려 한 것은 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軍團 정도의 中間梯隊가 있었다면 作戰을 보다 원활히 指揮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 지형지물의 統制에 실패하였다. 특히 主要接近路上의 교량 파괴에 실패하였다. 임진강과 소양강에 놓인 다리는 모두 파괴되지 않은 채 포기해 버려 北傀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며, 我軍의 꼬리를 물고 계속 접촉을 유지하여 我軍의 作戰에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漢江橋의 폭파에 육군 본부는 注意를 기울였으며, 폭파 대책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 한 번의 命令에 그대로 폭파되어 돌이킬 수 없는 後悔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⑤ 動員的 側面

我軍은 現存 전투력(또는 顯在 전투력) 면에서 北傀軍에 열세를 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動員戰力面에서도 준비가 미비하였다. 동원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그 전에 조직되었던 한국 청년단도 李承晩 大統領이 이를 李範奭 장군의 정치 기반이라 하여 해산해 버렸고, 그에 대치할 組織은 생겨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我軍은 예비 전력을 조직화하는데 임시 방편의 가두 모병적인 형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국방에 관한 준비가 이와 같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피난민 철수 계획이나 統制對策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정부도 뿔뿔이 피난 길에 올랐다. 大統領의 피난을 관계 공무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떠난 것은 물론이고, 國會는 서울 死守를 결의해 놓고도 政府가 떠나 버리자 제각기 살 길을 찾아 南으로 피난을 떠난 의원이 많았다.

“만약 北傀軍이 南侵해 온다면 아군은 이를 反擊하여 粉碎하고, 아침은 海州에서, 점심은 平壤에서, 저녁밥은 新義州에서 먹겠다.”라고 당시의 國防長官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豪言壯談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허튼 소리임이 드러났으며, 오직 국민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對民弘報를 위한 것이었다.

對民弘報面에서 이같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毅然한 態度는 국민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軍人들의 사기도 크게 振作시켰으니, 前線의 軍人은 일시적으로 我軍이 불리하여도 내가 목숨을 던져 이를 막는다면, 곧 이어서 我軍 주력의 反擊이 시작되어 敵을 능히 擊退하고 자기의 獻身을 보람 있게 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初戰의 我軍 병사들은 어디서나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같은 기대는 스러지고 我軍은 敗戰의 슬픔을 맛보게 되었다.

정부를 믿은 서울 시민들은 砲 소리가 점차 가까이 들려 오는 데도 政府의 虛偽報道를 그대로 믿어, 피난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敵治 90일을 맞게 되었으며, 이후 政府에 대한 불신의 싹이 트게 되었다. 즉 誇張된 宣傳은 결과적으로 我軍에게 유리한 점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對民弘報는 외교면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왔다. 美國은 역으로 韓國軍이 北進할까 봐서 韓國軍을 裝備하는 데 극히

소극적이었으며, 我軍 首腦部가 북괴의 戰車에 대응하기 위하여 美軍 전차의 軍援을 요청하였을 때, 美 군사 고문단원 중에서도 機甲專門家は 韓國과 같은 지형에서는 戰車가 필요 없다는 건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李大統領의 직접적인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6·25가 끝난 후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점을 크게 敎訓으로 삼아 次後는 이 같은 공세적 발언을 삼가하였고 北進이라는 말은 어떤 곳, 어느 때나 삼가하게 되었다.

結 語

北傀軍의 成功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兵力, 火力의 절대적인 우세에다 奇襲이 성공한 때문이었으며, 또한 北傀軍의 전투력이 막강한(상대적으로) 데다가 我軍의 전투력이 劣勢했기 때문이다. 특히 北傀軍 공격 사단의 병력 중 대부분은 이미 전투 경험을 가졌던 참전 용사들이었다. 즉 北傀 제 5, 6, 7사단 將兵의 전부와 제 1, 4사단의 일부는 중국 대륙에서 國共內戰에 參戰했던 중공군 출신이며, 戰車兵들은 대부분이 소련 戰車部隊에 근무했던 병사들이었다. 이들 古兵과 我軍 新兵과의 전투는 我軍의 패배로 결말지어졌다.

앞서 指摘한 情報, 作戰, 軍需, 動員, 指揮 등의 결함은 我軍의 전반적인 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幹部의 資質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다. 사실 建軍한 지 日淺한 韓國軍으로서는 戰爭이라는 엄청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능력 부족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先輩들은 그들의 부족한 점을, 젊음과 조국에 대한 정열로써 이를 상쇄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점은 오늘의 우리 後輩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 하겠다.

參 考 文 獻

- 육군 사관 학교, 한국 전쟁사
- 육군 사관 학교, 한국 전쟁사 부도

육군 본부, 정책과 지도

육군 본부,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Maj. Gen. William F. Dean, *General Dean's Story; As Told to William L. Worden*, N.Y.: The Viking Press, 1954.

T. R. Fehrenbach, *This Kind of War: A Story in Unpreparedness*, N.Y.: Pocket Books, 1964.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OCMH, 1962.

Harold Joyce Noble, *Embassy at War*,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75.

Daniel S. Stelmach, *The Influence of Russian Armored Tactics on the North Korean Invasion of 1950*, Saint Louis Univ., 1973(미발간 박사 학위 논문).

《附 錄》

韓國戰爭 3年史 主要日誌

(1950. 6. 1~1953. 7. 27)

企劃資料室

[1950年]

- 6.1 ○트루만 美大統領 談話, 앞으로 5年間은 戰爭可能性이 없다.
- 6.2 ○制憲國會 閉會式 舉行
- 6.5 ○에치슨 美國務長官, 外交委에서 韓國援助의 必要性 力說
- 6.7 ○北傀 對南放送要旨
- ① 8月 5日~8日 사이에 南北統一 總選舉를 실시할 것
- ② 8·15解放 5週年 記念日에 統一最高立法機關을 서울에 召集할 것
- ③ 위에 대한 準備協議次 南北全民主主義政黨과 社會團體代表의 連席會議을 海州나 開城에서 開催할 것
- 6.8 ○로버츠 美顧問團長 離任會見, 韓國軍은 優秀하며 北韓의 南侵時 防衛可能
- 申性模 國防長官 記者會見, 38線은 平穩하다.
- 北傀, 平壤放送으로 南韓政黨·社會團體代表에게 「平和統一呼訴文」을 6月 10日 瀾峴驛에서 반도록 宣傳
- 6.9 ○陸軍, 師團長 및 本部 各局長 등 最高幹部陣 大幅 人事異動
- 6.10 ○北傀代表, 瀾峴에서 UN 韓委代表와 接觸後 38線을 越南하다가 被逮
- 北傀放送, 朝民黨黨首 曹晚植 父子와 南勞黨間諜 李舟河·金三龍과의 交換을 提議
- 6.12 ○陸軍情報局, 逮捕한 3人의 北傀代表에 轉向을 推進
- 6.15 ○KMAG 團長 로버츠准將 離任
- 轉向한 傀僞代表(李寅奎, 金泰弘, 金在昌), 3회에 걸쳐 對北韓向放送
- 6.16 ○李承晚 大統領, 「曹晚植氏를 一週日 以內에 무조건 보내준다면 李·金 兩人을 釋放하겠다」고 言明
- 6.18 ○덜레스 美國務省顧問 來韓, 38線視察
- 6.19 ○第2代 國會開院式 舉行, 議長에 申翼熙, 副議長에 張澤相·曹奉岩 被選

- 덜레스, 國會서 演說하고 援助 約束
- 平壤放送, 統一政府 樹立을 위한 南北代表의 交流를 21日에 하자고 發表
- 맥아더 司令部 情報報告書, 北傀의 攻擊徵候判斷(民間人의 疎開 및 軍需物資移動, 機甲部隊의 前線 集結)
- 6.22 ○ 政府放送으로 오는 24日 礪峴에서 曹晚植과 金·李 交換을 通告
- 덜레스, 맥아더와 會談後 韓國將來는 樂觀的이라 言明
- 6.23 ○ 北傀, 機動訓練을 假裝하고 全師團의 前線移動配置 完了(10日부터 極秘裡에)
- 李大統領, 南北人物의 交換提議는 傀儡의 장난에 不過하다고 言明
- 6.24 ○ 陸本, 6月 11日부터 시작된 北傀의 偽裝平和攻勢에 대처한 特別警戒令을 解除하고 各 部隊長 裁量으로 外出外泊 및 農繁期休暇 實施下達(各 部隊는 50% 이상이 週末外出)
- 22:00, 陸軍會館 完工記念宴會 開催
- 南北의 戰力比較(開戰直前 現在)

區分	兵力	戰車(裝甲車)	各種砲	航空機	師團
北	198,380	296	3,000	211	10
南	105,752	27(裝甲車)	1,300	24(連絡用)	8

- 我軍의 後方 3個師團, 共匪討伐作戰中
- 6.25 ○ 04:00, 全戰線에 걸쳐 砲火集中하고 北傀軍 奇襲南侵 敢行
- 05:30, 陸本, 全軍에 非常令 下達
- 08:00, 後方 3個師團 移動命令, 在京部隊 前線投入
- 10:00, 李大統領에 全面南侵 報告
- 11:00, 非常國務會議召集, 燈火管制 實施 의는 별다른 結論 없음
- 14:00, 陸本參謀會議, 開戰後 첫 召集
- 慶津半島의 第17聯隊 撤收
- 議政府 북쪽에 大接戰, 我軍勢不利
- 北傀機, 서울 上空에서 機銃掃射
- 傀儡, 非常內閣會議 召集
- UN安保理, 美國決議案 通過
- 맥아더 司令部, 韓國에 武器急速空輸
- 6.26 ○ 맥아더 元帥, 韓國에 F-51 戰鬥機 10臺 引渡 發表
- 北傀軍, 議政府를 侵入
- 北傀軍, 汶山 占領
- 北傀軍, 慶津半島 占領, 第17聯隊의 海上撤收는 成功

- 北傀軍, 江陵으로 進擊
- 政府, 水原으로 移轉키로 決定
- 國會, 首都死守를 決議
- 6.27 ○03:00, 李大統領 大邱까지 南下했다가 大田으로 北上, 이에 따라 閣僚 등 要人들 大田으로 集結
- 申性模 國防長官, 軍首腦들에게 「各自의 良識에 따라 行動하라」고 後退를 指示
- 맥아더 司令部 前方指揮所(ADCOM) 韓國에 設置로 陸本 始興 移動取消
- 北傀軍, 奉日川 占領
- 北傀軍, 議政府를 通過하여 서울로 進擊中
- 北傀軍, 春川占領
- 北傀軍, 江陵占領
- 北韓에 總動員令
- 23:00, 李大統領의 大田電話錄音放送으로 國民들을 眩惑시킴
- 韓國作戰의 最高司令官에 맥아더 元帥 任命
- 在韓美國人의 撤收 시작
- 6.28 ○02:30, 漢江橋 爆破
- 北傀軍, 서울 市內에 侵入
- 美國 空軍機들 本格的 支援
- 陸軍本部, 水原에 移動
- 6.29 ○金弘壹 將軍 指揮下에 國軍再編成 漢江防禦任務遂行
- 맥아더 元帥, 韓國戰線 視察
- B-29 爆擊機, 平壤을 처음 爆擊
- 美海軍, 北韓東西海岸에서 艦砲射擊
- 6.30 ○美步兵部隊 空輸
- 李大統領, 맥아더 元帥와 會談
- 陸軍總參謀長 更迭——蔡秉德 少將 後任에 丁一權 准將
- 北傀軍, 漢江渡下 戰車部隊 南進
- 洪川 失陷
- 美空軍, 서울 爆擊 및 北傀機 20臺를 擊墜
- 仁川刑務所 脫獄事件 發生
- 트루만 大統領, 맥아더 元帥에게 地上部隊의 사용을 許可
- 美上院本會議, 3億 2,400萬\$의 韓國援助額 割當
- 7.1 ○03:00, ADCOM 撤收로 政府要人 大田에서 非常脫出事態(湖南地方으로 이동했다가 危機不在로 大田에 다시 移動), 大統領은 木浦經由 釜山 到着(7월 2일 11:00)

- 韓國上陸 美陸軍, 前線으로 急速移動
- 美第24步兵師團長 윌리엄 딘 少將, 韓國派遣 全美軍司令官에 任命
- 北傀軍, 金浦 占領
- 美海軍, 三陟附近의 敵據點에 砲擊
- 7.2 ○ 北傀軍, 龍仁 占領
- 北傀軍, 楊平·原州 占據
- 蔚珍上陸의 敵擊破, 盈德郡 白岩山에서 戰鬪
- 7.3 ○ B-29, 金浦飛行場 爆擊
- 美空軍, 平壤 夜間爆擊
- 陸本, 平澤으로 移轉
- 7.4 ○ 北傀軍, 水原 占領
- 北傀軍, 仁川 占領
- 陸本, 大田으로 移轉
- 美第7 艦隊, 東海岸에서 敵艦艇 7隻을 擊沈(3~4日)
- 金日成, 傀備軍 總司令官에 被任發表
- 7.5 ○ 11:00, 美砲兵과 敵戰車隊와 交戰
- 딘 少將, 前線陣地에 出動
- 中共軍 北上 頻繁(로이더通信, 홍콩)
- 7.6 ○ 美軍, 平澤 남쪽 37°線 附近에 新防禦線 設置
- 北傀軍, 平澤 占領
- B-29 編隊, 平壤·新安州 등의 北韓 重要軍事施設 및 輸送路 爆擊, 北傀空軍力 潰滅
- 北傀軍, 寧海 占領하고 東海岸 南進中
- 7.7 ○ 워키 中將, 最初로 戰線 視察
- 北傀軍, 忠州 占領
- B-29 編隊, 元山·南浦 등 軍事施設 爆擊
- B-26 編隊, 平澤附近의 敵密集部隊 및 敵戰車를 爆擊
- 맥아더 元帥, UN軍總司令官에 任命
- 7.8 ○ 美軍, 天安 撤退
- 北傀軍, 未明에 天安 侵入
- 北傀 2個師團, 原州 集結, 大田地區 包圍網 形成企圖
- 美海軍, 海岸砲擊 繼續
- 美空軍, 元山海軍基地·興南肥料工場 猛爆, 敵戰車 17臺 破壞
- 北傀, 占領地域에 土地改革令 公布
- 陰城地區에서 敵 1個大隊 殲滅
- 英, 美의 對中共石油輸出 禁止要請의 拒否

- 7.9 ○北傀軍 主力, 大田을 指向, 天安 占領後 100臺의 戰車와 2~3個 師團으로 錦江方向 前進中
- 美軍機, 100機 以上 敵 前後方 爆擊
- 天安地區에서 彼我 激戰中
- 盈德~38線間의 東海岸, 橋梁爆破
- 北傀軍, 鎭川 占領
- 全國에 戒嚴令 宣布
- 7.10 ○鎭川 再奪還
- 北傀軍, 陰城 占領
- 北傀軍, 堤川과 丹陽을 侵入
- 美海軍, 盈德의 敵軍事目標 砲擊
- 美極東空軍司令部 2週間 戰果 發表——15日間 1,570回 出擊, 敵戰車 65臺, 車輛 190臺 破壞
- 開戰以來 美軍의 被害, 戰死 27, 負傷 94, 行方不明 245名
- 對戰車新武器 바츨카砲 韓國에 發送
- 7.11 ○UN 軍, 烏致院·公州地域 確保
- 忠州·丹陽 奪還
- 北傀軍 戰車, 殆半 擊破
- 人民軍의 前線兵力 約 16個師團, 戰車 170臺
- 7.12 ○烏致院 前方 錦江橋 破壞
- 北傀軍, 洪城 占領
- 大田地區의 UN 軍 後退
- 濠空軍參戰——戰車 8臺 등 擊破
- 北傀軍, 平海 占領
- B-29, 2機 喪失
- 7.13 ○駐韓 UN 軍 地上軍司令官에 워커 中將 任命
- 北傀軍, 清州 占領
- 少數의 敵, 錦江을 渡河
- 7.14 ○워커 司令官 前線視察
- 北傀 第6師團 致命打, 北傀 第1·5·15師團 中東部戰線에서 南下
- 公州附近의 美第34聯隊 正面戰鬪
- 國軍, 延豐을 奪還
- 陸軍本部, 大邱에 移動
- 英海軍, 西海岸에서 敵沿岸 砲擊
- 7.15 ○北傀軍, 錦江防禦線 攻擊
- 美軍服裝의 敵便衣隊, 美軍陣地에 浸透

- 內務長官, 白性郁氏 後任에 趙炳玉氏 發令
- 7.16** ○美軍, 錦江防禦線 總崩壞
 - 盈德附近의 東海岸上 敵, 地上·海上 包圍作戰을 企圖했으나 失敗
 - 北傀軍, 聞慶 占領
 - 濠空軍, 錦江流域의 敵密集部隊 攻擊
 - B-29 編隊 50機 以上, 서울操車場 爆擊
 - 美國防省, 北傀軍 戰車 149臺 破壞 發表
 - 政府, 大田에서 大邱로 移轉
- 7.17** ○美第19·34兩聯隊, 新陣地에 後退 配置
 - 美軍, 大田拋棄 後退
 - 北傀軍, 英陽에 侵入
 - 北傀機, 清州方面 上空에 出現
 - 北傀軍, 錦江下流 渡河, 江景·論山에 侵入
- 7.18** ○北傀軍의 進擊速度 急速遁化
 - 北傀 第4·5師團, 增援部隊 派遣
 - 美第1 機甲師團, 浦項 上陸
 - 英國, 對中共石油供給 中止
- 7.19** ○北傀軍, 裡里 占領
 - UN 空軍, 敵의 各種 飛行機 78臺 擊破
 - 北傀軍, 醴泉에 侵入
 - 北傀軍, 盈德 占領
 - 東飛嶺에서 北傀軍 1個聯隊 殲滅
- 7.20** ○UN 軍, 大田에서 로켓砲로 北傀戰車 7臺 擊破
 - 北傀軍, 全州 占領
 - UN 空軍·海軍機, 北韓軍事施設 猛爆
 - B-29 編隊, 龍山操車場 爆碎
- 7.21** ○大田 近郊에서 大激戰中
 - 北傀軍, 戰·砲 掩護下 盈德에 突入
 - 國軍, 醴泉 奪還
 - 北傀軍 占領下の 盈德에 艦砲射擊
 - 美第24師團, 大田防禦線에서 後退
 - 던 少將 失踪
 - 現戰線——金堤~裡里~論山~大田~清州~醴泉~榮州
- 7.22** ○盈德 砲擊後 奪還
 - 海兵隊, 南原으로 進擊
 - 全南北에 戒嚴令 宣布

- 7.23** ○美第1機甲師團, 大田附近에서 北傀戰車部隊 6,000名 粉碎
 ○美第25步兵師團, 咸昌~尙州地區에서 北傀戰車部隊를 粉碎
 ○北傀軍, 光州 占領
 ○北傀, 群山~光州地區에서 南下
 ○北傀機甲部隊, 順天에 接近
 ○UN 空軍, 平壤·大田·忠州·堤川 등지에 大大的 空襲
- 7.24** ○北傀, 大田·群山·光州地區에 兵力增強
 ○永同地區 最大의 激戰
 ○美海軍, 西海岸 一帶를 哨戒
 ○北傀軍, 木浦에 侵入
 ○B-29 編隊, 公州操車場을 爆擊
 ○今日까지의 美軍의 被害(美國防省發表)——戰死 40, 戰傷死 7, 重傷 22, 輕傷 75, 行方不明 2,882名
- 7.25** ○西海岸, 敵 第4師團 南下 繼續
 ○戰線 出動中の 北傀軍師團은 第3·2·15·1·8·7師團 및 第5師團의 一部
 ○盈德의 國軍, 敵射殺 50, 捕虜 75의 戰果
 ○UN 軍總司令部, 東京에 正式設置
 ○英國, 韓國에 地上軍派遣 決定
- 7.26** ○北傀軍, 南原에 侵入
 ○美第1機甲師團, 永同·榮州에서 撤退
 ○北傀軍, 麗水 占領
 ○美海兵隊, 釜山防禦 擔當
 ○26日 現在까지의 美軍損害——戰死 55, 重傷 251, 戰傷死 8, 輕傷 78, 行方不明 3,368名
- 7.27** ○北傀軍兵力 總 15만名 中 前線出動兵力 8萬 8千名 推定
 ○竹嶺터널에서 我軍爆擊으로 敵軍 4千名 全滅
 ○北傀軍 3個師團, 永同 東쪽에서 大攻勢
 ○北傀軍, 河東 占領
 ○蔡秉德 少將, 河東에서 戰死
 ○西海岸에서 海軍 514號艇, 北傀機에 擊沈
- 7.28** ○UN 軍, 永同地區에서 猛反擊 開始
 ○北傀軍 先鋒, 居昌에 侵入
 ○黃澗地區 美第1機甲師團, 北傀攻擊沮止 成功
 ○海軍, 西海岸에서 北傀軍輸送船團 12隻 擊沈
- 7.29** ○北傀軍, 居昌 東쪽 16km 까지 進出
 ○北傀軍, 盈德 再占領

- 美第1機甲師團, 黃洞 撤收
- 北傀軍, 全戰線(永同 東쪽~咸昌地區의 線)에 約 9個師團의 兵力으로 開戰以來 最大의 攻擊展開
- 美空軍의 殆半, 居昌·安義의 北傀軍을 空襲
- 7.30** ○國軍, 醴泉 敵에 攻擊
- 國軍, 盈德地區 重要據點占領
- 北傀軍兵力, 正規·非正規 都合 24萬名으로 推算
- 美第1機甲師團, 金泉 西南 13km 의 知禮를 奪還
- 北傀軍, 居昌 占領
- 北傀軍, 晉州 肉迫
- 美軍 增援隊 上陸
- 美第24師團長에 처치 少將 新任
- 7.31** ○北傀軍, 主攻勢를 西部와 東部로 移動
- 北傀軍, 晉州 占領
- 北傀軍, 陝川 占領
- UN 空軍, 大大的 攻擊
- 美增援部隊, 第2步兵師團·第1海兵師團·第5戰鬪團 極秘裡에 上陸
- 北傀軍, 醴泉에 再侵入
- 8.1** ○國軍, 安東 撤收
- 第7教育隊를 陸軍中央訓練所로 改稱
- 北傀軍 第7師團, 南下中(新編)
- 美第25師團, 倭館에서 馬山으로 移動
- UN 軍, 洛東江防禦線으로 撤收命令
- 國務院內에 戰時對策委員會 設置
委員: 申性模 國防, 趙炳玉 內務, 崔淳周 財務, 金勳 商工, 金錫寬 交通
- 8.2** ○美軍, 金泉에서 撤收
- 第1師團, 咸昌地區에서 洛東江防禦線으로 撤收
- 美海兵 第5旅團, 釜山 上陸, 馬山으로 進出
- 8.3** ○洛東江流域 橋梁破壞(洛東江鐵橋, 倭館橋, 草溪~日寧間 橋梁, 龍浦橋)
- 北傀軍 第13師團, 尙州에 集結
- 第12聯隊, 敵第13師團의 先發隊(聯隊兵力)가 洛東里에 渡河中인 것을 殲滅
- 8.4** ○宜寧地區 南江橋 破壞
- 第8師團長 後任에 崔德新 大領
- 美海兵隊 航空隊 첫 出擊

- 8.5 ○北傀軍, 洛東江防禦線에 대한 攻擊開始
 - 北傀軍 第15師團, 龜尾에 進出
 - 北傀軍 第3師團, 星州·若木 일대에 進出
- 8.6 ○北傀軍 第4師團, 靈山正面에서 烏項나루터로 侵入
 - 美海兵 第5聯隊, 美第25師團에 配屬
- 8.7 ○第17聯隊, 大邱로 移動
 - 美海兵隊 第5聯隊, 北傀人民軍과 衝突 交戰
- 8.8 ○第19聯隊, 北傀軍 1個聯隊를 擊退하고 石西幕 36高地 占領
 - 第1師團 第11聯隊, 海平地區에서 北傀軍戰車 4臺 破壞
- 8.9 ○首都師團, 杞溪·安康地區에서 激戰(8.9~9.5)
 - 第3師團, 江口에서 長沙洞으로 移動
 - 遊擊 第1大隊(鄭震少領), 日見洞에서 北傀軍 2個中隊 殲滅
 - 北傀軍 第4師團, 靈山에 侵入
 - 北傀軍 第12師團, 杞溪에 侵入
 - 第1師團 第12聯隊(特攻隊), 石積國民學校에서 敵戰車 4臺 破壞, 1臺 鹵獲
- 8.10 ○浦項地區戰鬪司令部 創設——第17·26·25聯隊, 第1遊擊大隊, 海軍陸戰隊, 美 第18步兵大隊 C中隊로 構成
 - 第8師團, 反擊戰 開始
 - 美陸軍省, 韓國軍 5個師團 編成認可
 - 美第1海兵師團 第7海兵聯隊 創設
- 8.11 ○第17聯隊, 安康地區로 移動
 - 美海兵 第5聯隊, 固城 奪還後 前進
 - 美第35聯隊, 晉州고개 占領
 - 北傀계림라(100명), 大邱 南쪽 915高地 中繼所 襲擊
 - 第1師團 第13聯隊, 369·201高地 占領
- 8.12 ○第1聯隊 및 第26聯隊, 安康地區로 移動
 - 第6師團, 應峰山과 山雲洞線으로 移動
 - 第1師團, Y線으로 撤收
- 8.13 ○第8師團 CP, 義城에서 伐田으로 移動
 - 第6師團 CP, 華水洞으로 移動
 - 美海兵 第5聯隊, 泗川 5km 前方까지 肉迫
 - 北傀軍, 水岩山·遊鶴山 占領
 - 第12聯隊 第2大隊 水岩山 攻擊占領
 - 第12聯隊 第1大隊 673高地 攻擊
- 8.14 ○第18聯隊와 機甲聯隊(白南權 中領 就任), 立岩 占領

- 第1師團 第15聯隊, 328高地 被奪後 再占領
- 8.15** ○第18聯隊와 機甲聯隊, 杞溪 奪還戰 參加
 - 第8師團 CP, 伐田에서 茲川으로 移動
 - 北傀軍 第8師團主力, 義城에서 九山洞으로 南下
 - 海軍哨戒艦, 仁川附近에서 敵帆船 9隻을 擊沈
 - UN 海兵隊, 清津附近 上陸, 터널爆破
 - 空軍 F-51 飛行隊, 本格的 出擊開始
 - 第1師團 第15聯隊, 328高地 被奪
 - 第1師團 第11聯隊 正面의 北傀軍 第13師團, 水亭까지 進出
- 8.16** ○B-29 重爆擊機 98臺, 倭館地區 大空襲
 - KATUSA 兵 313名, 訓練次 日本으로 移送
 - 第15聯隊, 328高地 再奪還
 - 第12聯隊 第1大隊, 873高地 占領
 - 北傀軍 1個聯隊, 架山바위에 集結
- 8.17** ○第8師團 第10聯隊, 大邱에서 普賢山地區로 移動
 - 首都師團과 浦項地區戰團司令部, 安康에서 北傀軍 第766部隊 殲滅
 - 第3師團, 獨石洞에서 九龍浦로 海上 撤收
 - UN 第77機動部隊, 清津과 元山地區 爆擊
 - 空軍通信隊主力, 鎮海에서 大邱空軍本부로 移動
 - 第15聯隊 第2大隊, 355高地 占領
- 8.18** ○美第27聯隊, 大邱에서 多富洞地區로 移動
 - 閔部隊(大領 閔構植), 浦項 奪還
 - 首都師團, 杞溪 奪還
 - 第1師團, 遊鶴山 附近 戰鬪(8.18~8.26)
 - 海兵隊, 統營에 侵入한 北傀軍 主力을 殲滅
 - 海軍, 德積島에 上陸
 - 北傀軍 第15師團, 永川 正面으로 移動
 - 第12聯隊 第3大隊, 517 高地 占領
 - 第11聯隊, 美第27聯隊와 多富洞地區에서 反擊開始(2km 前進)
 - 政府, 大邱에서 釜山으로 遷都
 - 大邱市民 疏開
- 8.19** ○第3師團 浦項奪還, 首都師團 杞溪奪還
 - 閔部隊, 大邱로 移動
 - 美第23聯隊主力, 密陽에서 多富洞 方面으로 移動
 - 美第2師團 第38聯隊, 密陽에 到着
 - 美海兵 第5聯隊, 昌原에 配置

- 第12聯隊 第2大隊, 水岩山 被奪
- 8.20 ○ 美海兵隊, 仁川附近 八尾島에 上陸
 - 海軍, 永興島에 上陸
 - 第7師團을 再編成(獨立遊擊 1·2大隊, 閲部隊)
 - 美8軍, 第24師團과 第2師團을 交替, 第24師團을 軍豫備로 합
 - 北傀軍 前線司令官 金策, 第5次 作戰命令 下達
 - 第15聯隊, 328高地에서 北傀軍 完全擊退
 - 第10聯隊 第2大隊, 第11聯隊 第2大隊와 協동으로 741高地 占領
 - 第11聯隊 第3大隊, 673高地를 9次의 攻擊後 完全占領
 - 北傀軍 第15師團, 遊鶴山 正面에서 永川方面으로 移動
- 8.21 ○ 機甲聯隊를 第6師團에 配屬
 - UN軍, 第10軍團을 創設
- 8.22 ○ 第8師團 第16聯隊, 立岩北方 方興里에서 北傀軍을 擊破
 - 第12聯隊 第1·3大隊 遊鶴山 完全占領
 - 北傀軍 第13師團 砲兵聯隊長 鄭鳳旭中佐, 歸順
- 8.23 ○ 東京에서 맥아더 元帥·콜린스 陸軍參謀總長·서먼 海軍參謀總長 등 仁川上陸作戰會議
 - 北傀軍 第8師團CP, 義城에서 靑路洞으로 移動
 - 北傀軍 1個聯隊, 架山南方 4km 地點 570高地에 進出
- 8.24 ○ 第8師團長에 李成佳大領 任命
 - 北傀軍 第9師團, 陝川에 集結, 洛東江 渡河 準備
 - 第10聯隊主力, 570高地 占領
 - 第11聯隊와 美第27聯隊, 新酒幕線에 進出
- 8.25 ○ 美第27聯隊, 新酒幕에서 馬山으로 後退
 - 北傀軍 第13師團, 新酒幕一帶에서 큰 損失을 입고 攻擊能力 喪失, 殘餘兵力 1900名, 砲 10門, 戰車 10臺
 - 美極東軍司令部內에 兵站司令部 新設(司令官에 위이블 少將)
- 8.26 ○ 美第10軍團長에 아몬드 少將 任命
 - 美第34聯隊, 解體後 第19聯隊와 第21聯隊에 編入
 - 北傀軍 第1師團CP, 九知洞으로 移動
- 8.27 ○ 第5聯隊長 李暎奎中領 戰死, 後任에 崔昌彥大領 任命
 - 美특수特殊任務部隊, 浦項·慶州地區에서 戰鬪(8.27~9.7)
 - 北傀軍, 義興 占領
- 8.28 ○ 第10軍團 編成(美第1海兵師團, 美第7師團, 國軍 第17聯隊, 韓國海兵隊)
 - 空軍飛行團長에 張德昌大領 任命

- 第12聯隊 第2大隊, 水岩山 完全奪還
- 8.29** ○ 第6師團, 烏林山一帶에서 撤收
 - 英第27步兵旅團, 釜山에 도착
 - 美海兵 第1師團, 美本土에서 日本 神戶에 도착
- 8.30** ○ 第1師團, 多富洞地區에서 新寧地區로 移動(美第1機甲師團에 引繼後)
 - 第6師團, 烏林山附近에서 戰鬪(8.30~9.4)
- 8.31** ○ 第1師團, 架山地區에서 激戰中(8.31~9.4)
 - 北傀軍 第1軍團 23:30, 洛東江 西部에서 攻擊開始
 - 韓國派遣 오스트레일리아軍 第1大隊, 日本에 도착
- 9.1** ○ 第1軍團長에 金白一准將 任命
 - 第3師團長에 李鍾贊大領 任命
 - 首都師團長에 宋堯讚大領 任命
- 9.2** ○ 美第1海兵旅團, 密陽에서 靈山으로 移動
 - 北傀軍 第2軍團 18:00, 北部에서 攻擊開始
 - 林彪揮下 中共軍 5個軍團, 滿洲로 移動(15萬名)
- 9.3** ○ 靈山 正面에서 美海兵隊 反擊開始
 - 敵게릴라 약 115名, 馬山 北쪽 天地山 通信中繼所 襲擊
- 9.4** ○ 第6師團 第19聯隊特攻隊, 新寧北方에서 北傀戰車 8臺 破壞
 - 第7師團 第8聯隊, 新寧에서 永川으로 移動(第8師團豫備隊)
 - 北傀軍 第2軍團長, 北傀 第15師團長에게 永川占領을 督戰
- 9.5** ○ 第2軍團長 劉載興准將, 永川線防禦에 관한 作戰會議
 - 第1師團, 八公山에서 激戰中(9.5~9.15)
 - 第6師團, 華山附近에서 激戰(9.5~9.15)
 - 第3師團, 兄山江 以南으로 移動
 - 第1聯隊, 虎鳴里에서 戰鬪中(9.6~9.9)
 - 北傀軍 第15師團, 永川 北方에서 攻擊開始
 - 陸軍本部, 釜山으로 移動開始
- 9.6** ○ 美第8軍司令部, 釜山 水產大學에서 始務(前方司令部는 大邱에 位置)
 - 第17聯隊, 昆季峰에서 激戰(9.6~9.13)
 - 北傀軍 第15師團, 永川 占領
 - 第8師團 第9工兵大隊·第3聯隊 第1大隊, 永川 奪還
 - 美第24師團, 靈山에서 慶州로 移動
 - 海軍, 群山앞 島嶼에 上陸
 - 美第5海兵聯隊, 靈山正面에서 仁川上陸作戰을 위해 釜山으로 移動
- 9.7** ○ 第7師團 第5聯隊, 乾川 方面에서 北傀軍 第15師團 第56聯隊의 南進을 沮止

- 第19聯隊, 北傀軍 後方部隊를 奇襲殲滅
- 처치特殊任務部隊, 慶州 地區에서 戰鬥中
- 9.8** ○ 北傀軍 總參謀長 姜健, 戰死
- 9.9** ○ 美合同參謀本部, 仁川上陸作戰을 承認
 - 第7師團 第5聯隊, 林浦洞 南쪽에서 北傀軍 第15師團 砲兵聯隊를 殲滅
- 9.10** ○ 第7師團·第8師團, 永川地區에서 北傀軍 第15師團에 反擊開始
 - 第10聯隊, 阿火에서 永川 北쪽으로 이동
- 9.11** ○ 美第9軍團長에 콜더 少將 任命
 - 오스트레일리아 步兵 500名, 韓國으로 出發
- 9.12** ○ 美第1軍團과 第9軍團 編成着手
 - 케나다軍, 韓國派遣 1,500名 決定
- 9.14** ○ 第15聯隊, 架山 占領
 - 第11聯隊, 755高地 占領
 - 美第8騎兵聯隊 第2大隊, 570高地 占領
 - 盈德 長沙洞 奇襲上陸
- 9.15** ○ 第17聯隊, 上陸作戰次 釜山으로 移動
 - 仁川上陸作戰 大大的으로 實施 成功
 - 上陸軍, 仁川市街에서 殘敵 殲滅
 - UN軍, 群山 上陸
 - 美第25師團, 固城으로 進擊
- 9.16** ○ 韓國軍 및 UN軍, 洛東江戰線에서 09:00를 기하여 總反擊 開始
 - 맥아더 元帥, 敵에게 降伏勸告傳單 撤布
 - 第1師團, 架山一角 突入
 - B-29 80臺, 元山港 爆擊
 - 서울~仁川 地區에서 北傀軍 滿載트럭 280대 중 230대 擊退
 - 永川警察署, 石鏡面倉土里에서 北傀軍 第15師團 敗殘兵 擊退
- 9.17** ○ 美第25師團, 固城奪還
 - 美戰鬥機, 美第2師團地域에서 北傀軍 1,500名 殺傷
- 9.18** ○ 第1師團, 多富洞~軍威 敵退路 遮斷
 - 首都師團, 安康 占領
 - 第3師團, 兄山江 渡河
 - 美第2師團, 洛東江渡河, 陝川 進擊
- 9.19** ○ 美第5聯隊戰鬥團, 倭館 奪還
 - 필리핀 第10大隊, 釜山 上陸
 - 釜山飛行場 使用開始

- 9.20 ○ 第3師團, 浦項 奪還
 - UN空軍, 延 700臺 出擊으로 最大의 記錄 樹立
- 9.21 ○ 美第1騎兵師團, 第1師團과 協調下에 多富洞 奪還
 - 第6師團, 義興 奪還
 - 首都師團, 杞溪 奪還
 - 漢江橋 爆破責任者 崔昌植大領 銃殺刑 執行
- 9.22 ○ 美第1騎兵師團의 777特殊任務部隊, 多富洞 서쪽에서 追擊 시작
 - 第3師團, 興海 奪還
 - 第8師團, 九山洞(青松) 奪還
 - 第6師團, 軍威 奪還
 - 陸軍本部, 大邱로 移動
 - 今日의 戰果——北傀軍 射殺 5,420, 捕虜 452名
 - 開戰以來 美軍損失——戰死 2,441, 戰傷 11,050, 失蹤 3,959名
- 9.23 ○ 美第1騎兵師團, 尙州 突入
 - 第7師團, 烏山 突入
 - 首都師團, 道坪洞(青松) 奪還
 - 金日成, 北傀軍에 後退命令
- 9.24 ○ 美第1騎兵師團, 報恩 突入
 - 第8師團, 義城 奪還
 - 美第2師團, 陝川 突入
 - 美第25師團, 晉州 奪還
- 9.25 ○ 首都師團, 青松 奪還
 - 第6師團, 咸昌 突入
 - 第1師團, 善山 進出
 - 美第24師團, 金泉 奪還
 - UN空軍, 延 728臺 出擊으로 24시간 攻擊의 最高記錄
 - 中共當局, '美軍의 38線 突破를 默過하지 않겠다.'고 言明
- 9.26 ○ 美第1騎兵師團 第777特殊任務部隊, 烏山北方에서 京仁地方으로부터 南進한 美第7師團과 連結
 - 第8師團, 安東 突入
 - 美第24師團, 永同 奪還
 - 第1師團, 尙州 進出
 - 美第2師團, 居昌·安義 奪還
 - 美政府, 38線 進擊을 決定
- 9.27 ○ 第3師團, 蔚珍 奪還
 - 首都師團, 春陽 奪還

- 第 6 師團, 聞慶 奪還
- 美第24師團, 沃川 奪還
- 第 1 師團, 報恩 進出
- 海軍, 三千浦 奪還
- 9. 28 ○ 서울 收復
 - 美第24師團, 大田 突入
 - 第 8 師團, 榮州 奪還
 - 第 6 師團, 忠州 奪還
 - 美第 2 師團, 全州 奪還
 - 美第25師團, 南原 奪還
 - 오스트레일리아軍 1個大隊, 釜山 到着後 大邱로 移動
 - 이 날의 捕虜 1,645名으로 開戰 以來 捕虜 11,327名
- 9. 29 ○ 第 3 師團, 三陟 奪還
 - 首都師團, 38線 南쪽 2km 의 西林리에 集結
 - 第 8 師團, 丹陽 奪還
 - 第 1 師團, 報恩·米院一帶에서 小白山脈을 利用하여 北上逃走하려는 北傀軍 殘黨의 擊滅戰 着手
 - 美第25師團, 江景 奪還
 - 全北警察局, 美第25師團과 協同으로 全州 收復
 - 海軍, 麗水 奪還
 - 필리핀軍, 傘山으로 移動하여 敵遊擊隊 擊滅
 - 政府, 서울로 遷都
 - 英外相, 38線 突破主張
- 9. 30 ○ 第 3 師團, 江陵 奪還하고 38線 南쪽 2km 인 仁邱리에 進出
 - 워커中將, 38線 突破命令
 - 第 6 師團, 原州 奪還
 - 美第 2 師團, 江景~錦江 進出
 - 美第25師團, 群山 奪還
- 10. 1 ○ 第 3 師團·首都師團, 38線 突破
 - 第 6 師團, 洪川 奪還
 - 第 8 師團, 楊平 進出
 - 今日의 北傀軍 死傷者 1,154名, 捕虜 6,765名
 - 大田에서 良民虐殺屍體 1,100具 發見
- 10. 2 ○ 首都師團·第 3 師團, 襄陽 奪還
 - 第 6 師團, 春川 奪還
 - 第 1 師團, 清州 進出

- 海軍, 木浦 奪還
- 10.3 ○第3師團, 杆城 奪還
 - 第2軍團, 서울 入城
 - 今日の捕虜 4,116名
- 10.4 ○第3師團, 高城 奪還
- 10.5 ○第3師團, 長箭 奪還
 - 首都師團, 元通 奪還
- 10.6 ○第3師團, 通川 奪還
 - 首都師團, 楊口 奪還
 - 第6師團, 九萬里發電所 占領
 - 第8師團, 東豆川 進出
 - 지난 3日間 傀儡軍 捕虜 14,028名, 開戰以來 4萬名
- 10.7 ○第3師團, 庫底 奪還
 - 首都師團, 末輝里 奪還
 - 美第1機甲師團, 開城 進出
 - 第1師團, 安城 進出
 - 美第25師團, 永同附近에 接戰, 北傀軍 약 1,400名을 射殺 및 捕虜
- 10.8 ○第3師團, 元山南方 12km 桑陰里 進出
 - 首都師團, 淮陽 奪還
 - 第6師團, 華川 進出
- 10.9 ○第3師團, 元山 突入
 - 首都師團, 新高山 奪還
 - 第6師團, 金化 奪還
 - 第8師團, 澮川 奪還
 - 美第1機甲師團, 38線 突破
 - 開戰以來의 捕虜 55,000명
- 10.10 ○首都師團・第3師團, 元山 奪還
 - 第8師團, 鐵原 奪還
 - 第1師團, 高浪浦 進出
 - 美第1機甲師團, 白川 奪還
 - 38線以北 全域에 戒嚴令
- 10.11 ○首都師團, 德源 奪還
 - 元山飛行場 使用始作
 - 第8師團, 平康 進出
- 10.12 ○第1師團, 朔寧 奪還
 - 美第1機甲師團, 汗浦里 突入

- 10.13 ○首都師團, 元山西方 37km 馬轉里 奪還
 ○第3師團, 文川 奪還
 ○第1師團, 市邊里 奪還
 ○第8師團, 伊川 奪還
 ○北傀軍 1個師團, 三陟·墨湖·蔚珍 來襲
- 10.14 ○美第1機甲師團, 金川 奪還
 ○第1師團, 新溪 奪還
 ○第3師團, 永興 奪還
 ○首都師團, 高原 奪還
 ○第6師團, 德源 進出
 ○UN司發表, 開戰以來 敵損失 248,000名, 殘存兵力 68,000名
- 10.15 ○트루만 大統領과 맥아더 元帥, 웨이크 島에서 會談
 ○美第1機甲師團, 南川店 奪還
 ○第6師團, 馬轉里 進出
 ○第8師團, 谷山 進出
 ○首都師團, 永興 進出
 ○美第5空軍司, 서울로 移動
- 10.16 ○美第1機甲師團, 新幕~瑞興 進出
 ○第1師團, 遂安 進出
 ○美第24師團, 延安 奪還
 ○首都師團, 定平 奪還
 ○青丹警察部隊, 海州 進入
 ○地方共匪 500名, 居昌을 三面包圍攻撃
- 10.17 ○第1師團, 栗里~祥原 奪還
 ○美第1機甲師團, 黃州 奪還
 ○英第27旅團, 沙里院 奪還
 ○第6師團, 東陽里 奪還
 ○首都師團, 咸興·與南 奪還
 ○美第24師團, 海州·載寧 奪還
 ○더키旅團, 釜山 到着
- 10.18 ○第1師團은 大同里, 美第1機甲師團은 黑橋里, 第7師團은 栗里에서 平壤으로 各各 進擊
 ○第8師團, 江東 進出
 ○第6師團, 陽德 奪還
 ○咸興附近에서 良民虐殺屍體 6,000具 發見
 ○美第24師團, 南浦로 進擊

- 10.19 ○ 第1師團, 11:00 平壤 突入 先着, 第7師團은 東北方으로, 美第1機甲師團은 平壤南端으로 突入
 - 首都師團, 洪原 奪還
 - 第6師團, 成川 奪還
 - 터키旅團, 大邱로 移動하여 第9軍團에 配屬
 - 18~19, 兩日間 捕虜 5,000餘名
- 10.20 ○ 美第187空輸聯隊, 肅川~順川間에 投下하여 北傀軍 退路遮斷
- 10.21 ○ 首都師團, 40°線 突破
 - 第8師團, 成川 進出
 - 敵 1000餘名, 華川發電所 占領
 - 赤都, 平壤에서 新義州로 옮겼다고 放送
- 10.22 ○ 首都師團, 北青·新興 奪還
 - 第8師團, 假倉 進出
 - 第1師團, 順川 軍隅里 進出
- 10.23 ○ 第6師團, 熙川 奪還
 - 第8師團, 北倉 奪還
 - 第1師團·英第27旅團, 安州附近에서 清川江 渡河
 - 海兵 第1大隊, 墨湖 上陸
 - 鎮海에 海軍 第1掃海艇隊 設置
- 10.24 ○ 第8師團, 德川 進出
 - 第1師團, 寧邊·龍山洞 奪還
- 10.25 ○ 第1師團, 雲山北方에서 中共軍 1名을 最初로 捕虜
 - 第6師團, 古場 進入
 - 第8師團, 球場 進入
- 10.26 ○ 第6師團 第7聯隊, 17:50 楚山에 進出
 - 第6師團, 約 5,000名의 中共軍과 衝突
 - 第2軍團, 正面에 中共軍 40,000名 出現 接戰中
 - 美第10軍團 第1海兵師團, 元山 上陸
- 10.27 ○ 首都師團 第1聯隊, 黃水院里 占領
 - 首都師團 第1機甲聯隊, 摩天嶺 占領
 - 海兵 第3·5大隊, 元山 上陸
 - UN軍, 博川에서 大寧江 渡河
 - 美第24師團, 秦川으로 進擊
 - 捕虜의 陳述에 의하면 2萬名 以上の 中共軍이 入北했다고 함
- 10.28 ○ 首都師團 第18聯隊, 赴戰湖 東쪽 水上里에 進出
 - UN軍, 秦川 占領

- 伊川에 北傀軍 敗殘兵 2,000名 侵入, 國軍 野戰病院의 患者 全員 虐殺
- 10.29 ○首都師團, 第1機甲聯隊 城津 占領, 第1聯隊, 豊山·洪君 占領.
 - 美第7師團 第17聯隊, 利原에 上陸
 - 第6師團, 楚山 撤收
 - 溫井里에서 中共軍 2個大隊 奇襲
 - 英·澳聯合軍 定州를 通過
 - 第1軍團 正面에 中共軍 第124師團 出現, 生捕 16名
 - 第6師團, 熙川 拋棄
- 10.30 ○第8師團, 鴨綠江水力發電所를 指向해 西進中
 - 溫井·雲山地區에서 第6師團 後退
 - 第7師團, 泰川 東方의 倉洞 奪還
 - 美第7師團 第17聯隊, 豊山 도착
 - 美第24師團, 龜城에 到着, 同師團所屬 英 아간部隊, 定州 攻擊
- 10.31 ○美第24師團, 郭山 進出, 同戰車部隊, 宣川 通過
 - 中共軍, 寧遠 侵入
- 11.1 ○海兵 第5大隊, 車底 上陸
 - 美第7師團, 豊山에서 北進
 - 美第24師團 第21聯隊, 新義州南方 40km 地點 到達
 - 中共軍, 球場에 到着
 - 現在, 北傀軍 損失 336,000名
 - 北傀 崔庸健, 第2前線司令官으로 轉屬
- 11.2 ○第3師團 第26聯隊, 水洞에서 美第1海兵師團과 交代
 - 首都師團, 吉州로 前進
 - 美第7師團 第17聯隊, 豊山에 到着
 - 第1師團 및 美第1機甲師團, 雲山에서 中共軍 大部隊의 奇襲을 받고 大損失을 當함
 - UN軍, 雲山에서 14km 後退, 定州~泰川~球場의 防衛線設置
 - 美機, 蘇製 MIG機 21臺 擊破
- 11.3 ○國軍, 寧邊~球場~寧遠에 이르는 線에서 部隊再整備, 滿浦鐵 부근에서 南下하는 中共軍 防禦
 - 海兵隊 第1·3大隊, 松島津里 上陸
 - 美第7師團 第31聯隊, 利原 上陸
 - 필리핀大隊, 美第187空輸聯隊에 配屬되어 黃州에서 敗殘兵 擊滅
 - 英軍, 龜城에서 撤收
 - 中共軍, 院里 完破하고 軍隅里까지 進擊

- 中共軍, 德川에 侵入
- 濠州軍(英第29旅團 一次先遣隊), 釜山 上陸
- 11.4 ○海兵 第5大隊, 長箭 경유, 高城 到着
- 美第7師團 第32聯隊, 利原 上陸
- 中共軍 2個師團이 美軍과 交戰中이라고 8軍司에서 發表
- 美第24師團 隷下 1個大隊, 寧遠 南方 8km 地點인 淸川江 北岸을 따라 進擊中
- 長津湖 附近에서 美第1海兵師團, 中共軍 第124師團과 激戰, 敵 800餘名 殺傷, 捕虜 5名, 戰車 1臺 破壞
- 包圍당한 美第1機甲師團 第8機甲聯隊, 半數만 脫出 成功
- 11.5 ○首都師團, 明川·吉州 奪還
- 中共軍, 博川에 侵入
- 11.6 ○雲山南方에서 彼我激戰中
- 11.7 ○中共軍侵入 2~6萬으로 觀測
- 泰國軍大隊, 釜山 도착, 大邱로 이동
- 11.8 ○首都師團 第18聯隊, 漁郎川 戰鬪 開始
- 海兵 第1大隊, 杆城에서 高城으로 移動
- 美第24師團·英第27旅團, 博川으로 北進
- 美空軍 600臺 出擊, 新義州 猛爆, 鴨綠江 鐵橋 爆破
- 初有의 Z機 空中戰, 新義州 上空에서 敵機 1臺 擊墜
- 11.9 ○第3師團 第26聯隊, 美第1海兵師團에 配屬, 洪原에서 地境里 부근으로 移動
- 我軍, 軍隅里 奪還, 德川 확보, 院里 奪還
- 平壤北方의 地下武器製造廠 발견
- 11.10 ○我軍, 价川에서 7km 前進
- 美第7海兵聯隊, 古土里 도착
- 中共軍, 德川 方面에서 撤收
- 中共軍, UN軍을 兩斷할 企圖로 中部戰線에 4萬名 集結
- 터키軍, 大邱 出發
- 필리핀軍, 南川店·新溪 進出
- 11.11 ○國軍 및 UN軍, 鐵原·金化를 완전 奪還
- UN軍, 淸川江線一帶에서 進擊開始
- 我軍, 博川 東方에서 後退
- 中共軍, 第20軍 第60師團 滿浦嶺에서 鴨綠江 渡河
- 11.12 ○空軍參謀副長 朴範集 准將, 威興 上空에서 戰死
- 필리핀軍, 銀店里一帶의 殘敵 擊滅中

- 11.13 ○首都師團, 明川 北方에서 敵과 對峙中
 ○美第7海兵聯隊, 長津湖 6km 肉迫
 ○美第1機甲師團, 寧邊南方 3個高地 奪還
 ○我軍, 博川南方 障地 確保中
 ○티커軍, 美第25師團에 配屬, 汶山·長湍地區로 이동
- 11.14 ○美第7師團 第17聯隊, 豊山 北쪽에서 敵 2個聯隊와 對峙
 ○美第1軍團, 中共軍 9萬名과 對峙中
 ○美第7海兵聯隊, 長津湖一帶의 發電所 부근으로 突進
- 11.15 ○英第27旅團, 博川 進入
 ○北傀軍, 北韓腰部에 布陣한 UN軍前線 中央部를 6km 侵透
 ○美第5空軍, 會寧에 300t의 燒夷彈攻擊
- 11.16 ○酷寒을 무릅쓰고 UN軍 總攻擊
 ○國軍, 淸川江 北方 11km 地點의 博川 西北部 6km 地帶에 進出
 ○美第7師團 第31聯隊, 赴戰湖 占領
 ○美第1海兵師團, 下鳴隅里 占領
 ○美第1機甲師團, 寧邊北方 2km 까지 前進
 ○美第1軍團, 50km에 걸친 西北戰線에서 敵의 抵抗없이 進出
 ○英第27旅團, 博川 通過 5km 前進
 ○美第24師團, 博川 東北方에서 2km 進出
 ○北傀軍, 韓國軍 防禦障地 後方에 上陸作戰을 감행하다 殆半이 殲滅당함
 ○英軍의 損失 發表, 戰死 51명, 負傷 158명, 行方不明 5명
- 11.17 ○首都師團, 明川 東北方의 龍川洞 附近과 合水 南方에 配置中
 ○國軍, 院里~德川~寧遠線 확보
 ○高敵警察署, 扶安을 收復
 ○北傀 게릴라 800명의 奇襲으로 加平 失陷
 ○UN軍, 博川 再奪還
- 11.18 ○首都師團, 淸津 接近
 ○美第7師團, 甲山 南쪽 3km 進出
 ○西部戰線의 敵, 全面的 後退
 ○崔致煥 警務官 指揮下의 警察部隊, 加平을 奪還
- 11.19 ○首都師團, 漁郎川 戰鬪 끝내고, 鳳岡 占領
 ○院里~德川間의 國軍, 3km 前進
 ○美第7師團 第17聯隊, 甲山 奪還
 ○淸川江 渡河한 UN軍, 寧邊 再奪還後 博川을 通過한 部隊과 合流
 ○中共軍 主力, 西部戰線에서 總退却

- 11.20 ○ 第3師團, 吉州에 集結
 - 首都師團, 會文을 占領
 - 海兵 第3大隊, 土基里·自開洞의 敵을 擊破
 - 서울市警管下 附逆者 被檢數, 이 날 現在 14,000여 명
- 11.21 ○ 首都師團, 清津南方 24km 前進
 - 美第7師團 第17聯隊, 惠山鎮에 突入
 - 南阿空軍, 第5空軍 所屬으로 參戰
 - 開戰後 空軍損失 120대(戰鬪機 99대, 爆擊機 11대, 기타 10대)
- 11.22 ○ 首都師團, 朱乙 占領
 - 第2軍團, 寧遠 奪還·德川北方 進出
 - 美第7師團 第32聯隊, 三水 占領
 - 美第1海兵師團, 長津湖 包圍態勢強化
- 11.23 ○ 首都師團, 鏡城 占領
 - 海兵 第3大隊, 九龍里 攻擊
 - 國會, 張勉大使 總理認准 可決
- 11.24 ○ 首都師團, 清津南方 11km 肉迫
 - 맥아더 元帥, 總攻擊 指揮次 來韓——終戰臨迫 言明
 - 西部戰線 總反擊에 參加한 部隊
 - 韓國 第2軍團—第6師團·第7師團·第8師團
 - 美第1軍團—國軍 第1師團·美第24師團·美第1機甲師團·英第27旅團
 - 美第9軍團—美第25師團·美第2師團
 - 攻擊線, 德川~寧遠~定州~球場
 - 美第1海兵師團, 柳潭里 占領
- 11.25 ○ 第3師團, 合水~白岩 占領
 - 首都師團, 清津 占領
 - 國軍, 泰川地區에서 北傀의 攻擊으로 2km 撤收
 - 國軍, 中共軍의 反擊으로 寧遠附近까지 撤收
 - 美第3師團, 中共軍 第126師團과 接戰
 - 美第24·2師團, 龜城을 西北 兩面으로 挾攻
 - 美第25師團, 雲山 東南 3km 地點 奪還
 - 필리핀軍, 肅川 進出, 第8軍 主補給路 確保 및 後方警備
- 11.26 ○ 第3師團 第23聯隊, 羅南으로 轉進
 - 首都師團, 清津에서 13km 前進
 - 美第1海兵師團, 長津湖 서쪽 柳潭里에서 中共軍 1個大隊 擊退
 - 美第2師團, 中共軍의 反擊으로 清川江 北岸으로 撤退

- 中共軍, 德川 占領
- 國軍, 加平 再奪還
- 타키軍, 軍隅里 進出
- 11.27 ○UN 軍, 東北戰線에서 中共軍의 反擊으로 後退
 - 泰川~德川の 72km 線에서 中共軍의 反擊이 치열함
 - 敵, 寧遠 占領, 第2軍團의 該防禦線 崩壞
- 11.28 ○首都師團, 清津北方에서 계속 北進中
 - 美第1海兵師團, 長津湖 附近에서 激戰
 - 國軍, 中西部戰線에서 中共軍의 反擊으로 後退
 - 中共軍, 德川에서 南下
 - 國軍, 1個月間의 敵捕虜 29,000명
 - 프랑스軍, 釜山 上陸
 - 美第7師團, 鴨綠江 新砮波嶺 占領
 - 泰國軍, 平壤 도착
 - UN 空軍, 韓滿國境地帶 補給路와 鴨綠江 鐵橋 爆破
- 11.29 ○美第1海兵師團, 長津湖 附近에서 中共軍 약 1,000명 射殺, 長津湖 西北側의 夜襲 擊退
 - 中共軍 약 5個師團, 長津湖 東南方으로 投入
 - 美第1機甲師團, 順川에서 北進
 - 타키軍, 德川 西南方에서 中共軍과 白兵戰後 이를 擊退
 - UN 軍, 清川江 南岸으로 이동
 - 首都師團 第1機甲聯隊, 清津北方 大津 占領
 - 海兵 第3大隊, 土基里에서 敵과 交戰 50名 射殺
- 11.30 ○首都師團 第18聯隊, 富寧 남쪽 兄弟洞 占領
 - 首都師團 第1機甲聯隊, 富居 占領
 - 第3師團 第22聯隊, 惠山嶺 進出
 - 第3師團 第23聯隊, 羅南에 集結
 - UN 軍, 新義州飛行場 撤收
 - 美第10軍團 第7師團·第1海兵師團, 惠山嶺~新砮波嶺~長津湖에서 敵과 對峙中
 - 美第10軍團長, 東北地區에서 撤收令
 - 德川~北倉里~安州에 걸쳐 中共軍 攻擊
 - 清川江 北方, 寧邊과 球場에서 彼我 對峙中
- 12.1 ○長津湖의 美 第7師團·美海兵 第1師團, 撤收開始
 - 美 第8軍, 清川江 橋頭堡로부터 撤收
 - 清川江附近에서 中共軍과 UN 軍 激戰

- 春川 再奪還
- 美空軍, 1日 200回 出擊
- 12.2 ○長津湖에 中共軍壓力 加重, 美 海兵隊와 熾烈한 戰鬪
 - 美第7師團 第31·32 聯隊, 下碭隅里에 撤收
 - 鐵原東南方 北傀軍 殲滅
 - 平壤 東北方 32km 地點의 成川에 6個師團 이상의 兵力으로 壓力加重
 - 東北戰線의 UN 軍, 陽德一帶 위협
 - 中共軍 第41師團 朱乙 到達, 敵 1個聯隊 淸津에 侵入
 - 第7師團, 勝湖里~遂安~市邊里~澗川에 이르는 遲延作戰 展開
 - 美海兵 第5·7 聯隊, 柳潭里 撤收 開始
- 12.3 ○中共軍 약 6個師團, 美海兵隊와 步兵部隊를 包圍 激戰中(東部)
 - 東部戰線의 國軍, 吉州~明川~合水線에서 部隊整備中
 - 長津湖附近에서 中共軍, 美軍捕虜 數次에 걸쳐 釋放
 - 西部戰線의 UN 軍, 順川·肅川에서 撤收
 - 中共軍, 平壤을 向해 南下 攻勢
 - 三登附近에서 中共軍과 UN 軍 激戰
 - 新義州·定州 大量爆擊
 - 軍隅里 西方의 中共軍, 大車輛部隊로 攻撃
 - 空軍兵力 및 裝備, 北韓 各基地에서 大田基地로 撤收集結
- 12.4 ○백아더 元帥, 中共이 北韓에 百萬大軍 集結中이라고 言明
 - 中共軍, 咸興·元山에 壓力加重, 黑水里的 美第3師團 所屬部隊 撤收
 - 西部戰線, 永柔~成川~江東~三登을 連結
 - 中共軍, 安州·新安州에 集結
 - 海兵 第1·3 大隊, 馬轉里에서 元山으로 移動, 元山港 防禦
 - 第1師團, 平壤에서 沙里院으로 撤收
 - 美海兵 第5·7 聯隊, 長津湖에서 血路打開 下碭隅里로 撤收
 - 平壤市の 모든 機關 撤收
- 12.5 ○美國防省, 西北戰線의 UN 軍 撤收는 成功的이라고 發表
 - 中共軍, 平壤 侵入
 - 中共軍, 大同江 渡河 南進開始
 - 中共軍, 谷山地區에 도달
 - 美第5空軍, 24時間 出擊
 - 國立博物館 重要物品 釜山으로 疎開
- 12.6 ○長津湖附近의 UN 軍, 包圍網을 突破하여 後方戰線과의 連結에 成功
 - 西北戰線의 美第8軍, 新防禦線에 撤收
 - 谷山 再奪還

- 第5空軍, 平壤 侵攻하는 敵 3,000여 명 爆死시킴
- 콜린스 美陸軍參謀總長 來韓, 原爆使用 意思없다고 言明
- 海兵 第5大隊, 黑水里에서 咸興 移動防禦
- 美第1海兵師團, 下碭隅里 撤收
- 12.7 ○ UN 空軍, 長津湖 左端을 猛爆, 東北戰線의 UN 軍 救出作戰 進陟
- UN 軍, 惠山嶺 地區에서 撤收
- 首都師團, 淸津에서 交戰과 아울러 撤收中
- 中共 第66軍 全部隊, 下碭隅里 附近에 集結
- 幅 94km 의 新防禦線, 南浦~谷山에 걸쳐 構築
- 敵의 主力, 谷山에 集結中
- 美海兵 第1師團, 古土里에서 撤收
- 第3師團·首都師團 一部, 城津港 出航
- 空軍本部 및 各部隊, 大邱基地로 移動
- 38線 以南 全地域에 非常戒嚴 宣布
- 12.8 ○ 長津湖附近 美軍, 血路打開에 熾烈한 激戰 계속
- 美第3師團, 包圍된 美軍部隊 救出作戰 展開, 其他 東北戰線의 美軍은 東海岸에 集結中
- 美第25師團 先遣隊, 平壤南方 8km 에 陣地 確保
- 兼二浦~中和~遂安~谷山~新溪의 線 堅持
- 伊川方面의 中共軍, 再編成中
- UN 空軍, 長津湖에서 脫出하는 UN 部隊 掩護大空襲
- 古土里南方 80km 에서 中共軍과 激戰
- 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 戰鬥部隊, 前線에 到着
- 12.9 ○ 長津湖의 UN 軍(美海兵隊, 第7師團, 英海兵隊), 包圍한 中共軍과 激戰
- 中共軍 4個師團 以上の 兵力, 第2의 包圍網設置企圖, 美第3師團 救援作戰 進陟
- 惠山嶺에 突入한 美第7師團 第17聯隊 및 國軍, 中共軍에게 包圍
- UN 艦隊, 興南近海에 碇泊中
- 長津湖의 UN 軍撤收路, 空軍과 地上砲兵隊의 合同으로 中共陣地에 猛擊
- 海兵 第1大隊, 最後 撤收部隊로 元山出航 釜山 航進
- 第8師團, 漣川 向發 取消하고 서울로 撤收
- 美海兵 第1師團, 古土里에서 撤收
- 12.10 ○ 長津湖 先鋒部隊, 中共軍 包圍網 突破하여 興南에 到着
- 中共軍, 谷山에 侵入

- 中共軍, 海州에 侵入
- 中共軍, 黃州·沙里院에 接近
- 黃海道 西海岸一帶의 敗殘兵, 安岳方面에 集結
- 12.11 ○長津湖 撤收作戰 完了, 中共軍 3個師團 擊破
- UN 軍 殘留部隊, 계속 咸興平野에 集結
- 中共軍, 元山 通過 南下中
- 中共軍, 沙里院·谷山~隊安~新溪에 도달
- 敵 自動車部隊, 城津에서 南下
- UN 空軍, 沙里院·平壤 등 猛爆
- 美步兵 第2師團 被害, 死傷者 8,000명
- 長津湖 脫出의 美海兵隊 損害, 死傷者 6,000명
- 中共軍 損害, 150,000명 推算
- 제 1師團, 高浪浦로 撤收
- 백아더 元帥, 韓國戰線 視察
- 12.12 ○UN 軍, 38線 以北에서 作戰中이라고 發表
- 中共軍, 咸興·興南橋頭堡를 夜襲했으나 UN 軍守備隊에 擊退당함
- 中共軍, 再編後 沙里院에서 南下, 澗川方面에서 南下하다 國軍과 激戰中
- 海軍船團, 第3師團 兵力을 九龍浦에, 首都師團 兵力은 釜山에 輸送完了
- 12.13 ○咸興周邊에 來襲한 敵, 즉시 擊退
- 華川·史倉里·楊口方面의 中共軍, 國軍과 激戰
- 7日 이래 13日까지의 美軍損害는 死亡 5,570명을 포함하여 33,870명
- 12.14 ○東部戰線의 UN 軍, 海上 撤收開始
- 首都師團 및 美第7師團 第17聯隊, 興南에 歸還,
- 25,000명의 美第7師團 및 海兵隊, 包圍網 뚫고 興南에 撤收
- 伊川~鐵原線, 史倉里·華川·楊口方面, 彼我 激戰中
- 海州 通過한 中共軍, 延安方面으로 進出
- 南浦에서 3,400명의 人員 撤收 成功
- 12.15 ○中共軍, 東部戰線의 UN 軍 橋頭堡에 猛攻, 美第10軍團의 反擊으로 殲滅
- 中部山岳地帶의 中共軍, 新溪~伊川으로부터 市邊里 附近에 進出
- 澗川西北方과 史倉里~華川~楊口線에서 國軍, 中共軍과 激戰中
- 西部戰線의 中共軍, 海州·延安을 거쳐 南進中
- 中共軍 大部隊, 平壤의 南方과 東方으로 移動
- 第7師團, 洪川 突入

- 第 6 師團, 東豆川 北쪽의 38線 奪還
- 12. 16 ○ 中共軍, 咸興·與南地區에서 다시 侵攻
 - UN 軍, 咸興 拋棄
 - 史倉·楊口·華川地區 戰鬥中
 - 敵, 仁川方面 進出
 - 殘匪, 五臺山에서 蠢動
 - 敵, 市邊里에서 再次南侵企圖
 - 美海兵 第 1 師團, 馬山에 集結
- 12. 17 ○ 北傀軍, 眞空地帶 계속 南下
 - F-86 新銳機 參戰, MIG-15機 最初로 擊墜
- 12. 18 ○ 咸興西方 彈藥庫를 艦砲 射擊
 - 平壤~華川 道路上, 中共軍의 移動 活潑
 - B-29, 南浦~新安州間 敵野營地帶 攻擊, 大打擊 加함
 - 濠空軍, 宣川鐵橋 爆破
- 12. 19 ○ 與南 橋頭堡 攻擊하던 敵, 我軍의 艦砲射擊으로 攻勢弱화, 防衛強化 中(我軍)
 - 西海岸~襄陽間 全防衛線 完成
 - 캐나다 步兵 第 2 大隊 到着
- 12. 20 ○ 臨津江 10km 地點에 北傀軍 出沒中
 - 中西部前線에서 18개의 中共軍 師團 및 旅團을 確認
 - 海兵隊 戰鬥部隊 再編成, 第 1 聯隊와 獨立第 5 大隊로 分離編成
 - 李大統領, 最後까지 首都防衛를 力說
- 12. 21 ○ 11月 27日 中共侵入 이후, UN 軍 損害 13,000——敵損失의 1/10
 - 北傀軍 約 3個大隊, 春川地方에서 攻擊
- 12. 22 ○ 漣川~金化~華川地帶에 中共軍 集結中
 - F-86機, MIG-15機 156臺를 擊墜
 - 美軍 被害, 38,325명(死亡 6,432명)
- 12. 23 ○ 워커 中將, 前線視察中 自動車事故로 殉職
 - 워커 司令官 後任에 매튜 B. 리지웨이 中將 任命
- 12. 24 ○ 12萬의 軍人 및 10萬의 避難民, 與南地區에서 完全撤收 成功
 - 中共軍, 春川·楊口附近에서 出沒
 - 中共軍, 開城地區에 相當數의 兵力集結
 - 高浪浦附近에서 我偵察隊와 中共軍 衝突
 - B-29, 平壤·伊川·鐵原 大爆擊
 - 中共軍, 全線에서 攻勢準備 機微
 - 李大統領, 서울市民에게 避難 命令

- 12. 26 ○全戰線, 接敵狀態 漸次 활발
 - 東北戰線에서 撤收한 UN 軍, 韓國 東南部에 上陸 完了
 - 中共軍, 澧川附近에 集結中
 - 北傀軍과 春川方面에서 交戰
 - 第9861部隊, 全谷地方에서 中共軍 2個 中隊를 殲滅, 捕虜
 - 開城地區 中共軍, 兵力 계속 증강중
 - 高浪浦方面 戰鬪 熾烈
 - 李大統領, 政府移轉說 否認
- 12. 27 ○리지웨이 中將, 新戰術로 中共侵略 粉碎 言明
- 12. 28 ○國軍, 春川 東北方에서 內坪里附近 北傀軍에 대하여 猛攻擊
 - 西海岸~高浪浦線에 中共 第39·50·66軍 集結配置中
 - 中共 第40軍, 38線 突破하고 開城 占領後 계속 南下中
 - UN 空軍 延 728機 出擊, 中共機(제트) 50臺 出現
- 12. 29 ○中共軍, 臨津江에 架橋 企圖
 - 春川, 鐵原·澧川, 高浪浦 方面에서 敵의 來攻 機微 활발
- 12. 30 ○UN 軍, 全戰線에서 38線 以南 16km 地點까지 撤收
 - 北傀軍, 38°沿線에서 重砲·탱크·트럭 등으로 增強
 - UN 空軍, 中部戰線에서 敵의 砲 20, 탱크 5, 트럭 10, 砲臺 3, 車輛 58을 破壞
 - UN 偵察隊, 서울 北方 43km 地點에서 中共軍과 4시간 激戰
 - 敵 遊擊隊, 大田·大邱 등지에서 我補給路 및 輸送部隊 襲擊
 - 서울市 疎開者 84萬餘名(49%), 市中 살값 暴騰
- 12. 31 ○中共軍, 夜間부터 大攻擊開始
 - 中共軍, 38線附近서 兵力增強, 開城附近에 多數의 戰車·裝甲車 集結
 - 第1師團, 積城~汶山東側에서 激戰
 - 第6師團, 東豆川 北쪽에서 中共軍 3個師團과 交戰 擊退

[1951年]

- 1. 1 ○中共軍, 서울 北方 24km 地點에 進出
 - 中共軍 6個軍團, 總攻擊開始
 - 中共·北傀軍, 春川西北方에서 重砲·迫擊砲·野砲掩護下 攻擊前進
 - 高浪浦地區에서 敵 1個大隊, 第1師團 防禦線을 뚫고 渡江南進
 - UN 空軍, 812回 出擊, 開戰 以來 最大記錄——李大統領, 第5空軍司令官에 勳章 授與
 - 第5師團, 春川 北方에서 撤收
- 1. 2 ○中共軍 3個聯隊, 議政府에서 英第29旅團의 重탱크部隊에 大打擊 加함

- 第6師團, 倉洞으로 集結
- 1.3 ○ 中共軍, 美第24師團의 正面 中央部를 突破하여 서울北方 11km 地點에 進出
 - 敵, 서울 東北方에서 美軍과 英軍 사이에 突入
 - UN 軍, 議政府 拋棄
 - 第5師團, 美第10軍團에 配屬
- 1.4 ○ 中共軍, 開城과 漣川에서 서울로의 街路로 侵攻
 - 서울 撤收, 金浦·仁川 撤收
 - 中共 偵察隊, 漢江渡河試圖 失敗
 - 敵車輛 476臺, 南下中
- 1.5 ○ 中共軍, 永登浦 侵攻
 - 美精銳部隊, 釜山 上陸
- 1.6 ○ 敵, 洪川 占領
 - 原州 北西方에서 激戰
 - 第5師團, 忠北 鎮川에서 陣地占領 完了
- 1.7 ○ 敵, 忠州 32km 地點에 進出
 - 中共軍, 原州를 向하여 南侵中
 - 中共軍, 3個師團 水原 侵攻
 - UN 軍, 烏山 拋棄
 - 泰國砲艦, 韓國 西海岸에서 坐礁
- 1.8 ○ 中部에서 激戰 계속
 - UN 軍, 原州 撤收
 - 我軍, 仁川 주변을 連 4日間 艦砲射擊
 - 第7師團, 寧越에 集結
- 1.9 ○ UN 軍, 原州地區에서 反擊으로 撤收作戰 中斷
 - 第7師團, 寧越~旌善間 防禦戰鬪
- 1.10 ○ 美 第2師團 偵察隊, 原州 突入後 歸隊
 - 네덜란드軍 大隊, 原州 西南을 攻擊
- 1.11 ○ 美第2師團所屬 美·佛·和軍, 原州 附近에서 敵 7千名과 交戰하여 3千名을 殲滅시킴
 - 中共軍 7個軍團, 原州 西方에서 待機中
 - UN 空軍, 烏山~大邱 街道를 南進中인 中共軍 5千名을 擊退, 1,400名 殺傷
 - 第5師團, 榮州로 撤收
- 1.12 ○ 敵, 磨磋里(堤川~丹陽間) 侵攻
 - UN 軍, 原州 方面에서 中共軍 2個師團 驅逐

- B-29, 原州 猛爆
- 1.13 ○ 敵, 寧越을 侵攻
 - 敵機, 西井里附近의 UN軍 障地 空襲
- 1.14 ○ 中共軍, 30萬兵力으로 中部·西部에서 攻擊開始
 - 美第2師團, 原州 固守
- 1.15 ○ UN軍, 寧越의 敵 4,000名 擊退
 - UN軍, 烏山 奪還
 - 空軍爆擊으로 中共軍, 水原 拋棄 北上
 - 콜린스 美陸軍參謀總長·반덴버그 美空軍參謀總長 來韓
- 1.16 ○ 美第2師團, 原州에서 新防衛線으로 撤收
 - 美第8軍, 水原 奪還
 - 第5師團, 豊基~榮州에 浸透한 北傀軍 第2·9師團 擊滅作戰 開始
 - 美海兵 第1師團, 安東·浦項地域에 再出動, 對峙 砲戰 開始
- 1.17 ○ UN軍 偵察隊, 原州 突入
 - UN軍 偵察隊, 水原 北方서 활약
 - 第77機動艦隊 艦載機隊, 丹陽 附近의 계곡에서 敵兵 2,200을 殺傷
- 1.18 ○ UN 偵察隊, 市街戰後 寧越에서 撤收
 - 敵 偵察隊, 烏山에 出現
- 1.19 ○ UN軍, 原州 再奪還
 - UN軍 機甲部隊, 烏山 北方 3km의 平川에 突入
 - 第8軍 發表, 股票에 國軍遊擊隊 활동중
- 1.20 ○ 敵, 江陵 侵攻
 - 敵 약 1個聯隊, 原州를 三面 攻擊
 - UN 偵察隊, 原州 撤收
- 1.21 ○ UN軍, 戰·砲支援下에 原州 再奪還
 - UN軍, 中共 第42軍의 反擊으로 利川에서 撤收
- 1.22 ○ 北傀軍, 安東近郊서 突然攻勢 開始
 - UN軍 偵察隊, 仁川 攻擊
- 1.23 ○ UN軍, 北傀軍과 寧越에서 市街戰
 - MIG機 28대와 F-84 24대, 新義州 上空에서 空中戰(敵機 5臺 擊破, 2臺 破損)
 - 國軍組織法中 改正法律案을 政府가 國會에 提出(內容骨字 ① 三軍에 參謀總長 各設, ② 聯合參謀會議 設置, ③ 空軍條項 結合)
- 1.24 ○ UN軍·第7師團, 寧越 奪還
 - UN 탱크部隊, 原州 占領
 - UN軍, 橫城 奪還

- UN軍, 驪州 奪還
- 1.25 ○美第1·9軍團, 局限된 攻擊開始
 - 던더볼트作戰 開始——美第24師團·第1機甲師團, 長湖院~安城線에서 北進
- 1.26 ○UN軍, 水原 金良場 奪還
 - UN偵察隊, 平昌에 突入
- 1.27 ○美軍, 戰車·野砲로 平昌 攻擊
 - UN軍, 서울 16km 地點까지 進出
 - 美師團長 更迭
 - 第24師團長에 브리안 少將(前任 처치 少將)
 - 第7師團長에 케렌마우 少將(前任 바 少將)
- 1.28 ○UN軍 偵察隊, 江陵 南方서 敵 1個中隊와 交戰, 15名 生捕
 - UN艦隊, 仁川地區 艦砲射擊
 - 北傀 第2軍團, 寧越·丹陽서 潰滅
- 1.29 ○UN裝甲偵察隊, 橫城에 再突入
 - 美戰艦 미주리號 등, 杆城地區 猛砲擊
- 1.30 ○UN艦隊, 杆城地區 砲擊
 - 푸에르토리코軍, 水原東北方 3km 高地 敵 擊退
 - 第15聯隊(1師團), 美第25師團에 配屬, 水原北方 攻擊開始
- 1.31 ○그리스軍, 水原~利川間의 첫 戰鬪에서 3千名의 中共軍 擊退
 - UN空軍, 西部戰線에서 中共軍 3,500名을 殺傷
 - 미주리艦 등, 高城~杆城을 猛砲擊
 - 벨기에·룩셈부르크軍, 釜山 上陸, 前線 向發
 - 美 第1軍團, 金銀里~水原~半月場 北方線에서 攻擊開始
- 2.1 ○敵, 砥平에서 三方面으로 攻擊, UN軍 沮止
 - 驪州 北方에서 白兵戰 끝에 敵 3個聯隊 擊退
 - 西部에서 我軍 攻擊에 敵의 接觸 없음
 - 第5空軍, 1日中 敵 19,000名을 殺傷
- 2.2 ○UN軍, 長距離砲로 水原 北方의 敵 攻擊
 - UN軍, 서울 砲射程圈內 進出
 - 安養 奪還
 - 敵軍內 傳染病 發病率 漸高
 - 北傀前線司令官 金策 戰死
- 2.3 ○美軍, 平昌 奪還
 - 利川 東方 4km 進出
 - 第5師團, 橫城附近 突入

- 張勉 總理 就任
- 2.4 ○國軍, 江陵地區에서 敵 3個大隊 擊破
 - 美·佛軍, 砥平 奪還
 - 金良場·利川地區의 敵反擊 擊退
 - 國軍, 水原 西北方 10km 의 383高地 奪還
 - 서울 南漢山麓에서 肉迫戰
- 2.5 ○UN 軍, 서울 南方 8km 突入
 - 第8師團, 橫城에서 洪川間 威力搜索 전개
- 2.6 ○漢江 南方에서 中共大部隊 포위 섬멸 作戰
- 2.7 ○敵, 中部戰線에서 總退却開始
 - 我軍, 서울 着彈距離內에 도달
- 2.8 ○海軍, 東海岸 注文津 突入
 - 美戰車部隊, 서울 砲擊
- 2.9 ○美第25師團所屬 國軍 第15聯隊, 서울 突入, 冠岳山 奪還
- 2.10 ○仁川 奪還
 - 中共軍, 首都 拋棄 北上逃走
 - 第5師團, 橫城 奪還
- 2.11 ○首都師團, 38線 突破하고 襄陽 奪還
 - 上空에서 본 수도 서울, 建物は 殘存이나 無人之境
- 2.12 ○敵, 永登浦에 野砲射擊
 - 第8師團, 中共 6個師團과 激突後 撤收
- 2.13 ○UN 軍, 橫城 撤收
 - UN 軍, 猛烈的 交戰後 利川東北方 高地 奪還
 - 美 8 軍, 38線 突破는 誤報라고 發表
 - 美 第2師團 第23聯隊, 砥平里에서 中共軍 3個師團에 包圍
- 2.14 ○漢江 渡河 敵 1,152명 섬멸, 250명 生捕
 - 第5師團, 堤川方向으로 撤收 防禦
 - 第6師團, 文幕 北쪽 前進
- 2.15 ○美 8 軍, 原州·砥平地區에서 敵 4個師團 섬멸이라고 報道
 - 美海兵 第1師團, 忠州로 前進
 - 네덜란드軍司令官 오엔 中領 戰死
- 2.16 ○敵後方의 我義勇軍, 殷栗·長淵·襄津·延安 方面에서 분투중
 - 콜트 少將·아몬드 少將 各各 中將으로 進級, 콜트 中將은 美 8 軍 副司令官 就任
 - 中共軍, 2個師團 병력 잃고 砥平里에서 退却
- 2.17 ○我軍, 砥平 東北 32km 까지 進擊

- 敵 2次의 渡河企圖, 空襲 및 砲擊으로 沮止
- 2.18 ○北傀 1個師團, 堤川 攻擊
 - 原州 北方에서 敵 12~16個師團 保有
 - 中共軍, 楊平의 司令部 拋棄
- 2.19 ○戰車隊, 堤川 北方 進擊
 - 原州 東南方의 中共軍 3個師團을 擊退
 - 英軍, 서울 東方 17km까지 進出
- 2.20 ○酒泉 奪還
 - 橫城地區에 敵 30,000 集結中
 - 敵, 서울에서 退却開始
 - 美第27聯隊長 마이켈리스, 准將 昇進
- 2.21 ○리지웨이 司令官 陣頭指揮下, 中部戰線 總攻擊 開始
 - 敵, 洪川 方面에서 後退
 - 開戰以來(8個月間)의 敵損害(美陸軍省 發表)——都合 624,000(北傀 418,000, 中共 206,000)
- 2.22 ○敵 大部隊, 原州 10km 地點에 壘壕構築
 - 第5師團, 丹陽으로 移動
 - 第8師團, 大邱로 移動, 後方警備
- 2.23 ○我軍, 平昌 奪還, 橫城에 接近
 - 丁一權 少將, 中將 昇進
- 2.24 ○美軍 步兵 및 戰車部隊, 橫城에 突入, 芳林里 탈환
 - 美 第9軍團長 무어 少將, 漢江邊에서 헬리콥터 事故로 戰死
 - 中共 第4野戰司令官 林彪 轉出, 後任 在韓中共軍總司令官에 彭德懷 任命
- 2.26 ○브래들리 美合參議長, 駐韓美軍 25萬名, 海軍 9萬名이라 言明
 - 美第7·25師團, 現作戰에 參加
- 2.27 ○我軍, 漢江 南岸障地 계속 확보
 - 海兵 第1聯隊, 倉里 突入
- 2.28 ○注文津·江陵間 敵障地에 熾烈한 砲擊
 - 서울 周邊에서 彼我 反擊戰 熾烈
 - 美第7師團, 中東部戰線에서 38線 南方 48km 에 到達
 - 美第2師團, 芳林里 周邊의 敵防禦線 粉碎
 - 第9軍團長 後任에 호지 少將
- 3.1 ○美第1海兵師團, 橫城 東方에서 白兵戰
 - 美第7師團, 娥帽洞 占領
- 3.2 ○美第1海兵師團, 橫城에 完全入城

- 3.3 ○ UN 軍, 全戰線에 걸쳐 2~5km 進出
 - 美第7師團, 北傀 第15師團을 砲射擊으로 潰滅, 蒼洞里 5km 以內로 進擊
 - UN 軍, 서울을 猛烈히 砲擊, 敵은 應射
 - 海兵第1聯隊, 旌善에 突入
- 3.5 ○ 國軍 第7師團, 下珍富里 到達
- 3.6 ○ 美第2師團, 長坪(서울 東方 136km) 탈환
 - 海兵第1聯隊, 鳳山里 進擊
- 3.7 ○ 國軍 第7師團, 敵의 攻擊으로 峨帽面에서 5~8km 後退
 - 英軍部隊(英第1機甲師所屬), 龍頭里 東方에서 7km 前進
 - 美第25師團, 서울 東南方 24km 地點에서 漢江 渡河
 - 美第24師團 所屬隊, 龍門山 占領
 - 今日敵殺傷 11,400名(開戰以來 最高 記錄)
- 3.8 ○ 敵, 今夜 UN 軍 4個師團에 正面反擊, 徹夜激戰
 - 美第25師團, 陣地를 8km 北方으로 擴大
 - B-29編隊, 春川 大爆擊(220t 投下)
 - 美第7師團, 旌善 北方 白積山 탈환
- 3.9 ○ 美第7師團, 大美에서 撤收(白兵戰後)
 - 美第25師團, 漢江橋頭堡를 10km 擴大, 首都를 側面으로 威脅
 - 美第25師團, 美第24師團(楊平地區)과 連結 成功
- 3.10 ○ 龍頭里 北方의 美軍, 3km 前進, 東方의 英軍도 2km 前進
- 3.11 ○ 洪川地區 中共軍, UN 軍 攻擊으로 後退
 - 漢江渡河한 UN 軍 先鋒部隊, 서울 南部로 3km 前進
- 3.12 ○ 中共軍, 서울에서 後退開始
 - 第7師團, 旌善北方·下珍富里·東沙里 탈환
- 3.13 ○ 敵, 全戰線에서 後退開始
 - 美第7師團, 長坪 占領
- 3.14 ○ 서울 再奪還(美第3師團 無血入城)
 - 美戰車部隊, 洪川 通過
 - 第6師團, 龍門山 奪還
- 3.16 ○ 美海兵隊, 洪川 確保
 - 國軍 第1師團, 서울 入城
- 3.17 ○ UN 軍, 서울 北方 1km 進出
 - 美極東空軍, 開戰以來 15萬回 出擊
- 3.18 ○ 第1師團, 서울 西北方布陣 臨津江 進擊 準備
 - 海兵 第1聯隊, 洪川으로 移動

- 3.19 ○敵, 38線 以北으로 敗走中
 - 第8軍司令官, 敵의 春季大攻勢를 警告
- 3.21 ○國軍, 東部戰線 38線 14km 地點까지 進出
 - 中共軍 第3野戰軍 第26兵團 出現
 - 美軍, 탱크探索隊, 春川에 無血入城
- 3.22 ○第8軍, 08:00時 一際 攻擊開始
- 3.23 ○UN軍, 議政府 突入
 - 清平地區 攻擊開始(美第25師團, 美第3師團, 터키旅團, 필리핀·벨기에 大隊)
- 3.24 ○敵, 清平 北方에서 頑強히 抵抗
- 3.25 ○國軍搜索隊, 38線 突破 交戰後 歸還
- 3.27 ○美軍, 議政府 東北方에서 中共軍 3個大隊를 包圍
 - B-29, 北韓 各地 大爆擊
- 3.28 ○中共軍, 春川 北方에 9萬兵力 集結
 - 國軍, 高浪浦 方面으로 進擊中
 - 第1軍團長 金白一 少將, 大關嶺 上空에서 戰死
 - 美第25師團, 抱川 奪還
 - 美第3師團, 東豆川 奪還
 - 터키旅團, 542高地 奪還
 - 필리핀·벨기에大隊, 冠岳山·東豆川 奪還
 - B-26, 平壤·開城·咸興 爆擊
- 3.29 ○UN軍, 敵防衛線에 接近
 - 春川 北方에서 激戰
 - UN空軍, 北韓全域에 大空襲
- 3.30 ○國軍, 38線 以北 13km 進出
 - 春川~金化地帶, 共產軍 8萬 布陣
 - 敵戰車·車輛部隊, 京義街道로 南下中——UN空軍, 猛擊
 - 中共軍, 3週以內 空前的 大攻勢豫測(美8軍 發表)
- 3.31 ○國軍, 38線 以北 16km 地點 到達
 - 國軍部隊, 汶山 前面 臨津江 渡河
 - B-29, 韓滿國境 橋梁爆破, 彼我 80臺의 戰鬥機 大空中戰 展開
- 4.1 ○東海岸 縣里(38線 南方 5km)의 敵, 수백 m 南下
 - 中共 第4野戰軍, 第3野戰軍과 交代
 - 空軍 第101基地戰隊 및 補給廠 創設
- 4.2 ○國軍, 東海岸에서 38線 以北 3km 進擊
 - 敵, 開戰以來 最高記錄인 2,300여의 車輛移動 南下

- 4.3 ○空軍(UN), 大規模의 空襲과 空中戰
 - 맥아더 元帥, 敵兵力은 63個師團이라 言明
 - 美海兵 第1師團 및 海兵 第1聯隊, 昭陽江 突入
- 4.4 ○國軍, 杆城 占領
 - UN 軍, 金化로 猛進擊
 - 敵機 11臺 擊墜
- 4.5 ○國軍, 38線 以北 24km 까지 進出
 - 春川·金化에서 挾攻作戰으로 總攻勢
 - UN 軍, 中部戰線에 開戰以來 最大의 砲火支援下 38線以北 수거 高地 猛攻
- 4.6 ○美軍, 寒溪·麟蹄間 高地의 敵 掃蕩
 - 泰軍, 華川 西方高地 奪還
 - 第1師團長 白善禪 准將, 少將 昇進後 第1軍團長에 任命——第1師團長에 姜文奉 准將 任命
- 4.7 ○中共軍, 中西部에서 總退却
 - 美軍, 용동 占領後 進擊
 - 英海兵部隊, 城津南方 奇襲破壞後 歸還
- 4.8 ○海兵隊, 甕津半島 上陸後 松林面 進擊
 - B-29, 鴨綠江 鐵橋 猛爆
 - 空軍 F-51, 伊川 北方 烽火山 및 文岩里·支岩里 爆擊
- 4.9 ○美軍, 鐵原을 攻擊
 - 中共軍, 華川貯水池 放水後 逃走
- 4.10 ○UN 軍, 高浪浦 탈환 후 계속 진격
 - 美軍, 昭陽江 渡河
 - 中共軍, 西部戰線에 兵力 增強中
- 4.11 ○UN 軍, 華川貯水池로 進擊 계속
 - UN 軍, 臨津江 渡河進擊
 - 리지웨이 中將 후임에 벤 플리트 中將 就任
 - 맥아더 元帥 解任, 後任에 리지웨이 大將(昇進)——李大統領, 맥아더 元帥 解任에 遺憾 表明
- 4.12 ○UN 先遣隊, 漣川 突入
 - 第5師團, 麟蹄 奪還
- 4.13 ○敵, 全戰線에서 反擊
 - 美空軍, 大規模 空襲
- 4.14 ○UN 軍, 鐵原으로 進擊
 - UN 軍, 漣川에서 敵抵抗 粉碎하고 계속 北進

- 第6師團, 春川 西北方의 38°線 進擊
- 4.15 ○UN 軍, 鐵原을 包圍挾攻
 - UN 軍, 楊口 東北方 5km 인 夜村에 突入
 - B-29, 海州·咸興 猛爆
 - 海兵隊, 南浦 上陸
- 4.16 ○UN 軍, 楊口 突入
 - 美第24師團長 마이어 少將 歸還, 後任에 할로크 大領
- 4.17 ○國軍, 杆城 占領後 北進
- 4.18 ○敵, 全線에서 後退 繼續
 - UN 軍, 華川 및 貯水池 탈환
- 4.19 ○美軍戰車隊, 火焰放射器로 敵을 攻擊하여 鐵原 5km 地點까지 進出
- 4.20 ○中共軍, 金化·平康間에서 決死的인 遲延作戰
- 4.21 ○UN 軍, 鐵原 南方에서 完강한 敵과 交戰
 - UN軍戰車隊, 臨津江 渡河北進
- 4.22 ○中共軍, 中部戰線에서 豫想된 春季攻勢 開始
 - 敵 1個聯隊, 金化 南方 및 西南地區에서 浸透
 - 敵 1個聯隊, 高浪浦地區에서 臨津江 渡河企圖
 - UN 空軍, 大大的 出擊
 - 第6師團, 史倉里에서 激戰
 - 我空軍, 金化 및 伊川地區 爆擊
- 4.23 ○UN 軍, 鐵原南方에서 舊陣地로 退却
 - 敵, 金化南方의 UN 軍陣地에 大突破口를 뚫음
 - UN 軍, 敵의 反擊으로 漢灘江 南岸으로 撤收
- 4.24 ○UN 軍, 金化 南方에서 敵의 突進沮止 成功
 - 春川 西方에서 接戰展開
 - UN 軍戰車隊, 麟蹄를 재탈환
 - 高浪浦 南方에서 激戰中
- 4.25 ○敵, 2萬兵力으로 自逸里 南方 浸透
 - 海兵隊, 華川 地區에서 激戰中
 - UN 軍, 西部戰線에서 38線 以南으로 撤收
- 4.26 ○UN 軍, 中部戰線에서 急速히 撤收中
 - UN 軍, 서울 西北方 27km 에 敵猛擊沮止, 서울東北方에서 反擊 3km 進出
 - 國軍 第3889部隊 第11中隊(中隊長 金應來 大尉), 加平西方 6km 의 543高地에서 敵 1個聯隊와 激戰後 全員 壯烈한 玉碎
 - 申性模 國防部長官, 辭表 提出(居昌事件으로)

- 4.27 ○UN軍, 春川~서울街道地區에서 撤收
 - UN軍, 38線 以北의 最後據占 楊口를 拋棄
 - 中共軍, 議政府에 侵入
 - UN軍, 西部戰線에서 撤收
 - B-29, 平壤飛行場 猛爆
- 4.28 ○UN軍, 北漢江 南岸으로 撤收
 - UN軍, 春川 拋棄
 - 敵, 서울 北方에 增援部隊 注入
 - 敵, 各戰線에서 侵攻停止
- 4.29 ○UN軍, 全線에서 撤收中
 - 敵, 서울 近郊에 壓力을 加해 옴
- 4.30 ○UN軍, 麟蹄 東方地區에서 敵 1個聯隊의 猛攻으로 1km 後退
 - 中共軍 第19兵團, 牛耳洞 近郊까지 進出했다가 UN軍의 反擊으로 12 km 退却
 - 北傀 第8師團, 水色에 侵入하다 主力 거의 殲滅당함
 - 美極東空軍 最高出擊記錄(今日) -- 1,277회
 - 美第5空軍도 最高記錄 -- 960회
 - UN海軍, 東西 兩海岸에서 敵을 砲擊中
 - 國會, 國民防衛軍·鄉土防衛隊 解體決議
- 5.1 ○UN軍, 서울 北方에서 探索戰 계속
 - UN海軍, 東·西海에서 敵施設 砲擊
 - UN空軍, 中·東部 猛爆
 - UN空軍, 空中魚雷로 華川貯水池의 敵 615名 殺傷
- 5.2 ○UN軍, 洪川地區에 侵攻한 敵 擊退
 - 中共軍, 서울 北方地區로부터 東方으로 移動
 - UN艦隊, 元山港 砲擊
 - 第8軍司令官 談話, 敵의 反攻은 大失敗라고 言明
- 5.3 ○我軍, 260km의 全戰線에서 攻勢로 轉換
 - UN軍, 春川 東南部에서 敵과 交戰
 - UN軍, 麟蹄周邊의 敵侵攻을 擊退
 - UN軍 機動部隊, 議政府 突入
 - UN空軍, 大大的 北爆
- 5.4 ○麟蹄東方의 敵 擊退
 - 서울 西北方의 敵을 北方으로 擊退
 - 開戰以來 美軍被害
戰死 11,001名. 戰傷 42,215名, 行方不明 9,562名, 捕虜 114名, 行不

後歸還者 1,163名 合計 64,055名

- 5.5 ○空軍, 257臺의 敵車輛 發見 그 중 140臺 擊破
 - 리지웨이 將軍, UN 軍은 韓國戰線에서 主導權 回復하였다고 談話
 - 申國防長官, 辭表 受理
- 5.6 ○UN 軍探索隊, 서울~春川道路 北方에 進出
 - 北韓 重要補給路에서 4,000臺의 敵車輛輸送隊 發見
- 5.7 ○UN 軍探索隊, 麟蹄附近 38線 突破
 - UN 軍探索隊, 春川에 突入
 - 國軍, 議政府 西北方 5km 進出
 - 政府 4閣僚 更迭, 國防長官에 李起鵬 任命
- 5.8 ○UN 軍, 서울 北方 32km 進出
 - 國軍, 서울 北方 27km 進出
 - UN 軍, 議政府 附近에 強力한 防禦線確保
 - 李國防長官, 對將兵談話 一 謙虛한 心情으로 責務完遂하거
- 5.9 ○國軍, 杆城에 突入
 - UN 軍, 麟蹄 突入
 - 第1師團, 西部戰線에서 敵 第19師團과 第64軍을 擊滅
 - 新義州飛行場 大爆擊, 新義州 上空에서 最大의 空中戰 一 UN 側 312機 出動에 敵機 38臺 擊墜
 - 李始榮 副統領 辭任
- 5.10 ○UN 軍, 汶山 占領
 - 敵主力, 汶山 北方으로 退却中
 - 國軍, 서울 西部에서 敵 6,000名 擊滅
- 5.11 ○敵, 대체로 防禦的 抵抗
 - 國軍, 麟蹄 再奪還
 - 敵, 서울 北方의 汶山~議政府間에 集結中
 - 中部戰線의 敵, 加平附近으로 南下中
- 5.12 ○中共軍, 昭陽江南岸의 橋頭堡를 擴大中
 - 敵, 서울 東北方의 障地 拋棄하고 退却
 - UN 空軍, 加平 西方 猛攻, 400名 射殺
- 5.13 ○敵, 昭陽江 南岸으로 大舉 南下
 - 國軍, 麟蹄附近에서 6회에 걸친 敵의 反擊을 擊退
- 5.14 ○麟蹄 北方에서 激戰中
 - 昭陽江 北岸을 따라 麟蹄 西北方地域에 進出한 我軍, 敵과 激戰中
 - UN 軍, 東豆川 方面으로 14km 進擊
 - UN 空軍, 春川 北方의 敵 猛打

- 5.15 ○敵, 春川~麟蹄間에서 顯著한 增強勢
○副統領에 金性洙 被選
- 5.16 ○我軍, 麟蹄 喪失
○中共軍, 春川 東方에 攻擊, UN 軍 약간 後退
○西部戰線 平穩
- 5.17 ○麟蹄·春川間에서 激戰中
○敵, 麟蹄南方의 突破口로 大舉浸透
○中共軍, 西部戰線에서 攻擊開始
- 5.18 ○我軍, 38線 全戰線에서 南方으로 撤收
○敵, 議政府에 侵入
- 5.19 ○敵, 洪川江 渡河
○美第2師團, 寒溪地區에서 敵의 包圍網을 潰고 大奮戰
○敵, 淸平·加平間과 寒溪·春川地區에서 계속 南下中
- 5.20 ○國軍, 東海岸에서 38線 以南으로 撤收
○敵 3個師團, 寒溪·豐岩間의 防禦線突破
○美第2師團, 浸透한 敵에 大出血을 加함
- 5.21 ○中共軍, 豐岩 北方을 向하여 4個兵團 投入
○美第2師團, 韓國軍陣地의 突破口封鎖
○敵, 第2次攻勢 6일 만에 挫折——中西部에서 北漢江 南岸의 橋頭堡로부터 後退開始
○國軍探索隊, 汶山 突入
○美機動部隊, 議政府 突入
- 5.22 ○UN 軍, 全線에서 2km 前進
○中共軍, 淸平附近에서 北方으로 後退
○敵, 서울 北方 15km 地點에서 抵抗強化
○國軍, 汶山突破 臨津江岸으로 進出
- 5.24 ○UN 軍, 總攻擊開始, 敵抵抗 殆無
○UN 軍機動探索隊, 中東部戰線에서 38線 突破
○美軍, 春川 再突入——昭陽江 渡河 北進
○UN 軍, 高浪浦 通過
- 5.25 ○我軍, 洪川·麟蹄道路 急進擊
○UN 軍, 春川 西北方에서 38線 突破
○春川·華川間, 敵 退却中
○美軍, 寒溪 東北方에서 敵과 激戰
○我軍, 高浪浦 東方 16km 進出
- 5.26 ○國軍, 襄陽 占領

- 美軍, 麟蹄 到達
- 美·佛軍, 洪川~麟蹄道路를 急進擊
- 4월 下旬 敵에 包圍당한 英 글로베스터사聯隊 第1大隊의 負傷生存兵 1名, 33日만에 救出
- 陸本 參謀副長에 劉載興 少將
- 5.27 ○美第2師團, 麟蹄·縣里 占領
- UN軍, 華川 占領
- 中共軍, 300名 華川附近에서 投降
- 5.28 ○敵, 華川에서 北走中
- 我軍, 臨津江 北岸에서 探索中
- 5.29 ○UN軍, 杆城을 再奪還
- 敵, 楊口에서 UN軍을 沮止
- 敵, 汶山·高浪浦·漣川 西南方에서 強力한 抵抗開始
- 5.30 ○國軍, 高城 奪還
- 美軍, 永平附近에서 撤收
- 5.31 ○UN軍, 麟蹄·縣里間에서 敵 2,000名 包圍
- 華川貯水池 再奪還
- 美戰車隊, 楊口 突入後 撤收
- 中共軍, 最新銳部隊 戰線投入——鐵原·平康·金化地區 防禦強化 企圖
- UN軍, 漣川西方·積城北方의 臨津江 北岸에 橋頭堡 構築
- 6.2 ○華川地區, 敵砲火活動 增大
- 我軍, 漢灘江 橋頭堡에서 서서히 前進
- 敵, 臨津江 北岸에서 抵抗 熾烈
- 6.3 ○國軍, 麟蹄地區에서 北進
- UN軍, 永平 奪還
- UN軍, 漣川 突破
- 6.4 ○我軍, 全戰戰에서 1.5km 進出
- 6.5 ○我軍, 楊口 東北方에서 1.5km 進出
- 6.6 ○敵, 楊口 東北方에서 熾烈히 抵抗
- 我軍, 鐵原·金化·平康을 連結하는 鐵의 三角地帶에 突入
- UN軍, 漣川에서 3km 進擊
- 國防長官, '38線 停戰은 不可하다.'
- 6.7 ○UN軍, 鐵原·金化·平康의 外廓防禦線 突破
- 6.8 ○敵, 東部戰線에서 猛擊
- 6.9 ○敵, 鐵의 三角地帶 拋棄, 金城으로 退却開始
- 6.10 ○鐵原·金化地區 占領完了

- 6.11 ○敵, 鐵의 三角地帶에서 3個師團分의 武器를 放棄코 逃走
- 6.12 ○UN軍, 鐵原·金化 周邊에서 平康을 向하여 5km 進出
 - 國軍搜索隊, 開城突入後 歸還
- 6.14 ○金化 주변에서 激戰中
 - UN軍戰車隊, 平康을 突破
- 6.15 ○國軍, 3日間の 杆城北方 敵의 攻擊을 艦隊의 掩護下에 擊退
 - UN軍, 平康溪谷을 따라 北進
- 6.16 ○UN軍, 金城周邊을 3km 前進, 鐵原·楊口地區 各 1.5km 前進
 - 敵, 楊口·麟蹄地區에서 猛烈히 抵抗
- 6.18 ○UN軍探索隊, 華川地區에서 交戰後 撤收
 - 金城攻防戰 熾烈
 - 我軍, 高浪浦地區에서 38線 越北
- 6.19 ○敵, 金化·鐵原 北方의 新陣地에서 退却 中斷
 - 敵, 金化 東方에서 激戰後 逃走
- 6.20 ○敵機, 議政府 北方 我軍集結地에 爆擊
- 6.21 ○敵, 平康 南方에서 猛烈히 反擊
- 6.23 ○全戰線 敵抵抗 頑強
 - 陸軍參謀總長에 李鍾贊 少將, 國防部次官에 金一煥 少將, 丁一權 中將은 渡美
- 6.24 ○全戰線에서 戰鬪熾烈
 - 平康高地에서 激戰後 我軍 撤收
- 6.25 ○開戰 1년간의 國軍 被害
 - 戰死 21,625名, 戰傷 72,868名, 失蹤 71,915名, 非戰鬪死傷 46,146名, 合計 212,554名
 - 敵, 全戰線에서 小規模 偵察攻撃
- 6.26 ○澗川·金化 등에서 激戰
 - 麟蹄 北方의 敵攻撃 沮止
- 6.28 ○全戰線 대체로 平穩
- 6.29 ○全戰線 小康狀態
 - 李大統領, '停戰보다는 죽음을 擇한다.'
 - 國會, 停戰絶對反對 闡明
- 6.30 ○散發的인 局地戰은 熾烈
- 7.1 ○地上戰은 비교적 平穩
 - 海·空軍은 猛爆
- 7.3 ○UN空軍, 625회 出擊
- 7.7 ○戰線은 小規模衝突 外에는 平穩

- 7.9 ○엔 플리트 美第8軍司令官, 大將 昇進
- 7.10 ○休戰會談開催
 - UN側 首席代表 조이 中將, 共產側代表 南日 大將
- 7.11 ○各戰線에서 偵察隊의 小規模接戰
- 7.12 ○我軍, 金城 東南方에서 5km 進擊
- 7.13 ○UN軍, 金城 東南方의 敵反擊 擊退
- 7.17 ○各戰線에서 散發的인 小衝突
 - 軍裁, 國民防衛軍事件의 金潤根 准將 등 5名에 死刑言渡
- 7.23 ○我軍, 金城 南方 目標高地 달환
- 7.24 ○開城 西南方에서 激戰展開
 - UN軍, 東部·中東部 戰線에서 8회에 걸친 敵의 探索攻擊을 粉碎
 - B-29, 平壤·沙里院 등 猛爆
- 7.26 ○中東部戰線 도처에서 局部的인 交戰
- 7.27 ○我軍, 杆城 西北方에서 撤收
 - 楊口·麟蹄地區에서 熾烈한 交戰
- 7.28 ○楊口 東北方에서 계속 激戰
 - B-29, 敵의 兵力 集結地와 車輛部隊 爆擊
- 7.30 ○我軍, 5日間の 激戰 끝에 楊口 東北方 高地 奪還
 - 기타 戰線에서는 輕微한 接觸
- 7.31 ○美國防省發表, 開戰以來 敵損失 總 1,237,872名
 - 北傀軍 : 621,367名(戰鬪死傷者 377,035名, 非戰鬪死傷者 97,119名, 捕虜 147,312名)
 - 中共軍 : 616,505名(戰鬪死傷者 513,712名, 非戰鬪死傷者 85,159名, 捕虜 7,625名)
 - 我空軍, 平壤 爆擊
- 8.1 ○陸軍, 敎育總監部 創設
 - 空軍, 第1戰鬪飛行團 創設
- 8.3 ○金城地區에서 激戰 계속
- 8.7 ○UN軍, 鐵原 西方에서 敵의 反擊 沮止
- 8.8 ○我軍, 鐵原 西方에서 熾烈한 戰鬪
- 8.10 ○地上戰鬪, 膠着
 - 休戰會談 再開
- 8.12 ○東部·中部戰線에서 小戰鬪
 - 開城南方에서 輕微한 交戰
- 8.15 ○我軍, 杆城地區에서 抵抗하는 敵을 擊退
- 8.17 ○楊口 西北方 및 澣川 西方에서 白兵戰

- 8.18 ○我軍, 東部戰線에서 局限된 攻擊開始
- 8.19 ○東海岸·東部 金城地區, 中部 鹹原地區에서 激戰
 - 我軍, 杆城 西南方 高地 確保, 楊口 北方 進擊, 金城 南方高地 탈환
- 8.20 ○東部戰線 楊口~杆城間 수개 高地 탈환
 - 陸軍教育總監에 李亨根 少將 就任
- 8.21 ○杆城地區에서 激戰 계속
 - 我軍, 金城·楊口地區에서 反擊하는 敵을 擊退
- 8.22 ○我軍, 杆城 西北方地區의 高地上的 敵 擊退
 - 我軍, 5日間の 激戰 끝에 楊口 北方의 重要高地 奪還
- 8.23 ○東部·中東部戰線에서 激戰 계속중
 - 杆城 南方에서도 一進一退의 激戰中
- 8.25 ○楊口·金化的 目標高地 奪還
 - 國防部 第4局 新設, 兵務關係 擔當
- 8.26 ○楊口·金城地區에 敵攻擊 熾烈
- 8.27 ○東部 丘陵地帶 戰鬥 계속
 - 休戰會談 中斷狀態
- 8.28 ○杆城 北方高地에서 戰鬥
 - 楊口 東北方에서 敵, 終日 攻擊 계속
- 8.29 ○杆城·高城·楊口地區에 熾烈한 交戰
- 8.30 ○敵, 東部戰線에서 我軍戰線 1個所 突破
 - UN 空軍·砲兵隊, 杆城地區의 1個師團의 敵에 終日 猛擊
 - 中部·西部戰線은 接戰輕微
- 8.31 ○我軍, 中部·中東部戰線에서 制限攻擊 開始
 - 金城南方의 敵, 猛烈히 抵抗
- 9.1 ○東海岸戰線 平穩
 - 我軍, 麟蹄 北方에서 前進
 - 金城·楊口에서 角逐戰
- 9.2 ○UN 軍, 3일제의 激戰 끝에 中部·中東部戰線에서 8個高地 奪取
 - 我軍, 麟蹄 北方의 敵 2個 據點 奪還
 - 楊口 北方, 爭奪戰 계속
- 9.3 ○中部戰線, 山岳戰 熾烈
 - 楊口와 金城地區, 高地爭奪 激戰中
- 9.5 ○UN 軍, 18日間に 걸친 爭奪戰後 楊口 北方의 「피의 稜線」을 占領
 - 金城, 我軍의 野砲擊圈內에 들
- 9.6 ○楊口 東北方에서 거의 抵抗없이 3個高地 奪還
 - UN 軍, 漣川 西方에서 包圍網 뚫고 撤收成功

- 9.7 ○我軍, 漣川 西北方에서 1個高地 再奪還
 - UN軍, 西部·中西部戰線에서 敵 1個聯隊의 攻擊을 擊退
- 9.8 ○全戰線 小康狀態
- 9.9 ○UN軍, 戰車隊支援下에 漣川 西方의 失地를 再奪還
- 9.10 ○杆城·平康·金城 등지에서 交戰熾烈
- 9.11 ○杆城西方에서 我軍 撤收後, 反擊으로 再奪還
 - 麟蹄·楊口에서 激戰
 - 美第25師團, 平康 南方에서 2個高地 奪還, 敵 遺棄屍體 367具
- 9.12 ○東部山岳地帶 苛烈한 戰鬪 계속
 - 杆城·楊口·金化 附近에서 各1個씩 高地 奪還
- 9.14 ○杆城 西北方 高地에서 敵 1個聯隊와 終日 交戰
 - 터키 및 이디오피아部隊, 東部戰線 敵攻擊을 擊退
 - 美第1海兵師團, 麟蹄 北方에서 1個高地 占領
- 9.15 ○東部戰線에서 白兵戰
 - 楊口·杆城·金化 등 高地戰 계속
- 9.16 ○金城 南方 高地 1個 爭取
- 9.17 ○UN軍, 麟蹄北方 12km 進出하고 重要高地 奪還
- 9.18 ○UN軍, 中東部防衛線에 火焰放射器로 攻擊
 - UN軍, 苦戰 끝에 「斷腸의 稜線」上的 主要山峰을 奪還
 - 第7師團 第3聯隊, 楊口 北方 883高地 奪還
- 9.19 ○共產軍, 東部戰線에서 反擊, UN軍이 奪還한 數個高地 再被奪
 - 共產軍, 「斷腸의 稜線」猛攻, 我軍 부득이 撤收
- 9.20 ○杆城·楊口·金城·鐵原 등지에 攻防戰 계속
- 9.21 ○杆城 西方 高地 奪還
 - 漣川 北方 20km 進出
 - 楊口·金城地區 激戰中
 - 鐵原 北方에서 目標高地 奪還
 - UN軍混成戰車隊, 「鐵의 三角地帶」北方 進入하다 共產軍의 抵抗으로 撤收
 - 北傀 2個大隊, 同時에 投降
- 9.22 ○UN軍, 「斷腸의 稜線」主峰 攻擊
- 9.23 ○激戰後 「斷腸의 稜線」主峰 奪還
- 9.24 ○北傀軍, 聯隊級의 手榴彈攻擊으로 「斷腸의 稜線」主峰 被奪
 - 東部戰線, 激戰 계속
 - 西部戰線은 平穩
- 9.25 ○東部山岳戰 계속

- 韓·美·佛軍, 「斷腸의 稜線」西部의 1高地 奪還
- 美步兵第23聯隊, 連 25日에 「斷腸의 稜線」에서 奮戰
- 9.26 ○楊口·金城地區, 大隊級の 交戰 계속
- 9.27 ○敵, 東部戰線에서 攻勢
 - UN 海·空軍機, 「斷腸의 稜線」의 共產軍 野砲陣地 猛打
- 9.30 ○國軍, 楊口 西北方 「斷腸의 稜線」西部高地에서 白兵戰 끝에 山頂 掌握
 - UN 軍, 火焰放射器로 鐵原 西方高地 奪還
- 10.1 ○「斷腸의 稜線」에 대한 敵攻擊을 擊退
 - 國軍, 3日間の 激戰後 楊口 西北方의 1個高地 奪還
 - 브래들리 美 合參議長 來韓, 前線視察
- 10.2 ○UN 軍砲兵隊, 高浪浦 西北方 高地에 猛烈한 彈幕射擊
- 10.3 ○UN 軍, 西部戰線에서 6個師團 一齊前進(國軍 第1師團, 美第1機甲·第3·25師團, 英聯邦師團 등)
 - 平壤放送, 中斷되고 있는 休戰會談 열자고 示唆
- 10.4 ○「斷腸의 稜線」에 敵攻擊 猛烈, UN 空軍도 猛襲
 - 澗川 北西方에서 敵의 反擊으로 약간 撤收
- 10.5 ○UN 軍, 西部戰線의 4日間に 걸친 作戰으로 5~6km 前進
 - 美第3師團, 鐵原 西方의 1個高地 占領, 鐵原 北方의 中共軍防衛線 突破
 - 美第1機甲師團, 澗川 北西方에서 中共軍의 攻擊 擊退
- 10.6 ○美·佛軍, 「斷腸의 稜線」主峰을 火焰放射器로 占領
- 10.7 ○楊口 北方 1個高地 奪還
 - 共產軍, 澗川 北西部의 聯合軍奪還高地에 4,000發의 砲擊
- 10.8 ○「斷腸의 稜線」및 楊口 西北方의 「金日成 稜線」에서 敵의 熾烈한 攻擊 沮止
 - 美第2師團 第38聯隊, 「金日成 稜線」에서 熾烈한 激戰 끝에 戰略的 高地 탈환
- 10.9 ○楊口附近에서 終日토록 激戰
 - 「金日成 稜線」上에서 美軍과 中共軍 白兵戰
 - 澗川 西北方 終日 激戰
- 10.10 ○我軍戰車隊, 楊口 北方 12km 進出
 - 楊口北方 2個高地 탈환
 - 兩側 連絡將校, 會談場所 討議
- 10.11 ○「斷腸의 稜線」西方의 「産業高地」탈환
- 10.12 ○我軍, 高城 南方에서 制限攻擊으로 약간 前進

- 美·佛軍, 月餘에 걸친 激戰 끝에 「斷腸의 稜線」上的 共產軍 最後據點 占領
- 楊口 西北方の 5個高地 탈환
- 10.13 ○共產軍, 被奪된 高地攻擊했으나 擊退
- 10.15 ○美第38聯隊, 北漢江과 「斷腸의 稜線」間的 最高地帶를 占領
 - 韓·美軍, 楊口 北西方에서 6km 進出하고 4個高地 占領
- 10.16 ○韓國機甲部隊, 高城 確保
 - UN軍, 中共軍 反擊 물리치고 金城 南方 6km 까지 進擊
 - 美第1機甲師團, 漣川 西北方の 中共軍에 攻擊 敢行
- 10.17 ○UN軍, 金城 5km 이내 進擊, 5日間の 奪還 高地는 약 40個所
- 10.18 ○UN軍, 杆城 東北方에서 共產軍 擊退
 - 中共軍, 美第1機甲師團에 迫擊砲火 集中
 - 空軍, 泗川飛行場 大擴張
- 10.19 ○共產軍, 「斷腸의 稜線」東方 계곡에 진출한 UN戰車隊에 猛烈的한 砲火 攻擊
- 10.20 ○UN軍, 昨夜 喪失한 金城 南方 主要高地 再奪還
- 10.22 ○金城 北方의 中共軍 集結處에 集中砲擊
 - 我軍戰車隊, 金城市 再突入
- 10.24 ○金城地區外 全戰線戰鬪行爲 輕微
- 10.27 ○金城 東南方の 主要高地 탈환
- 10.29 ○漣川 西北方에서 2個高地 탈환
 - 콜린스 美陸參總長, 李大統領과 休戰問題 協議
- 10.31 ○全戰線 靜寂
 - 11.2 ○UN軍, 漣川 西方의 前哨陣地에서 撤收
 - 11.3 ○UN軍, 昨日 撤收한 漣川 西方의 前哨陣地 再占領
 - 11.5 ○戰車의 支援을 받는 共產軍 1個師團, 漣川 西方에서 이틀에 걸쳐 攻擊 하였으나 UN軍 沮止 成功
 - 11.6 ○UN軍, 中共軍의 攻擊으로 漣川 西北方 2個高地 喪失
 - 11.8 ○UN軍機甲部隊, 金城 東南方の 敵陣 急襲하고 火力據點 粉碎
 - UN軍, 漣川 西北方 高地를 再奪還
 - 11.11 ○東部戰線에서 共產軍 2個大隊의 來襲 擊退
 - 11.15 ○UN軍, 楊口·鐵原 등지에서 共產軍의 攻擊 擊退
 - 11.17 ○UN軍, 鐵原 西方의 高地 奪還
 - 共產軍, 漣川 西方에서 英聯邦師團을 攻擊
 - 11.18 ○英聯軍, 前日 喪失한 高地 再奪還
 - 第6師團, 中東部戰線 949高地 占領

- 11.19 ○UN軍, 激戰 끝에 高城 南方 2個高地 拋棄
- 11.20 ○我軍, 金城 東南方에서 共產軍冬季防衛線 뚫고 6km 前進
- 11.24 ○UN軍, 楊口 北西方에서 大隊兵力的 共產軍과 數次 交戰
 - UN軍, 金城 西南方의 2個 前哨陣地 喪失했다가 再奪還
 - 漣川 西方에서 猛烈한 白兵戰 展開
 - 버크레이 美副統領 來韓, 李大統領과 會談
- 11.25 ○UN軍, 激戰 끝에 漣川 西方의 主要高地 奪還
- 11.28 ○全戰線 매우 平穩
- 12.6 ○地上戰 小康狀態 維持
- 12.10 ○智異山地區 共匪掃蕩戰 實施——白野戰戰團司令部 設置
- 12.14 ○智異山地區 共匪掃蕩戰 一段落, 射殺 825名, 生捕 1,031名, 歸順 138名
- 12.18 ○鐵原 西北쪽에서 大隊兵力的 敵攻擊을 擊退
- 12.25 ○共產軍 1個大隊, 文登里 서쪽의 UN軍 前哨陣地를 攻擊
- 12.26 ○文登里 서쪽 陣地 爭奪戰 계속
- 12.28 ○UN軍, 文登里의 喪失한 陣地 탈환

[1952年]

- 1.1 ○全戰線 平穩
- 1.6 ○漣川 北方에서 小規模 交戰
 - 高浪浦 西方에서 終日 激戰
- 1.8 ○第1師團, 高浪浦西方에서 中共軍 4個大隊와 激戰, 敵 1,000餘名 射殺
- 1.12 ○全戰線에 걸쳐 探索戰에 局限
 - 李鍾贊 陸軍參謀總長, 孫元一 海軍參謀總長, 白善燁 野戰司令官, 各各 中將 進級
- 1.16 ○漣川 北西方에서 步·戰協同으로 中隊規模의 中共軍과 交戰
- 1.19 ○文登里·高浪浦附近에서 敵陣 奇襲
 - 智異山地區 共匪擊滅戰, 射殺 589名, 捕虜 237名
- 1.25 ○漣川 西方에서 敵의 占領高地 1個 奪取
 - 2.1 ○全戰線 대체로 平穩
 - 2.9 ○UN軍, 平康 西南方 敵陣地攻擊 25名 射殺
 - 2.12 ○文登里 UN軍陣地에 대한 敵攻擊 擊退하고 96名 射殺
 - 2.14 ○北傀軍 1,000名, 文登里 溪谷에서 UN軍陣地 突破攻擊 失敗
 - 2.15 ○UN砲兵隊, 文登里溪谷 北方의 共產軍陣地 猛擊
 - 2.16 ○UN軍 7個部隊, 西部戰線에서 敵陣地를 猛攻
 - 2.29 ○UN軍戰車隊, 金城 東南方에 進出하여 交戰
 - 共產軍, 鐵原 西方의 UN軍陣地 攻擊

- 3.1 ○文登里 溪谷에서 30名の 敵과 交戰
○鐵原 西쪽에 中隊規模의 敵을 擊退
- 3.15 ○UN軍 戰車部隊, 東部戰線 前進
- 3.25 ○UN軍 砲兵隊, 高浪浦 西方에서 400名の 共產軍 猛擊
- 3.30 ○國防長官 更迭, 李起鵬 後任에 申泰英 少將, 中將으로 豫編하고 就任
- 4.1 ○地上戰 輕微
- 4.15 ○UN軍, 中共軍 2個中隊의 攻擊을 받고 北漢江 東쪽으로 撤收後 再奪還
○UN戰車隊, 金城 西南方 共產軍陣地 攻擊
- 4.29 ○UN軍司令官에 클라크 大將 決定
- 5.1 ○全戰線 계속 平穩, 가벼운 偵察戰鬪
- 5.6 ○UN空軍, 順川地區 鐵道施設 大爆擊
- 5.19 ○劉載興·李亨根 少將, 中將에 進級
- 6.1 ○地上戰은 平穩, 空軍活動은 계속
- 6.7 ○UN軍, 鐵原 서쪽 重要高地 탈환
- 6.10 ○鐵原 서쪽 高地를 攻擊하는 中共軍 1個大隊를 擊退
- 6.11 ○中共軍, 迫擊砲 및 野砲의 掩護下에 鐵原 서쪽의 UN軍 高地 攻擊
- 6.12 ○鐵原 서쪽 高地爭奪戰 계속
- 6.14 ○共產軍, 鐵原 西쪽의 高地에 대한 攻擊이 계속 挫折되자 6,900發의 砲擊發射
- 6.15 ○中共軍 1個大隊, 夜間에 砲支援下 鐵原 서쪽 高地 攻擊
- 6.16 ○5日間 계속된 鐵原 서쪽 高地에서의 戰鬪로 中共軍 1,000餘名 射殺
- 6.17 ○地上戰 小康狀態, UN空軍은 계속 敵地를 猛打
- 6.21 ○敵, 1個聯隊 規模로 鐵原 서쪽의 UN陣地를 攻擊했으나 300名の 射殺者 남기고 失敗
- 6.23 ○美海·空軍機 500臺, 水豊 등 5大發電所 大爆擊
- 6.24 ○UN探索隊, 鐵原 서쪽에서 中共軍과 3시간 동안 交戰
○UN空軍, 全戰線에 걸쳐 共產軍部隊 및 重砲陣地 猛打
- 6.25 ○全戰線에 걸쳐 探索戰 활발
- 6.26 ○UN軍, 平康 남쪽 共產軍高地 攻擊
○UN軍, 西部戰線에서 激戰 끝에 1個高地 奪還
- 6.27 ○UN軍, 步·砲·空의 支援下에 鐵原 서쪽 上海高地의 西南쪽 高地에서 中共軍과 激戰後 同高地를 占領
- 6.30 ○共產軍 1個大隊, 「斷腸의 稜線」附近의 UN軍陣地를 夜間攻擊
○UN軍, 鐵原 西쪽 高地陣地에 대한 共產軍 攻擊 擊退
- 7.1 ○UN軍, 「斷腸의 稜線」附近 陣地에 대한 共產軍 1個大隊의 攻擊 擊退

- UN 搜索隊, 澧川 西北方 中共軍陣地 攻擊 敵 257名 殺傷
- 7.4 ○ UN 軍, 鐵原 서쪽 陣地에 대한 中共軍 1個大隊의 攻擊 擊退
- 7.7 ○ 共產軍, T-34型 戰車 14臺 掩護下 金城 東南쪽 UN 軍 陣地를 夜間 攻擊
- 7.8 ○ UN 軍, 北漢江 西쪽 敵高地 奪還
- 7.9 ○ UN 軍, 高城 南쪽 共產軍陣地 攻擊하고 交戰後 敵反擊으로 北漢江 西쪽 高地에서 撤收
- 7.10 ○ UN 軍, 鐵原 西北쪽 3個高地 奪還
- 7.11 ○ UN 空軍, 北韓 全域에 開戰以來 最大의 猛爆擊
- 7.13 ○ 高城 南쪽 高地爭奪戰 계속
- 7.14 ○ UN 軍, 高城 南쪽 高地 再奪還
- 7.15 ○ UN 軍, 高城 南쪽 高地的 敵攻擊 擊退하고 敵 592名 殺傷
 - 金城·鐵原 附近에서 交戰
- 7.17 ○ 鐵原 西쪽 戰線에서 戰車戰 展開
- 7.18 ○ UN 軍, 鐵原 西쪽 不毛高地에서 共產軍과 激戰 끝에 撤收
- 7.19 ○ UN 軍과 中共軍, 不毛高地 爭奪戰 熾烈하게 展開
- 7.21 ○ UN 軍, 激戰 끝에 不毛高地 奪還
 - UN 軍重砲 및 海·空軍機, 不毛高地 彈幕洗禮
- 7.22 ○ 中共軍, 不毛高地 다시 掌握, 中共軍의 死傷 및 捕虜 1,000名
- 7.24 ○ 全戰線 平穩
- 7.31 ○ UN 軍, 不毛高地 攻擊
 - 北傀軍, 澧川 西北쪽 UN 軍陣地 攻擊
- 8.1 ○ UN 軍, 8時間의 激戰 끝에 不毛高地 山頂을 다시 掌握
- 8.2 ○ UN 軍, 早朝 2회에 걸친 中共軍의 不毛高地 反擊을 擊退, 砲兵 및 航空隊 不毛高地 北쪽에 破滅的 砲擊
- 8.5 ○ UN 軍, 不毛高地上의 陣地 強化
 - 正副統領 選舉實施
- 8.8 ○ 金城 東南쪽의 首都高地에 대한 中共軍의 夜間攻擊 擊退
 - 大統領에 李承晚, 副統領에 咸台永 當選發表
- 8.10 ○ 板門店 東쪽 高地 爭奪戰 熾烈
- 8.12 ○ 美海兵隊, 板門店 東쪽 벙커高地 奪還, 벙커高地 東쪽의 시베리아高地도 掌握
- 8.13 ○ UN 軍, 벙커高地에 대한 中共軍의 3次攻擊 擊退
 - UN空軍, 시베리아高地上의 中共軍을 強打
- 8.14 ○ 벙커高地에 대한 中共軍의 4次攻擊을 未明에 擊退
- 8.15 ○ 벙커高地에 대한 5·6次攻擊 擊退

- 美海兵隊發表, 시베리아·빙커高地 戰鬥에서 中共軍의 死傷者는 3,000名
- 8.16 ○빙커高地 攻防戰, 第7次攻擊 擊退
 - UN 戰爆機隊, 빙커高地 地區 中共軍陣地 계속 猛打
- 8.17 ○地上戰 대체로 平穩, 敵 빙커高地 反擊 中止
- 8.26 ○빙커高地에서 熾烈한 攻防戰, 中共軍 擊退
- 8.31 ○빙커高地的 共產軍攻擊 擊退
 - 9.1 ○鐵原 西方 不毛高地에 대한 共產軍의 攻擊을 擊退
 - 9.5 ○美海兵隊, 빙커高地에 來襲한 中共軍 約 750名을 手榴彈 白兵戰으로 擊退
 - 9.6 ○中共軍, 北漢江 西方 首都高地를 攻擊——UN 軍, 同 高地 및 近接指形稜線에서 약간 撤收
 - UN 軍, 中共軍의 攻擊으로 빙커高地 東쪽 前哨基地에서 撤收
 - 9.7 ○北傀軍, 戰線一帶 5個所에서 35,000發의 砲擊, 開戰以來 最大 砲擊
 - UN 軍 首都高地 奪還
 - 西部戰線 빙커高地에서 戰鬥 繼續
 - 9.8 ○首都高地 攻防戰 熾烈, 中共軍壓力으로 약간 撤收
 - 9.9 ○首都師團, 夜間 肉彈攻擊으로 首都高地 奪還(砲·空支援으로 猛打)
 - 9.10 ○北傀軍의 首都高地에 대한 數次의 反擊 擊退
 - 9.11 ○首都高地的 共產軍大隊 反擊을 擊退
 - UN 軍 砲·空隊, 首都高地 周邊의 共產軍 集結部隊 猛打
 - 北傀軍, 首都高地에 分當 30發 정도의 砲彈攻擊
 - 國軍砲兵隊, 首都高地 下麓에 開戰以來 最大의 彈幕射擊
 - 9.12 ○國軍, 首都高地에 대한 第5次의 反擊 擊退, 同高地 附近의 指形稜線上의 中共軍 攻擊
 - 9.13 ○北傀軍, 首都高地에 砲擊 繼續
 - 9.14 ○首都高地 戰鬥 繼續
 - 國軍, 指形稜線의 共產軍 猛攻, 白兵戰 展開
 - 申國防, 首都高地 奪還戰은 韓國戰爭 最大激戰의 하나라고 激讚
 - 9.16 ○全戰線에 걸쳐 共產軍 砲擊 激減
 - 9.17 ○UN 空軍, 指形稜線의 中共軍 據點에 16次에 걸쳐 네이팜彈 攻擊
 - 9.18 ○國軍, 戰車支援 아래 指形稜線 奪還
 - 9.19 ○北傀軍, 不毛高地 攻擊
 - 9.20 ○UN 軍, 鐵原 西北方 1個高地를 占領
 - 不毛高地 戰鬥 繼續
 - 9.21 ○首都師團, 指形稜線에 대한 中共軍의 夜襲을 擊退

- 北傀軍, 東部戰線 盆地帶 東北方 UN 軍陣地 攻擊
- 9. 22 ○UN 軍, 北傀軍 1個大隊의 攻擊으로 盆地帶 東北方 高地 頂上에서 撤收
- 9. 23 ○國軍, 戰·砲支援下 盆地帶 東北方 高地의 北傀軍을 猛攻
- 9. 26 ○東部戰線 盆地帶 東北方 高地에 대한 敵의 夜間攻擊을 擊退
- 9. 28 ○北傀軍, 戰·砲 掩護下에 首都高地를 夜間 攻擊
- 9. 29 ○北傀軍, 開戰以來 最大砲擊, 全戰線에 47,000發 發射
 - 中共軍, 首都高地 및 指形稜線에 數次에 걸쳐 反擊
 - 中共軍, 戰車支援下 金城 東方 2個高地 占領
- 9. 30 ○國軍, 熾烈한 激戰 끝에 金城 東方 2個高地 奪還
- 10. 1 ○金城 東方 2個高地에 對한 中共軍의 攻擊을 苛烈한 手榴彈戰으로 擊退
- 10. 3 ○UN 軍, 敵攻擊으로 板門店 南方 高地로부터 撤收
- 10. 4 ○UN 軍, 板門店 南方 高地上의 中共軍을 繼續 攻擊
- 10. 5 ○UN 空軍, 板門店 南쪽 高地 猛打
- 10. 6 ○北傀軍, 鐵原 西쪽 2個高地에 熾烈한 攻擊
 - 美海兵隊, 板門店 南쪽 高地 猛攻
- 10. 7 ○UN 軍, 鐵原 西北方 白馬高地에 대한 敵의 狂의 攻擊을 擊退
 - 北傀軍, 93,000發의 砲擊, 從前 記錄의 2倍에 達하는 彈幕攻擊
- 10. 8 ○白馬高地의 國軍 第9師團과 프랑스大隊, 中共軍과 頂上 爭奪戰
- 10. 9 ○第9師團, 白馬高地에서 凄慘한 白兵戰 繼續, 同 高地 頂上을 다시 制壓
- 10. 10 ○第9師團, 一進一退 끝에 白馬高地 頂上에서 撤收
- 10. 11 ○第9師團, 20回 以上の 爭奪을 벌인 白馬高地 3面을 包圍
- 10. 12 ○第9師團, 새벽에 白馬高地 다시 占領
- 10. 13 ○國軍, 白馬高地에서 7次에 걸친 擊退戰 끝에 同 高地 頂上에서 300m 撤收
- 10. 14 ○中部戰線 鐵의 三角地帶 兩端에서 熾烈한 戰鬪
 - 文登里 西쪽 크리스마스 高地에 대한 北傀軍 攻擊 擊退
 - 指形稜線 戰鬪 繼續
 - 白馬高地에서 熾烈한 激戰 繼續
- 10. 15 ○指形稜線에서 肉迫戰 展開
 - 美第7師團, 三角高地의 中共軍을 驅逐
 - 中共軍의 猛攻으로 狙擊稜線의 高地에서 國軍 撤收
 - 第9師團, 血戰 끝에 白馬高地 確保, 中共軍은 東北쪽의 鐵馬高地로 敗走

- 10.16 ○ 第2師團, 戰車支援下에 狙擊稜線의 퓌포인트高地 再占領
- 10.17 ○ 指形稜線·三角高地·狙擊稜線 戰鬪 繼續 熾烈
- 10.18 ○ 國軍, 狙擊稜線의 2/3를 掌握
- 10.19 ○ 中共軍, 狙擊稜線 및 三角高地 攻擊
- 10.20 ○ 國軍, 白兵戰 끝에 狙擊稜線의 主要 高地에서 中共軍 擊退
- 10.21 ○ 第2師團, 狙擊稜線의 퓌포인트高地에 대한 中共軍의 夜間攻擊을 擊退
 - 第9師團, 鐵原 東北方 鐵馬高地 攻擊
- 10.22 ○ 國軍, 狙擊稜線 퓌포인트高地 奪還
- 10.23 ○ 第9師團, 數次의 白兵戰 끝에 鐵馬高地 頂上을 奪還
- 10.24 ○ 國軍, 空軍支援下에 白兵戰 끝에 狙擊稜線 北端高地 掌握
 - 國軍, 激戰 끝에 中共軍의 攻擊으로 鐵馬高地 喪失
- 10.25 ○ 國軍, 早朝에 撤收한 狙擊稜線 퓌포인트高地를 4시간 激戰後 再奪還
 - 美第7師團, 三角高地 奪還戰에 失敗
- 10.26 ○ UN 軍, 東部戰線 斷腸의 稜線에 대한 敵攻擊을 擊退
- 10.27 ○ UN 軍, 三角高地 및 狙擊稜線에 대한 敵攻擊을 擊退
 - UN 軍, 병커高地 拋棄하고 撤收
- 10.28 ○ UN 軍, 中部戰線의 鐵馬高地·狙擊稜線·指形稜線의 外廓陣地의 共產軍攻擊을 擊退
 - 美海兵隊, 中共軍에 占領된 板門店 동북쪽 外廓陣地를 奪還
- 10.29 ○ UN 軍, 狙擊稜線의 퓌포인트高地에서 撤收後 戰車支援으로 奪還 激戰中
 - UN 軍, 鐵馬高地에서 喪失한 前哨陣地 奪還
- 10.30 ○ 퓌포인트高地에서 激戰 계속
- 10.31 ○ 中共軍의 퓌포인트高地 攻擊을 擊退
 - UN 軍, 中共軍의 壓力으로 三角高地에서 撤收
- 11.1 ○ 狙擊稜線에서 戰鬪 平穩化
 - 國軍, 三角高地 頂上 攻擊했으나 失敗
- 11.2 ○ 狙擊稜線·三角高地에서 一進一退
- 11.3 ○ 狙擊稜線·三角高地 外의 戰線 平穩
- 11.5 ○ 金化稜線·狙擊稜線·三角高地에서 終日 戰鬪
 - 美大統領에 아이젠 하워 元帥 當選
- 11.7 ○ 狙擊稜線·三角高地에 連日 敵攻擊
- 11.11 ○ 國軍, 中共軍의 攻擊으로 狙擊稜線 퓌포인트高地에서 夜間撤收
- 11.12 ○ 國軍, 狙擊稜線 퓌포인트高地 再奪還, 其他 戰線은 小康狀態
- 11.13 ○ 中共軍, 狙擊稜線의 UN 軍陣地를 夜間攻擊

- 11.14 ○國軍, 한 달 사이 핀포인트高地에서 14회撤收
- 11.15 ○國軍, 狙擊稜線 핀포인트高地 再奪還
- 11.16 ○中共軍의 핀포인트高地 攻擊 擊退
- 11.17 ○中共軍, 狙擊稜線 동쪽 로키포인트高地 占領
○中共軍, 핀포인트高지를 夜間攻擊
- 11.19 ○UN軍, 狙擊稜線의 連續的인 中共軍의 攻擊을 擊退
- 11.20 ○國軍, 핀포인트高地에 대한 中共軍의 夜間攻擊을 白兵戰 끝에 擊退
- 11.21 ○中共軍, 핀포인트高地 夜間攻擊
- 11.23 ○中共軍, 핀포인트高地 夜間攻擊
- 11.24 ○UN軍, 中共軍의 狙擊稜線 攻擊을 擊退
○中部戰線 峽谷高地에서 戰鬪 계속
- 11.27 ○國軍, 狙擊稜線에서 3회에 걸친 中共軍 攻擊을 擊退
- 11.29 ○UN軍, 핀포인트高地에 대한 中共軍 攻擊을 擊退
 - 12.1 ○國軍, 狙擊稜線상의 UN軍陣地에 대한 共產軍의 3次攻擊을 擊退
○空軍參謀總長에 崔用德 少將 就任
 - 12.2 ○아이젠하워 次期 美大統領 來韓, 윌슨 次期 國防長官·브래들리 參謀長 등 帶同
 - 12.3 ○國軍, 핀포인트高地 奪還
 - 12.4 ○國軍, 狙擊稜線상의 喪失하였던 全陣地 완전 奪還
 - 12.5 ○我軍, 핀포인트高地에 來襲한 中共軍 擊退
○英第1戰車聯隊, 韓國 到着
 - 12.6 ○國軍, 狙擊稜線에 대한 共產軍 攻擊을 擊退
 - 12.9 ○國軍, 夜間に 9회에 걸쳐 狙擊稜線에 來襲한 共產軍을 擊退
 - 12.11 ○北傀軍, 國軍이 掌握하고 있는 鐵原 서쪽 大노리高地 攻擊
 - 12.12 ○國軍, 敵에 打撃을 주고 大·小노리高地에서 撤收——奪還戰을 계속했으나 失敗
 - 12.13 ○國軍, 10회째 攻擊으로 小노리高지를 완전 奪還하고 大노리高地 攻擊
 - 12.14 ○國軍, 大·小노리高地 確保
 - 12.15 ○國軍, 深夜부터 展開된 핀포인트·로키포인트·三角高地에 대한 中共軍 攻擊을 擊退
 - 12.16 ○狙擊稜線상의 핀포인트高地에 대한 北傀軍의 攻擊을 전부 擊退
 - 12.17 ○戰線 대체로 平穩
 - 12.21 ○UN軍, 不毛高地에 대한 北傀軍 攻擊을 擊退
○國軍, 狙擊稜線상의 岩石峰에 대한 4회의 北傀軍 攻擊을 擊退
 - 12.29 ○中共軍, 三角高地 및 狙擊稜線에 小規模攻擊
 - 12.31 ○全戰線 계속 平穩

[1953年]

- 1.1 ○我軍, 狙擊稜線과 西部戰線에서 敵의 探索攻擊 擊退
- 1.3 ○狙擊稜線 핀포인트高地의 敵攻擊을 擊退, 그외의 地上戰 없음
- 1.5 ○國軍, 제인 러셀高地에 夜間攻擊을 해 온 北傀軍을 擊退
- 1.7 ○我軍, 狙擊稜線上的 핀포인트高地와 제인 러셀高지를 攻擊한 敵을 擊退
- 1.11 ○我軍, 高浪浦北方 및 漣川西北方に 攻擊해 온 敵을 擊退
- 1.12 ○新編 第12師團, 亥安盆地 東北方의 UN 軍陣地에 攻擊해 온 北傀軍을 擊退
 - 我軍, 首都高地에 攻擊해 온 敵 擊退
- 1.15 ○我軍, 로키포인트·首都高地에 대한 敵의 探索攻擊 擊退
- 1.16 ○狙擊稜線에 대한 敵의 攻擊을 擊退
- 1.18 ○我軍, 金化 北方에 攻擊해 온 北傀軍 擊退하고 砲·空支援으로 戰車 5 臺 擊破
- 1.20 ○我軍, 斷腸의 稜線에 대한 中共軍의 攻擊을 擊退
 - UN 軍戰車隊, 鐵의 三角地帶·鐵原에서 金化까지의 敵陣에 대하여 連 5日째 계속 砲擊
- 1.23 ○國軍, 노리高地 攻擊하고 敵 85名 射殺
 - 美陸軍省發表, 美第 8 軍司令官 벤 플리트 大將 豫編, 後任에 테일러 中將
- 1.24 ○我軍戰車隊, 中部戰線에서 終日 猛砲擊
- 1.27 ○UN 軍戰車隊, 中部戰線에서 敵陣地를 延日 猛砲擊
- 1.28 ○地上戰鬥 小康狀態
 - 2.7 ○斷腸의 稜線에 대한 敵攻擊 擊退
 - UN 軍, 白馬山 附近의 敵高地 攻擊
 - 2.9 ○UN 軍, 漣川 西北方에서 共產軍의 攻擊을 받아 前哨陣地에서 撤收
- 2.14 ○UN 軍砲兵隊, 中西部戰線 不毛高地 附近 溪谷을 南下中이던 中共軍 擊退
- 2.19 ○UN 軍戰車隊·砲兵隊, 中部戰線에서 北傀軍 陣地에 대한 砲擊을 계속
- 3.1 ○我軍, 首都高地 附近의 UN 軍陣地에 侵入한 中共軍과 交戰後 擊退
- 3.2 ○國軍, 首都高地에 攻擊한 中共軍 擊退하고 31名을 射殺
- 3.4 ○國軍, 中部戰線 돌高地에 攻擊한 中共軍과 激戰 끝에 敵 180名 殺傷
- 3.5 ○스탈린 소련首相, 死亡
- 3.6 ○我軍, 金城 北方地區의 一據點 爭奪戰 끝에 回復
 - 소련 新首相에 말렌코프
- 3.7 ○國軍, 케리高地에 來襲한 中共軍 擊退
- 3.10 ○中共軍, 金化 西北方 狙擊稜線 락키高地의 國軍에 대해 5회나 攻擊

- 3.13 ○ UN軍, 戰線 各地에서 攻擊해 온 北傀軍을 擊退, 中部戰線이 가장 熾烈
- 3.18 ○ 國軍, 金化 西北方의 我軍 前哨地點을 攻擊해 온 敵에 의해 一時 撤收했다 再奪還
- 3.20 ○ 國軍搜索隊, 東部戰線 一帶에서 延日 敵射殺 61名
 - 소련 首相 말렌코프, 黨書記職에서 失脚, 後任에 후르시초프
- 3.22 ○ 美海兵隊, 병커高地에 대한 中共軍 800名의 攻擊을 물리치고 112名 射殺
- 3.23 ○ 中共軍, 中部戰線의 澮川·鐵原間의 포크 촌高地·不毛高地 등에 3,000名이 攻擊敢行
- 3.24 ○ 不毛高地 戰鬪에 美·中共 兩軍 增員部隊 投入
 - 憲兵總司令官에 元容德 少將 任命
- 3.25 ○ 國軍, 指形稜線을 攻擊해 온 北傀軍을 擊退
 - 不毛高地 戰鬪熾烈, 테일러 將軍도 觀測 參與
- 3.26 ○ 美軍, 不毛高地에서 撤收하고 空軍機로 20萬 파운드의 爆彈 投下
 - 不毛高地 서쪽에서 白兵戰 展開
- 3.27 ○ 美海兵隊, 重砲支援下 不毛高地中 1個前哨陣地를 再奪還
 - 第5空軍, 不毛高地에 25萬파운드의 爆彈과 3萬파운드의 네이팜彈 投下
 - 中共軍, 3千餘名 병커高地를 波狀攻擊했으나 UN軍이 肉迫戰으로 擊退
- 3.29 ○ 美海兵隊, 베가스高地上的 中共軍 驅逐, 457名의 敵屍體 遺棄하고 逃走
- 3.30 ○ UN空軍 重爆擊機, 不毛高地 近處의 敵陣地 猛打
- 3.31 ○ 國軍, 東部戰線 크리스마스高地에 攻擊해 온 中共軍 擊退, 100여名 殺傷
 - 美海兵隊, 베가스高地 奪還하려는 中共軍의 攻擊을 擊退
 - B-29機, 不毛高地 附近의 敵陣地를 猛打
- 4.2 ○ 國軍, 中共軍 1個大隊 약 750名과 金城 南方에서 交戰, 그중 287名 殺傷
 - 首都師團 機甲聯隊, 金化 西方에서 中共軍 攻擊을 맞아 53名 射殺
- 4.5 ○ 國軍, 크리스마스高地에 대한 中共軍 200名의 攻擊을 擊退
 - 敵, 中部戰線 텍사스高地 攻擊 占領
- 4.6 ○ 美海兵隊探索隊, 板門店 附近에서 中共軍 200名과 交戰, 激戰 끝에 敵 63名 殺傷
- 4.7 ○ 크리스마스高地와 首都高地 사이의 600高地를 4次的 爭奪戰 끝에 결국 中共軍에 被奪

- 4.8 ○中共軍, 西部戰線の 벵커高地的 UN 軍陣地를 攻擊
- 4.12 ○第 3 師團, 中部戰線の 텍사스高地를 第 5 次에 奪還
- 4.15 ○北傀軍, 斷腸의 稜線 서쪽의 UN 軍陣地를 攻擊했으나, 美軍은 敵 50 名을 射殺傷
- 4.18 ○UN 軍, 어제 喪失한 西部戰線の 포크 촛高地를 激戰 끝에 奪還
- 4.20 ○中部戰線の 벨기에部隊, 共產軍 1 個大隊의 攻擊을 擊退코 敵 100 餘名 殺傷
- 4.22 ○海兵隊, 板門店 附近에 來襲한 中共軍 擊退
- 4.24 ○白斗鎭 國務總理, 國會 認准獲得
- 4.25 ○UN 軍, 中部戰線에서 攻擊해 온 北傀軍 170 名을 殺傷시키고 擊退
- 4.29 ○UN 軍, 東部·中部戰線을 攻擊해 온 敵을 擊退
 - 5.1 ○地上戰鬪 대체로 平穩
- 5.12 ○中共軍, 오랫동안의 小康狀態를 깨고 텍사스高地와 周圍을 攻擊하여 國軍 一時 撤收했으나 反擊後 奪還
- 5.13 ○國軍, 텍사스高地에 攻擊해 온 1,000 名의 中共軍과 10 時間의 激戰後 擊退
- 5.14 ○國軍, 金化 北方에 攻擊해 온 敵 擊退
- 5.15 ○中共軍, 板門店地區에 있는 터키部隊의 外廓陣地 攻擊
 - UN 軍, 텍사스·首都高地에서 中共軍과 連4日에 激戰을 展開
- 5.16 ○北傀軍, 中部戰線을 위주로 各戰線에서 UN 軍陣地를 猛攻擊
- 5.17 ○國軍, 中東部戰線의 中共軍에 대하여 反擊戰 展開
- 5.18 ○國軍, 東部戰線 斷腸의 稜線에서 4회에 걸친 北傀軍의 攻擊을 擊退
- 5.19 ○國軍, 中東部戰線의 狙擊稜線 및 크리스마스高地를 攻擊해 온 中共軍 을 擊退
- 5.21 ○國軍, 東部稜線의 UN 軍陣地를 攻擊해 온 中共軍과 12시간의 激戰 끝 에 擊退
- 5.24 ○中共軍, 重砲支援下에 金化~金城間의 韓國軍 2 個陣地에 突入
- 5.25 ○美 8 軍公報處 發表, 現在 韓國戰線에 投入되고 있는 兵力은 中共軍 7 個軍(203,000 名)과 北傀軍 2 個軍團(60,000 名) 등 總 263,000 名이며, 約 75 萬의 豫備兵力을 保有中
- 5.28 ○國軍, 中部戰線을 攻擊해 온 聯隊兵力의 敵을 擊退
- 5.29 ○中共軍, 板門店 附近의 英·土軍의 陣地를 5,000 名의 兵力으로 攻擊
- 5.30 ○UN 軍, 西部戰線에 波狀攻擊해 온 北傀軍을 白兵戰으로 擊退
- 5.31 ○中共軍, 大隊兵力으로 金化 北方의 UN 軍 前哨高地를 攻擊
 - 6.1 ○東部戰線에서 激戰, 聯隊兵力의 北傀軍 UN 軍陣地를 夜間攻擊
 - 國軍, 狙擊稜線의 敵攻擊을 擊退

- 6.2 ○國軍, 錨形高地 附近 11個高地에 대한 北傀軍 攻擊을 擊退
 - 國軍, 金化 西北方 前哨陣地 및 首都高地에 對한 北傀軍 攻擊을 強打
 - 東部戰線 류크 카슬高地에 熾烈한 戰鬪 繼續
 - UN 空軍, 東部戰線 敵陣地에 50萬파운드의 高性能爆彈을 投下
- 6.3 ○國軍, 猛烈한 反擊戰으로 류크 카슬高地에서 北傀軍 擊退
- 6.4 ○國軍, 東部戰線 錨形高地 및 류크 카슬高地에서 激戰 繼續, 一部 確保
 - 國軍, 中東部戰線의 피의 稜線上의 前哨陣地를 奪還하였으나 北傀軍의 反擊으로 다시 後退
- 6.5 ○東部戰線, 錨形高地에서 戰鬪 繼續
- 6.6 ○류크 카슬高地와 피의 稜線에서 熾烈한 激戰
- 6.8 ○第12師團, 류크 카슬高地에 대한 反擊戰 開始하고 1個陣地 奪還
- 6.10 ○北傀軍, 東部戰線 크리스마스高地에 壓力
 - 中共軍, 中東部戰線에 夜間攻擊, 캐리高地 攻擊
- 6.11 ○UN 軍, 크리스마스高地에서 喪失한 陣地 再奪還
 - 中共軍, 텍사스高地 附近에서 激戰, 國軍의 3個重要高地 抵抗線 突破
- 6.12 ○中東部戰線 高地攻防戰 더욱 激化, 中共軍 3個高地 占領 固守
 - UN 軍, 狙擊稜線에 對한 北傀軍 攻擊 擊退
 - 美第3師團 第15聯隊, 鐵原 西北方 캐리高地에 中共軍 1,500名의 攻擊 擊退
- 6.13 ○北傀軍, 中部戰線 80km 에 걸쳐 1萬 5千의 兵力으로 攻擊
 - UN 軍, 白兵戰으로 中共軍을 擊退
- 6.14 ○北傀軍, 中東部·東部戰線에서 夜間에 大規模攻擊 開始
- 6.15 ○北傀軍, 中東部·東部戰線에서 3萬의 兵力으로 猛攻擊
 - 文登里溪谷·크리스마스高地에서 激戰
 - 北傀軍, 北漢江上流 金城 東南方 地區에서 激烈한 攻擊後 國軍主抵抗線 突破
 - 國軍, 金化 周邊 텍사스高地에서 敵의 猛攻으로 약간 後退
 - UN 海·空軍, 地上友軍을 掩護, 空軍의 總出擊數는 2,115회로 最高 記錄 樹立
 - B-29, 戰線의 敵陣地를 強打
- 6.16 ○中共軍 2個聯隊, 指形稜線上의 國軍部隊 突破
- 6.17 ○中共軍, 크리스마스高地 附近에서 韓國軍의 反擊을 沮止
 - 國軍, 指形稜線의 敵攻擊을 沮止하고 一部를 奪還했으나 高地 頂上은 被奪
 - 中共軍, 暴雨를 利用하여 指形稜線 東南方의 國軍陣地를 猛攻
- 6.18 ○UN 軍, 鐵原 西北方 캐리高地의 中共軍 攻擊을 激戰 끝에 擊退

- 6. 19 ○北傀軍, 金城 東南方에서 國軍을 攻擊
- 6. 20 ○國軍, 크리스마스高地에 대한 中共軍 攻擊을 擊退
 - 憲兵總司令部, 反共捕虜를 獨斷으로 釋放
- 6. 21 ○國軍, 크리스마스高地에 대한 中共軍의 攻擊을 擊退
- 6. 22 ○全戰線 比較的 輕微
- 6. 23 ○中共軍, 中部戰線 金化附近 UN軍陣地에 夜間攻擊
 - 美 8軍 發表, 지난 2週日間 敵 2個師團에 該當하는 19,200名의 死傷者를 加했다고 發表
- 6. 24 ○美第 3師團 및 國軍, 金化 東北方 및 西北方에 대한 北傀軍 攻擊을 擊退
 - 南部地區 警備司令官 李龍文 准將, 作戰指揮中 飛行機事故로 戰死.
 - 平壤放送, 北韓共產軍司令部的 戰亂發生 以來 3年間の 綜合成果를 發表——UN軍의 殺傷 및 捕虜總數 991,391名(美軍 380,773名, 國軍 580,644名, 其他 29,974名)
 - 美國防省, 韓國戰亂 3年間の 實相을 發表——① UN軍은 共產軍의 1/10의 犧牲으로 6회에 걸친 大攻勢를 擊退 ② 戰費總額 150億弗 ③ 共產軍 戰死傷者 134萬 7千名을 超過
- 6. 25 ○北傀軍, 金化 西北方 狙擊稜線에서 攻擊을 繼續
 - 第 1師團, 漣川 西北方 戰線에서 中共軍 1個師團 9千名의 攻擊을 받고 終日 交戰
- 6. 26 ○國軍, 中東部戰線 首都高地에서 北傀軍의 攻擊으로 약간 後退
 - 國軍, 狙擊稜線에 대한 3次의 敵攻擊을 擊退
 - 西部戰線 漣川 西北方에서 熾烈한 戰鬪 展開
 - UN軍 戰爆機隊, 漣川地區 中共軍 師團을 猛打
- 6. 27 ○中共軍, 北漢江 東方 크리스마스高地 西方의 國軍 2個陣地를 攻擊
 - 國軍, 中東部戰線 首都高地 南方 묵아우트高地 再奪還
 - 狙擊稜線에서 戰鬪 繼續
- 6. 28 ○國軍, 首都高地 南方 觀望山에서 中共軍의 攻擊으로 夜間에 後退
 - 國軍, 中共軍의 攻擊으로 西部戰線 小노리高地的 前哨陣地에서 後退
 - 國軍, 西部戰線 백高地·漣川 西方 靑高地에서 激戰 끝에 撤收
- 6. 29 ○第 3師團, 觀望山을 激戰 끝에 奪還
 - 國軍, 猛烈한 反擊戰 展開, 中共軍과 靑·백高地 爭奪戰 熾烈
 - 國軍, 漣川 西方의 靑·백·배트리 및 無名高地 등 4個高地로부터 撤收
- 6. 30 ○東部戰線에서 北漢江과 크리스마스高地 사이의 버지리아高地에 激戰 展開

- 7.1 ○ 國軍, 버지리아高地를 奪還했으나 中共軍의 反擊으로 다시 同高地 拋棄
 - 首都高地 南方 觀望山에서 白兵戰 展開, 國軍 同山頂으로부터 早朝에 撤收
- 7.2 ○ 北傀軍, 지난 37日間에 걸쳐 繼續되어 온 攻擊을 突然 中止
 - UN 空軍, 鐵原 西方에서 北方 地點의 敵戰車 30~40臺를 捕捉攻擊
- 7.3 ○ 國軍, 中東部戰線 觀望山頂을 奪還
- 7.4 ○ 國軍, 狙擊稜線에서 150名의 中共軍과 交戰하여 130名을 殺傷
- 7.7 ○ 西部戰線에서 中共軍, 포크 춤高地 및 矢頭高地에 攻擊 繼續
 - 高浪浦 北方에서도 戰鬪 展開
- 7.8 ○ 美第7師團 및 國軍, 鐵原 西方 포크 춤 및 矢頭高地에 대한 中共軍 2個師團의 攻擊을 擊退
 - 國軍, 高浪浦 北方의 伯林高地 및 東部 伯林高地에 대한 中共軍 攻擊 擊退
- 7.9 ○ 東部戰線 金日成高地에 對한 北傀軍攻擊을 擊退
- 7.11 ○ 國軍, 中東部戰線에서 約 4千名의 中共軍攻擊을 擊退
 - 美第7師團, 포크 춤高地로부터 撤收
- 7.12 ○ 第6師團, 金城 南方에 浸透한 中共軍 約 1千名을 擊退
- 7.13 ○ 北傀軍, 約 4萬의 兵力으로 中東部戰線 金화와 北漢江 사이에 一大攻擊
 - UN 空軍, 一線 敵陣地 猛打
- 7.14 ○ 首都·第3·第6·第8의 4個師團, 中東部戰線에서 中共軍 約 7萬의 人海攻擊을 받고 熾烈한 戰鬪 展開
 - 狙擊稜線 東方에 布陣하고 있던 國軍 3個師團, 金城川 南岸으로 撤退
 - UN 空軍, 中東部戰線 突出部의 共產軍에 40萬파운드의 爆彈 投下
- 7.15 ○ 北傀軍, 文登里 西方의 美軍陣地 占領
 - 中共軍, 豪雨를 利用하여 中東部戰線의 突出部 攻擊, 金城 南方의 防禦線 2個所 突破
- 7.16 ○ 國軍, 戰車 및 砲兵의 支援下에 中東部戰線에서 猛烈한 攻擊戰 開始하여 1.5km 進出
 - UN 空軍, 延 1千機 出戰, 戰線의 敵陣地에 100萬파운드 以上の 爆彈 投下
 - 韓國에서 돌아온 로버트슨 特使, 上院外交委 證言에서 韓國休戰은 成立될 것이라고 言及
- 7.17 ○ 北傀軍, 約 3千의 兵力으로 東部戰線 鐮形高地를 夜間攻擊
 - 國軍, 中東部戰線에 反擊 繼續, 同戰線 東半部에서 서서히 進出

- 國軍, 金化地區에 대한 中共軍 1萬7千名의 攻擊을 阻止
- 7.18 ○中東部戰線의 國軍, 喪失한 地域中 約 8km 奪還
 - 國軍, 夜間에 金城川 南方 重要高地 5個所 再奪還
- 7.19 ○國軍, 空軍掩護下에 東部戰線 삼현高地를 奪還
 - UN 軍砲兵隊, 夜陰을 利用하여 金城川 渡河하려는 中共軍 1個大隊 捕促攻擊
- 7.20 ○國軍, 金城地區 삼현高地에서 後退
- 7.21 ○地上戰 平穩
- 7.22 ○中共軍, 中東部戰線 金城川 西方에서 約 1千 兵力으로 國軍陣地 5次 攻擊
- 7.23 ○中東部戰線 삼현高地戰 熾烈, 國軍 同高地 再奪還하였다가 결국 後退
- 7.24 ○國軍, 金城地區에서 1個高地 奪還
 - UN 軍과 共產軍, 金城突出部 地區의 北進高地 爭奪戰 終日 繼續
 - 中共軍 約 3千名, 西部戰線 伯林高地 地區의 UN 軍陣地를 夜間攻擊
- 7.25 ○中共軍 約 3千名, 中東部戰線 金城突出部에서 夜間攻擊
 - 美海兵 第1 師團, 西部戰線 伯林高地 地區에 대한 中共軍攻擊을 擊退
- 7.26 ○全戰線 小康狀態
- 7.27 ○全戰線, 午後 10時를 期하여 戰鬪中止
 - 休戰協定, 午前 10時 해리슨 UN軍代表와 南日 共產軍代表間에 調印
 - 클라크 UN 軍司令官, 午後 1時에 汶山에서 崔德新 韓國代表와 參戰 16個國代表 參席下에 休戰協定 署名
 - 金日成, 午後 10時 平壤에서 署名
 - 李大統領, 統一目標는 기어코 成就되교야 말 것이라고 談話
 - 아이젠하워 大統領, 美國民에게 放送 '勇氣와 犧牲만이 自由를 守護할 수 있음을 韓國戰에서 立證했다.'

軍 史 (第9號)

1984年 12月 1日 印刷

1984年 12月 20日 發行

發行處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清涼里 2洞山 5의 7 國 防 部 戰 史 編 纂 委 員 會
發行人	尹 錫 宇
印刷處	서울特別市 麻浦區 孔德洞 105~67 敎 學 社
印刷人	楊 澈 愚

<非賣品>